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9輯

을산연암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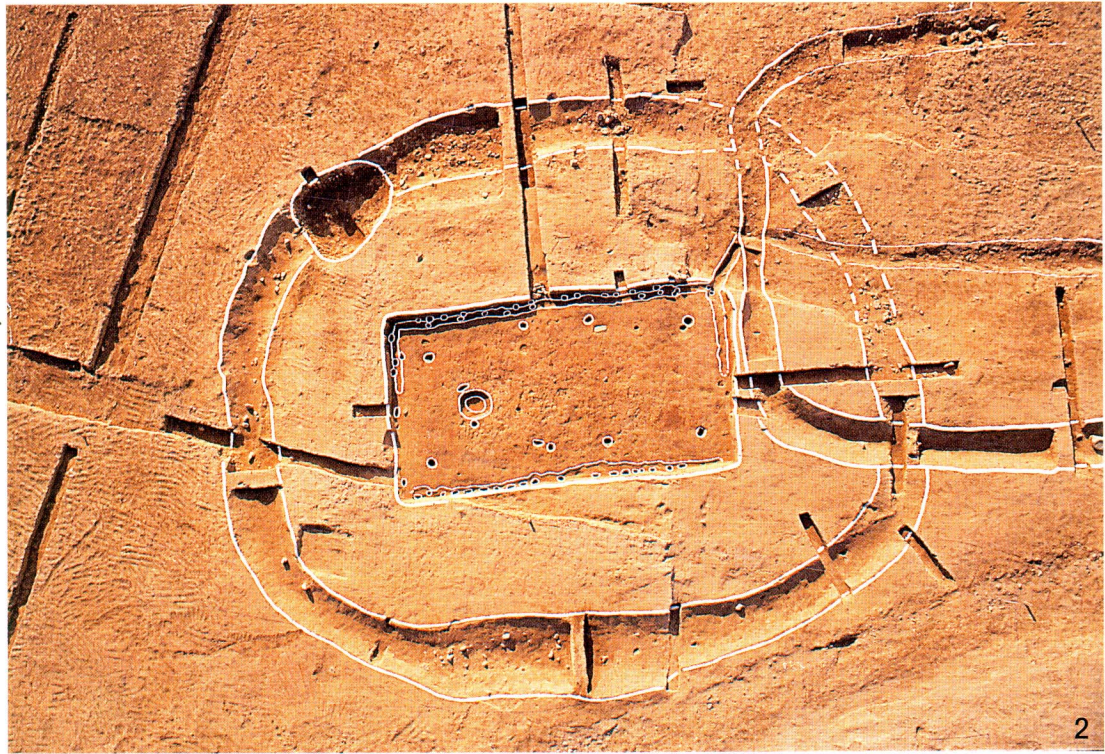
全 虎 兌
金 榮 珉
金 賢 哲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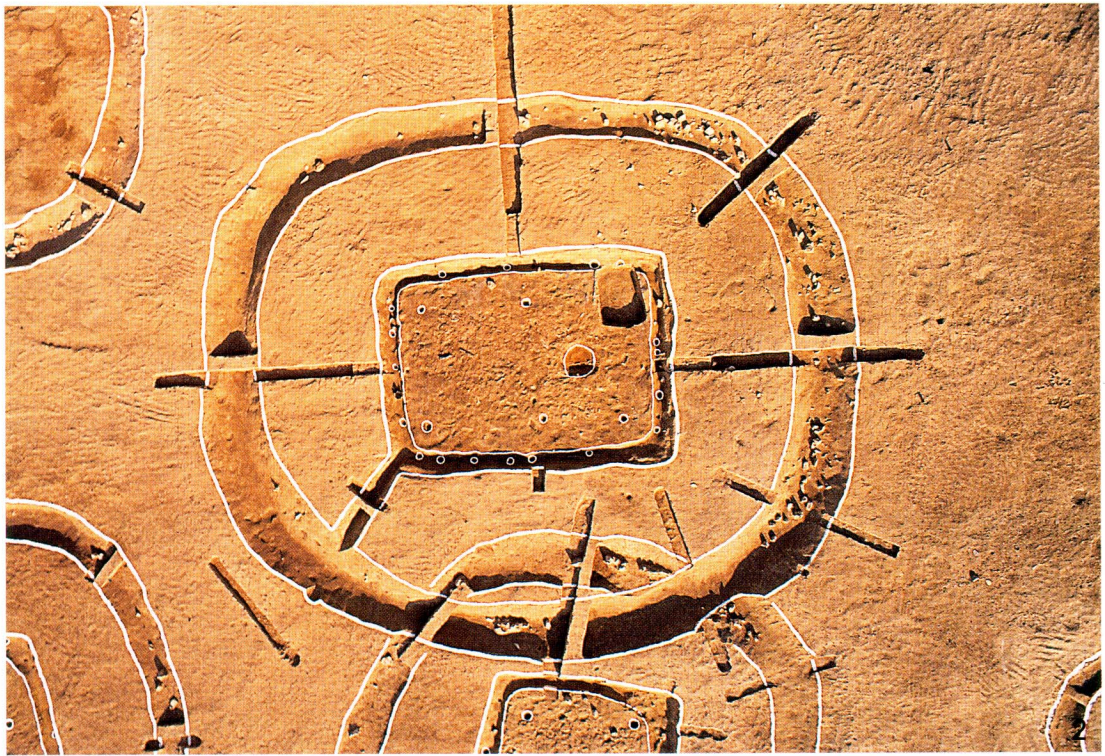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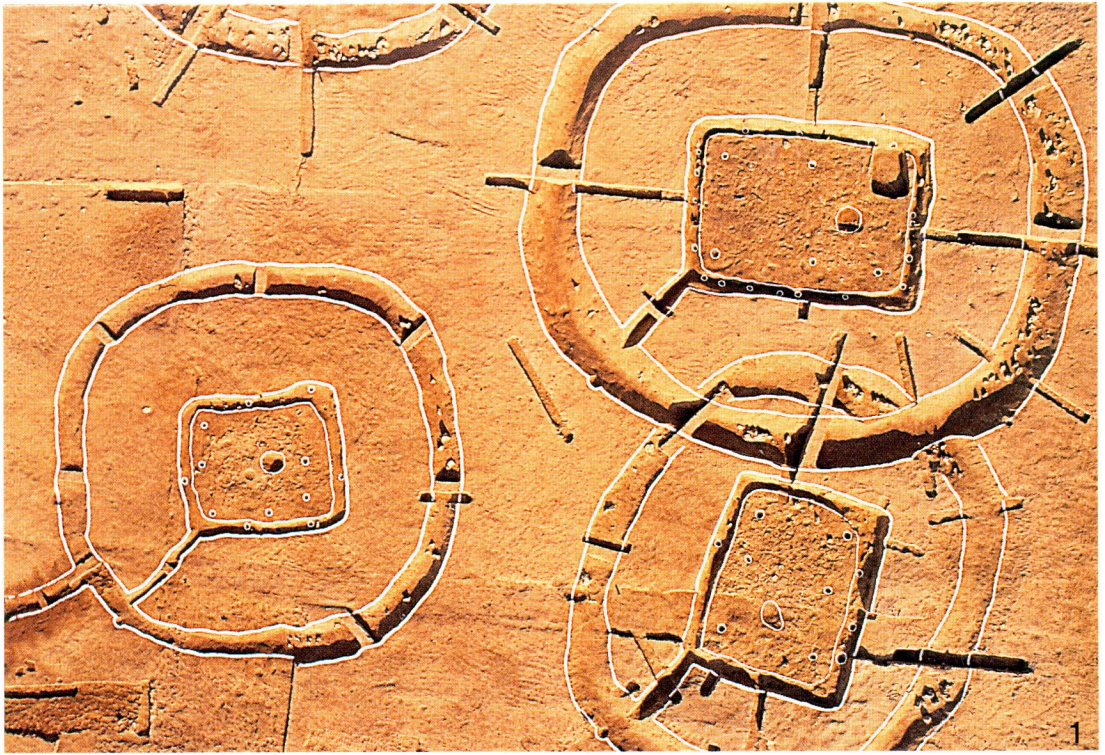
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廣域市教育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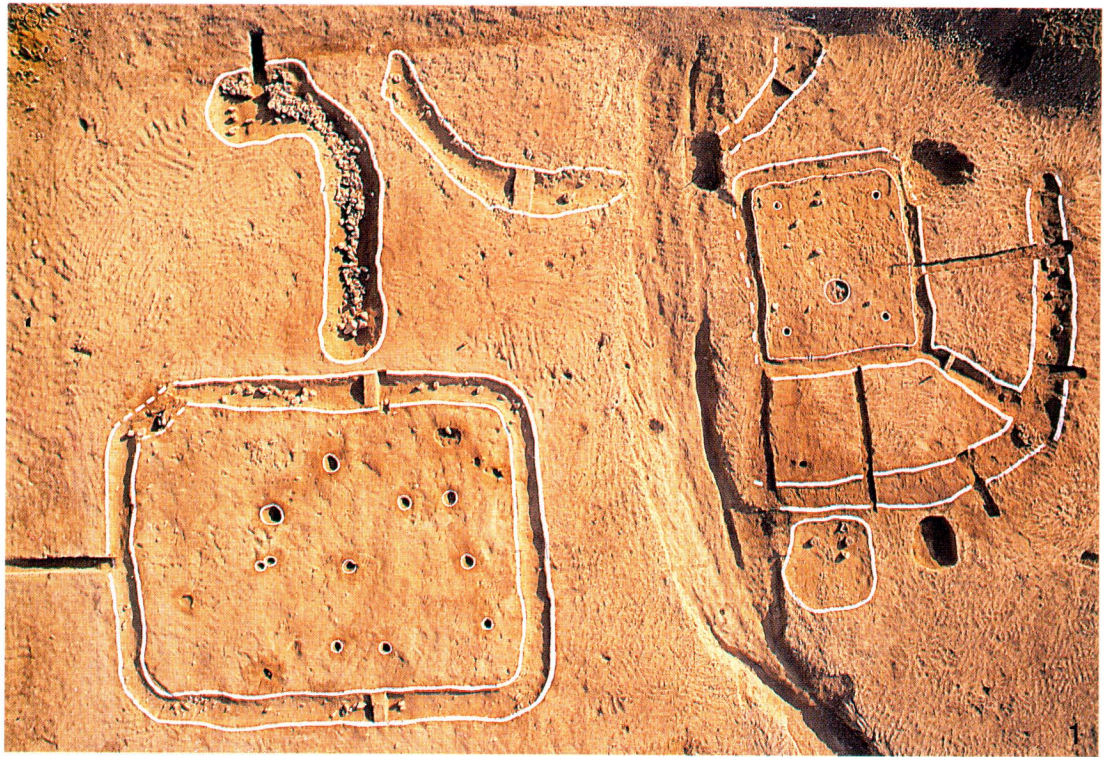
原色圖版 1. 遺蹟全景



原色圖版 2. 遺蹟全景(1) 吳 1號 住居址 全景(2)



原色圖版 3. 2號, 3號, 4號 住居址 全景



原色圖版 4. 5號, 6號 住居址 全景(1) 및 1號 溝 全景(2)



原色圖版 5. 4號~11號 溝(1), 12號, 13號 溝(2) 全景

간행사

청동기시대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울산 蓮岩洞遺蹟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50-1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추진한 무룡고등학교 신축 부지로 시굴 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진 곳이다.

蓮岩洞遺蹟은 현재의 울산 중심부에서 경주 및 방어진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연결점에 자리잡은 곳으로 근대 이전부터 지역교통의 요지로 기능하던 장소이다. 유적의 동쪽으로 동해남부선이 지나며, 그 동쪽으로 삼대봉, 동대산, 무룡산과 같은 높은 산들이 방어진을 비롯한 해안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유적의 서쪽, 청동기시대의 옛 마을 앞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동천이 흐른다. 동천의 흐름은 곧바로 태화강 본류로 이어지고 울산만까지 닿는다. 동천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형성된 수많은 작은 계곡들과 지류들은 마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지형 및 식생조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蓮岩洞遺蹟 역시 이러한 하천변 충적지에 형성된 前근대마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유적의 중심부는 현 유적의 북편에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 유적 전체의 규모나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남은 유적도 경작 등의 현상변경 요인으로 말미암아 상부의 훼손이 심하여 집터나 구렁의 바닥층만 남은 상태, 이른바 기본 형태와 구성, 공간 분할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학술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연암동형 주거지'로 명명하여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집터의 둘레를 거의 감싸고 있는 구렁의 존재는 특이한 것이었으며, 청동기시대 가옥의 제작방식, 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요소가 다수 확인될 정도의 의미 있는 성과에 이를 수 있었다. 남은 유적의 범위가 극히 한정된 까닭에 유적의 현장보존은 부적절하다는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제시로 말미암아 유적 발굴현장을 1/50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연구자 및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유적의 가치를 재확인시키기로 하였다. 현재 유적의 축소모형은 무룡고등학교에 전시되고 있다.

연암동유적과 함께 조사된 울산 화정동유적 역시 청동기시대 마을 자리이다.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52-2번지 일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의해 대송고등학교 신축부지로 선정된 곳이다. 화정동유적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연암동유적에 비할 정도의 특이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안과 가까운 구렁에 형성된 마을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입지상의 의미와 생활상이 주목되었다. 화분분석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최기룡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조사구역내 니탄층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화정동유적 니탄층 시료의 분석은 유적과 관련하여서 뿐 아니라 울산지역의 고식생자료 분석결과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암동유적과 화정동유적의 조사과정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울산광역시청 학예연구사 유병일(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지원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현장 작업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꼬박 2년간 애써온 박물관 학예연구실의 여러 식구들, 김영민 학예사, 김현철, 남연의, 성민호 조교, 이경인, 배순희, 김지수 연구원(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학생들에게도 거듭 치하의 뜻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한다.

2001년 11월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전 호 태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구의 단면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이다.
2. 遺構의 축소비는 주거지의 경우, 내부는 1/60, 外廓周溝를 포함한 전체는 1/120로 하였으며, 그 외 유구는 규모에 따라 1/60, 1/80, 1/120로 축소비를 달리 적용하였다.
3. 遺物은 토기류 1/3, 석기류 1/2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축소비를 달리한 것은 해당도면에 표시하였다.

目 次

I. 머리말	1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5
III. 調査內容	11
1. 住居址	11
1) 1號 住居址	11
2) 2號 住居址	19
3) 3號 住居址	25
4) 4號 住居址	31
5) 5號 住居址	36
6) 6號 住居址	40
2. 周溝	43
1) 1號 周溝	43
2) 2號 周溝	43
3) 3號 周溝	49
3. 溝	49
1) 1號 溝	49
2) 2號 溝	53
3) 3號 溝	54
4) 4號 溝	56
5) 5號 溝	57
6) 6號 溝	58
7) 7號~11號 溝	63
8) 12號 溝	63
9) 13號 溝	65
10) 14號 溝	65
11) 15號 溝	67
4. 石列	67
5. 地表採集遺物	67
IV. 맺음말	73

<부록>울산 화정동유적 발굴조사보고	115
---------------------------	-----

圖 面 目 次

圖面 1. 遺蹟 位置와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4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6
圖面 3. 遺構 配置圖(1/300)	9
圖面 4. 1號 住居址(1/120)	12
圖面 5. 1號 住居址(1/60)	13
圖面 6. 1號 住居址 出土遺物 I	15
圖面 7. 1號 住居址 出土遺物 II	17
圖面 8. 1號 住居址 出土遺物 III	18
圖面 9. 2號 住居址(1/120)와 出土遺物	20
圖面 10. 2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21
圖面 11. 2號 住居址 出土遺物	24
圖面 12. 3號 住居址(1/120)와 出土遺物	26
圖面 13. 3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28
圖面 14. 3號 住居址 出土遺物	29
圖面 15. 4號 住居址(1/120)와 出土遺物	32
圖面 16. 4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33
圖面 17. 4號 住居址 出土遺物	35
圖面 18. 5-1, 5-2號 住居址(1/120)	36
圖面 19. 5-1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37
圖面 20. 5-1, 5-2號 住居址 出土遺物	39
圖面 21. 6號 住居址(1/80)와 出土遺物	41
圖面 22. 6號 住居址 出土遺物	42
圖面 23. 1號 周溝(1/80)와 出土遺物	44
圖面 24. 2號 周溝(1/80)와 出土遺物	45
圖面 25. 2號 周溝 出土遺物	47
圖面 26. 3號 周溝(1/120)	48
圖面 27. 1號 溝(1/60)와 出土遺物	50
圖面 28. 1號 溝 出土遺物	51

圖面 29. 2號 溝(1/60)	53
圖面 30. 3號 溝(1/120)	54
圖面 31. 4號・5號 溝(1/120)斗 出土遺物	55
圖面 32. 6~11號 溝(1/120)	58
圖面 33. 6~11號 溝 出土遺物	60
圖面 34. 12號 溝(1/60)斗 出土遺物	62
圖面 35. 13號 溝(1/120)斗 出土遺物	64
圖面 36. 14號 溝(1/80)	65
圖面 37. 15號 溝(1/80)	66
圖面 38. 15號 溝 出土遺物	67
圖面 39. 地表採集遺物 I	68
圖面 40. 地表採集遺物 II	70
圖面 41. 地表採集遺物 III	72

圖版目次

原色圖版 1. 遺蹟全景	
原色圖版 2. 遺蹟全景 ㄹ 1號 住居址 全景	
原色圖版 3. 2號, 3號, 4號 住居址 全景	
原色圖版 4. 5號, 6號 住居址 全景 ㄹ 1號 溝 全景	
原色圖版 5. 4~13號 溝 全景	
圖版 1. 遺蹟遠景 ㄹ 近景	79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斗 外廓周溝 土層狀態	80
圖版 3. 1號 住居址 全景 ㄹ 爐址, 遺物出土狀態 ㄹ 土層狀態	81
圖版 4. 1號 住居址 壁溝 ㄹ 遺物出土狀態	82
圖版 5. 2號, 3號, 4號 住居址 全景 ㄹ 2號 住居址 全景	83
圖版 6. 2號 住居址 全景 ㄹ 細部構造	84
圖版 7. 3號 住居址 全景斗 外廓周溝 土層狀態	85
圖版 8. 3號 住居址 全景	86
圖版 9. 3號 住居址 細部構造	87
圖版 10. 4號 住居址 全景斗 爐址, 遺物出土狀態	88
圖版 11. 5-1, 5-2號 住居址 全景	89
圖版 12. 5-1, 5-2號 住居址 全景斗 5-1號 住居址 壁溝, 爐址, 遺物出土狀態	90
圖版 13. 6號 住居址 全景 ㄹ 遺物出土狀態	91
圖版 14. 1號 周溝斗 14號 溝	92
圖版 15. 2號 周溝斗 3號 周溝 全景	93
圖版 16. 1號 溝斗 2號 溝	94
圖版 17. 3號 溝斗 15號 溝 全景	95
圖版 18. 4~13號 溝 全景斗 4號 溝 全景 ㄹ 土層狀態	96
圖版 19. 5~11號 溝 全景斗 土層狀態	97
圖版 20. 6號 溝 全景斗 12, 13號 溝 全景	98
圖版 21. 12號, 13號 溝 全景 ㄹ 土層	99
圖版 22. 石列 全景斗 溪谷 內部的 堆積狀態	100
圖版 23. 1號 住居址 出土遺物	101

圖版 24. 1號 住居址 出土遺物	102
圖版 25. 1號, 2號 住居址 出土遺物	103
圖版 26. 2號 住居址 出土遺物	104
圖版 27. 3號 住居址 出土遺物	105
圖版 28. 4號 住居址 出土遺物	106
圖版 29. 5號 住居址, 6號 住居址 出土遺物	107
圖版 30. 6號 住居址, 1號 周溝, 2號 周溝 出土遺物	108
圖版 31. 2號 住居址, 1號 溝 出土遺物	109
圖版 32. 4號, 5號, 7號 溝 出土遺物	110
圖版 33. 8號~15號 溝 出土遺物	111
圖版 34. 地表採集遺物	112
圖版 35. 地表採集遺物	113

I . 머리말

蔚山地域에서는 최근 들어 청동기시대유적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지형적으로 낮은 구릉이 잘 발달되어 인간생활의 최적조건을 구비한 곳이다. 하천변을 끼고 야트막한 구릉과 평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거지역으로 선호되어 왔다. 특히 慶州에서 蔚山으로 유입되는 東川江邊을 따라 형성된 완만한 지형과 慶州-釜山으로 연결되는 彦陽地域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대단히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물론 청동기시대유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유적도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濠를 갖춘 檢丹里마을遺蹟¹⁾과 논자리와 함께 마을전체가 발굴조사된 玉峴遺蹟²⁾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유적은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문화를 밝히는 데 중요한 실물자료들로서, 이와 비슷한 시기의 유적들이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조사되고 있다.

蓮岩洞遺蹟은 조사범위를 포함한 7,000여 평이 무릉고등학교 신축부지로 지정되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의뢰에 따라 1999년 6월, 우리 박물관에서 확인한 유적이다. 시굴조사결과 현지표면인 표토층 바로 아래에 청동기시대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해 9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암동유적은 동천강변의 충적대지상에 형성된 청동기시대의 마을유적이다. 여기에서는 住居址 주위로 外廊周溝가 둘러져 있는 특이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확인되었는데, 우리나라 주거지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유적이라고 하겠다. 조사된 지역은 유적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적의 대부분은 조사지역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유적의 중심부로 생각되는 지역은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상태였다. 따라서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된 연암동형 주거지의 정확한 성격은 미스터리로 남겨지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근 경작으로 인해 훼손된 표토층을 전체적으로 제거한 다음, 유구 확인작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지의 대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까지 훼손되어 유구의 상부 유실이 심한 상태였다. 遺構는 靑銅器時代 住居址 6기와 청동기시대의 溝 14기, 삼국시대의 溝 1기, 近代의 石列 2개소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孔列文, 橫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를 비롯해서 토제품 145점과 석기류 25점 등, 총 170점이다.

蓮岩洞遺蹟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구조면에서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형태와 기본적으로

1)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學術研究叢書 第17輯.

2) 경남대학교 박물관, 1999,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경남대·밀양대박물관 현장설명회자료.

별반 차이가 없다. 울산지역에서 널리 확인되는 배수구가 갖추어진 점이나 (장)방형의 평면형태는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주거형태로서 일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에 주거지를 감싸는 外廓周溝가 구획된 점은 전혀 새로운 주거지 요소임에 분명하다. 유감스럽게도 蓮岩洞遺蹟은 전체 유적범위의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었고,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유적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주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동천강 주변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된다면 외곽주구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거지형태는 아직까지 조사된 유래가 없는 특이한 형태여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조사를 담당한 우리 박물관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조사된 범위가 전체유적의 극히 일부이고, 또 너무 주변 지역에 치우쳐 있어 전체적인 양상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동천강변을 따라 보다 조사가 진행된다면 양호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직접적인 유적의 보존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방안은 전체 조사된 유적을 1/50로 축소하여 재현하고, 이를 조사후 건립될 무릉고등학교에 전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적의 처리방법을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승인함으로써 현재 무릉고등학교 현관에 유적의 축소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울산광역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시종일관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사기간중 현장을 방문하여 원활한 조사방법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여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外廓周溝가 둘러진 住居址의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서 밝혀진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더 많이 남게 된 것 같다. 여기서 밝히지 못한 많은 문제들은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을 지면을 빌어 약속한다.

이번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조사단구성

가. 단 장 : 전호태(울산대학교 박물관장)

나. 조사위원 : 안재호(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기룡(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다. 연구원 :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라. 연구보조원 : 이경인(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원)

김현철(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배순희(현 [재]울산발전연구원 조사원)

남연의(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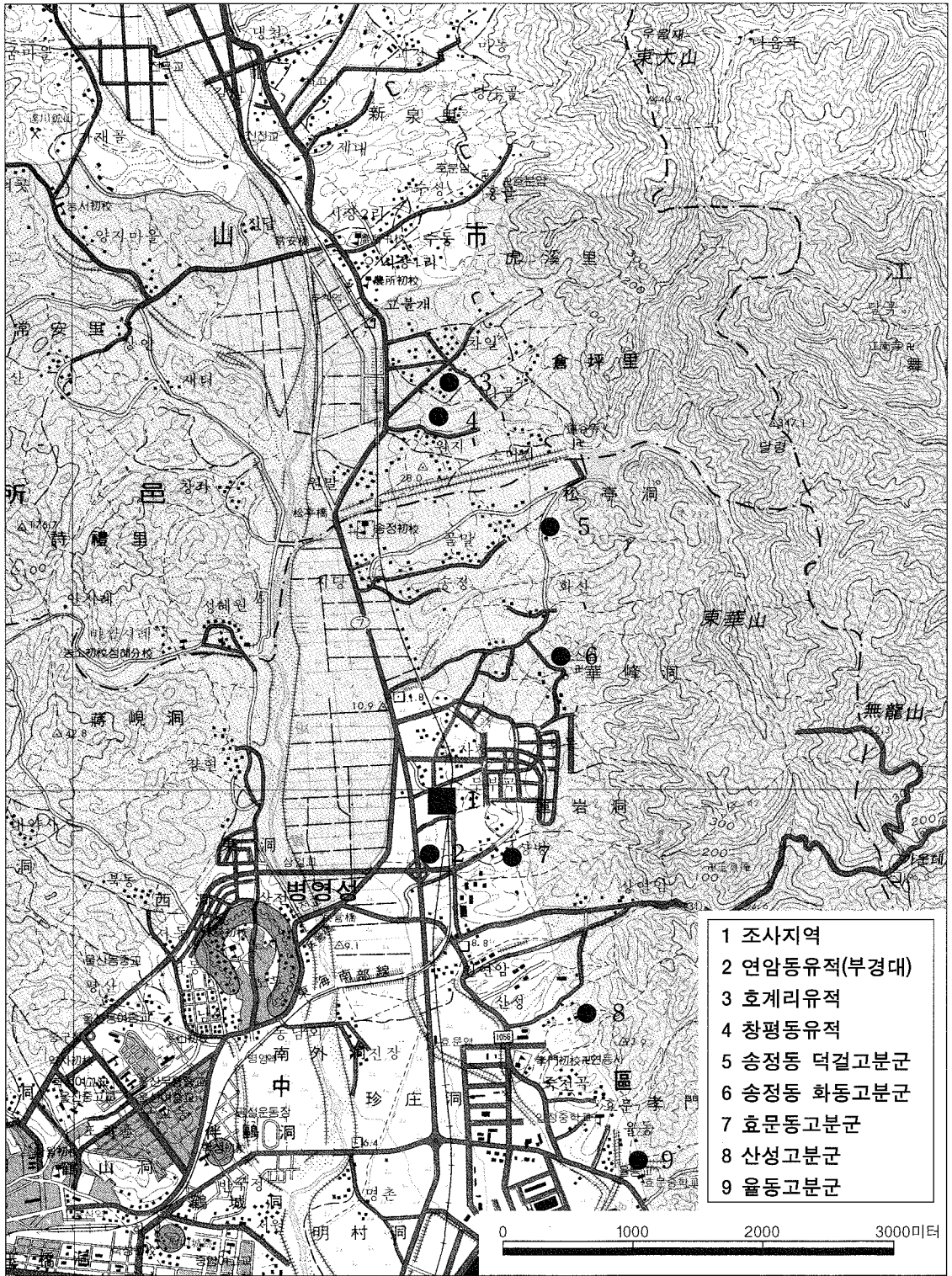
김지수(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원)

마. 보조원 : 성민호(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영록(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4학년)

현장에서의 사진촬영 및 기타 조사는 유구를 담당한 조사원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출토유물의 정리 및 복원은 전 조사원과 함께 권지영, 최승희(이상 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원)가 수고해 주었다. 유물의 실측은 성민호, 김영록, 신준섭, 김광수 등이, 유구와 유물의 제도 및 도면의 편집은 김현철과 성민호가 각각 분담하여 마무리 하였다.

유물의 촬영은 김영록, 박기윤이 담당하였으며, 유적과 유구의 사진 편집은 김현철이 주로 하였다. 유구 및 유물의 기술은 김현철과 성민호가 분담하여 기술하고, 체제의 통일을 위해 김영민과 전호태가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圖面 1. 遺蹟 位置와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蓮岩洞遺蹟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5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울산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경주로 이어지는 도로변상의 저평한 충적대지가 형성된 곳이다. 동천강변을 따라 야트막한 구릉과 충적대지는 인간의 거주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지형조건에 따라 이 주변일대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동해남부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 철도를 경계로 무룡산 쪽으로는 주택지로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지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주변지역에서 연암동유적과 같은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蓮岩洞遺蹟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遺構가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보아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이 폭넓게 형성되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유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북-남으로 삼대봉(629.1m), 동대산(443.9), 달령(347.1m), 무룡산(452.3m) 등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으며, 서쪽은 동천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태화강과 합류되어 울산만으로 유입된다. 울산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이 구조곡은 동천강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작은 계곡이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지형인데 자연촌락은 대부분 작은 계곡의 중하류에 해당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연암동유적 역시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주변에 해당된다.

이러한 하천변의 지형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취락의 중요한 입지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하천변의 충적지는 일반적으로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하천과 하곡을 통한 교통로가 발달해 있어서 일찍부터 인간생활의 터전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³⁾.

蓮岩洞遺蹟이 위치한 이 지역 일대에는 동천강변을 따라 청동기시대 이래의 유적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을 비롯한 다양한 유구가 조사된 창평동유적⁴⁾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밖에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으로 호계리유적⁵⁾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동천강변의 주요 유적분포는 지표조사결과⁶⁾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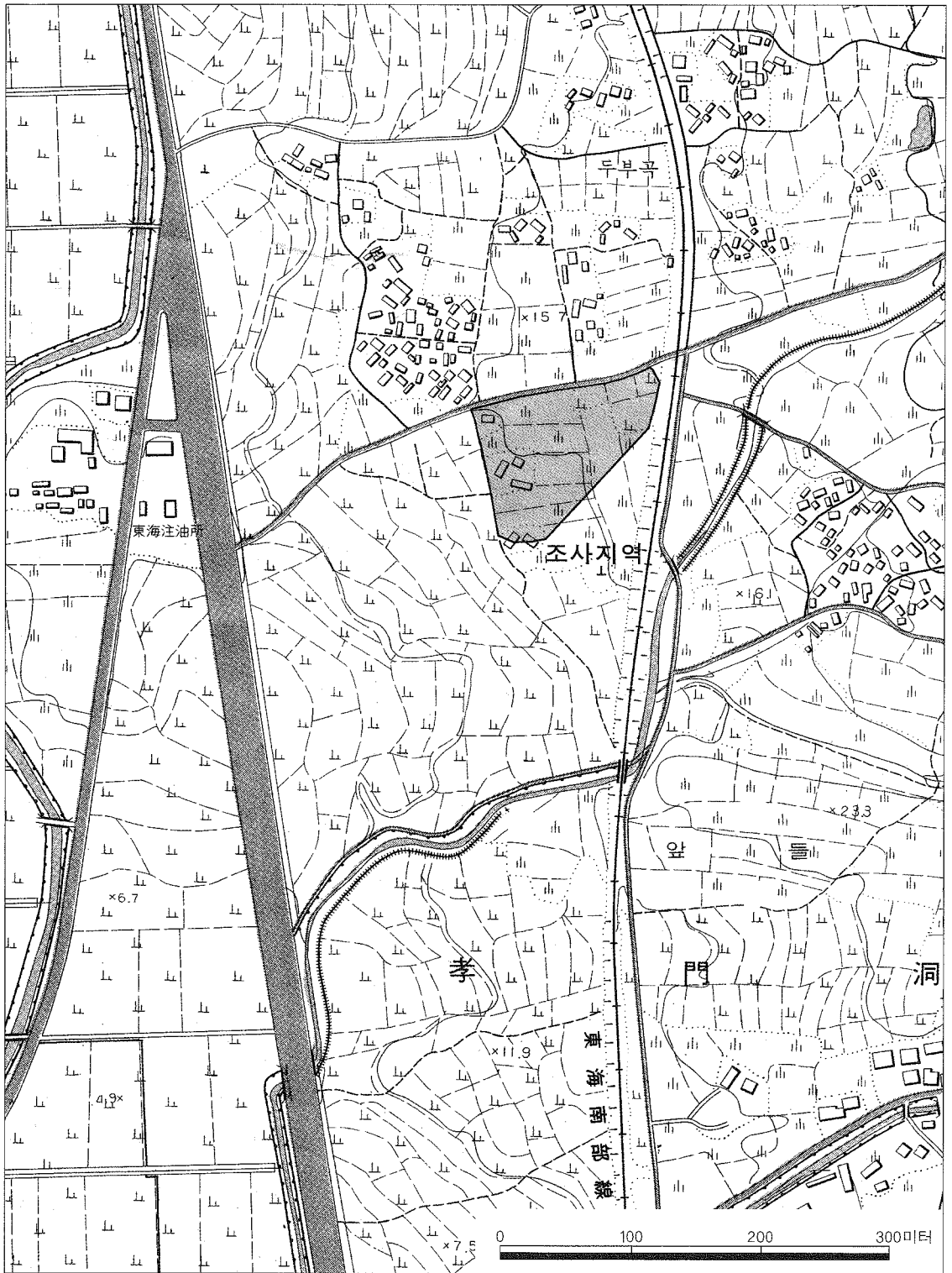
3) 洪慶姬, 1994, 『聚落地理學』, 법문사.

4) 김성태, 2001, 「울산 농소 창평동유적 발굴조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5) 慶南大學校 博物館, 1995, 「울산 호계리주거지」, 『金海 德山里遺蹟』, 慶南大學校博物館叢書9.

6)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郡 文化遺蹟原簿』, 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 第8冊.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市 文化遺蹟原簿』, 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 第17冊.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울산시와 경주시의 경계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외곽을 방어진 關門城이 남아 있으며, 효문동에도 山城이 있다. 墳墓遺蹟으로는 삼한·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인 증산동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천강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동쪽의 산지들에는 많은 古墳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신라의 외항으로서 발전한 울산지역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이 있었던 병영성이 연암동유적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과의 교역지였던 3浦 중 하나인 鹽浦가 위치하고 있다.



圖面 3. 遺構 配置圖(1/300)

Ⅲ. 調查內容

1. 住居址

蓮岩洞遺蹟에서는 6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기둥의 배치형태에 따라 4柱式, 6柱式, 8柱式, 多柱式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거지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住居址 外廓으로 周溝가 돌아가는 5동의 주거지는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주거지 주변으로 지름 10m 내외, 폭 70~80cm, 깊이 30~40cm전후의 外廓周溝가 주거지의 평면형을 따라 (타)원형으로 둘러져 있는 점과 주거지의 남서쪽 모퉁이에서 배수구로 생각되는 溝가 外廓周溝로 연결되어 설치된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곽주구를 제외한 내부의 주거지만을 본다면 이제까지 조사된 일반적인 (장)방형의 주거지와 큰 차이는 없다.

이와는 달리 장방형의 대형 주거지 1동은 일반적인 주거지의 구조와는 구분되며, 집단내의 특별한 공간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 1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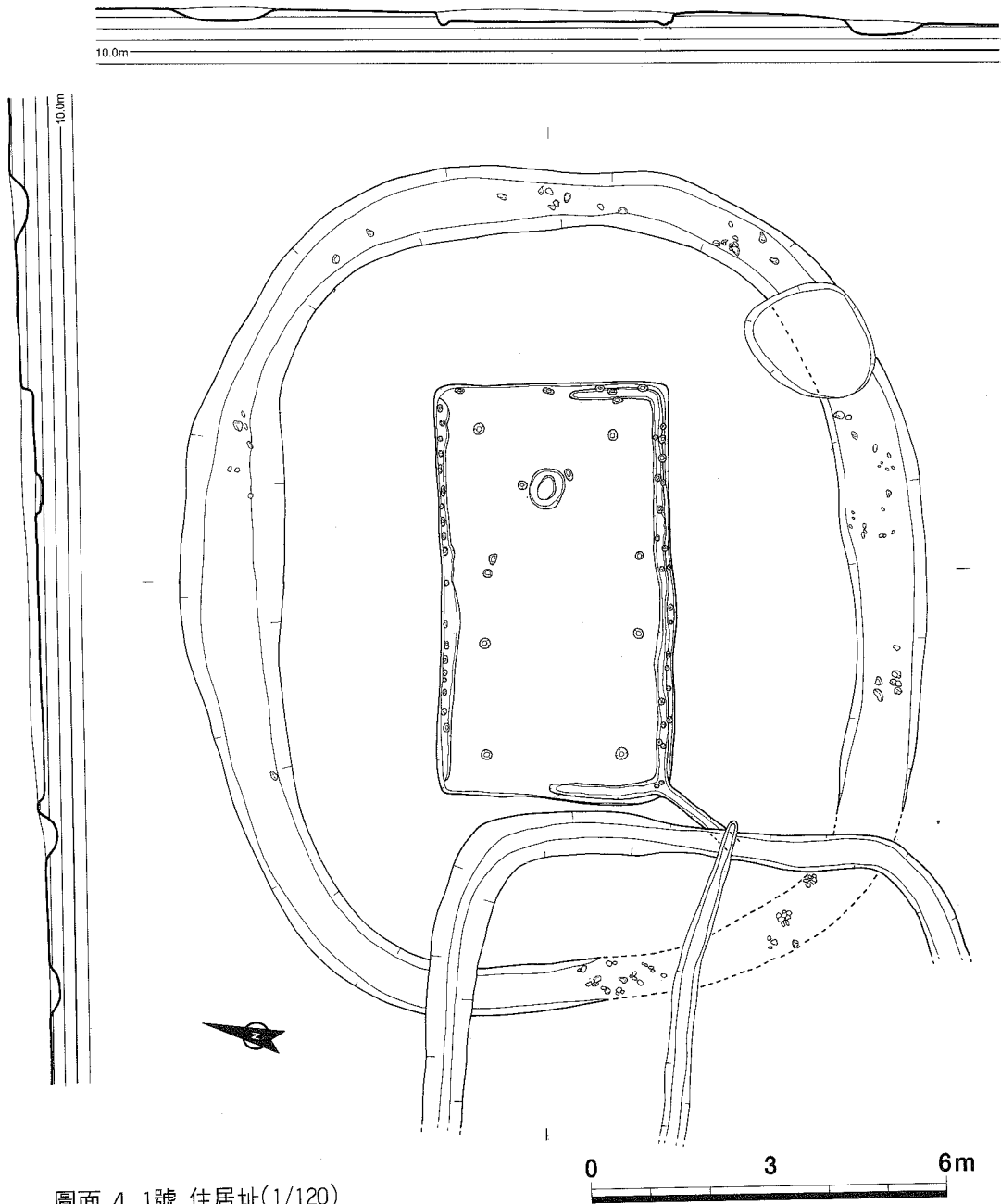
가. 遺構(圖面 4, 5, 圖版 2, 3, 4)

3호 周溝에 의해 서쪽의 일부가 파괴되었는데, 규모면에서 조사된 유구중 가장 대형에 속한다. 장축방향은 N75°E이며,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720cm, 단축 390cm, 잔존깊이 20cm 정도이다. 장단축비가 1.84 : 1인, 8柱式의 장방형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토는 기본적으로 암황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I 층은 암황갈색이며, II 층과 III 층은 암갈색토로 소토 및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IV 층은 壁溝 주변에 퇴적된 층이며, 암갈색토로 구성되는데, II, III 층에 비해 소토와 목탄의 혼입량이 적은 편이다. 유구의 상면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II, III 층을 통해 화재로 인해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遺構의 가장자리에는 북쪽과 남쪽 장벽에 壁溝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과 동쪽단벽에도 1/2선까지 남쪽 壁溝가 이어져 둘러진 것이 확인되었다. 벽구의 내부에는 20~30cm 간격으로 규모가 작은 柱穴들이 비교적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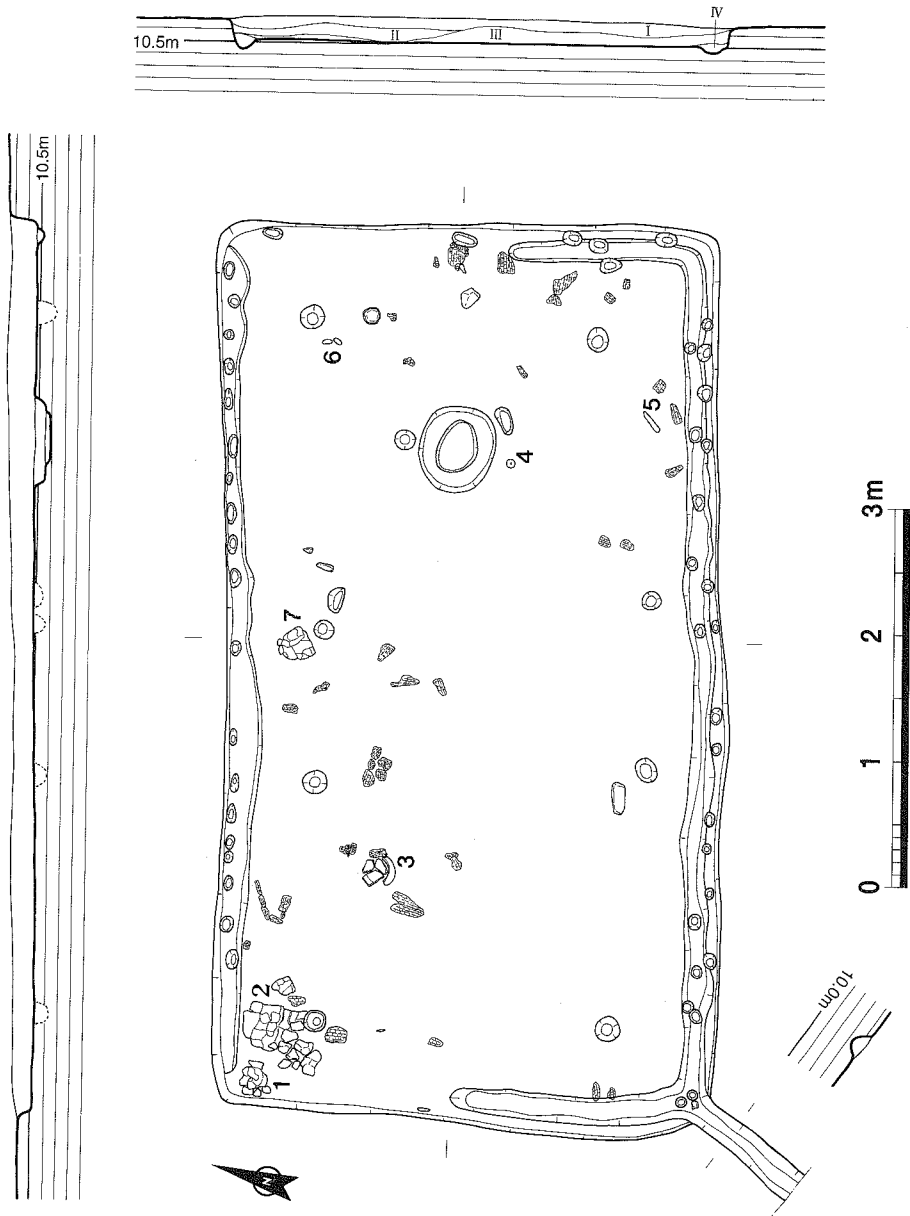
남북장벽에 설치된 벽구는 다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북쪽 장벽의 壁溝는 굴광선과 일치된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쪽 장벽의 벽구는 굴광선과 10cm 정도 간격을 두고 내측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벽구내부 보다 벽구와 벽사이의 공간에 柱穴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북쪽 장벽에 비해 다소 복잡한 형태로 벽체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건축학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圖版. 4 참조)



圖面 4. 1號 住居址(1/120)

그리고 남서쪽 모퉁이에 내부 住居址에서 外廓周溝로 연결되는 폭 25cm의 溝가 직선으로 파여져 있다. 내부의 벽구와 달리 내부에서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住居址 외곽에 설치된 周溝와 연결된 排水施設로 판단된다.

住居址 내부에는 벽구와 70~90cm 간격을 두고 직경 20cm, 깊이 15cm내외의 柱穴 8개



圖面 5. 1號 住居址(1/60)

가 설치되어 있다. 주혈과 주혈사이의 간격은 200cm정도이며, 유구의 중앙부에 있는 4개의 주혈은 100cm정도로 그 간격이 좁게 설치되었다.

爐址는 중앙에서 동쪽단벽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규모는 직경 60cm, 깊이 15cm로, 타원형의 수혈을 파고 일정한 깊이에서 다시 한번 직경 40cm의 타원형 수혈을 만든 구조이다. 내부에는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爐址의 주변에는 양쪽으로 2개의 柱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爐址의 사용과 관련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의 바닥은 8개의 주혈을 경계로 하여 안쪽으로 불다짐처리하였으며, 바깥쪽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외곽주구는 住居址 外廓을 따라 설치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으로 나타난다. 단면 형태는 U자상이며, 규모는 최대지름이 1,440cm이고, 최소지름은 750cm이다. 폭은 1m 내외이며, 잔존깊이는 20~30cm이다.

溝의 내부에는 풍화암반이 다량 포함된 황갈색토가 채워져 있었다. 내부에서는 잡석들과 함께 무문토기편들이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溝의 바닥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물이 周溝 전체에 일정한 높이까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外廓周溝가 주거지내부의 壁溝와 이어진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배수시설과 관련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주거지를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은 주거지의 북서쪽모퉁이에서 대형무문토기가 파손된 채 검출되었고 주거지 전면에 걸쳐서 다수가 확인되었다. 外廓周溝에서는 無文土器 底部 2점 및 口緣部片 1점을 포함한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住居址內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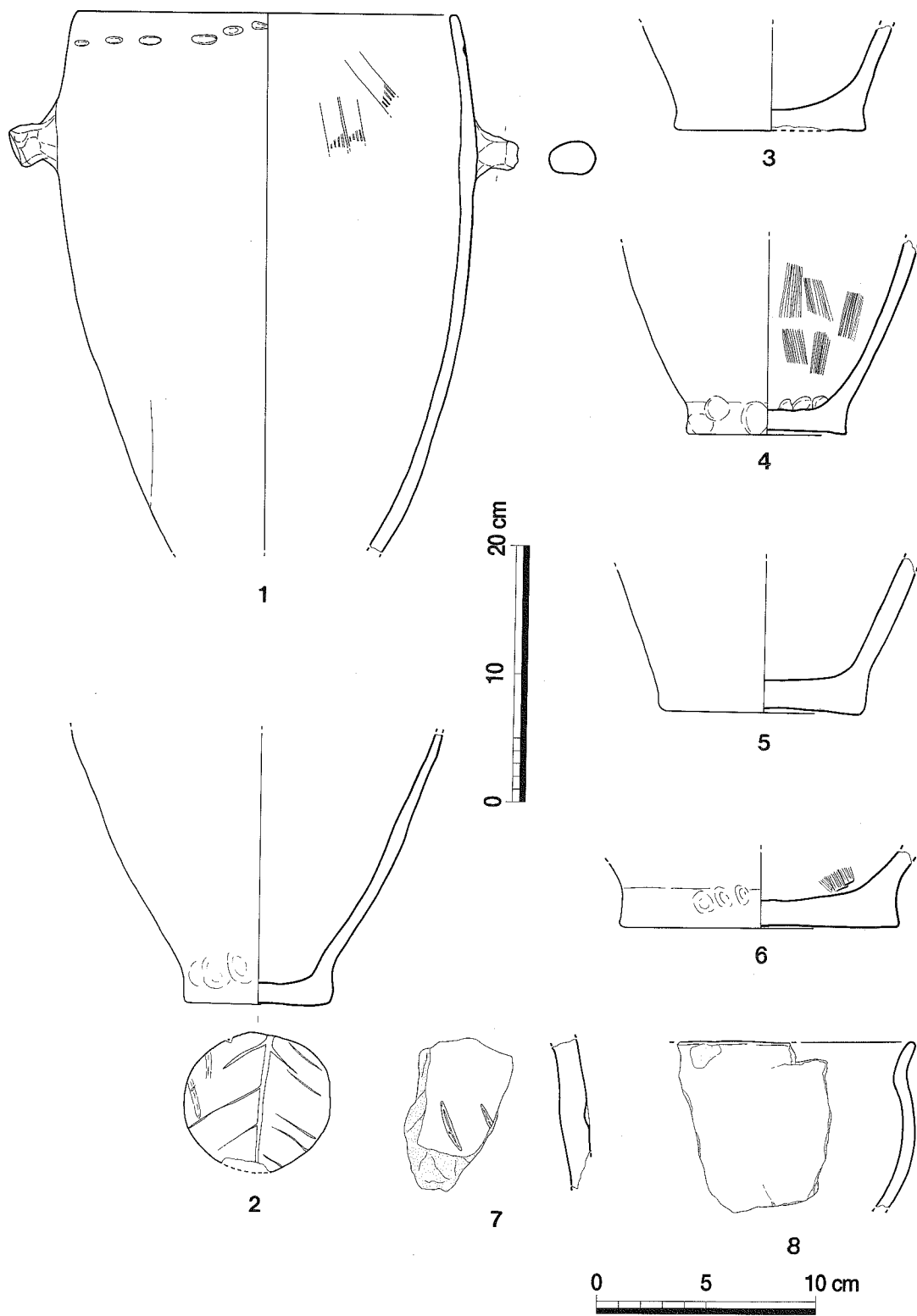
圖面 6-1(圖版 23-3)은 無文土器 把手附深鉢이다. 저부와 동체부의 1/3 가량이 결실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과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이 혼입되어 있다.

동체 상반부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구연부에서 다소 내경한다. 동체부 최대경의 양쪽에는 단면 원형의 把手 1쌍이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관찰되며, 구연부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연단의 1~2cm아래에는 지름 1.0~1.8cm가량의 횡선문 1줄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42.0cm, 口徑 29.2cm이며, 동최대경 32.6cm이다.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6-2(圖版 23-4)는 적갈색의 無文土器로 底部와 胴體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상태로 보아 鉢形土器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정면하였으며, 底部의 바닥에는 木葉文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21.5cm, 底徑은 11.2cm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6-3(圖版 23-1)은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을 포함한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5.0cm, 추정저경 8.6cm이다.

圖面 6-4(圖版 23-2)는 無文土器 底部 및 胴體部로서 내·외면 모두 황갈색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정선된 태토에 0.1~0.2cm가량의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圖面 6. 1號 住居址 出土遺物 I (1・2 : 1/5, 3~8 : 1/3)

의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위에는 指頭痕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목리흔이 관찰된다. 최종적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6.9cm, 추정저경 8.2cm이다. 출토위치는 7이다.

圖面 6-5(圖版 23-5)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내·외면 모두 회흑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관찰하기가 어려우나 물손질정면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높이 7.4cm, 底徑 9.0cm이다.

圖面 6-6(圖版 23-6)은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외면 橙色, 내면 暗褐色을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남아 있으며,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위에는 지두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3.5cm, 底徑 14.9cm이다.

圖面 6-7(圖版 24-6)은 외면에 短斜線文을 시문한 無文土器片이다.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어 기형은 알 수 없다. 내면 적갈색, 외면 담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길이 2.5cm, 너비 3.0cm 가량의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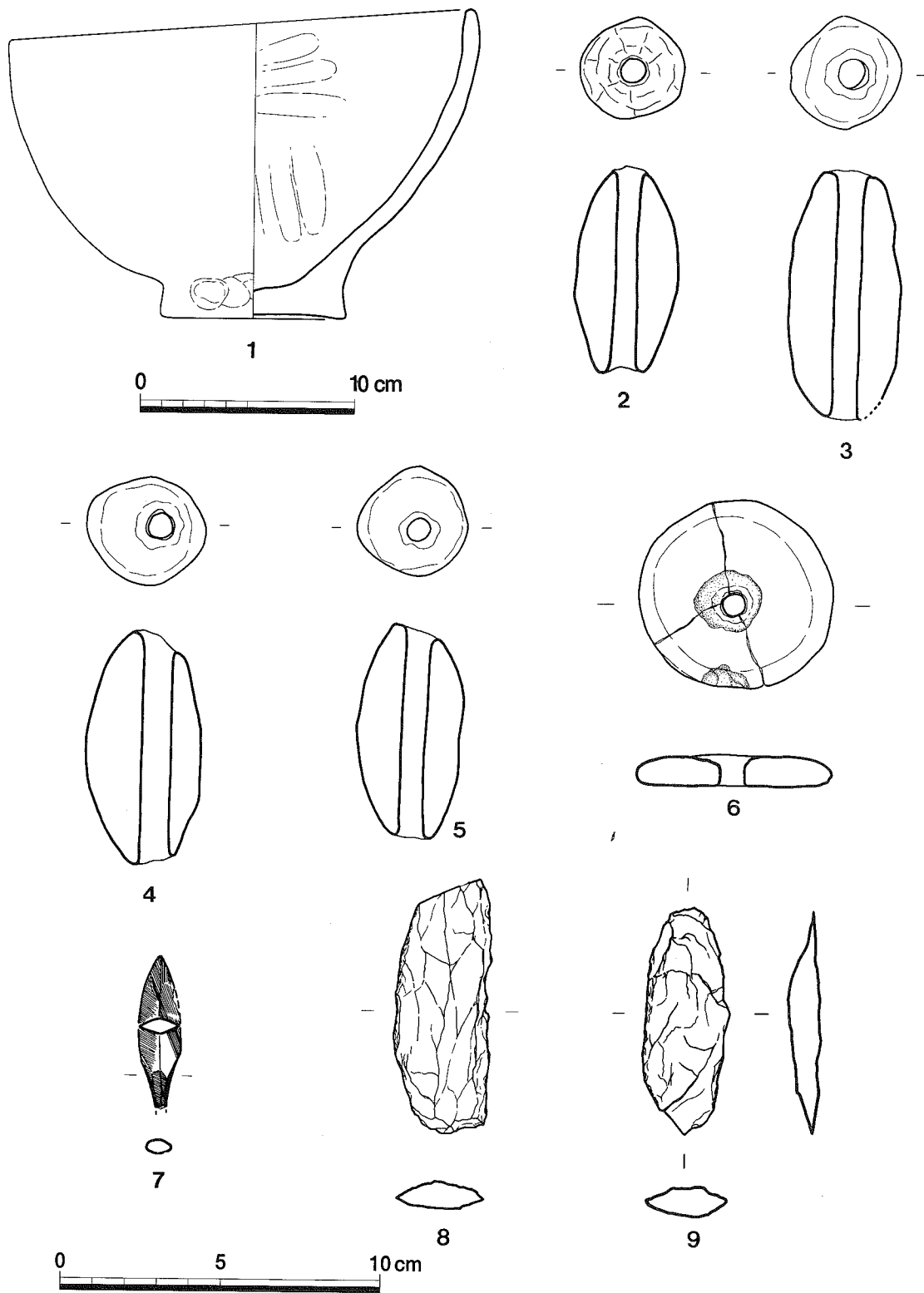
圖面 6-8(圖版 24-1)은 丹塗磨研土器 口緣部片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는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丹의 흔적은 구연부 일부에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잔존높이 8.0cm이다.

圖面 7-1(圖版 24-11)은 鉢形土器이며, 口緣部の 1/4 가량이 결실되었다. 내·외면 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의 구연부에는 목리조정흔이 횡방향으로 아래쪽은 종방향으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위에 指頭痕이 확인된다. 높이 14.2cm, 口徑 22.0cm, 底徑 8.7cm 이다.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7-2(圖版 24-2)는 회흑색의 土製 魚網錘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길이 6.4cm, 너비 3.2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63.2g이다.

圖面 7-3(圖版 24-3)은 土製 魚網錘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指頭痕이 남아 있다. 길이 7.9cm, 너비 3.4cm, 구멍지름 0.9cm이며, 중량은 85.9g이다.

圖面 7-4(圖版 24-4)는 土製 魚網錘이다. 전체적으로 담황색이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남아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 指頭痕이 잔존하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길이 6.4cm, 너비 3.2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63.2g이다. 출토위치는 6이다.



圖面 7. 1號 住居址 出土遺物II (1 : 1/3, 2~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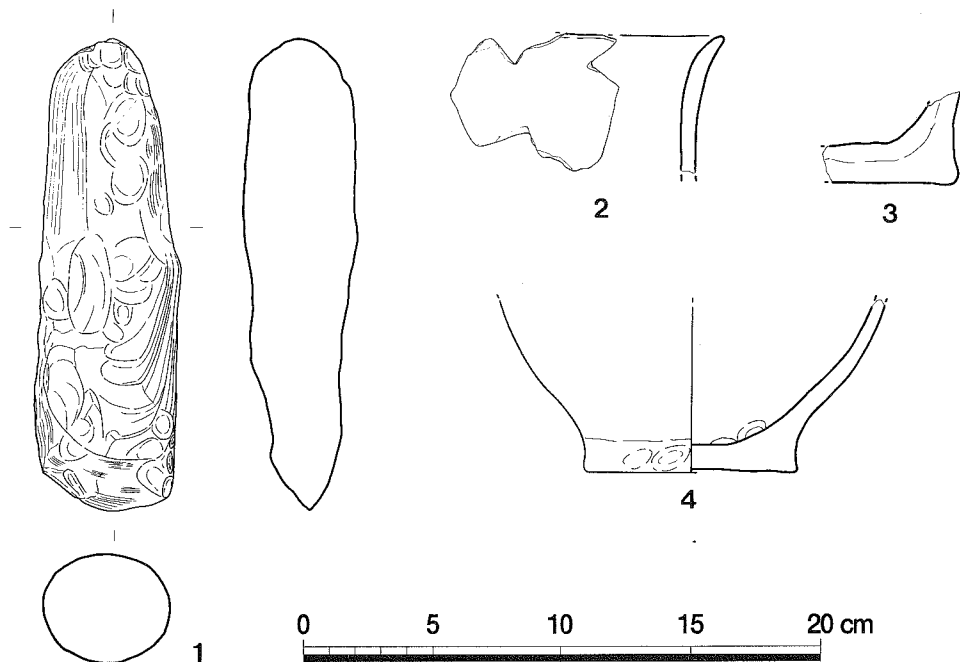
圖面 7-5(圖版 24-5)는 회흑색의 土製 魚網錘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도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외면에 指頭痕이 관찰된다. 길이 6.7cm, 너비 3.5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73.4g이다. 출토위치는 6이다.

圖面 7-6(圖版 24-7)은 泥岩製의 紡錘車이다. 단면 세장방형의 원판모양이며, 끝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전면에 마연흔이 있다. 중앙에 직경 0.7cm가량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직경 5.9cm, 두께 1.0cm이다.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7-7(圖版 24-8)은 泥岩製의 有莖式 石鏃이다. 유엽형으로 莖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신부의 단면은 菱形이며, 莖部の 단면형태는 육각형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연한 흔적이 관찰된다. 全長 4.9cm, 너비 1.3cm이며, 身部の 길이는 3.4cm이다.

圖面 7-8(圖版 24-10)은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단면형태는 菱形이며, 양쪽에 날을 세우기 위해 마연한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8.1cm, 너비 2.4cm, 두께 0.9cm이다.

圖面 7-9(圖版 24-9)는 泥岩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전면에 걸쳐 타격흔이 관찰된다. 한쪽면은 대체로 편평하고 한쪽은 볼록한 형태이다. 잔존형태로 보아 石鏃이나 기타 자르는 도구의 날을 제작하기 위한 未完成 石製로 추정된다. 길이 8.4cm, 너비 2.6cm, 두께 1.0cm이다.



圖面 8. 1號 住居址 出土遺物Ⅲ(1/3)

圖面 8-1(圖版 24-12)은 花崗岩製의 蛤刃石斧이다. 표면에는 풍화가 심한 편이며, 刃部는 橫으로 마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18.8cm, 너비 5.4cm, 두께는 4.4cm이다. 출토위치는 5이다.

② 外廓周溝內 出土遺物

圖面 8-2(圖版 25-1)는 丹塗磨研土器의 口緣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나, 외면에 丹이 남아 있다.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하였으며, 외반한다. 잔존높이 5.5cm이다.

圖面 8-3(圖版 25-2)은 적갈색의 무문토기 底部片으로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8cm이다.

圖面 8-4(圖版 25-3)는 丹塗磨研土器 底部 및 胴體部이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丹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위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6.9cm, 추정저경 8.2cm이다.

2) 2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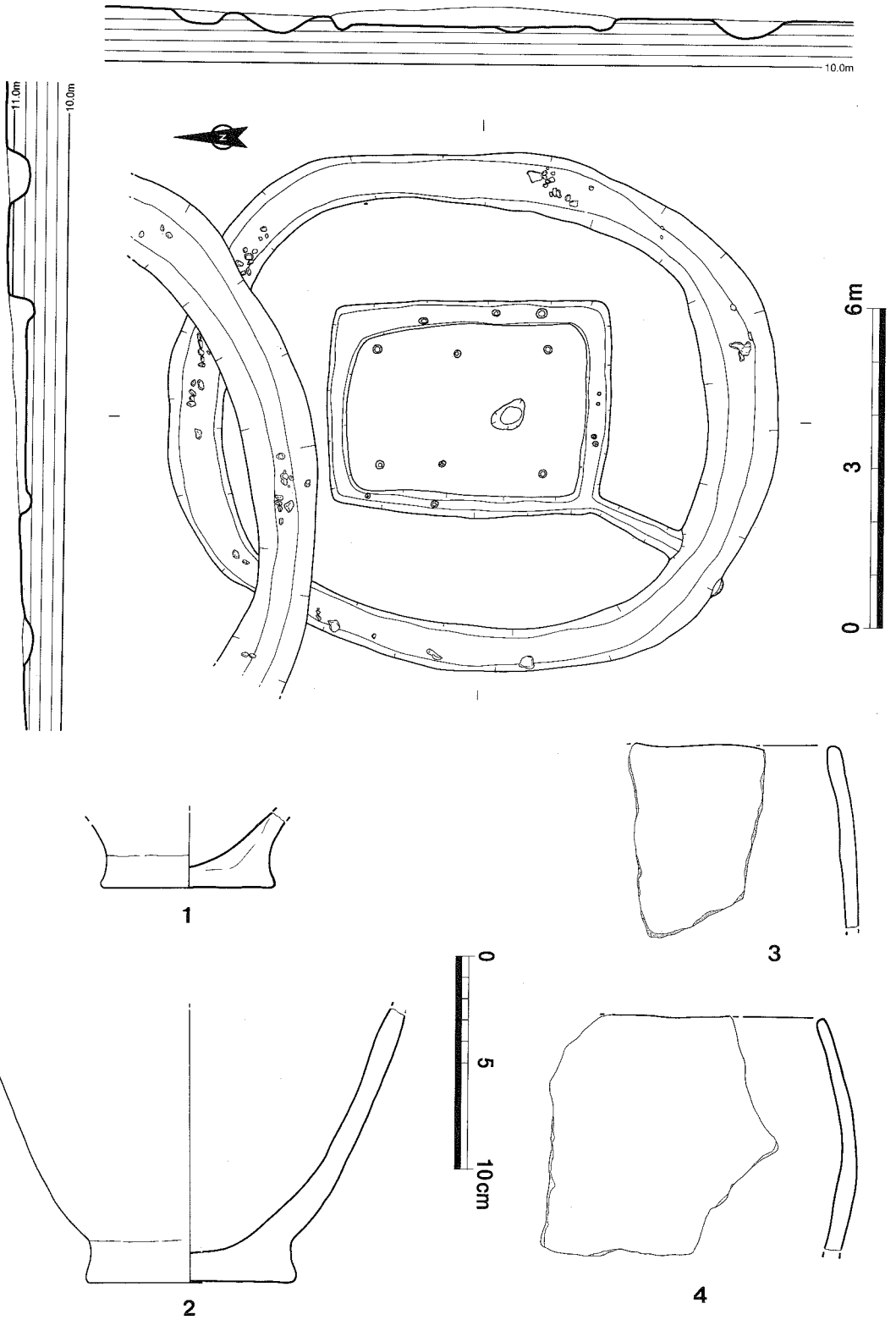
가. 遺構(圖面 9, 10, 圖版 5, 6)

2號 住居址는 3號 住居址와 인접해 있으며, 外廓周溝가 중복되어 있다. 周溝의 중복된 양상으로 보아 2號 주거지가 3號 주거지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장축방향은 N5°E로 다른 주거지의 장축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520cm, 폭 420cm으로 비교적 방형에 가깝다. 잔존깊이는 10cm 전후로 상부가 많이 삭평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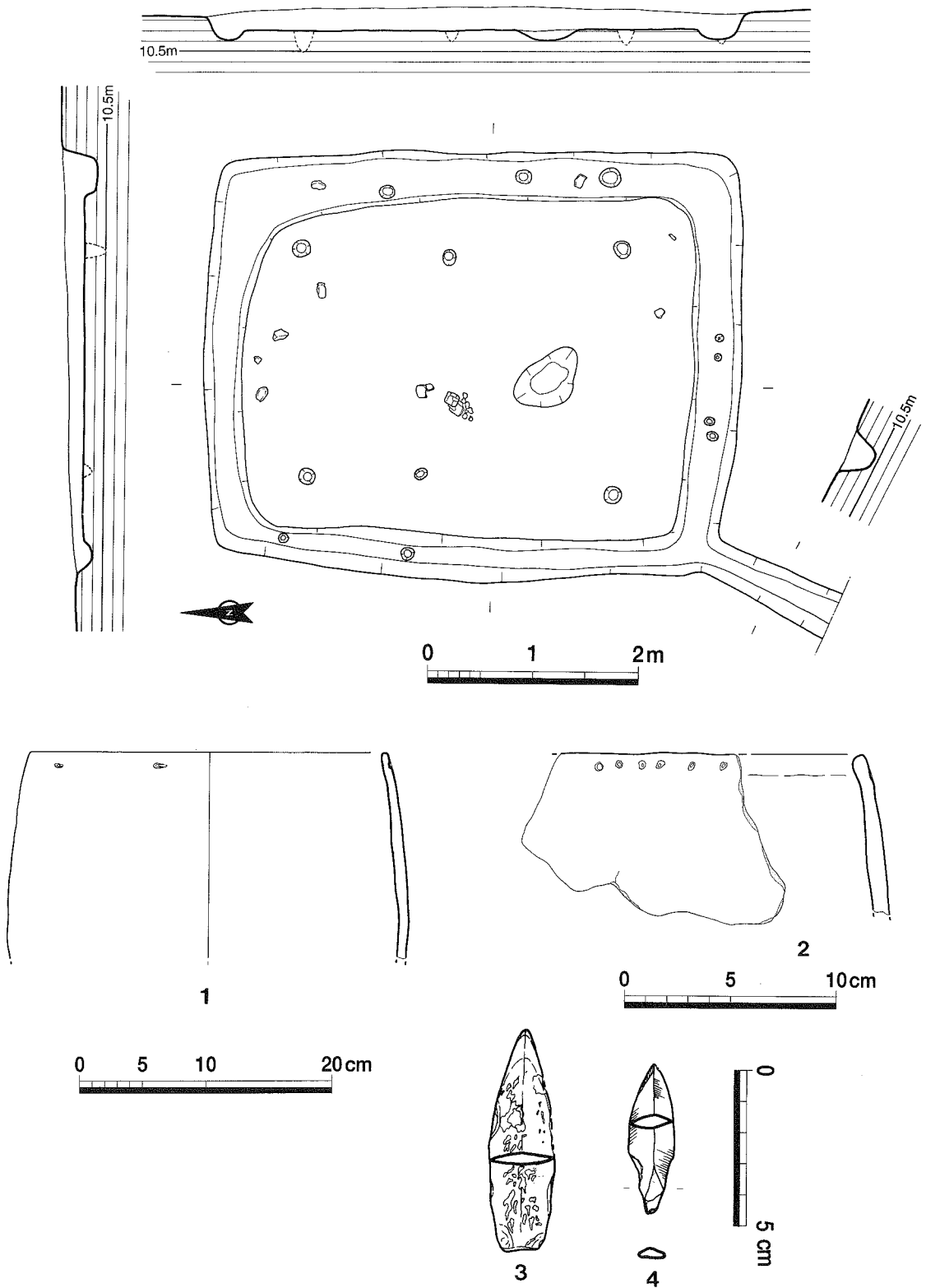
2號 주거지는 내부에 채워진 내부토의 양상으로 볼 때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토는 상층의 암적갈색 부식토를 제외한 아래의 퇴적토는 전반적으로 소토 및 목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住居址의 가장자리에는 전체적으로 壁溝시설이 둘러져 있으며, 다른 유구에 비하여 壁溝의 폭이 40cm로 넓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벽구내에는 壁體構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혈들이 불규칙적으로 확인되었다. 2號 주거지에서도 住居址內의 壁溝와 주거지의 外廓周溝를 연결한 溝가 확인되었다. 배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에는 직경 15cm, 깊이 10~15cm정도의 柱穴이 일정한 간격으로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 바닥은 불로 다짐한 듯 단단히 굳어 있다. 그런데 바닥전면이 아닌 주로 당시 생활면으로 생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바닥면이 硬化되어 있다는 점에



圖面 9. 2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120, 遺物 : 1/3)



圖面 10. 2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1 : 1/5, 2 : 1/3, 3·4 : 1/2)

서 별도의 火力을 이용한 불다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했던 공간이 보다 더 강하게 硬化된 것으로 보인다.

爐址는 별다른 시설없이 바닥면을 파고 만들어졌으며, 중앙부분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설치하여 내부의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였다.

주거지 내부의 출토유물은 爐址 주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와 석촉 및 어망추 등이 있다. 그 외 내부토 조사 과정에서 무문토기편 다수가 수습되었다.

외곽에 둘러진 外廓周溝는 주거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둘러져 있는데 최대지름은 1,110cm, 최소지름은 990cm, 깊이 40cm내외이다. 동쪽이 높고, 주거지와 연결된 溝가 위치한 서쪽이 낮은 형태이다. 주거지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溝가 위치한 부분의 건너편에서 반원상으로 약간 돌출된 기미를 보이는데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외곽주구의 단면은 U字狀이며, 溝의 바닥에는 잡석과 함께 토기편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수습된 토기들은 주거지 사용시에 매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遺物

① 住居址內 出土遺物

圖面 9-1(圖版 25-4)은 외면 적갈색, 내면 황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1/2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5cm, 추정저경 8.0cm이다.

圖面 9-2(圖版 25-12)는 深鉢形土器로 추정되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0.2~0.3cm 가량의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12.8cm, 底徑 9.2cm이다.

圖面 9-3(圖版 25-5)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속심 모두 담황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9.0cm이다.

圖面 9-4(圖版 25-6)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외면 황적갈색, 내면 黑褐色을 띠고 있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10.9cm이다.

圖面 10-1(圖版 25-11)은 橫線文土器의 口緣 및 胴體部片이다. 구연과 동체부의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0.1~0.3cm 크기의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에 횡선문

이 7cm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16.4cm, 복원구경 28.0cm이다.

圖面 10-2(圖版 25-7)는 孔列文土器 口緣部로서 외면 적갈색, 내면 담황색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제대로 관찰되지 않으며, 구연단 0.4cm 아래에 외면에서 내면으로 반관통되게 직경 0.3~0.5cm가량의 孔列文 1줄이 돌려져 있다. 잔존높이 7.8cm이다.

圖面 10-3(圖版 25-9)은 泥岩혼펠스製의 유엽형 石鏃으로 莖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身部の 단면은 菱形이며, 전체적으로 마연흔이 확인된다. 莖部の 단면은 육각형에 가깝다. 길이 4.8cm, 너비 1.45cm이며, 신부길이 3.1cm, 신부두께 0.5cm이다.

圖面 10-4(圖版 25-4)는 전체적으로 녹황색을 띤 無莖式 石鏃이다. 泥岩製로 박리가 심한 편이다. 단면형태는 角이 완만한 菱形을 이루고 있다. 길이 7.2cm, 너비 1.9cm, 두께 0.45cm이다.

② 外廓周溝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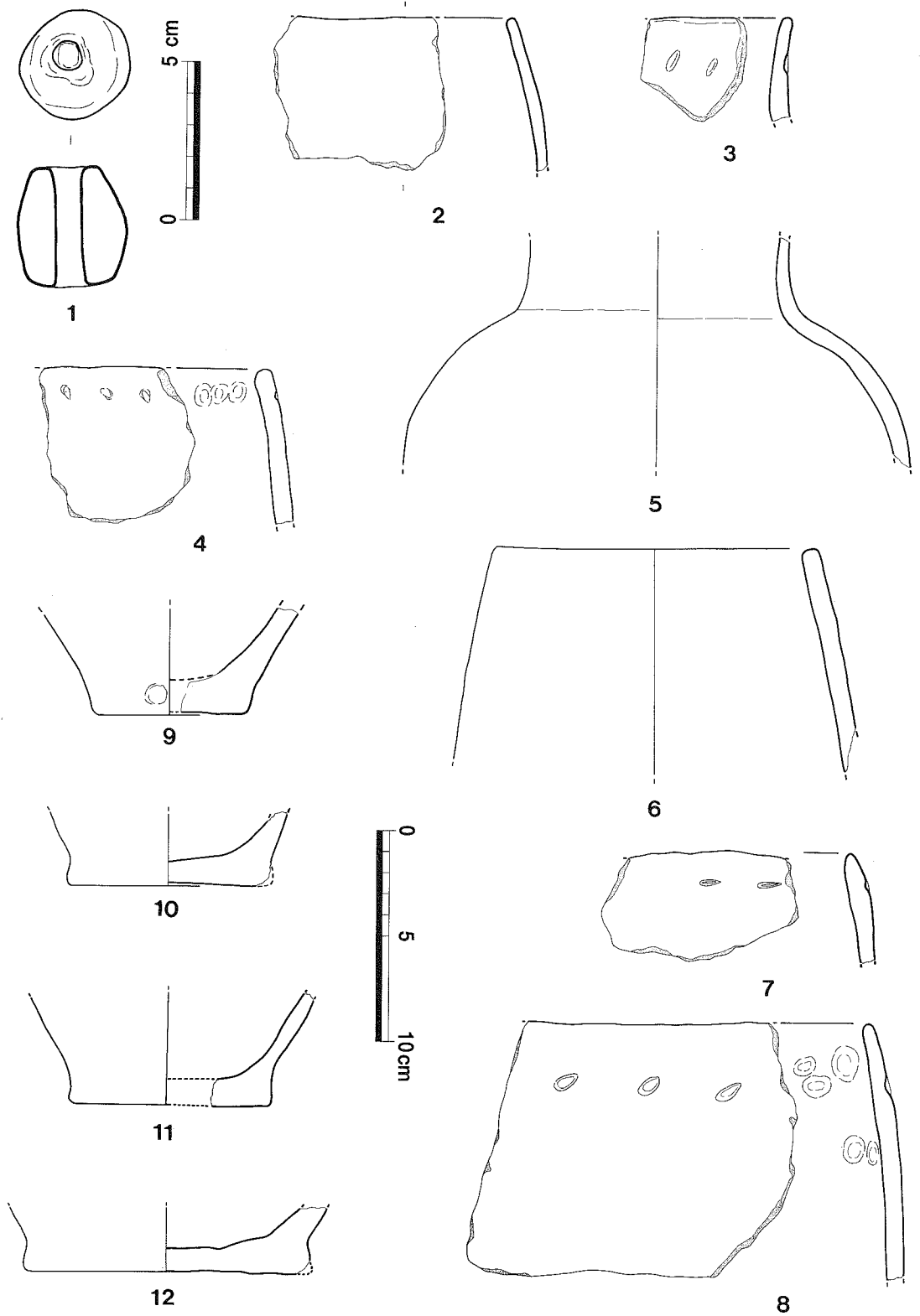
圖面 11-1(圖版 25-8)은 土製 魚網錘로 담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3.8cm, 너비 3.5cm이며, 중량은 47.0g이다.

圖面 11-2(圖版 26-2)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鉢形土器로 추정된다. 내·외면 암적갈색을 띠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3cm이다.

圖面 11-3(圖版 26-1)은 短斜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모두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불량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구연단 아래 1.5cm지점에는 길이 1.0cm, 너비 0.4cm 크기의 단사선문이 1.0cm정도의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4.9cm이다.

圖面 11-4(圖版 26-3)는 孔列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적갈색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으로부터 1cm가량 아래에는 길이 0.5~0.7cm, 깊이 0.1~0.2cm가량의 孔列文이 시문되어 있으며,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3cm이다.

圖面 11-5(圖版 26-10)는 丹塗磨研土器의 口緣部片이다. 頸部 및 胴體 일부만이 잔존한다.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등색을 띠며,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성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외면에 잔존하는 丹의 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정면기법의 관찰도 어렵다. 내면에는 頸部와 동체부의 결합시에 발생한 부착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0.9cm이며, 복원구경은 11.8cm이다.



圖面 11. 2號 住居址 出土遺物(1 : 1/2, 2~12 : 1/3)

圖面 11-6(圖版 26-5)은 無文土器 深鉢의 口緣部로 추정된다. 口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구연단은 평탄면으로 처리되었으며, 기울기는 약간 내경한다. 외면 黑褐色, 내면 灰黃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0.7cm, 추정구경 15.4cm이다.

圖面 11-7(圖版 26-4)은 외면에 橫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모두 灰黑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에는 길이 약 1.0cm, 너비 0.3cm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5.4cm이다.

圖面 11-8(圖版 26-11)은 短斜線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 3.6cm지점에는 지름 1.2~1.5cm, 너비 0.6cm가량의 단사선문이 약 3cm의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는 11.8cm이다.

圖面 11-9(圖版 26-6)는 내·외면 적갈색을 띠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외면에는 동체부와 저부의 접합부분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0cm, 추정저경 6.9cm이다.

圖面 11-10(圖版 26-7)은 黃橙色의 無文土器 底部로서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은 확인할 수 없다. 잔존높이 3.5cm, 底徑 8.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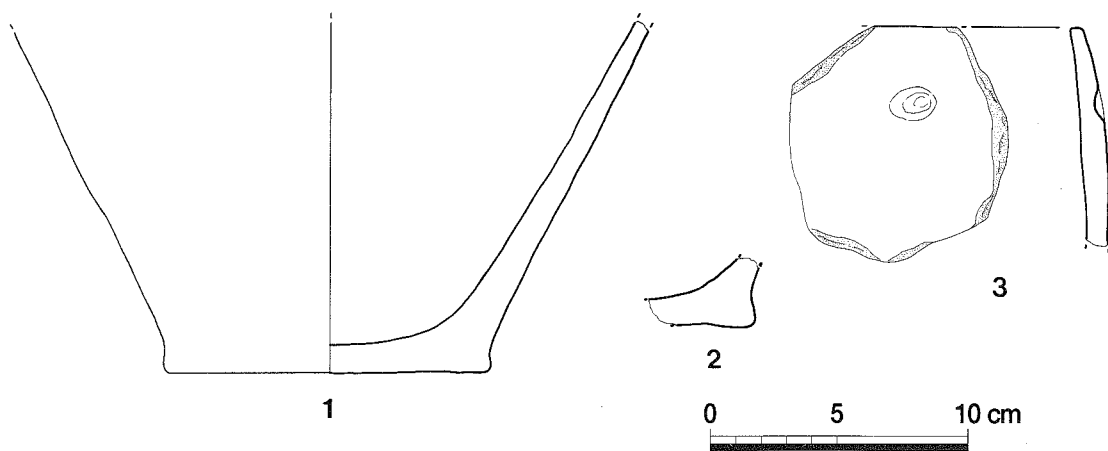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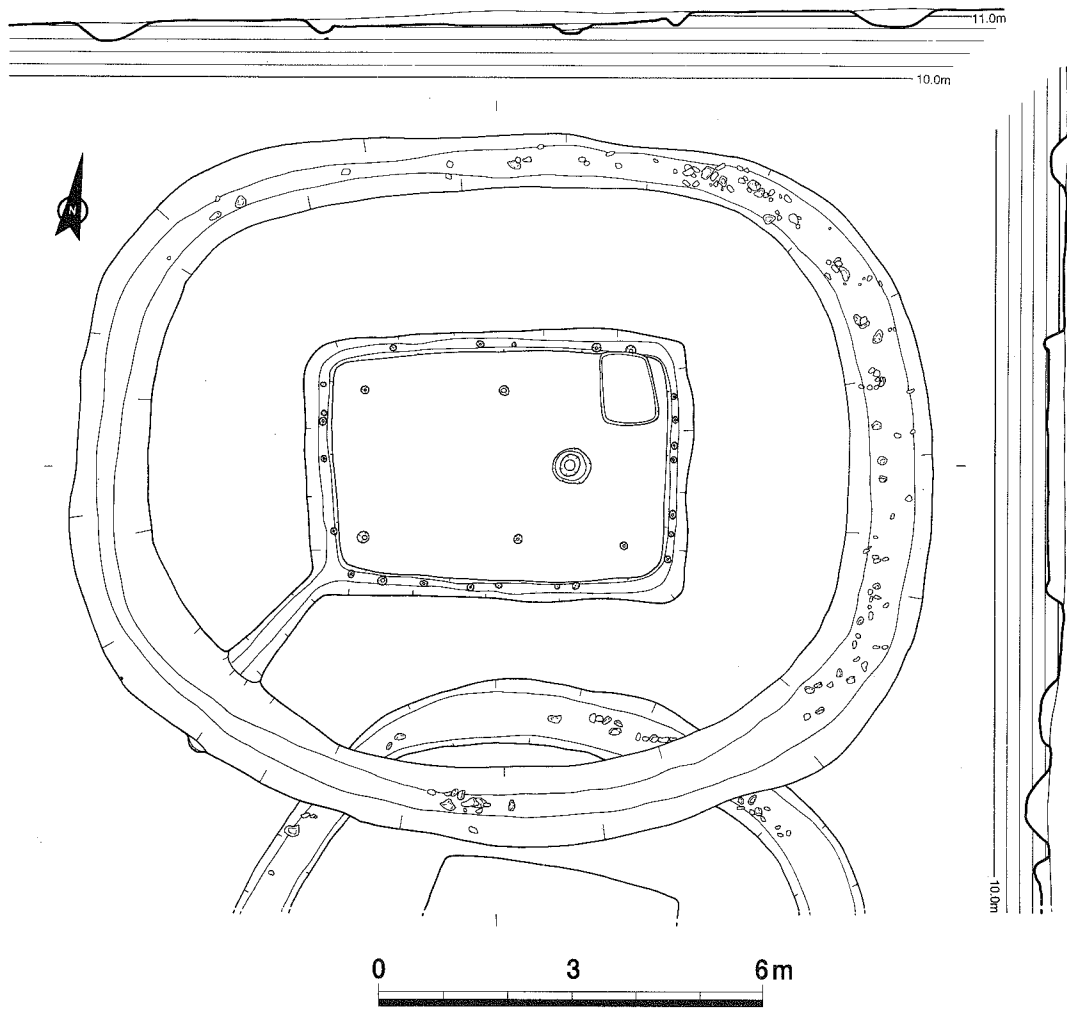
圖面 11-11(圖版 26-8)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底部의 1/3가량과 胴體部 일부만이 잔존한다. 외면 담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5.3cm, 추정저경 9.1cm이다.

圖面 11-12(圖版 26-9)는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외면 박리가 심한 편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12.3cm이다.

3) 3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2, 13, 圖版 7, 8, 9)

북쪽으로는 2호 외곽주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4호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 동쪽은 2호 住居址의 外廓周溝 일부와 중복되어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610cm, 폭 500cm, 잔존깊이 15cm이다. 장축방향은 N81° E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부가 많이



圖面 12. 3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120, 遺物 : 1/3)

삭평되어 유구의 床面도 일부는 교란되었다.

3호 주거지의 내부토는 I ~ IV층으로 구분되는데 황갈색부식토인 I층을 제외한 나머지층에서는 소토와 목탄편들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의 벽쪽에 가까운 부분에 다량으로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壁溝, 爐址, 柱穴 등이 있다. 壁溝는 굴광선의 가장자리에 四壁에 걸쳐서 둘러져 있다. 壁溝에서는 板材로 보이는 벽체의 일부가 木炭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보조주혈이 확인되어 벽체시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벽구는 폭 50cm, 깊이 20cm의 溝에 의해 外廓周溝로 연결되어 있다.

爐址는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별도의 시설없는 竪穴爐址로 내부는 적갈색으로 변색되어 경화되어 있었다.

주거지 상면의 柱穴은 5개가 확인되었으나 북동쪽 모서리의 주혈은 교란으로 인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혈은 모두 6개이다. 주거지의 床面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壁溝내부에서 魚網錘 3점과 無文土器 底部 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조사과정에서 無文土器 底部 및 口緣部片이 수습되었다.

外廓周溝는 최대지름 1,300cm, 최소지름 1,160cm이고, 周溝의 폭은 115cm 내외이며, 최대 깊이는 30cm이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자연지형과 같이 溝의 높이도 주거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낮다. 2호 주거지에서와 같은 구조로 주거지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溝가 위치한 부분의 반대편에서 반원상으로 돌출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周溝의 동쪽부분에는 無文土器片을 포함한 잡석들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서쪽부분은 황갈색의 부식토만 채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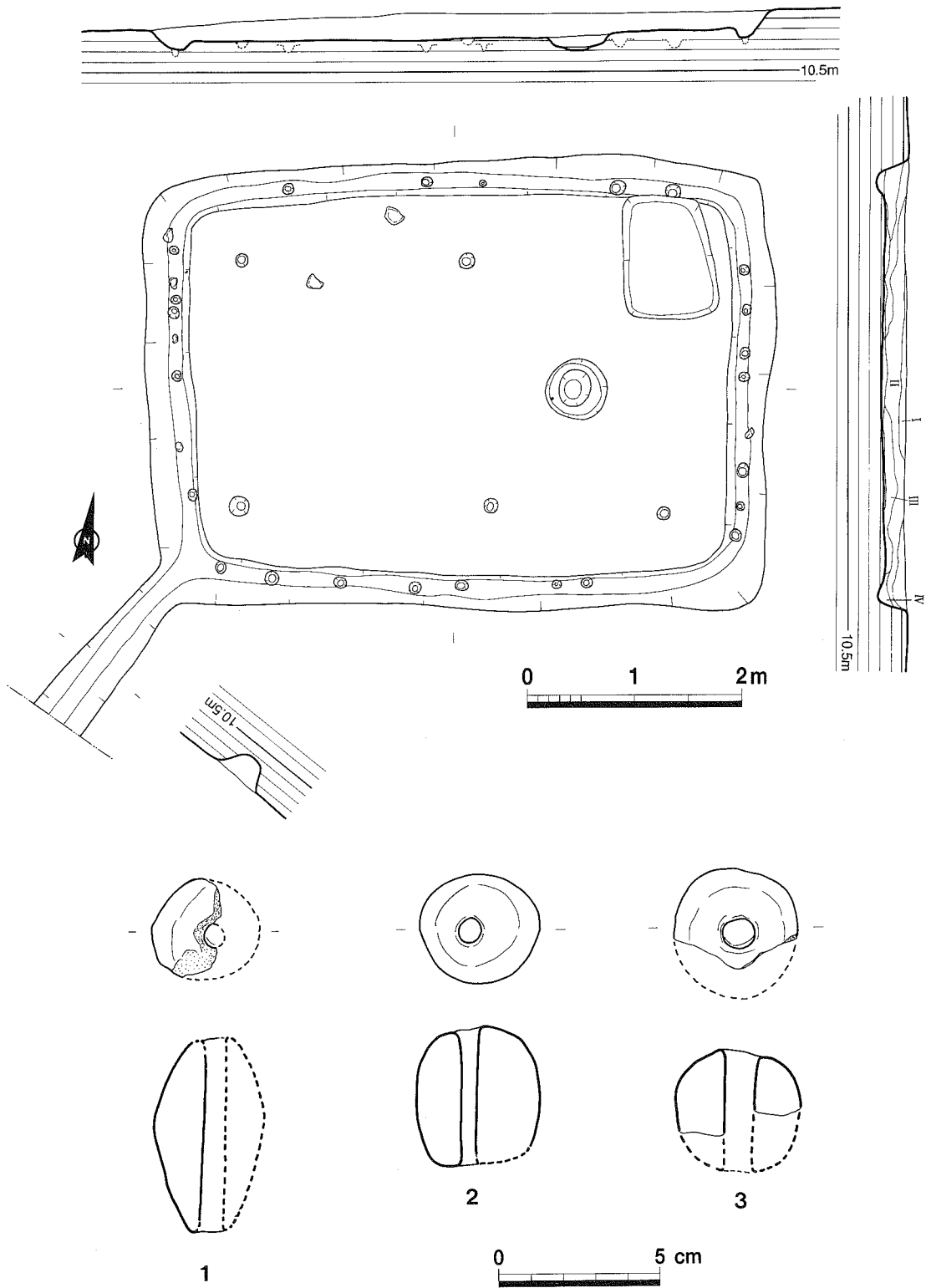
나. 遺物

① 住居址內 出土遺物

圖面 12-1(圖版 27-1)은 無文土器 底部로, 잔존형태로 보아 鉢形土器의 底部로 추정된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13.8cm, 底徑 12.2cm이다.

圖面 12-2(圖版 27-3)는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저부의 외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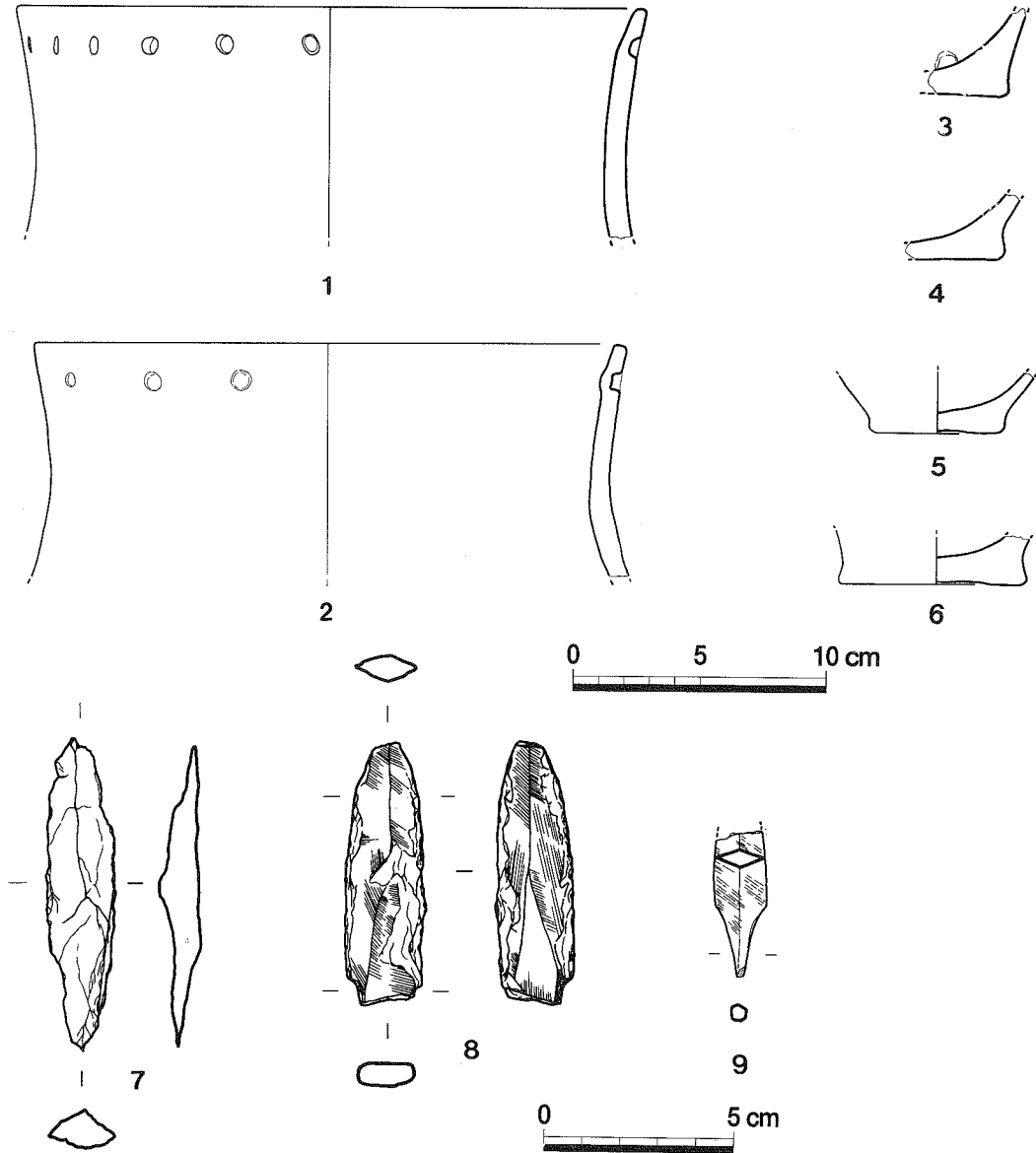
圖面 12-3(圖版 27-2)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黃赤色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 2.5cm지점에는 지름 1.8cm, 너비 1.3cm 가량의 침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9.5cm이다.



圖面 13. 3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2)

圖面 13-1(圖版 27-4)은 黃褐色의 土製 魚網錘로 1/2 가량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6.1cm이며, 너비 3.4cm이다. 구멍의 지름은 0.7cm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잔존중량은 35.0g이다.

圖面 13-2(圖版 27-5)는 회흑색의 土製 魚網錘로 일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4.4cm, 너비 4.7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63.0g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圖面 14. 3號 住居址 出土遺物(1~6 : 1/3, 7~9 : 1/2)

圖面 13-3(圖版 27-6)은 황갈색의 土製 魚網錘로 1/2 가량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길이 3.8cm, 너비 3.9cm 구멍지름 0.9cm이며, 잔존중량은 21.3g이다.

② 外廓周溝內 出土遺物

圖面 14-1(圖版 27-8)는 孔列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구연부의 1/2가량만이 잔존한다. 내·외면 黃橙色을 띠며, 속심은 黃赤色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며, 구연단 아래 1.5cm지점에는 끝이 둥근 시문구로 눌러 찍은 듯한 孔列文이 지름 0.6cm, 너비 0.5cm가량의 크기로 시문되어 있다. 문양간의 간격은 2.8cm 정도이다. 잔존높이 9.2cm, 口徑 25cm이다.

圖面 14-2(圖版 27-7)은 孔列文이 시문되어 있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한 것이다. 외면 黃赤色, 내면 黃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지름 0.9cm, 깊이 0.3cm가량의 공열문이 2.8cm간격으로 반투공 되어있다.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9.3cm, 추정구경 23cm이다.

圖面 14-3(圖版 27-9)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외면 적갈색, 내면이 赤黃色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장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수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는 3.7cm이다.

圖面 14-4(圖版 27-10)는 淡黃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指頭痕이 희미하게 남겨져 있다. 잔존높이 2.6cm이다.

圖面 14-5(圖版 27-12)는 회흑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1.9cm, 5.0cm이다.

圖面 14-6(圖版 27-11)은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기면의 내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며, 底部의 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2.4cm, 저경 7.1cm이다.

圖面 14-7(圖版 27-13)은 泥岩혼펠스製의 剝片 石器이다.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틀을 잡고 세부적인 가공을 위해 타격한 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8.4cm, 너비 1.8cm, 두께 1.1cm이다.

圖面 14-8(圖版 27-14)은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鏃이다. 身部の 단면형태는 마름모꼴이며, 莖部の 단면은 세장방형을 띤다. 선단부 일부와 莖部の 일부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아마 석촉 제작을 위한 작업과정에 莖部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磨研한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7.0cm, 너비 2.0cm, 두께 0.7cm이다.

圖面 14-9(圖版 27-15)는 유엽형의 有莖式 磨製石鏃이다. 암회색의 세립화강암제이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며, 마연방향이 일정하다. 先端部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身部 斷面은 菱形, 莖部 단면은 육각형이다. 잔존길이 4.0cm이며, 두께는 0.6cm이다.

4) 4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5, 16, 圖版 10)

2호 주거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의 상부 대부분이 삭평되어 유구의 잔존깊이는 거의 상면 높이와 같다. 주거지의 벽구 흔적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축방향은 N81°E이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420cm, 폭 330c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주거지의 내부의 시설물로는 壁溝, 柱穴, 爐址 등이 있다. 벽구는 주거지의 四壁을 따라 둘러져 있으며, 외곽주구와 직선상의 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벽구에서는 반월형석도편을 비롯한 석재들이 검출되고 있어 住居址내부에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壁溝內에서 장벽쪽으로는 2개씩, 단벽쪽은 1개씩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각 모서리에 위치한 4개의 주혈과 주혈사이에 하나씩의 주혈이 추가되어 모두 8개가 확인되었으나 장벽쪽에 있는 6개의 주혈을 기본으로 하는 6주식의 구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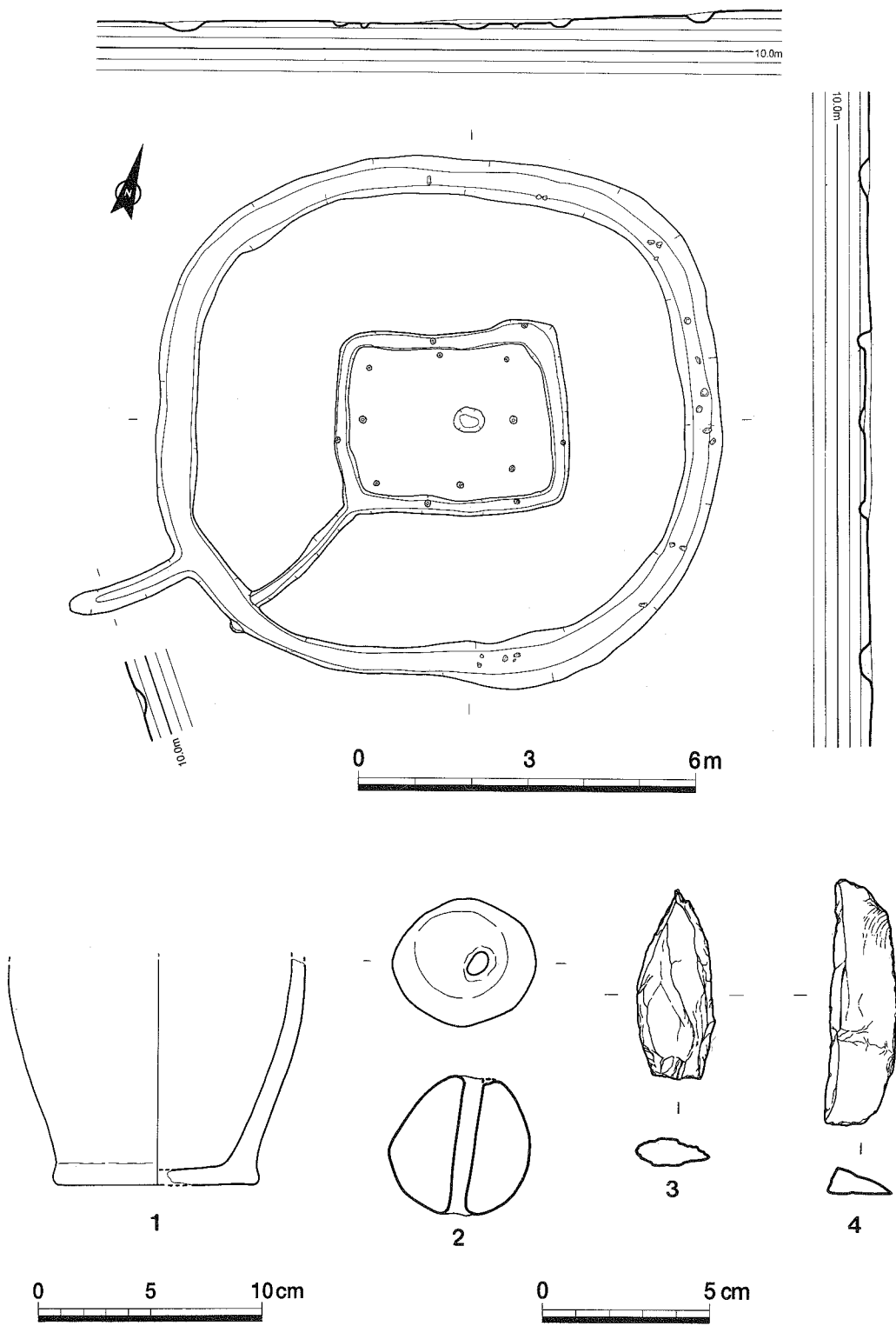
爐址는 장축선상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데 별다른 시설없이 바닥을 파고 설치되었다. 노지의 바닥부분은 화력에 의해 소토화되어 붉게 변색, 경화되어 있다. 住居址 床面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整地하여 사용하였다.

外廓周溝는 최대지름 1,110cm, 최소지름 980cm이며, 周溝의 폭은 72cm 내외이며, 최대깊이는 15cm로 상부의 삭평이 심한 편이다. 東高西低의 지형상태와 같이 주거지내부와 연결되는 서쪽 부분이 낮은 구조이며, 서쪽으로 100cm 아래에 외부로 빠지는 溝가 설치되어 있다. 2, 3호 주거지에서 보이는 반원상의 흔적이 주거지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溝가 위치한 부분의 반대편에서 확인되었다. 溝의 바닥에서는 無文土器片을 비롯하여 魚網錘 6점, 石器 1점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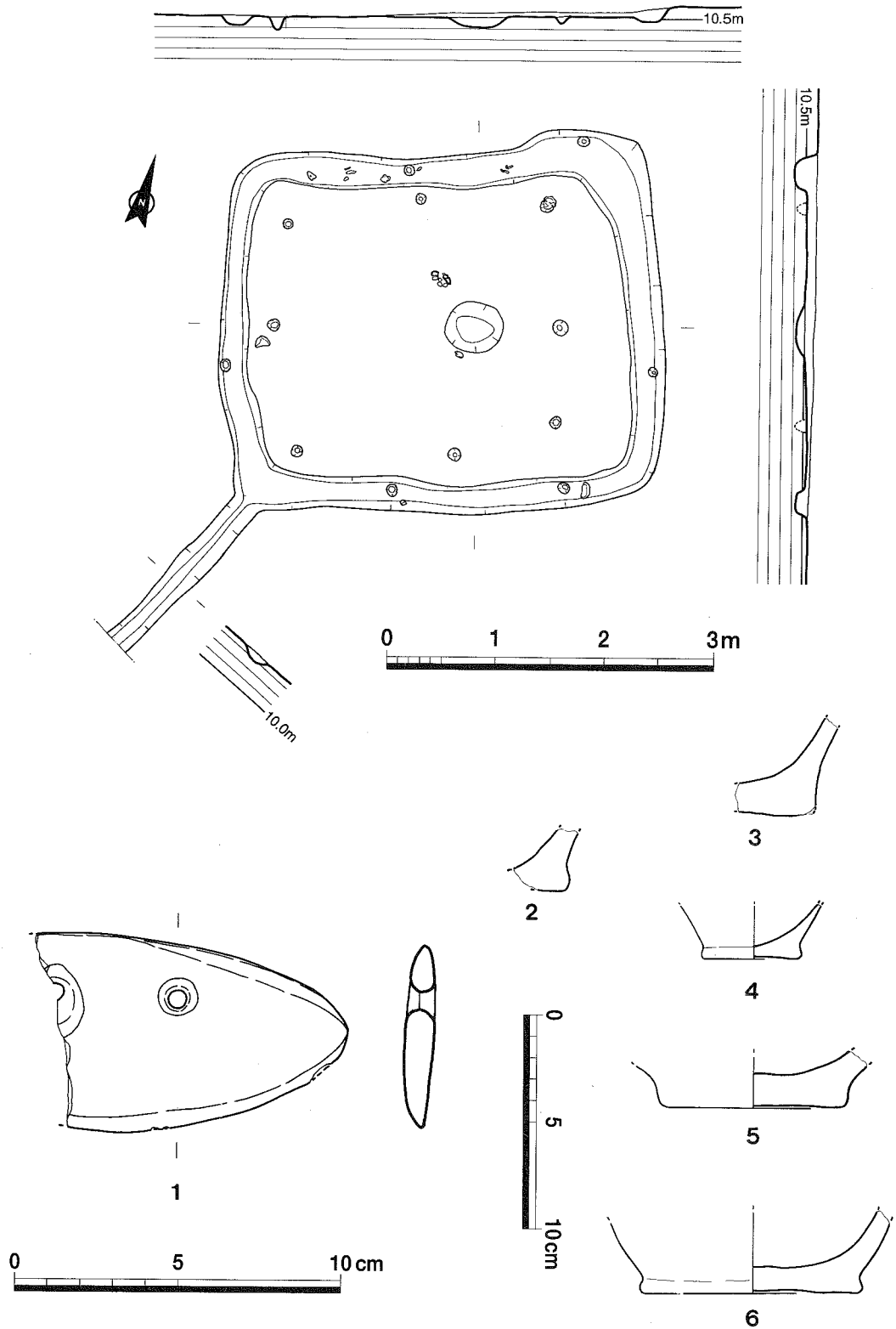
나. 遺物

① 住居址內 出土遺物

圖面 15-1(圖版 28-1)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은 보통이며, 색조는 외면 赤黃色, 내면 灰黃色을 띠고 있다. 테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잔존높이 10.4cm, 추정저경 9.2cm이다.



圖面 15. 4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120, 1 : 1/3, 2~4 : 1/2)



圖面 16. 4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1 : 1/2, 2~6 : 1/3)

圖面 15-2(圖版 28-2)는 적갈색의 土製 魚網錘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長石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길이 4.2cm, 너비 4.2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41.5g이다.

圖面 15-3(圖版 28-3)은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外緣으로 타격흔이 잔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연형 石鏃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이 5.7cm, 너비 2.2cm, 두께 0.8cm이다.

圖面 15-4(圖版 28-4)는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로 한쪽으로는 날을 세웠다. 두드림으로 날을 세우려한 흔적이 확인되며, 마연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길이 7.3cm, 너비 2.0cm, 두께 0.8cm이다. 住居址內 壁溝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16-1(圖版 28-5)은 화강암제의 石刀이다. 遺構의 床面에서 출토되었다. 1/2가량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魚形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磨研하여 제작하였다. 인부에는 사용흔이 관찰된다. 신부에는 지름이 1.2cm가량의 구멍이 2개 뚫려 있는데 양쪽에서 맞뚫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잔존길이 9.5cm, 너비 6.1cm, 두께 0.9cm이며, 孔間의 거리는 3.2cm이다.

② 外廓周溝內 出土遺物

圖面 16-2(圖版 28-6)는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박리로 인하여 내면의 정면수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외면에는 물손질정면의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2.9cm이다.

圖面 16-3(圖版 28-7)은 적황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4.5cm이다.

圖面 16-4(圖版 28-8)는 赤黃色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할 수 없으나, 외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底部에는 지름 0.6cm 크기의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2.5cm, 底徑 4.6cm이다.

圖面 16-5(圖版 28-9)는 황적색의 無文土器 底部로서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底部의 바닥에는 흑반이 생성되어 있다. 규격은 잔존높이 2.6cm, 底徑 7.8cm이다.

圖面 16-6(圖版 28-10)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서 내·외면 적갈색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9cm, 추정지경 9.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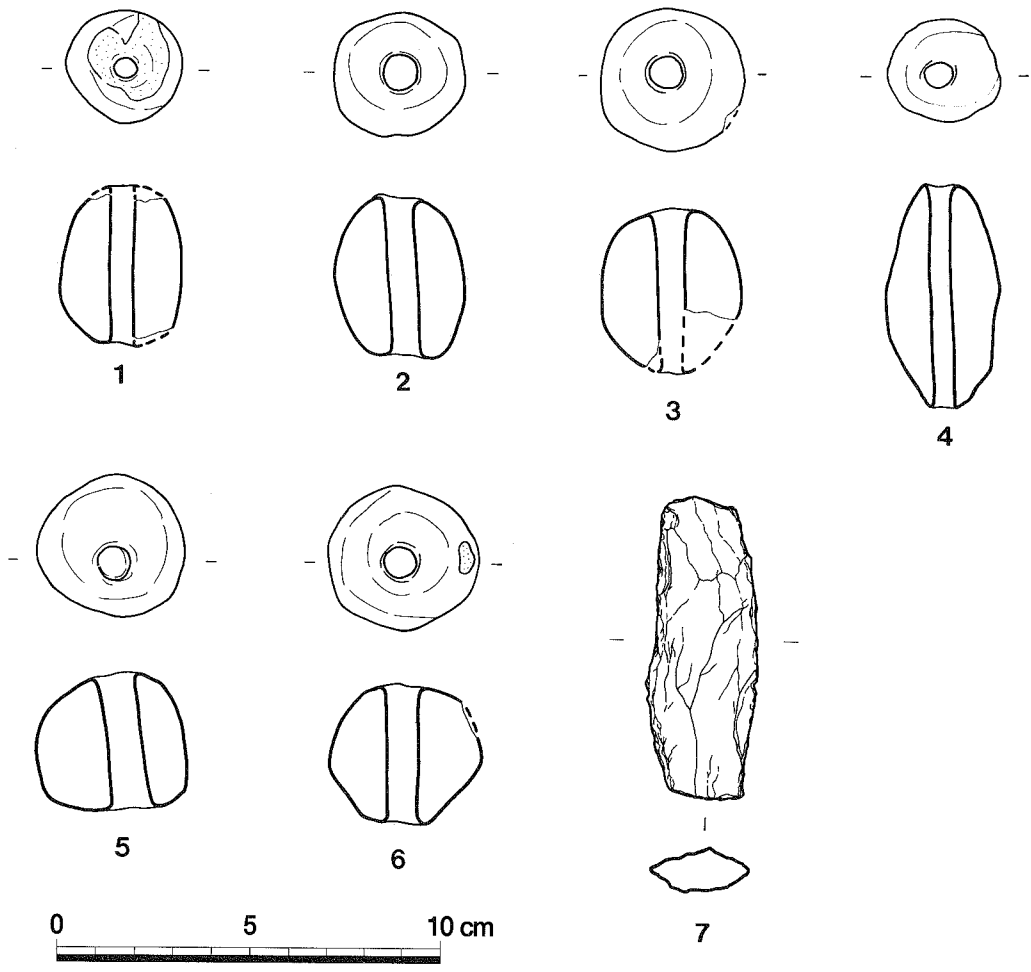
圖面 17-1(圖版 28-12)은 灰黃色을 띠는 土製 魚網錘이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했으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는 4.2cm, 너비 3.1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37.9g이다.

圖面 17-2(圖版 28-13)는 黃褐色의 土製 魚網錘로 完형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4.2cm, 너비 3.4cm, 구멍지름 0.9cm이며, 중량은 43.2g이다.

圖面 17-3(圖版 28-14)은 灰黑色의 魚網錘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4.4cm, 너비 3.7cm, 구멍지름 1.0cm이며, 중량은 47.0g이다.

圖面 17-4(圖版 28-16)는 황갈색의 土製 魚網錘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길이 4.8cm, 너비 2.6cm, 구멍지름 0.6cm이다.



圖面 17. 4號 住居址 出土遺物(1/2)

圖面 17-5(圖版 28-15)는 黃褐色의 土製 魚網錘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3.6cm, 너비 3.9cm, 구멍지름 0.9cm이며, 중량은 45.4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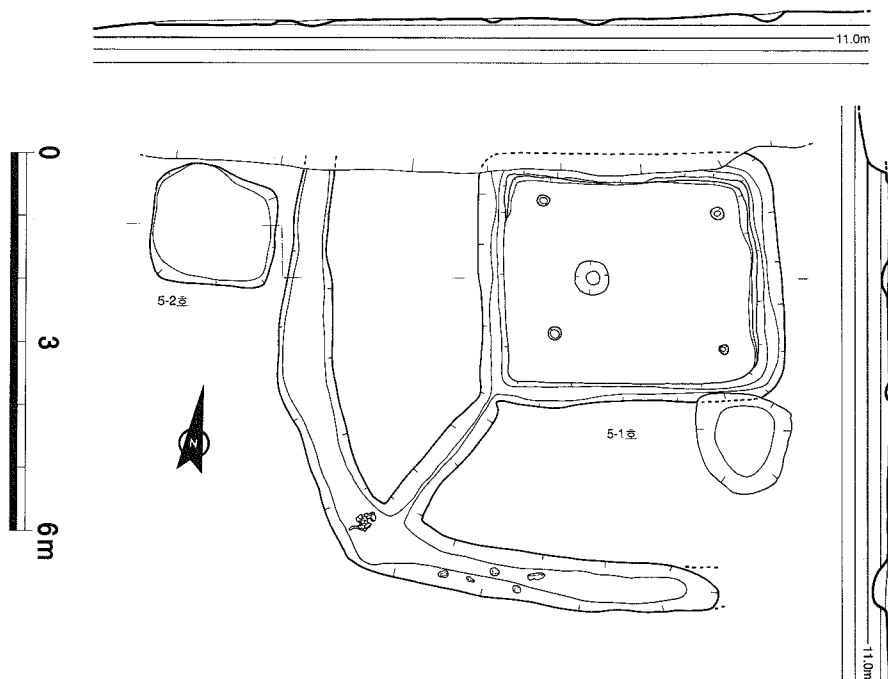
圖面 17-6(圖版 28-11)은 灰黑色의 魚網錘로 完形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3.6cm, 너비 4.0cm, 구멍지름 0.9cm이며, 중량은 44.7g이다.

圖面 17-7(圖版 28-16)은 泥岩혼펠스製의 평면형태 細長方形의 未完成 石器이다. 일정한 형태를 갖춘 다음 양쪽에 두드림을 가해 刃을 세운 흔적이 확인된다. 단면상으로는 마름모형태를 띤다. 길이 7.9cm, 너비 2.6cm, 두께는 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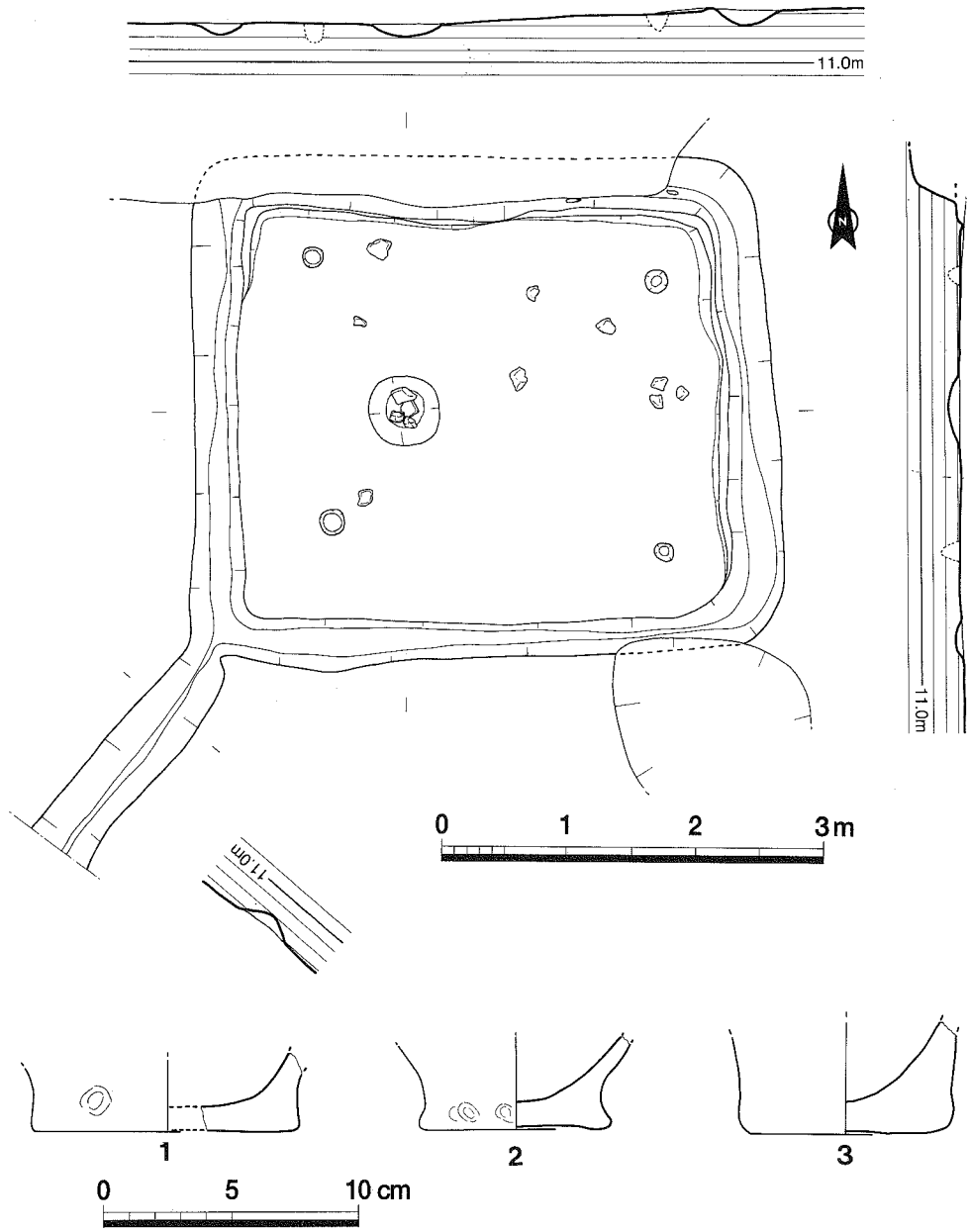
5) 5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8, 19, 圖版 11, 12)

1호 주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복부분이 후대의 교란에 의해 양자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방형의 주거지(5-1호)와 外廓周溝 그리고 외곽주구와 인접하여 소형 수혈(5-2호)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5-1호의 규모는 길이 410cm, 폭 340cm이며, 장축 방향은 N81°E이다. 외곽주구는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동쪽부분은 조사범위를 벗어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圖面 18. 5-1號, 5-2號 住居址(1/120)



圖面 19. 5-1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3)

5-1호는 壁溝가 四壁에 걸쳐서 둘러져 있다. 벽구 내부에서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爐址는 주거지 상면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별다른 시설없이 바닥을 파고 시설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잡석과 함께 토기의 저부편이 거꾸로 박힌 채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닥은 화력에 의해 燒土化되어 붉게 변색, 硬化되어 있다.

한편 직경 20cm, 깊이 15cm정도의 주혈이 각 모서리에 하나씩 총 4개가 확인되어 4주식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5-2호는 外廓周溝에서 서쪽으로 40cm가량 떨어져 있는데 특별한 시설이 없는 방형의 수혈유구이다. 규모는 길이 200cm, 190cm, 깊이 15cm이며, 내부에서 丹塗磨研土器 및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배치와 규모를 통해 5-1호의 부속시설로 판단된다.

外廓周溝는 대부분 남서쪽으로 약 1/4정도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삭평되고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규격은 알 수 없으며, 규모로 보아 4호 주거지의 外廓周溝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遺物은 5-1호의 壁溝內에서 무문토기 저부 및 석기류가 출토되었으며, 5-2호에서 丹塗磨研土器와 無文土器가 출토되었다. 外廓周溝에서도 無文土器片이 수습되었으나 기형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특별한 문양이 있는 것도 없어 설명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遺物

① 5-1號 出土遺物

圖面 19-1(圖版 29-1)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저부의 내·외면 모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9.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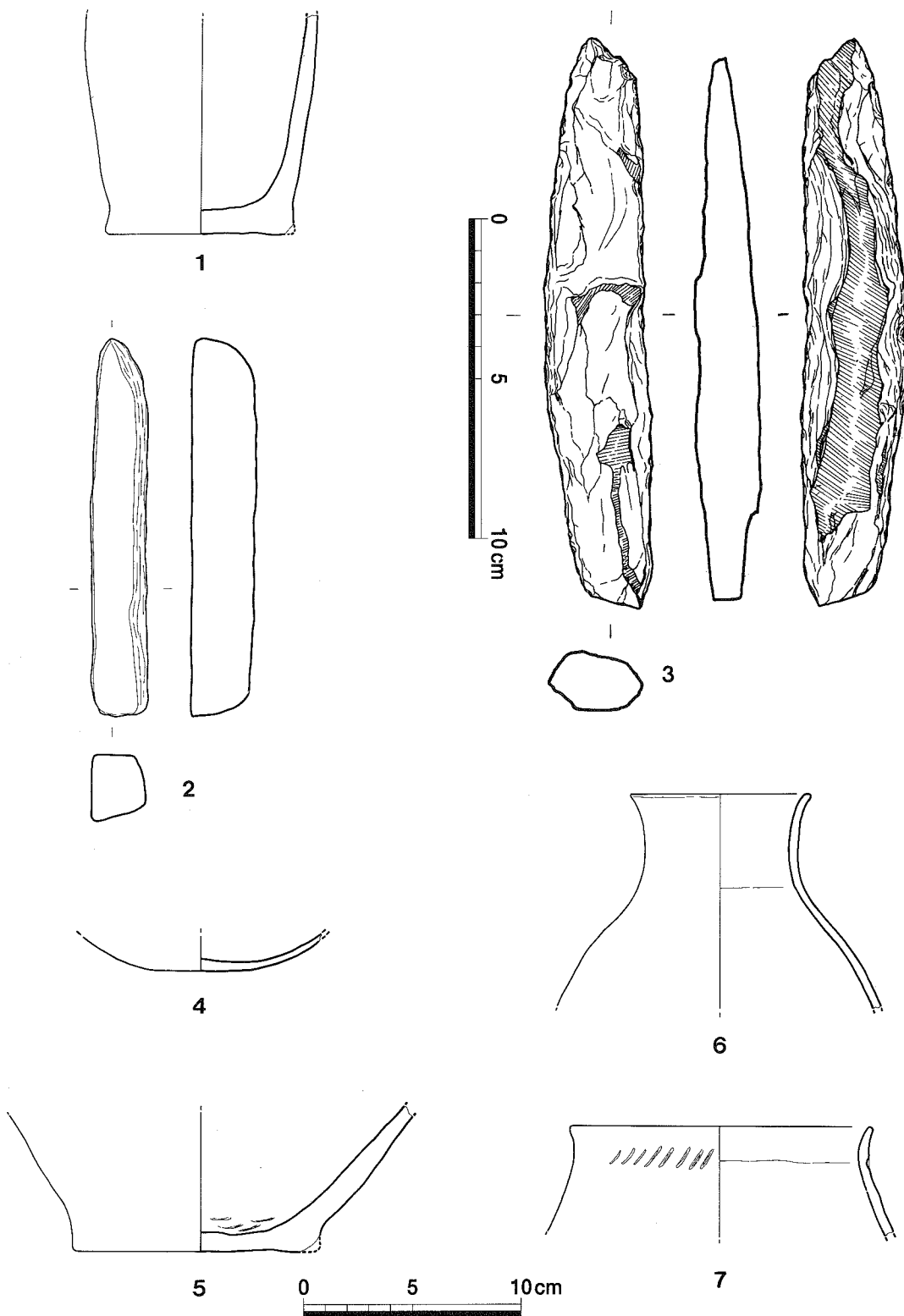
圖面 19-2(圖版 29-2)는 暗黃色의 無文土器 底部로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위에 지두흔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6cm, 底徑 7.3cm이다.

圖面 19-3(圖版 29-3)은 無文土器 底部이며,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黃褐色을 띠고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5cm, 추정저경 7.8cm이다.

圖面 20-1(圖版 29-5)은 無文土器 底部 및 동체 일부이다. 잔존상태로 보아 鉢形土器로 추정된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외면 黃褐色, 내면 적갈색이다. 내면에 지두흔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는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4cm, 추정저경 8.2cm이다.

圖面 20-2(圖版 29-7)는 세립사암제의 砥石으로 暗黃色이다. 한쪽 면에만 마연흔이 잔존하고 있다. 길이 17.8cm, 너비 2.0cm, 두께 2.9cm이다.

圖面 20-3(圖版 29-8)은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片 石器이다. 색조는 灰黑色이며, 형태는 細長方形을 띤다. 형태상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길쭉한 형태의 양날을 가진 石刀의 형태를 띤 것으로 추정된다. 기면은 날을 세우기 위해 타격한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는 마연하였다. 길이 17.9cm, 너비 3.0cm, 두께 2.0cm이다.



圖面 20. 5-1號(1·2 : 1/3, 3 : 1/2), 5-2號(4~7 : 1/3) 住居址 出土遺物

② 5-2號 出土遺物

圖面 20-4(圖版 29-4)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바닥이 둥근 圓低이다. 내·외면 모두 灰黃色을 띠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8cm, 底徑 4.5cm이다.

圖面 20-5(圖版 29-6)는 황갈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동체부에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6.8cm, 底徑 9.4cm이다.

圖面 20-6(圖版 29-9)은 丹塗磨研土器 口緣部片이다. 내면에는 표면박리로 인하여 赤黃色을 띠며, 외면은 丹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0.0cm, 추정구경 8.2cm이다.

圖面 20-7(圖版 29-10)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외면 회갈색, 내면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5.0cm, 추정구경 14.3cm이다.

6) 6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21, 圖版 13, 14-1)

1호 溝와 5호 주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6호 주거지는 유적내에서 유일하게 外廊周溝가 없는 형태이다. 규격은 장축이 920cm, 단축 720cm이며, 상부의 유실이 심하여 겨우 상면만을 확인하였는데 유구의 굴광선은 벽구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4면에 전체적으로 壁溝가 둘러진 상태이다. 장축방향은 N5°W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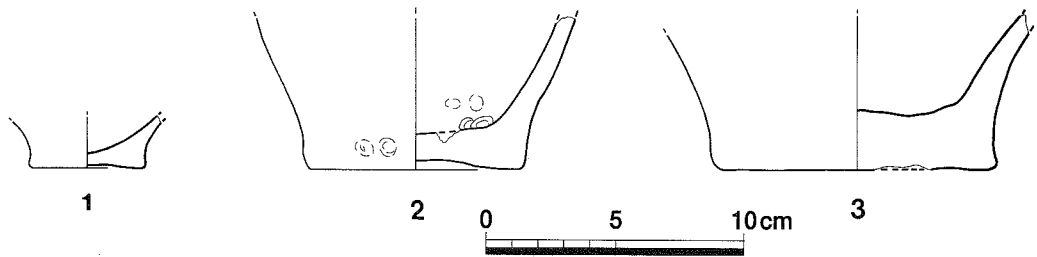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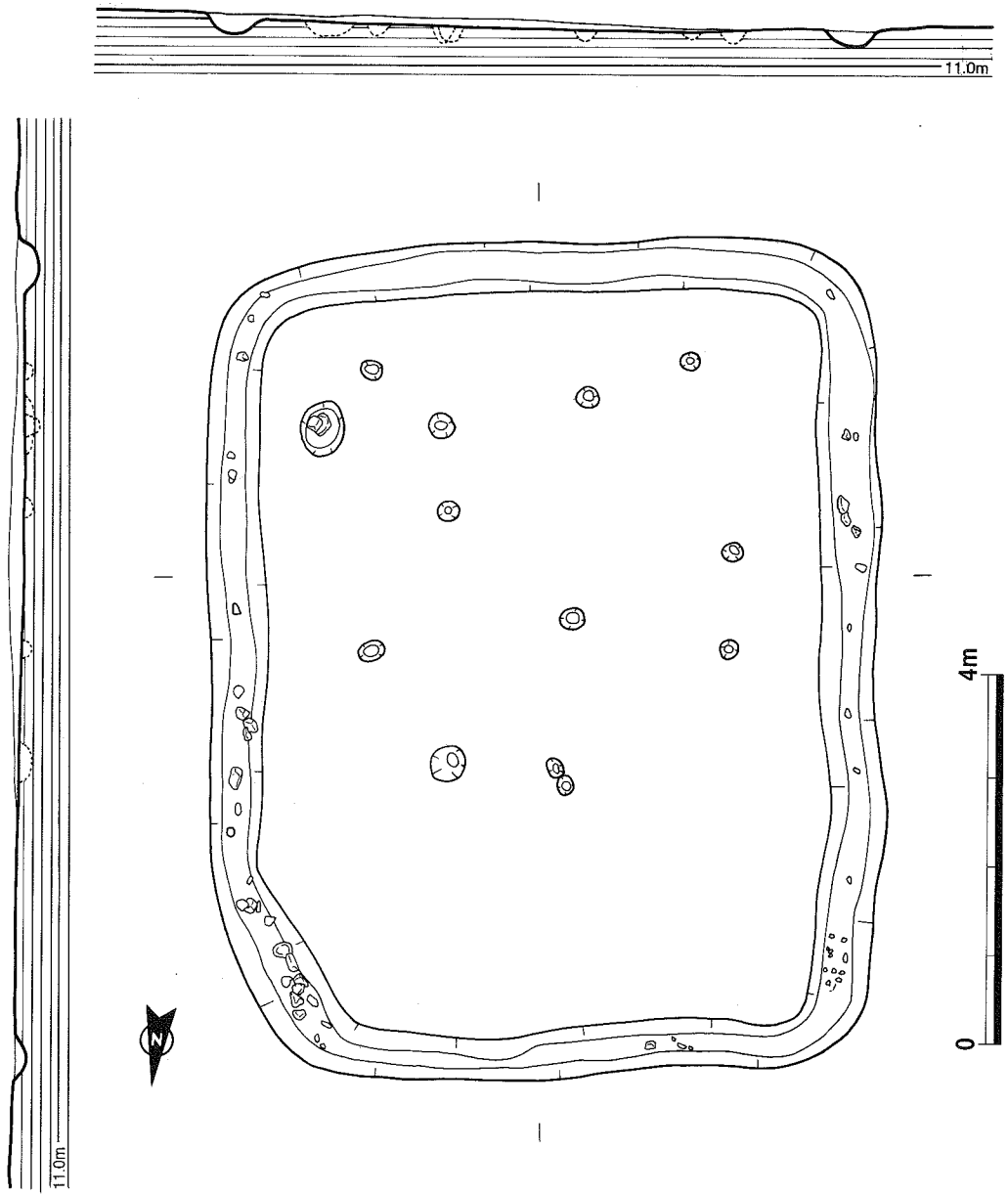
주거지 바닥에는 柱穴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특별한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壁溝의 규모는 폭 60cm, 깊이 20~25cm정도이며, 방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외부로 빠지는 溝는 없다. 내부에서 無文土器 底部와 口緣部片이 출토되었다.

6호 주거지는 유적내의 다른 주거지와 달리 爐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구의 규모가 다른 遺構에 비하여 대형이라는 점 등에서 일단 일반적인 주거공간이 아닌 집단내의 공동시설로 추정된다.

遺構의 床面까지 파괴된 상태로 인해 無文土器 底部 및 口緣部와 石器 등의 유물은 전부 壁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圖面 21-1(圖版 29-11)은 황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부분적으로 黑斑이 잔존한다. 소성은 보통이며,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했다. 저부 외면에는 지두흔



圖面 21. 6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80, 遺物 : 1/3)

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0cm, 추정저경 4.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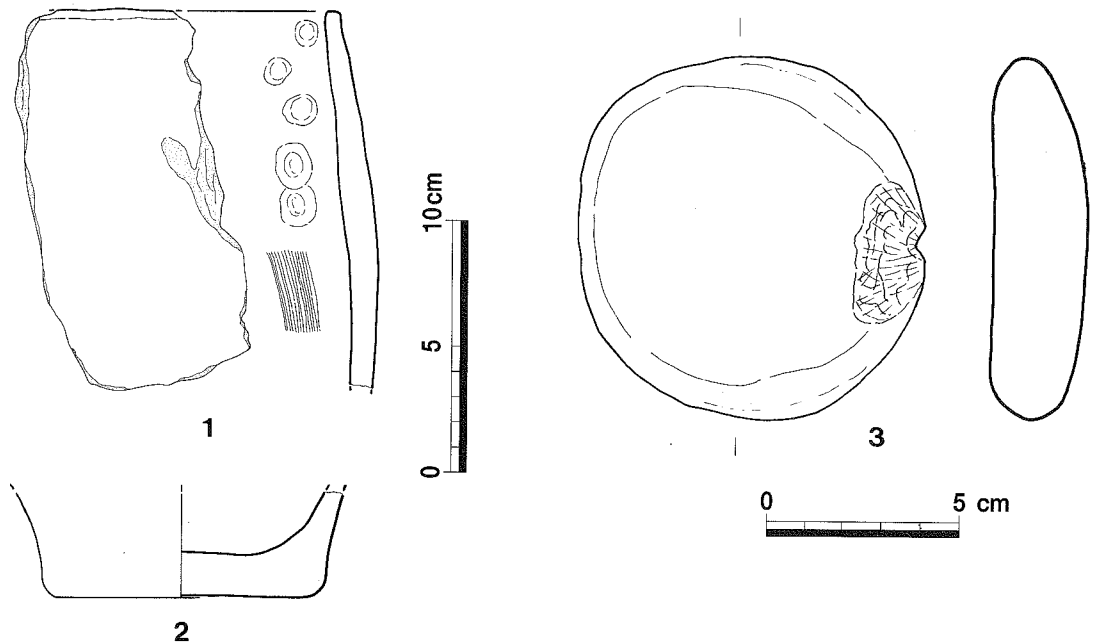
圖面 21-2(圖版 29-12)는 적황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의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6.1cm, 底徑 8.2cm이다.

圖面 21-3(圖版 29-13)은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았다. 잔존높이 6.2cm, 底徑 10.4cm이다.

圖面 22-1(圖版 29-14)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외면 흑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동체부 일부에는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잔존한다. 잔존높이 15.1cm이다.

圖面 22-2(圖版 30-2)는 암갈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장식 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4.2cm, 底徑 9.9cm이다.

圖面 22-3(圖版 30-1)은 형태상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세립사암제의 石器이다. 평면이 둥근 원형이며,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전체적으로 마연한 듯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타격흔이 남아 있다. 길이 9.6cm, 너비 9.0cm, 두께는 2.5cm이다.



圖面 22. 6號 住居址 出土遺物(1·2 : 1/3, 3 : 1/2)

2. 周溝

蓮岩洞遺蹟에서 확인된 周溝는 모두 3기이며, 그 형태는 1~5호 住居址의 외곽에 평면 형태가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溝와 외형상으로 거의 동일하며, 규모나 溝 내부의 토층 양상 또한 비슷하게 나타난다. 내부에 주거지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周溝의 성격에 대해서는 첫째, 周溝를 먼저 만든 다음, 내부에 주거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상징할 수 있으며, 둘째 완성된 주거지가 삭평되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 또 하나는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시설이 아니고 周溝 자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완성된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볼 때 첫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1) 1號 周溝

가. 遺構(圖面 23, 圖版 14-1, 2)

5호 주거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遺構의 절반가량은 조사범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확인되는 규모는 지름 10m, 폭 80~110cm, 깊이 15~20cm정도이다. 5호 주거지와는 간접적으로 중복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부의 유실이 심해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周溝 안쪽으로 관련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住居址에 딸린 外廓周溝와는 차이가 있지만 규모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일단은 동일한 기능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구내의 출토유물은 無文土器 底部 1점과 口緣部片 1점이 있다.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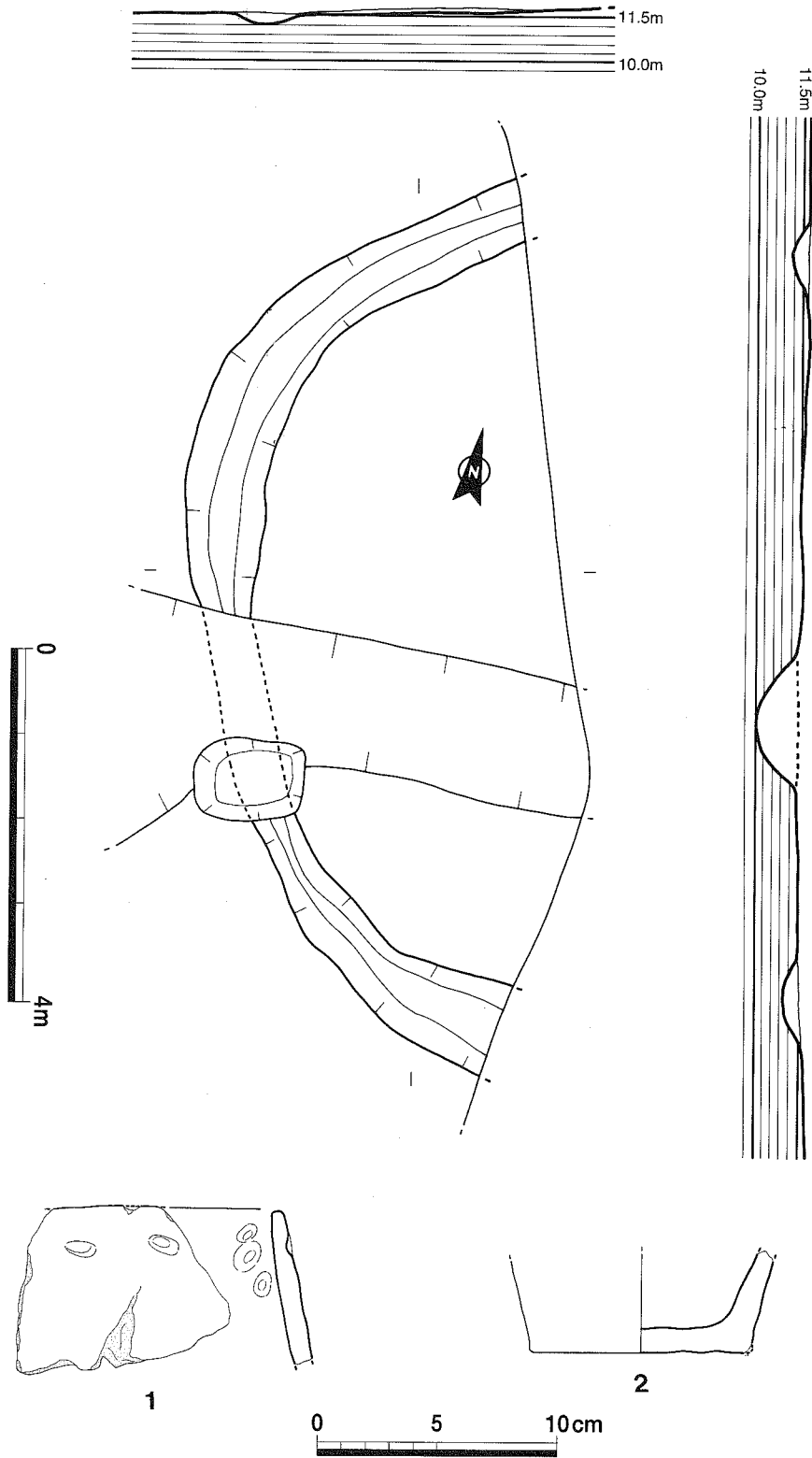
圖面 23-1(圖版 30-3)은 적갈색의 橫線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에서 1.5cm아래에는 지름 1.3cm, 너비 0.7cm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7.0cm이다.

圖面 23-2(圖版 30-4)는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로서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0cm, 추정저경 8.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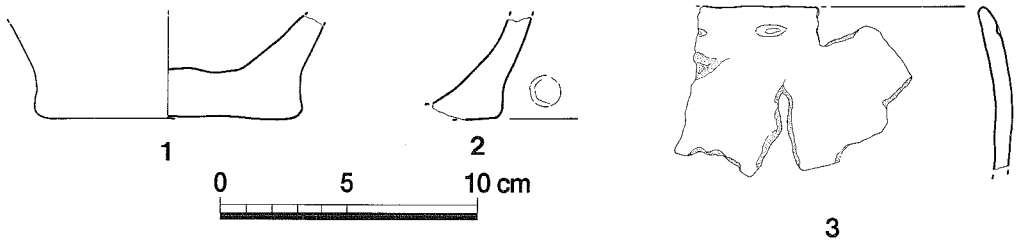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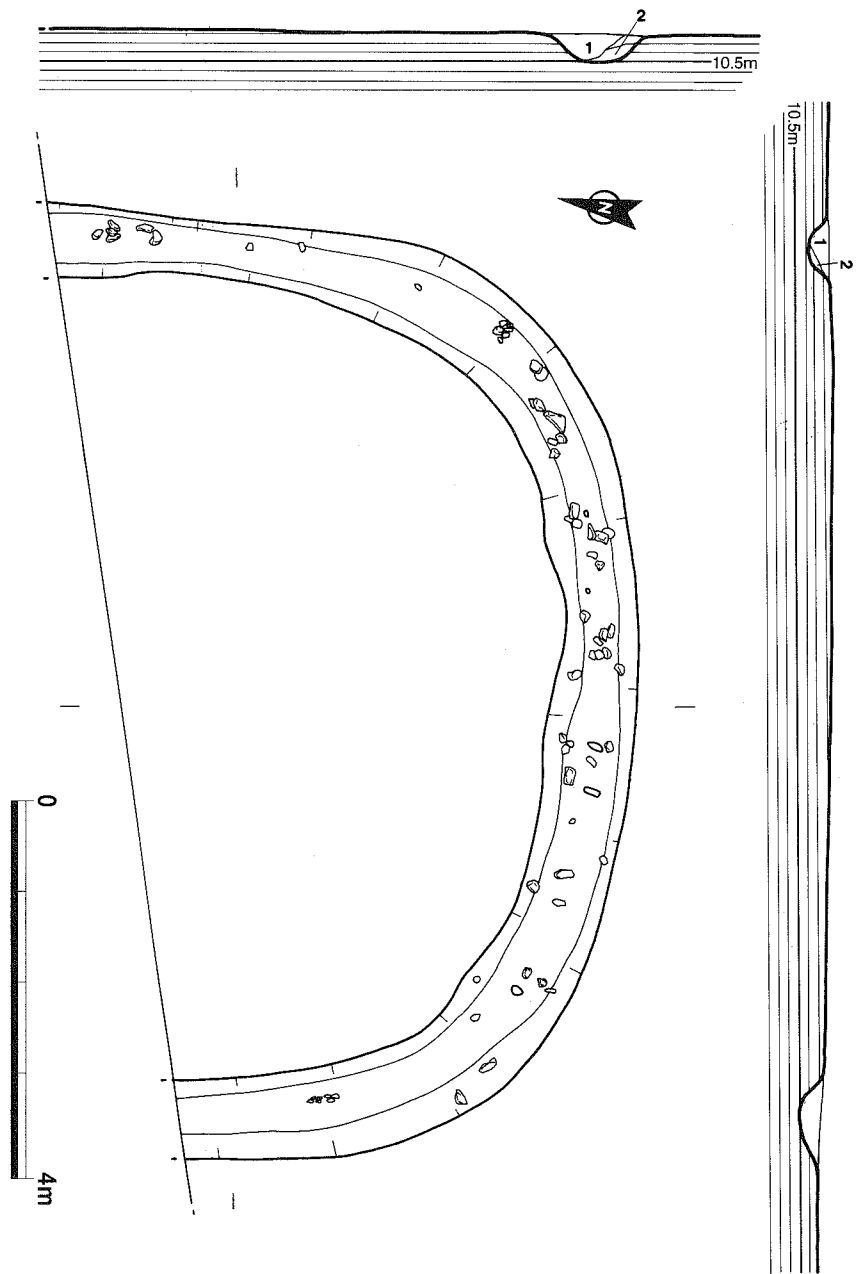
2) 2號 周溝

가. 遺構(圖面 24, 圖版 15-1, 2, 3)

4호 住居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유구에 비해 상부의 유실이 비교적 적은



圖面 23. 1號 周溝와 出土遺物(遺構 : 1/80, 遺物 : 1/3)



圖面 24. 2號 周溝와 出土遺物(遺構 : 1/80, 遺物 : 1/3)

편이다. 유구의 절반은 조사범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잔존하고 있는 형태를 통해 전체가 원형으로 돌아가는 周溝임을 알 수 있다. 규모는 지름1,000cm, 폭 70~100cm, 깊이 15~30cm이다.

1호 주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周溝만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周溝의 내부에는 잡석들과 유물이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출토유물로는 無文土器 口緣部片과 蛤刃石斧, 魚網錘 등이 확인되었다.

나. 遺物

圖面 24-1(圖版 30-5)은 내·외면 橙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저부의 1/2정도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0cm, 추정저경 10.3cm이다.

圖面 24-2(圖版 30-6)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 회흑색, 내면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0.2cm가량의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底部의 외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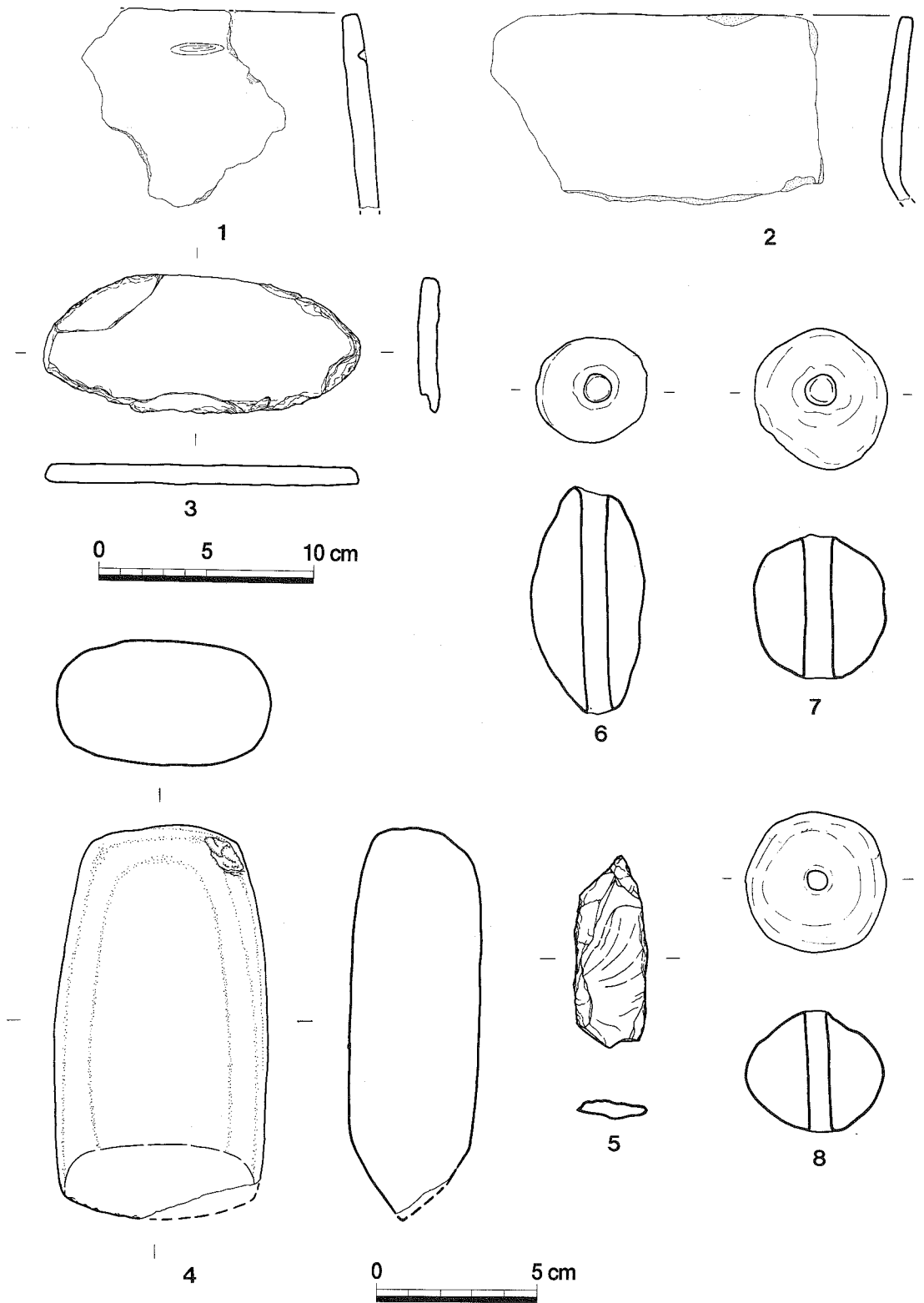
圖面 24-3(圖版 30-7)은 내·외면 황적갈색의 橫線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잔존상태로 보아 발형토기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바로 아래에 길이 1.2cm, 폭 0.4cm, 깊이 0.2cm가량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외면은 물손질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6.8cm이다.

圖面 25-1(圖版 30-9)은 橫線文土器의 口緣部片으로 잔존형태로 보아 심발형토기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내면 적갈색, 외면 황적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기면의 내·외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며, 구연단 아래 1.8cm 지점에는 지름 2.5cm, 깊이 0.4cm가량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9.3cm이다.

圖面 25-2(圖版 30-8)는 壺形 無文土器의 口緣部片으로 내·외면 모두 황색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지름 0.2~0.3cm가량의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9.1cm이다.

圖面 25-3(圖版 30-10)은 未完成 石器이다. 전체적인 틀을 잡고 날을 세우기 위해 타격한 흔적이 확인되며,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질은 판암이며, 재질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결이 지나간다. 길이 14.8cm, 너비 6.5cm, 두께 0.9cm이다.

圖面 25-4(圖版 31-1)은 화강암제의 蛤刃石斧로 刃部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원형이다. 주구의 남쪽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어 있으며, 刃部에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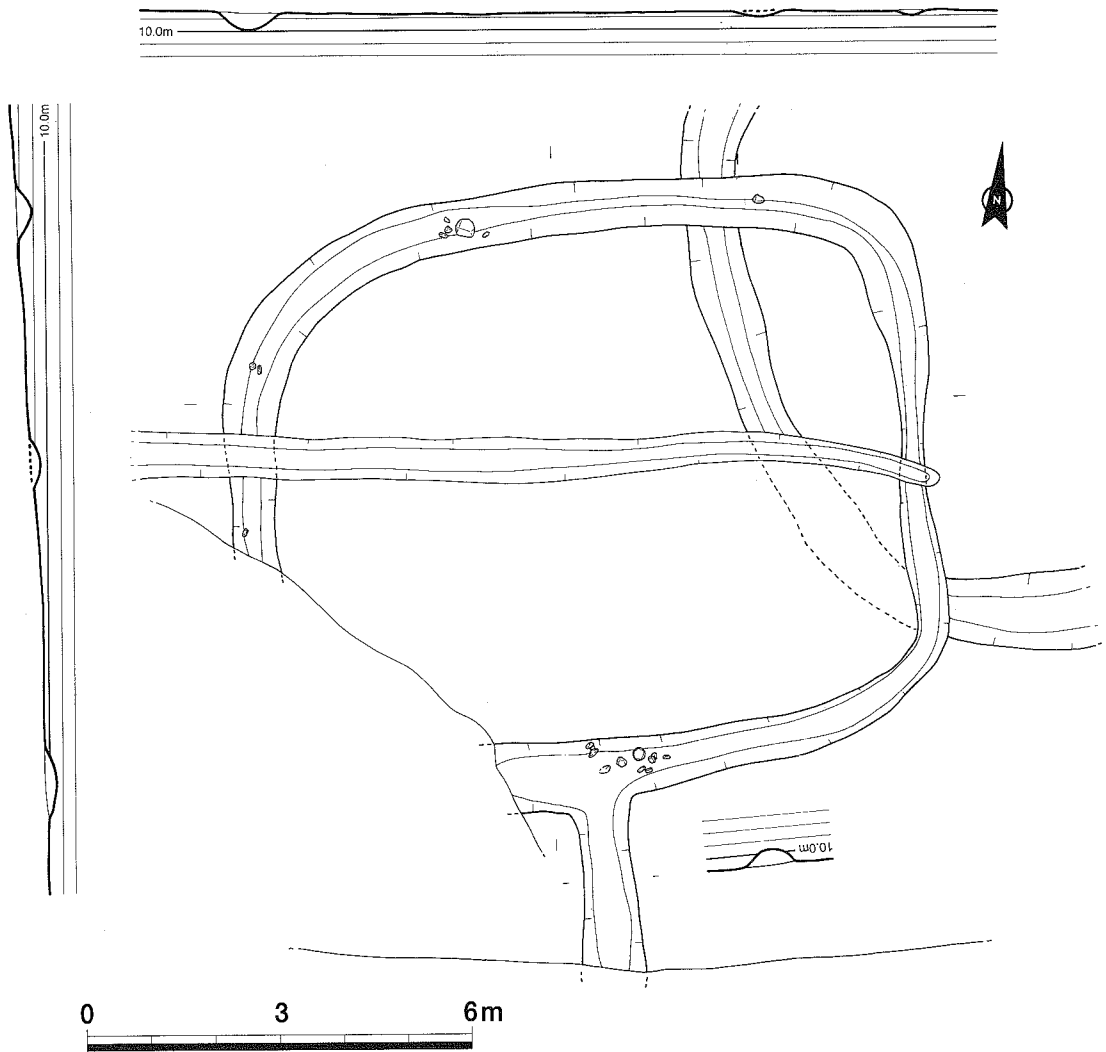


圖面 25. 2號 周溝 出土遺物(1~3 : 1/3, 4~8 : 1/2)

흔이 확인된다.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12.4cm, 너비 6.7cm, 두께는 4.0cm이다.

圖面 25-5(圖版 30-14)는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단면은 장타원형, 장축의 좌우를 타격하여 날카롭게 날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이 6.1cm, 너비 2.0cm, 두께 0.7cm이다.

圖面 25-6(圖版 30-11)은 황갈색의 魚網錘로서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길이 6.1cm, 너비 3.4cm, 구멍지름 0.8cm이며, 중량은 74.6g이다.



圖面 26. 3號 周溝(1/120)

圖面 25-7(圖版 30-13)은 魚網錘로 完형이다.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길이 4.6cm, 너비 4.2cm, 구멍지름 0.9cm이며, 중량은 83.9g이다.

圖面 25-8(圖版 30-12)은 土製 魚網錘이다. 황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길이 3.8cm, 너비 4.5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66.5g이다.

3) 3號 周溝

가. 遺構(圖面 26, 圖版 15-4, 5, 6)

1호 住居址의 外廓周溝를 일부 파괴하면서 만들어졌다. 평면형태는 4호 주거지의 외곽 주구와 비슷한데 타원형의 溝에서 외부로 빠지는 溝가 달린 형태이다. 남서쪽은 최근의 경작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또한 내부에는 중앙으로는 최근의 경작과 관련된 溝가 관통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1호 주거지의 외곽주구가 지나가고 있어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外廓周溝의 형태만을 본다면 주거지에 딸린 주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련시설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으나 별다른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작업이 중지된 상태인지 아니면 완성된 형태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설인지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최대지름 1,090cm, 최소지름 1,000cm이며, 周溝의 폭은 80cm내외이며, 최대깊이는 30cm이다. 출토유물은 溝 내부에서 無文土器片이 다수 수습되었으나 특별한 문양이나 기형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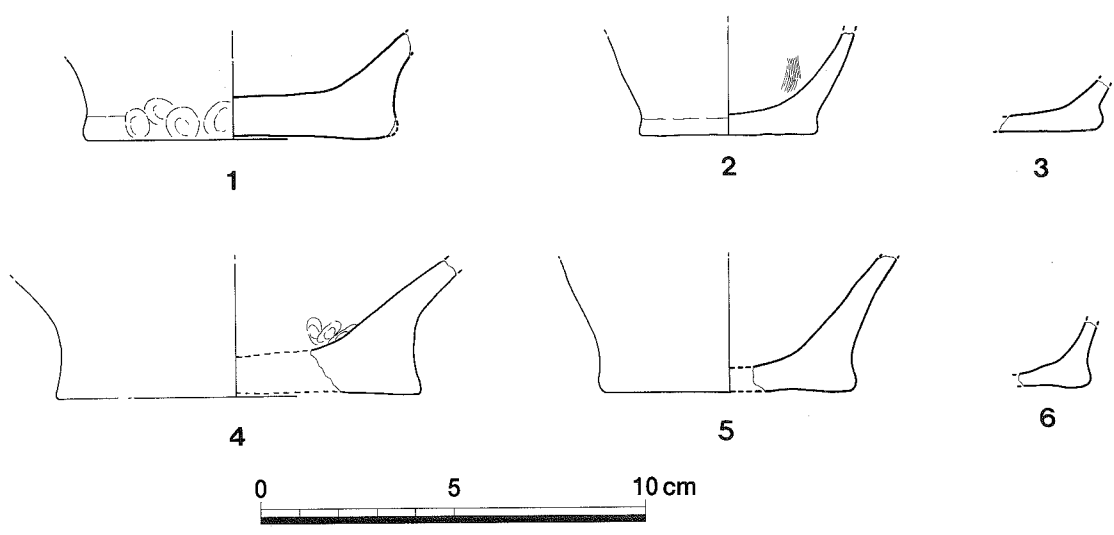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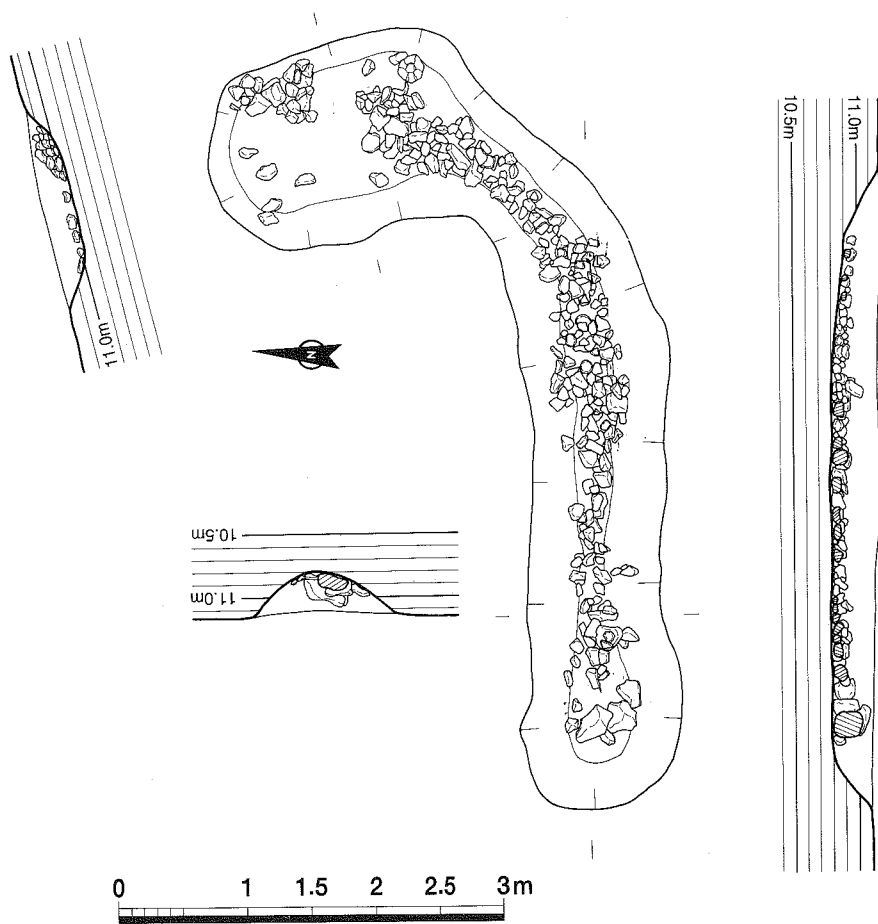
3. 溝

유적내에서 溝의 형태를 띠는 遺構는 靑銅器時代 14기, 三國時代 1기 등 총 15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溝는 평면형태는 직선인 것과 내부에 잡석과 유물이 혼재되어 있는 부정형의 溝, 住居址의 壁溝시설처럼 ‘ㄷ’자상의 것 등이 있으며, 삼국시대의 溝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된 대규모의 직선상 溝이다.

1) 1號 溝

가. 遺構(圖面 27, 圖版 16-1, 2, 3)

해발 11.5m선상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6호 주거지가, 동쪽으로는 1호 주구가 위치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평면형태는 ‘ㄱ’字狀이며, 방향은 N5°E이고 규모는 길이 750cm, 폭 100~160cm, 깊이 35~40cm이다. 내부에는 할석들이 무문토기편과 혼재되어 쌓



圖面 27. 1號 溝外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3)

여 있었다.

이 溝는 구조상으로 높은 곳인 북쪽과 낮은 곳인 남쪽의 깊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자연적인 排水는 어려운 구조이다. 溝의 내부에는 할석과 유물이 의도적으로 폐기된 흔적이 확인된다. 자세한 용도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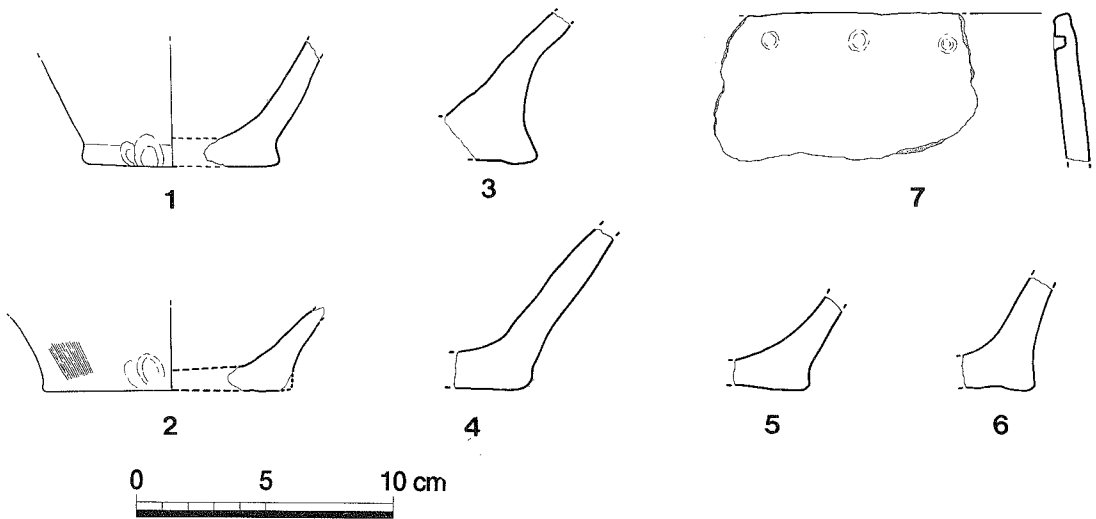
나. 遺物

圖面 27-1(圖版 31-2)은 赤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1/2가량만이 잔존한다. 소성은 양호하며,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박리된 상태이나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위에 굽을 세우기 위해 축약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4.0cm, 추정저경 12cm이다.

圖面 27-2(圖版 31-8)는 無文土器 底部로 저부 및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 등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나 기면의 내·외면에는 목리조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는 4.0cm, 추정저경 6.8cm이다.

圖面 27-3(圖版 31-3)은 底部의 일부만 잔존하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장석, 운모가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1.9cm이다.

圖面 27-4(圖版 31-6)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1/3가량과 동체 일부만이 잔존한다. 내면 적갈색, 외면 연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의 바닥에 지두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5.0cm, 추정저경 10.2cm이다.



圖面 28. 1號 溝 出土遺物(1/3)

圖面 27-5(圖版 31-7)는 내면 황색, 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이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5.5cm, 추정저경 9.9cm이다.

圖面 27-6(圖版 31-4)은 일부만 잔존하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외면 황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잔존높이 1.9cm이다.

圖面 28-1(圖版 31-13)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1/2가량과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내면은 목리조정후 물손질정면하였으며, 저부와 동체부 접합부위에 지두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7.7cm이다.

圖面 28-2(圖版 31-12)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저부의 1/3가량만 잔존한다. 외면 적황색, 내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나 저부 일부에 지두흔과 물손질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3.3cm, 추정저경 8.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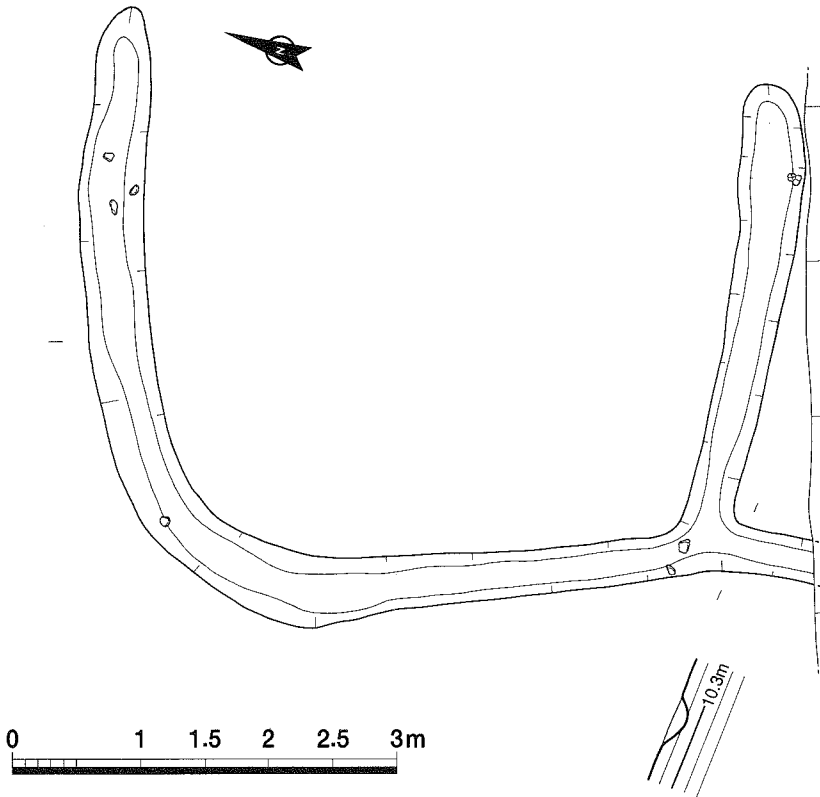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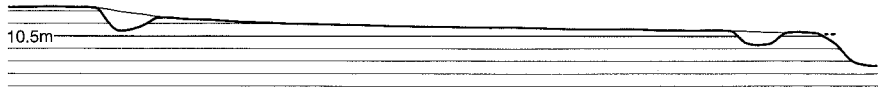
圖面 28-3(圖版 31-10)은 底部와 胴體部 일부가 잔존하는 無文土器 底部로 저부의 1/3가량만 잔존한다. 내·외면 橙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器面의 내·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9cm이다.

圖面 28-4(圖版 31-5)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담황색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과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잔존높이 6.5cm이다.

圖面 28-5(圖版 31-9)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8cm이다.

圖面 28-6(圖版 31-11)은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4cm이다.

圖面 28-7(圖版 31-14)은 孔列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면 황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바로 아래에는 지름 0.5cm가량의 孔列文이 2.5~2.7cm의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5.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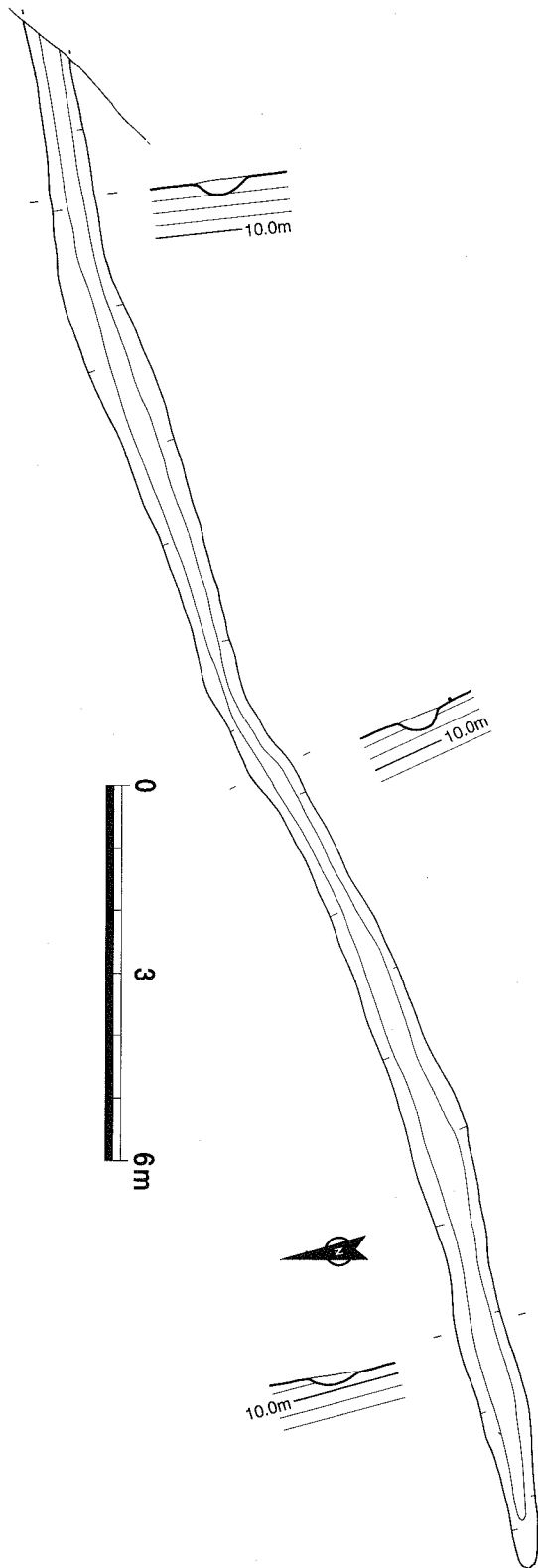
圖面 29. 2號 溝(1/60)

2) 2號 溝

가. 遺構(圖面 29, 圖版 16-4)

6호 住居址와 2호 住居址 사이에 위치하며, 평면형태가 'U'字狀으로 나타나 구조상으로 볼 때 주거지의 壁溝와 비슷하다. 공간적인 위치 역시 주거지가 입지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그러나 溝 안쪽의 상면은 凹凸이 심해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 곤란하며, 柱穴이나 爐址 등의 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溝내부에서는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으며, 규모는 폭 50cm, 깊이 20~25cm이다.



圖面 30. 3號 溝(1/120)

3) 3號 溝

가. 遺構(圖面 30, 圖版 17-1,2)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사이를 지나 東-西로 길게 직선상으로 놓여있다. 단면은 'U'字狀이며, 장축방향은 N80° E이다. 서쪽의 끝부분은 자연 경사에 의해 유실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26.5m, 폭 70~90cm, 최대깊이 4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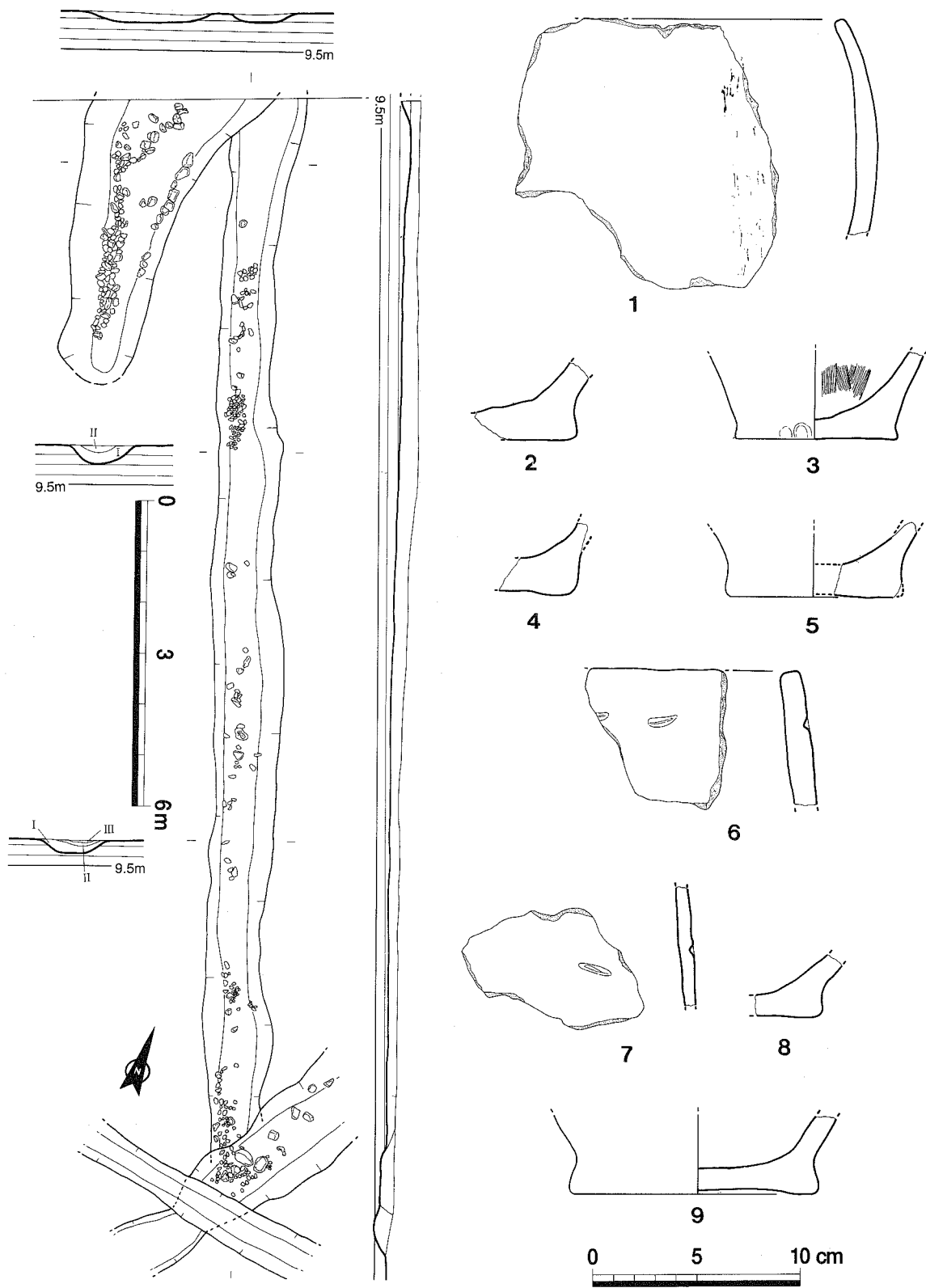
배치상으로는 주거공간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나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溝에 채워져 있는 내부토가 주거지의 내부토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주거지와 같은 시기의 것임이 분명하다. 내부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다.

4) 4號 溝

가. 遺構(圖面 31, 圖版 18)

溝가 밀집해 있는 유적의 서쪽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은 N18° W이다. 남북으로 길게 직선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쪽 부분은 13호 溝에 의해 훼손되었다. 13호 구에 의해 파괴된 부분에서 남쪽으로는 溝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까지가 4호 溝의 범위로 판단된다. 북쪽으로는 발굴조사경계지역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5호 溝에 의해 파괴되었다.

내부토는 3개층으로 구분된다. I층은 암황갈색토이며, 목탄 및 풍화암반이 혼입되어 있다. II층은 황갈색토이며, III층은 II층과 비슷하며, 부식이 심한 황갈



圖面 31. 4號・5號 溝外 出土遺物(遺構：1/120, 遺物：1/3)

색부식토이다. 溝의 바닥에는 부분적으로 할석들과 무문토기편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모두 생토면 위에 바로 나타나고 있어, 溝가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을 당시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확실한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돌무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0,5m, 폭 150~210cm, 최대깊이 50cm이다. 장축방향이 북-남으로 설치된 溝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溝 내부에 군데군데 모여 있는 할석들과 혼재되어 검출된 것들이다. 다량의 무문토기편이 검출되었으나 여기서는 기형을 알 수 있는 자료만을 도면화하였다.

나. 遺物

圖面 31-1(圖版 32-1)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박리로 인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13.8cm이다.

圖面 31-2(圖版 32-2)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가량만이 잔존한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운모, 장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은 지두흔이 관찰되나 외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9cm이다.

圖面 31-3(圖版 32-4)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정도만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석영, 장식, 운모를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면은 물손질정면하였으며, 저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5cm, 추정저경 7.9cm이다.

圖面 31-4(圖版 32-3)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5cm이다.

圖面 31-5(圖版 32-5)는 내·외면 橙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1/3가량만 남아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하기 힘들다. 잔존높이 3.8cm, 추정저경 8.6cm이다.

5) 5號 溝

가. 遺構(圖面 31, 圖版 18-1)

4호 溝와 6호 溝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4호 溝를 일부 파괴하면서 설치되어

있으며, 남쪽부분은 6호 溝와 중복되어 있는데 선후관계는 확실치 않다. 북쪽으로 계속 연장되어 있으나 조사범위를 벗어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방향은 N33° W이고 규모는 잔존길 570cm, 폭 150~320cm, 깊이 20~40cm이다.

내부에는 직경 10~20cm크기의 할석이 돌무지를 이루고 있으며, 4호 溝를 비롯한 다른 溝의 내부에 있는 할석 보다 비교적 큰 돌들이다. 無文土器片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 遺物

圖面 31-6(圖版 32-6)은 橫線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목리조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구연단 아래 2.7cm지점에 지름 1.3cm가량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6.9cm이다.

圖面 31-7(圖版 32-7)은 短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기벽이 얇은 편이다. 내·외면 橙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표면바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외면에 길이 1.8cm, 너비 0.4cm가량의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6.3cm이다.

圖面 31-8(圖版 32-9)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내·외면 모두 赤褐色을 띠며, 속심은 다양한 색조를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내·외면 모두 목리조정하였으며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3.0cm이다.

圖面 31-9(圖版 32-8)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淡黃色을 띤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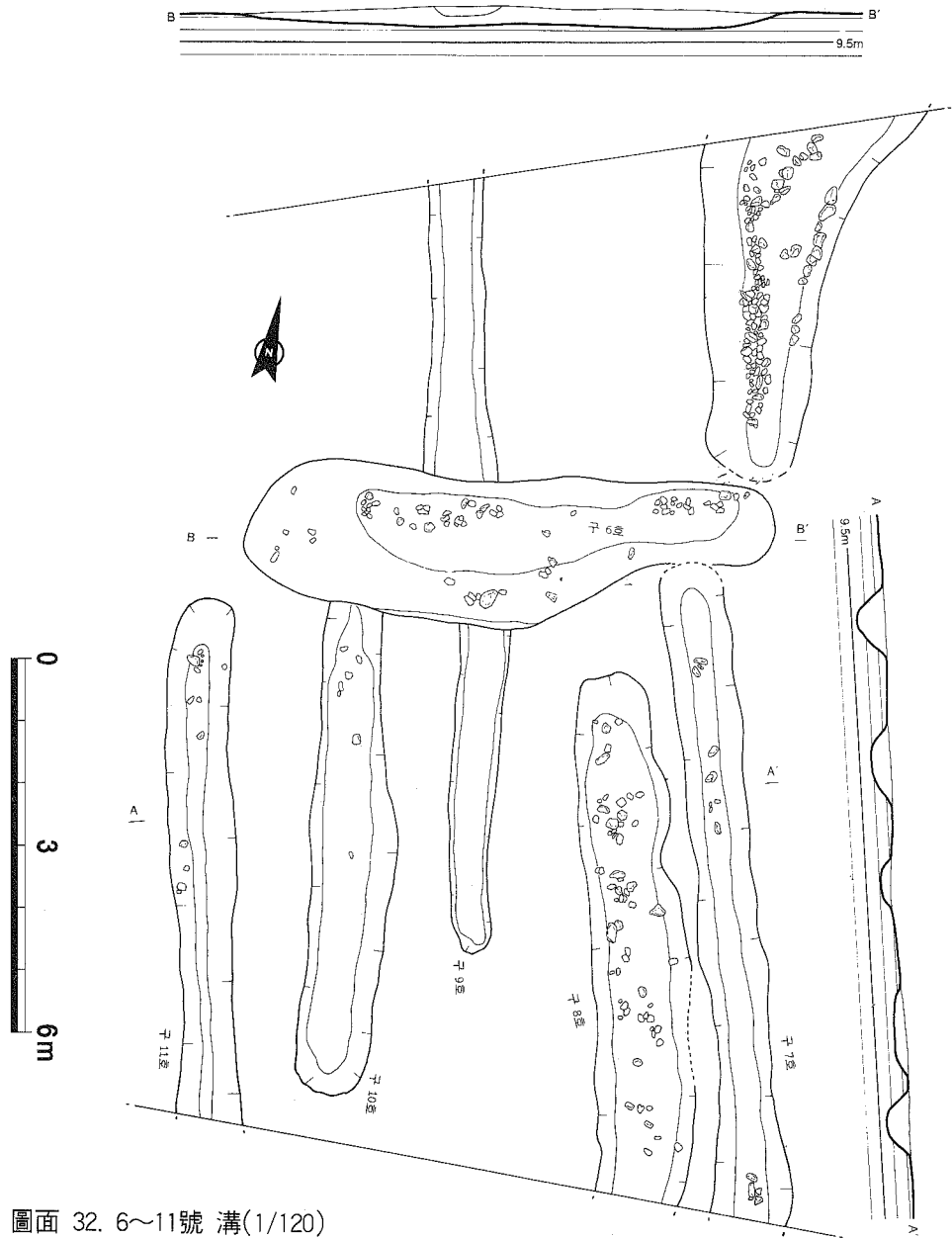
6) 6號 溝

가. 遺構 (圖面 32, 圖版 20-1)

溝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다른 溝의 장축방향과는 다르게 방향이 N79° E로 동-서 방향을 하고 있다. 9호와 10호 구를 파괴하고 설치되었으며, 5호, 7호 溝와는 간접적으로 중복되어 있으나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구의 내부는 황갈색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할석들이 군데군데 분포하고 있다. 5호나 4호 구처럼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토와 함께 유입되어 들어온 형태이다. 단면은 완만한 반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길이 840cm, 폭 120~230cm, 최대깊이 30cm이다.

출토유물은 無文土器片으로 기형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圖面 32. 6~11號 溝(1/120)

7) 7~11號 溝

가. 遺構(圖面 32, 圖版 20-1)

유적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7~11호 모두 평행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장축방향은 $N20^{\circ}-30^{\circ}E$ 정도이다. 단면형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U' 자상을 띠고 있다. 내부토도 모두 암황갈색토로 풍화암반이 혼입되어 있다.

7호 溝는 북쪽 부분이 6호와 맞물려 있으나 선후 관계는 불분명하며, 남쪽부분은 최근 가옥의 담장이 들어서 파괴되었다. 바닥은 골곡이 없이 평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1,800cm, 폭 92cm, 잔존깊이 20~40cm이며, 내부 퇴적토에 무문토기 저부편과 무문토기구연부편, 단사선문 토기편 등이 검출되었다.

8호 溝는 7호 溝의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부분은 7호와 마찬가지로 가옥에 의해 파괴되어 전체규모는 알 수 없다. 확인된 규모는 잔존길이 850cm, 폭 140cm, 잔존깊이 15~30cm이다. 출토유물은 短斜線文土器片, 魚網錘, 孔列文土器片, 無文土器 底部片 등이 있다.

9호 溝는 6호 溝에 의해 중간부분이 파괴되었으며, 북쪽으로는 발굴경계로 이어져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내부에는 암황갈색토가 채워진 것 외에 다른 溝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인 할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는 잔존길이 1,260cm, 폭 120cm, 잔존깊이 15~25cm이며, 출토유물로는 無文土器 底部 2점이 있다.

10호 溝는 북쪽부분이 6호 溝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9호 溝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북쪽의 끝부분이다. 7호~11호 溝 중에서 가장 짧다. 내부에서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으나 문양이나 기형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800cm, 폭 125cm, 잔존깊이 20~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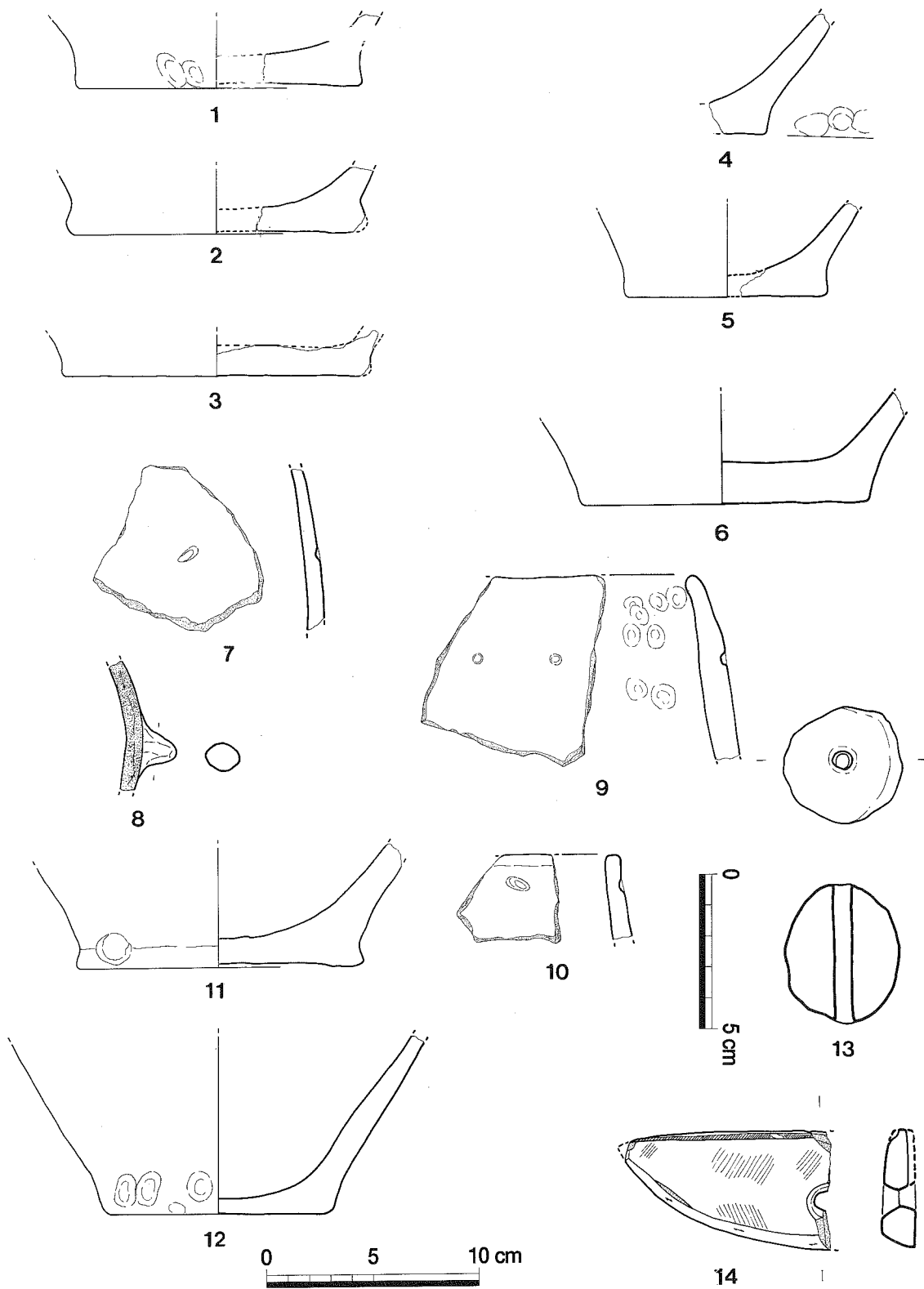
11호 溝는 유적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溝로 남쪽부분은 현대 가옥으로 인해 파괴되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내부에서 半月形石刀 1점과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소량 출토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840cm, 폭 100cm, 잔존깊이 40~50cm이다.

나. 遺物

圖面 33-1(圖版 32-10)은 내·외면 황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저부와 동체부 일부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5cm, 추정저경 13.4cm이다. 7호 溝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2(圖版 32-11)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일부만 잔존한다. 내면 황백색, 외면 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보이지 않는다. 잔존높이 3.2cm이다. 7호 溝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3(圖版 32-12)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만이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살필 수가 없으나 저부의 바닥에 희미하게 지두흔이



圖面 33. 6~11號 溝 出土遺物(1~13 : 1/3, 13·14 : 1/2)

확인된다. 잔존높이 2.0cm, 추정저경 14.1cm이다. 7호 溝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4(圖版 33-5)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가량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회황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의 박리가 심한 편이며, 외면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3cm, 잔존저경 1.8cm이다. 8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5(圖版 33-4)는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외면 모두 적갈색, 속심은 회황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과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2cm, 추정저경 9.2cm이다. 8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6(圖版 33-6)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장식, 석영, 운모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1cm, 추정저경 9.0cm이다. 8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7(圖版 33-2)은 8호 溝에서 출토되었으며 횡선문이 시문된 無文土器片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잔존형태로 보아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회흑색을 띠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외면에 길이 1.1cm, 너비 0.3cm가량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8.6cm이다.

圖面 33-8(圖版 33-7)은 8호 溝에서 출토된 無文土器 把手片이다. 꼭지형의 파수를 부착하였으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6.2cm이다.

圖面33-9(圖版 33-1)는 孔列文이 시문되어 있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 4.0cm 지점에는 끝이 둥근 시문구로 찍어 누른 듯한 형태의 공열문이 지름 0.6cm가량의 크기로 밖에서 안으로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9.3cm이다. 8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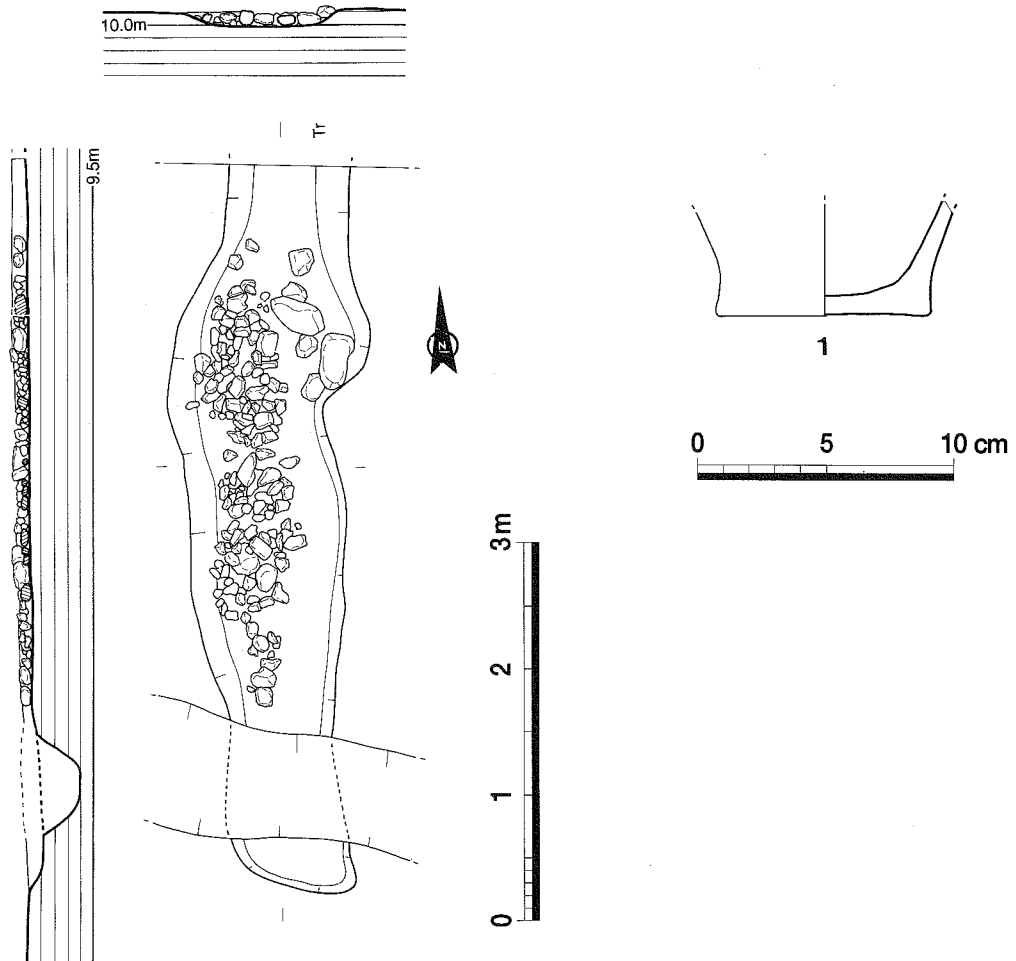
圖面 33-10(圖版 33-3)은 口緣部에 短斜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면 황갈색, 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 1.0cm지점에 길이 1.2cm, 너비 0.7cm가량의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4.1cm이다. 8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11(圖版 33-9)는 9호 溝에서 출토된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만이 잔존한다. 외면 회황색, 내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저부의 외면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9cm, 추정저경 13.6cm이다.

圖面 33-12(圖版 33-10)은 외면 적갈색, 내면 황적색의 無文土器 底部와 胴體 일부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장식 및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위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9.2cm, 底徑 10cm이다. 9號 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3-13(圖版 33-8)은 8號 溝에서 출토된 魚網錘로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길이 4.5cm, 너비 3.7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61.5g이다.

圖面 33-14(圖版 33-13)는 화강암제의 石刀로 11號 溝의 내부퇴적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1/2가량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短舟形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마연한 흔적이 관찰되며, 구멍은 2개 일 것으로 추정되나 1개만 남아 있다. 구멍의 형태는 양쪽에서 맞닿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잔존길이 6.4cm, 너비 3.8cm이다.



圖面 34. 12號 溝와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3)

8) 12號 溝

가. 遺構(圖面 34, 圖版 21-1)

13호 溝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방향은 N5°W이며, 유적의 서쪽 溝들과 장축방향이 비슷하다. 북쪽은 시굴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남쪽은 최근 발경작과 관련된 溝가 관통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쪽으로 13호를 지나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13호와 중복되는 어느 지점까지가 이 溝의 북쪽 끝으로 생각된다. 1호 溝에서 확인된 것처럼 溝의 양쪽 끝부분이 단힌 구조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할석들이 돌무지를 이루고 있으며, 유물도 같이 혼재하고 있다. 잔존 규모는 길이 580cm, 폭 120cm, 깊이 25cm이다. 출토유물은 無文土器 底部片 1점 외에 기형을 알 수 없는 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나. 遺物

圖面 34-1(圖版 33-11)은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외면은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4.6cm, 추정저경 8.2cm이다.

9) 13號 溝

가. 遺構(圖面 35, 圖版 21-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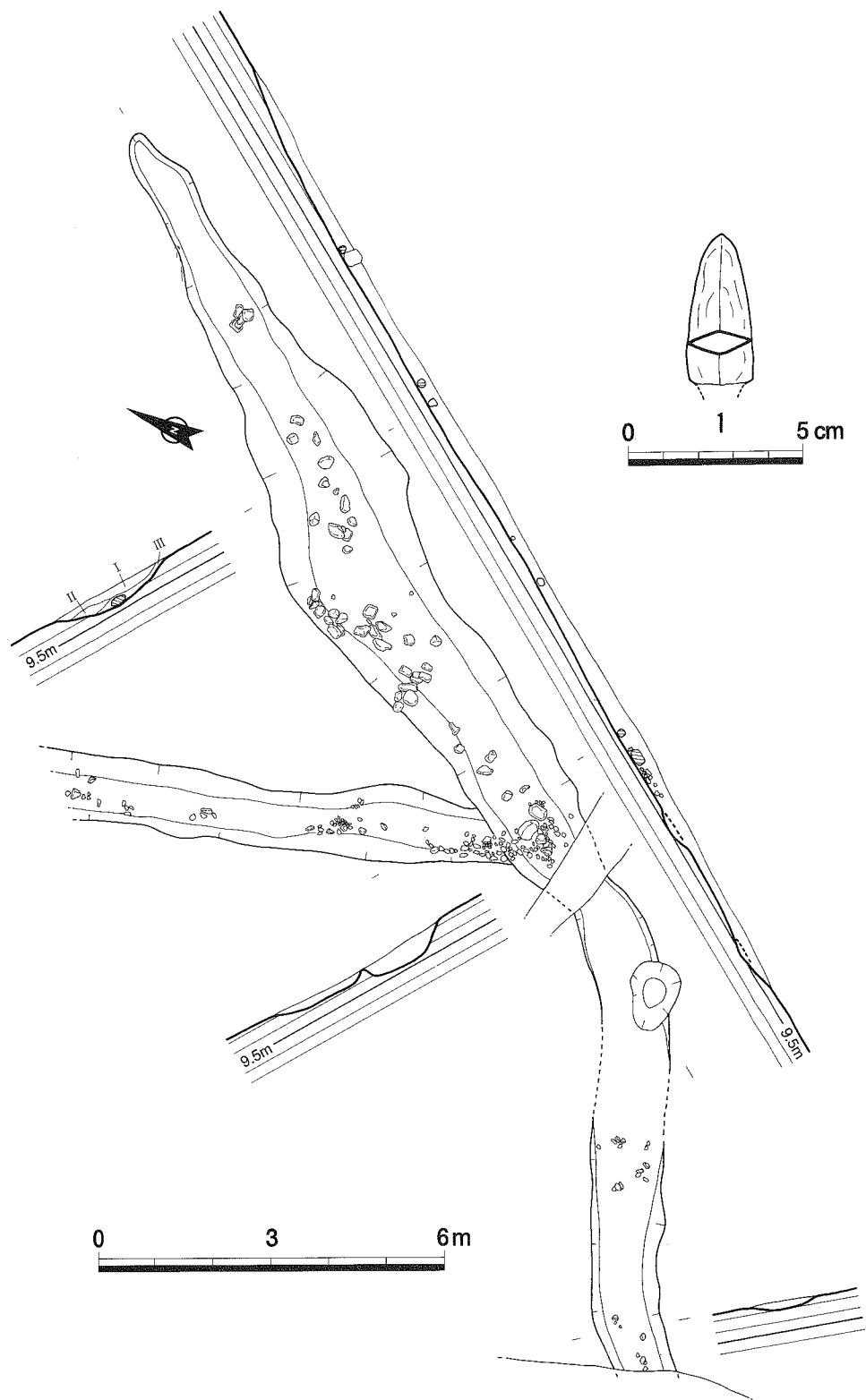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는 三國時代의 溝로 방향은 N36°E이다. 유구의 남쪽이 최근 가옥의 축조로 인해 파괴되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4호 溝와 12호 溝를 파괴하고 설치되어 있다. 중간 부분이 넓어지다가 좁아지는 부분에서 꺾이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2,420cm, 폭 100~250cm, 잔존깊이 30~50cm이다.

내부에는 청동기시대의 溝에서 보이는 황갈색토와 구성성분은 비슷하지만 부식이 심한 내부토로 채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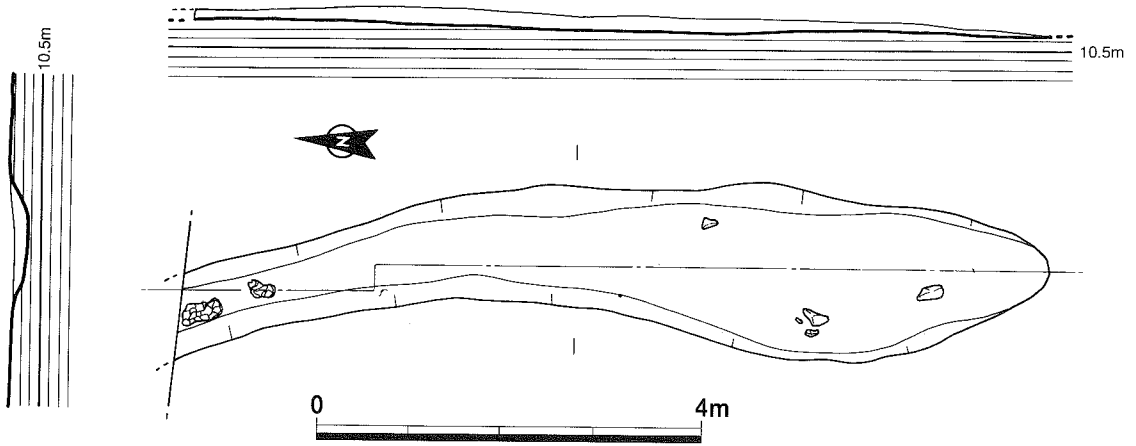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I, II층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陶質土器片이 수습되었으며, III층에서는 磁器片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溝가 시작되는 북쪽 끝부분에서 청동기시대의 石鏃이 1점 확인되었는데 溝 내부의 부식토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遺物

圖面 35-1(圖版 33-12)은 泥岩製의 有莖式 石鏃으로 身部の 단면형태는 菱形이다. 莖部는 결실되고 身部만 남아 있다. 회백색을 띠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13호 溝의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4.4cm, 너비 1.9cm, 두께 0.5cm이다.



圖面 35. 13號 溝와 出土遺物(遺構 : 1/120, 遺物 : 1/2)



圖面 36. 14號 溝(1/80)

10) 14號 溝(圖面 36, 圖版 14-3)

유적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시굴트렌치에 의해 일부 훼손되었고, 남쪽은 자연계곡에 의해 유실되었다. 잔존상태의 규모는 잔존장 900cm, 폭 100~180cm, 깊이 15cm내외이다. 내부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으로 관계된 시설물없이 溝 단독으로 남겨져 있다.

11) 15號 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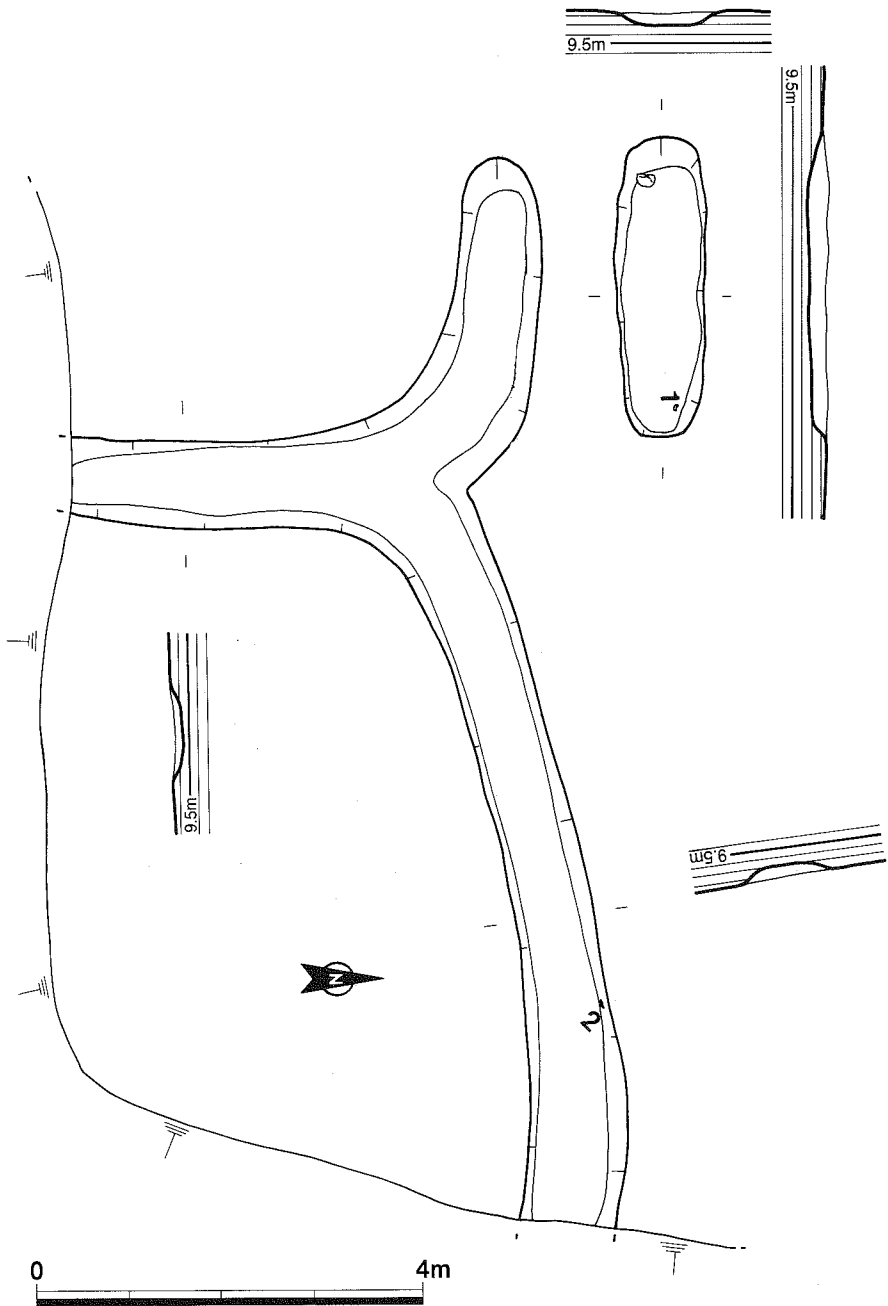
가. 遺構(圖面 37, 圖版 17-3, 4, 5)

3호 周溝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溝에 의해 동쪽 및 남쪽의 일부는 파괴되었다. 북쪽에 있는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인 수혈과 같은 유구로 생각되는데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다. 내부는 암황갈색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장타원형 수혈에서 반월형석도 1점, 부정형의 溝에서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장타원형수혈은 장축길이 320cm, 폭 90cm, 깊이 15~20cm이며, 부정형의 溝는 폭 80~120cm, 깊이 10~25cm이다.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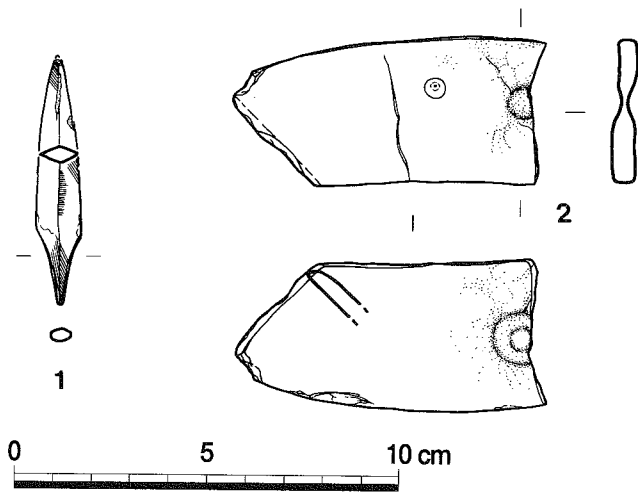
圖面 38-1(圖版 33-14)은 泥岩혼펠스製의 有莖式 石鏃으로 溝의 동쪽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위치 2이다. 유엽형의 석촉으로 身部の 단면은 菱形이며, 莖部 단면은 육각형을 띤다. 축신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圖面 37. 15號 溝(1/80)

6.5cm, 너비 1.2cm, 신부폭 4.5cm이며, 두께는 0.5cm이다.

圖面 38-2(圖版 33-15)는 화강암제의 未完成의 石刀이다. 잔존형태로는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나 미완성의 반월형석도로 추정된다. 기면에는 두 개의 구멍을 뚫으려한 흔적



圖面 38. 15號 溝 出土遺物(1/2)

4. 石列(圖面 3, 圖版 22-1)

15호 溝의 서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30~40cm 정도의 할석이 1열씩 2줄이 설치되어 있다. 유구의 남쪽은 유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계곡과 중복되어 있다. 자연계곡의 내부가 완전히 채워진 후 계곡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다음에 석열이 설치되었다. 이 자연계곡은 근대 이후에 완전히 채워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석열의 조성시기도 그 이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石列의 기능은 근대의 경작과 관련하여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경작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서 석열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석열의 길이는 석열1이 15m, 석열2가 18m이며, 石列1과 石列2 사이의 거리는 11.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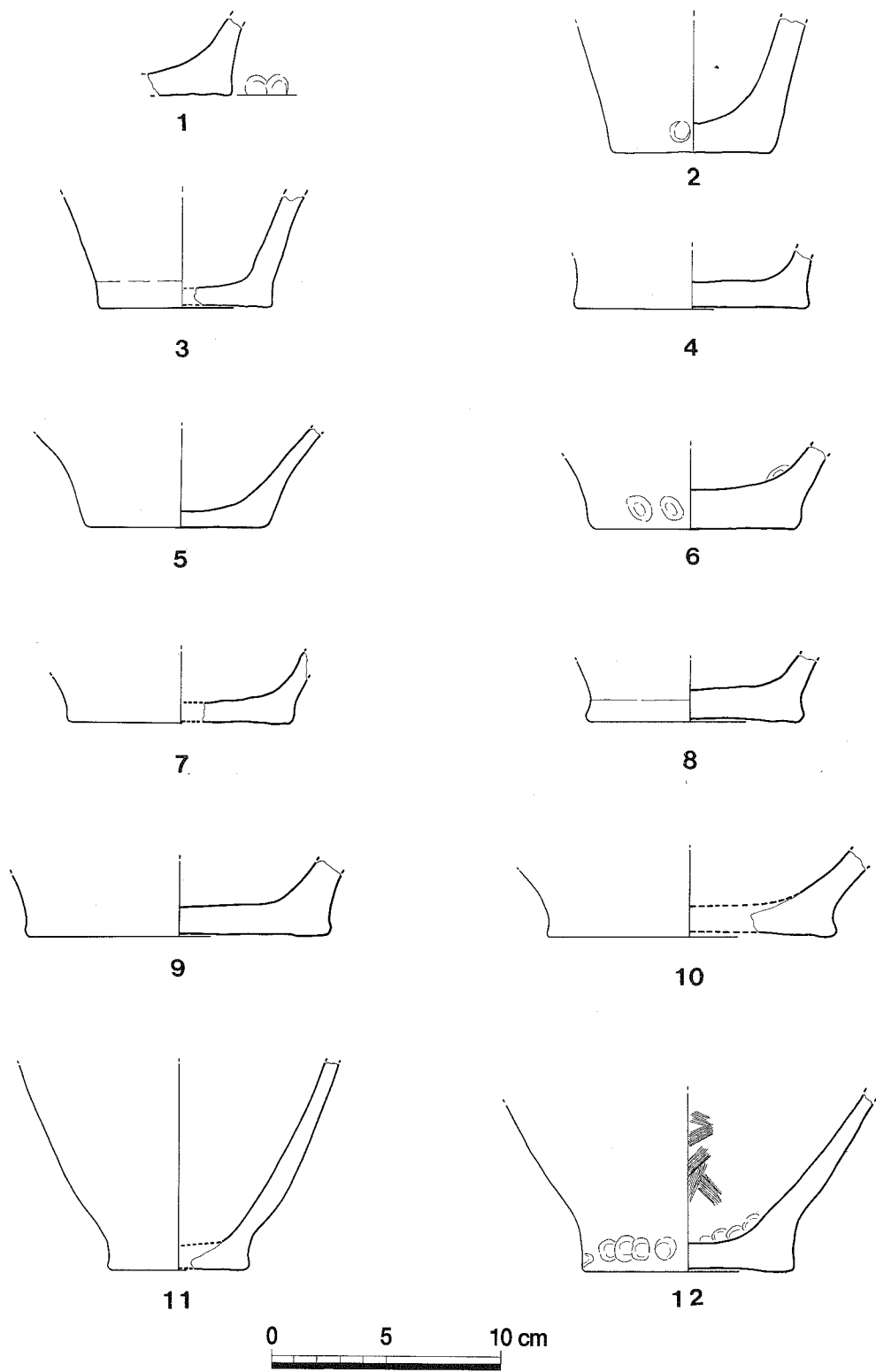
5. 地表採集 遺物

圖面 39-1(圖版 34-1)은 외면 흑갈색, 내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저부의 1/3정도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의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높이 3.5cm이다.

圖面 39-2(圖版 34-2)는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및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의 외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8cm, 추정저경 6.9cm이다.

圖面 39-3(圖版 34-3)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1/3정도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 적갈색, 내면 적황색을 띠며, 외면에는 부분적인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및 굵은 석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기면의 일부에는 물손질정

이 확인되는데 한쪽은 할비비를 이용하여 穿孔했던 흔적이 보이며, 다른 한쪽은 양쪽으로 쪼아서 뚫으려한 흔적이 확인된다. 석도의 외형은 아직 날을 세우지 않고 모양을 다듬는 단계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규모는 길이 8.2cm, 너비 4.0cm, 두께는 0.7cm이다.



圖面 39. 地表採集遺物 I (1/3)

면의 흔적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높이 5.0cm, 추정저경 7.5cm이다.

圖面 39-4(圖版 34-4)는 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으나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의 흔적이 관찰된다. 규모는 잔존높이 2.7cm, 추정저경 9.9cm이다.

圖面 39-5(圖版 34-5)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저부 1/2가량과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 적황색, 내면 회황색을 띠고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3cm, 추정저경 4.0cm이다.

圖面 39-6(圖版 34-6)은 無文土器 底部이다.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鉢形土器의 底部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 황적색, 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면에는 내·외면 모두 지두흔이 관찰된다.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잔존높이 3.7cm, 底徑 9.2cm이다.

圖面 39-7(圖版 34-7)은 내·외면 황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2cm, 추정저경 9.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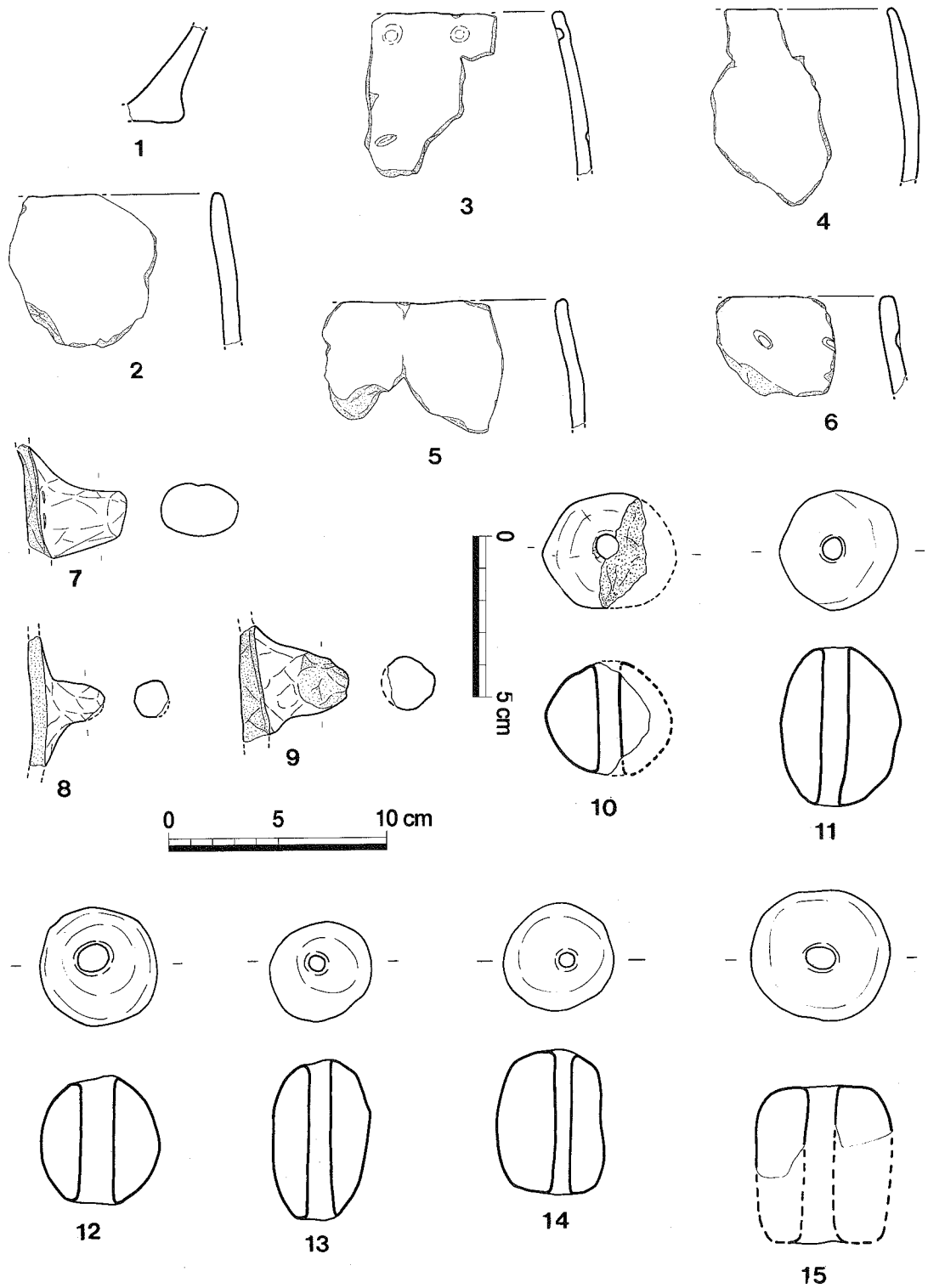
圖面 39-8(圖版 34-8)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내·외면 적황색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및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2.7cm, 추정저경 9.6cm이다.

圖面 39-9(圖版 34-9)는 외면 황적색, 내면 적갈색을 띠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4cm, 추정저경 13.2cm이다.

圖面 39-10(圖版 34-10)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가량만 형태가 남아있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굵은 입자의 석영,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기면 일부에는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12.6cm이다.

圖面 39-11(圖版 34-14)은 無文土器 底部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전체기면의 1/5정도만 잔존한다. 내·외면 모두 적황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器面에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9.3cm, 추정저경은 6.2cm이다.

圖面 39-12(圖版 35-1)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외면 적갈색, 내면 흑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석영, 장식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면에는 지두흔이 잔존하며, 기면 내·외면에는 목리조 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7.5cm, 底徑 9.5cm이다.



圖面 40. 地表採集遺物 II (1~9 : 1/3, 10~15 : 1/2)

圖面 40-1(圖版 35-2)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가량만 잔존한다. 외면 적황색, 내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정면기법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0cm이다.

圖面 40-2(圖版 34-11)는 외면 흑갈색, 내면 회흑색의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7.1cm이다.

圖面 40-3(圖版 34-12)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공열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적황색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및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 바로 아래에는 지름 0.6cm가량의 공열문이 안에서 바깥방향으로 반투공되어 있으며, 동체부에는 지름 0.8cm가량의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7.4cm이다.

圖面 40-4(圖版 34-13)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외면 회황색, 내면 회흑색을 띤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9.0cm이다.

圖面 40-5(圖版 35-3)는 외면 회흑색, 내면 연갈색의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0cm이다.

圖面 40-6(圖版 35-4)은 短斜線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모두 회황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 아래 1.5cm지점에 지름 1.0cm, 너비 0.5cm가량의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4.7cm이다.

圖面 40-7(圖版 35-7)은 無文土器 把手이다. 내면 적갈색, 외면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파수와 동체부의 접합부위에서는 접합의 흔적이 잔존한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잔존높이 5.4cm이다.

圖面 40-8(圖版 35-6)은 꼭지형 파수가 부착된 無文土器 把手部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외면 적갈색, 내면 회황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잔존높이 6.1cm이다.

圖面 40-9(圖版 35-5)는 無文土器 把手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잔존높이 5.3cm이다.

圖面 40-10(圖版 35-8)은 魚網錘로 1/2 가량 결실되었다. 회흑색을 띠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에 지두흔이 남아 있다. 높이 3.1cm, 잔존폭 3.1cm, 구멍지름 0.7cm이다.

圖面 40-11(圖版 35-13)은 土製 魚網錘이다.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장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길이 5.0cm, 너비 3.7cm, 구멍

지름 0.7cm이며, 중량은 59.4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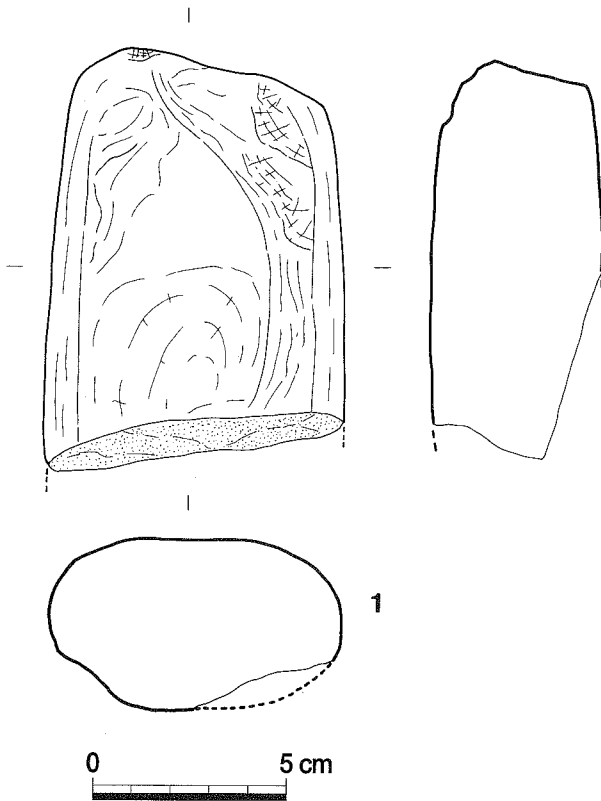
圖面 40-12(圖版 35-10)는 土製 魚網錘로 完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적갈색을 띤다. 길이 3.9cm, 너비 3.7cm, 구멍지름 1.0cm이며, 중량은 42.4g이다.

圖面 40-13(圖版 35-11)은 회황색의 魚網錘로 完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5.2cm, 너비 3.0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40.5g이다.

圖面 40-14(圖版 35-12)는 단면형태 장방형의 魚網錘로 完형이다. 회황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4.5cm, 너비 3.2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51g이다.

圖面 40-15(圖版 35-9)는 1/3 가량이 결실된 魚網錘이다.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후반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길이 2.8cm, 너비 4.2cm, 구멍지름 1.0cm이며, 중량은 39.6g이다.

圖面 41-1(圖版 35-14)은 세립사암제의 石器이다. 잔존형태로 보아 함인석부의 일부로 추정된다. 刃部는 결실되었으며, 잔존하고 있는 身部에 부분적으로 타격흔과 마연흔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11.1cm, 너비 7.5cm이며, 두께는 4.5cm이다.



圖面 41. 地表採集遺物Ⅲ(1/2)

IV. 맺음말

蓮岩洞遺蹟에서는 특이한 구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굴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연암동유적의 발굴 이후 蓮岩洞型 住居址와 유사한 구조의 주거지가 울산지역과 그 주변에서 몇군데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암동유적과 전적으로 동일한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연암동유적과 동일한 양상의 주거지를 지금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연암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형태와 동일한 주거지는 국내외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연암동유적의 독특한 양상을 인정하여 이를 “蓮岩洞型 住居址”라 명명하기로 하기로 한다. 연암동형 주거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거지 주변으로 지름 10m 내외, 폭 70~80cm, 깊이 30~40cm 전후의 外廓周溝가 주거지의 평면형을 따라 (타)원형으로 둘러져 있다.

둘째, 주거지의 한쪽 모퉁이에서 배수구로 생각되는 溝가 주거지 주변을 에워싸는 外廓周溝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주거지의 바닥보다 外廓周溝의 깊이가 더 깊다.

넷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다섯째, 주거지의 내부에는 爐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연암동형 주거지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몇가지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 外廓周溝의 필요성이다. 유적이 입지한 지역이 충적대지에 해당하며, 연암동유적이 저지성집락임을 감안해 볼 때, 빈번하게 닳았을 수해를 염려한 대비책으로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설득력이 높기는 하나 지금까지 조사된 저지성의 집락유적에서 동일한 현상이 조사되지 않고 있음이 의문으로 남는다. 앞으로 저지성집락유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이 해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생업형태와 관련된 발생배경이다. 연암동유적이 위치한 지역이 동천강변을 끼고 있고, 울산만과 인접하고 있으며, 농경이 가능한 漸移地帶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은 연암동유적집단의 생업형태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생업형태가 다른지역에 비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外廓周溝의 생성배경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접근방법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생성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대안으로서 큰 약점이 있다. 앞으로 집단의 생업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져야 할 일단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으로 개별주거지의 점유공간에 대한 표식으로서의 기능이다. 즉 개별가옥의 울타리로서 집단내의 사유공간이 분화된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연암동유적은 당시 울산지역에서 사회구조적으로 대단히 발전된 집단의 거주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암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후 아직까지도 연암동형주거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성과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대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확인된 遺構는 外廊周溝가 돌아가는 住居址 5棟과 대형의 장방형 住居址 1棟, 내부에 주거지가 없는 周溝 3기, 부정형하게 나타나고 있는 溝狀遺構 1기를 비롯한 溝 14기, 근대의 경작지와 관련된 石列 2기 등이 있다.

外廊周溝라는 부대시설을 갖춘 5동의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거지만을 본다면 기존에 조사되었던 (장)방형의 주거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柱穴의 배치, 爐址의 위치, 외곽주구로 연결되는 배수구 등이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내부시설로서는 壁溝와 爐址, 柱穴, 外廊周溝와 연결되는 溝를 들 수 있다. 먼저 벽구는 평면형태가 4벽 모두 둘러진 구조인데, 방형에 가까운 4호와 5호 주거지의 벽구내에는 주혈이 없다. 한편 1호 주거지의 벽구는 단벽 양쪽의 일부를 제외한 채, 전체적으로 둘러진 형태이며, 동장벽쪽은 굴광선의 내측으로 들어와 만들어져 있는 짐 등은 벽체설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爐址는 모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수혈을 판 형태인데, 중앙에서 한쪽방향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柱穴은 8주식과 6주식, 4주식 등이 모두 보이며, 이러한 주혈 수의 차이는 주거지의 규모 및 평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외곽주구로 연결되는 排水溝는 모두 주거지의 서남쪽 모서리에서 外廊周溝로 연결되고 있다. 자연지형의 경사면과 일치하고 있어 배수구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곽주구가 없는 6호 주거지는 내부의 주혈도 정형성 없이 확인되는데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주거지와는 달리 집단내의 공동시설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저부 29점, 공열문토기 6점, 단사선문토기 11점, 횡선문토기 6점, 단도마연토기 10점, 어망추 25점 등의 토제품 145점과 반월형석도 3점, 석촉 6점, 석부 2점, 박편석기 9점을 포함하여 모두 25점의 석기류를 합쳐 총 170점이다.

연암동유적의 편년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출토유물 중 문양이 있는 무문토기와 반월형석도, 석촉 등을 들 수 있다. 口緣部에 孔列文이 시문된 것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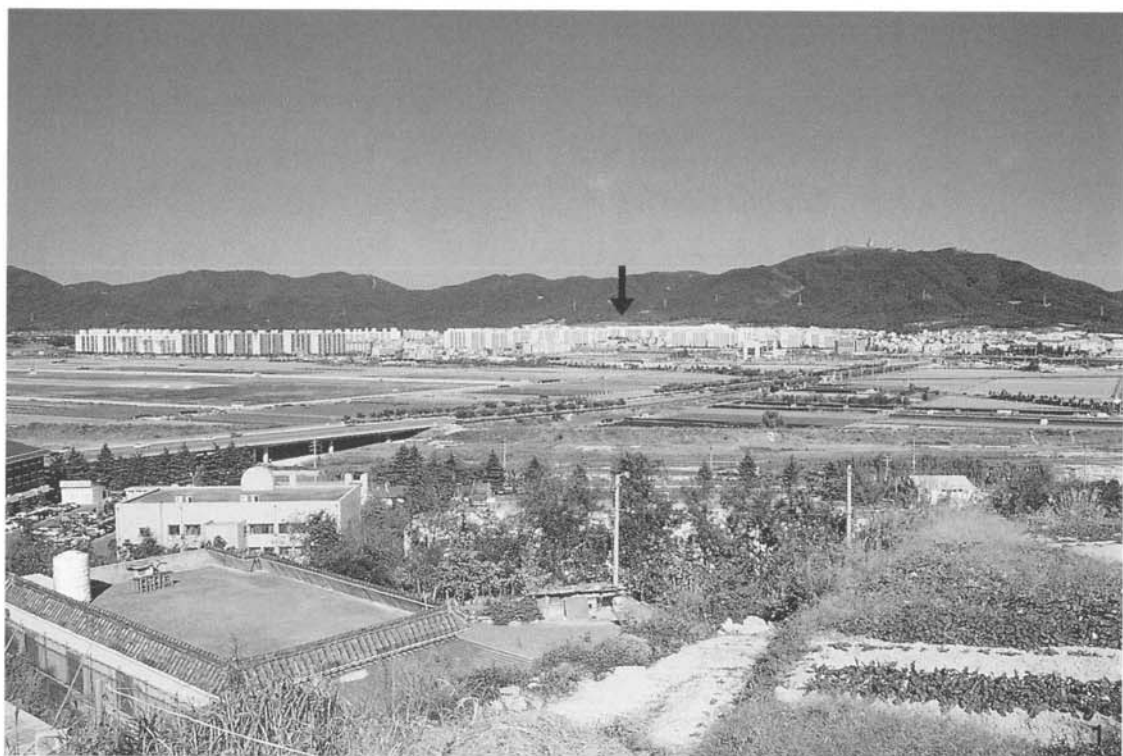
한 것 2점과 내면에서 외면으로 반관통되게 시문한 것이 2점 있다. 모두 구연부에서 1~2cm 아래부분에 시문되어 있으며, 횡으로 돌려져 있다. 횡선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는 1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횡선문의 문양은 침선상의 사선문과 압인수법으로 시문한 형태인 날알모양의 두종류가 확인된다. 심발형토기의 구연은 내경하고 있으나 직립에 가깝다.

석촉은 6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有莖式 석촉이다. 莖部는 身部에서 끝부분이 완만하게 연결되며, 단면은 방형이다. 半月形石刀는 4호 주거지와 11호 溝에서 출토된 魚形 2점과 15호 溝 내부에서 출토된 魚形으로 추정되는 未完成의 石刀 1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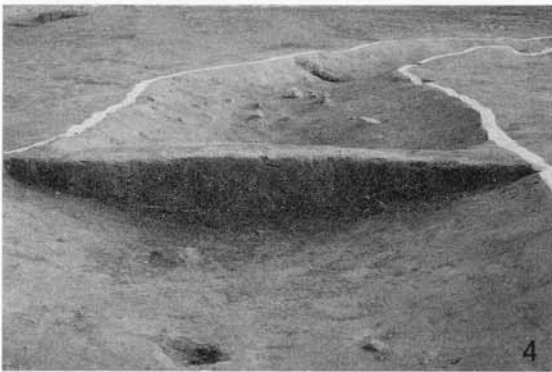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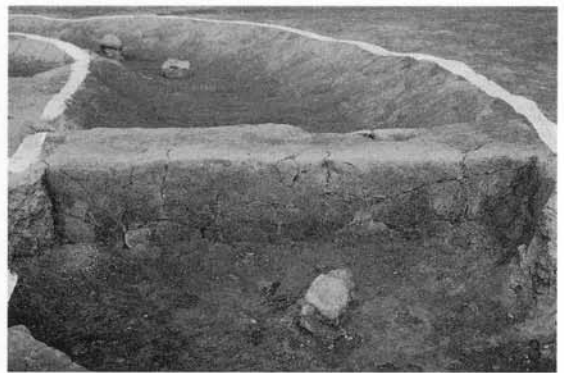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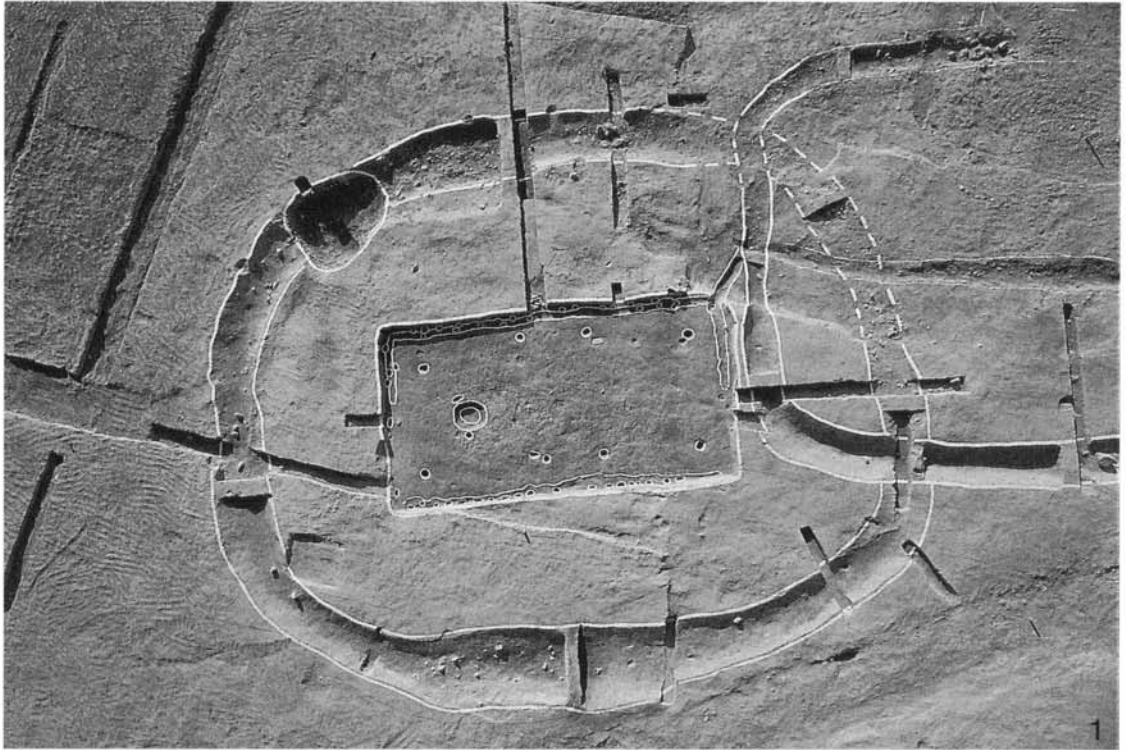
이들 유물들은 대체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암동유적의 대체적인 편년적 위치는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년에 유효한 유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유적내에서의 상대편년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출토유물의 특징을 기존의 편년자료에 대입하여 대체적인 유적의 편년을 추출해 본 것이다.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되고, 또한 울산지역내의 지역적 편년안이 완성된다면 연암동유적에 대한 편년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암동유적은 전체집락이 조사되지 못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유적의 양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 때문에 유적에 대한 명쾌한 해석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난 결과가 되었다. 특히 특수한 형태의 주거지 구조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과제를 떠 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료의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에 기초자료의 집적이라는 일정한 공헌을 하였음을 조그마한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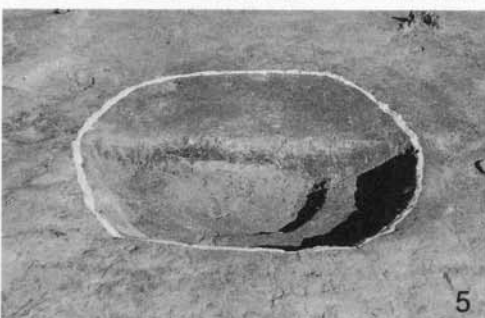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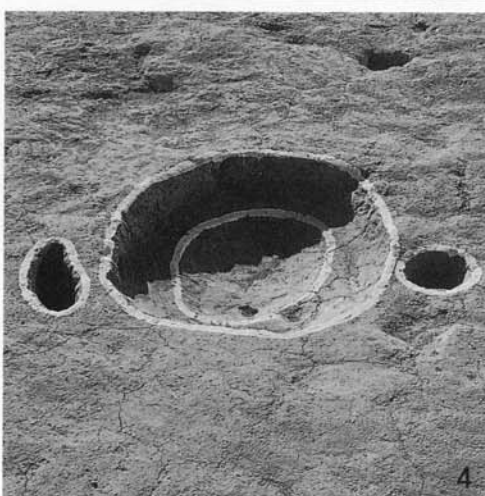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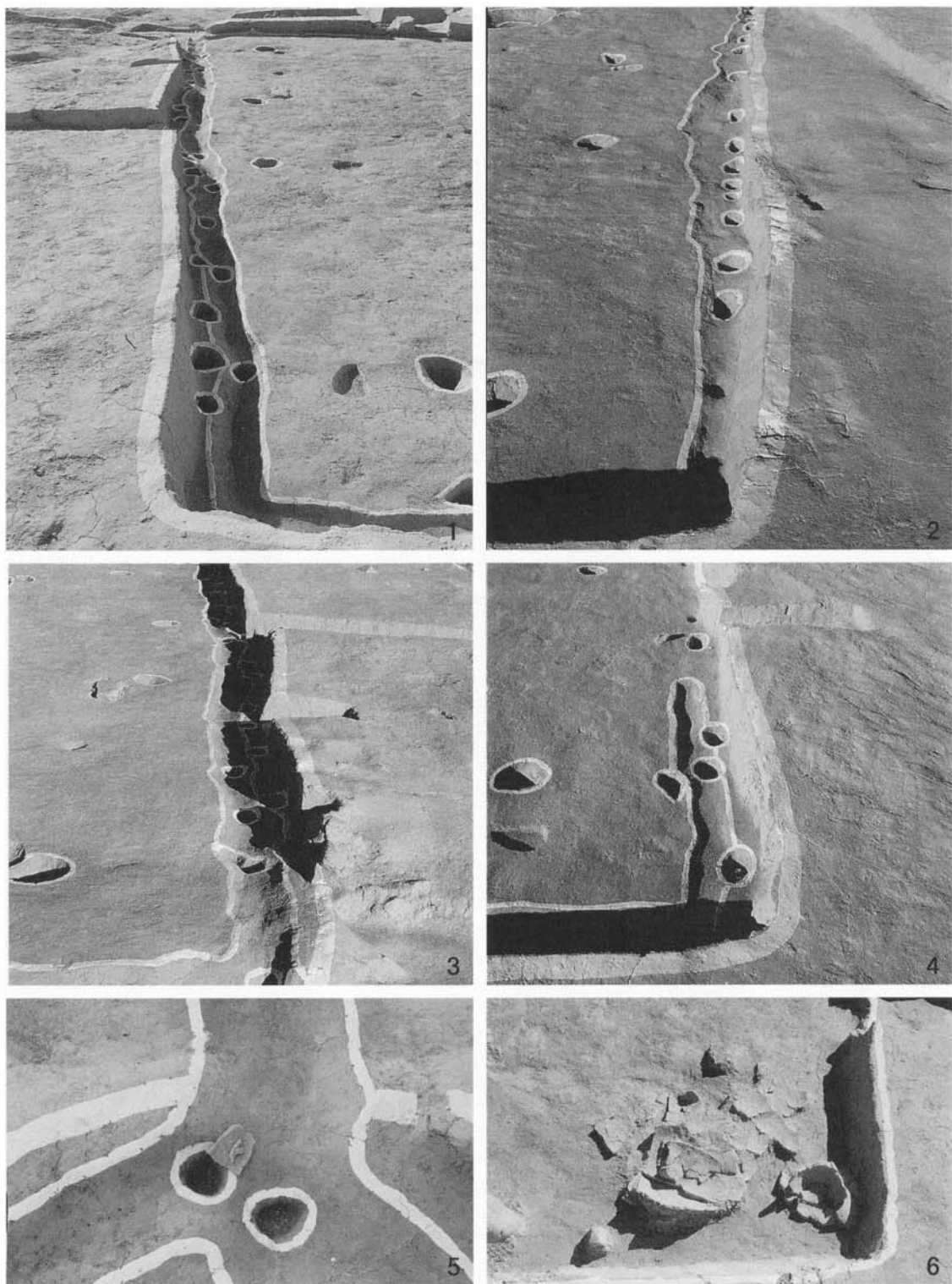
圖版 1. 遺蹟遠景(1) 및 近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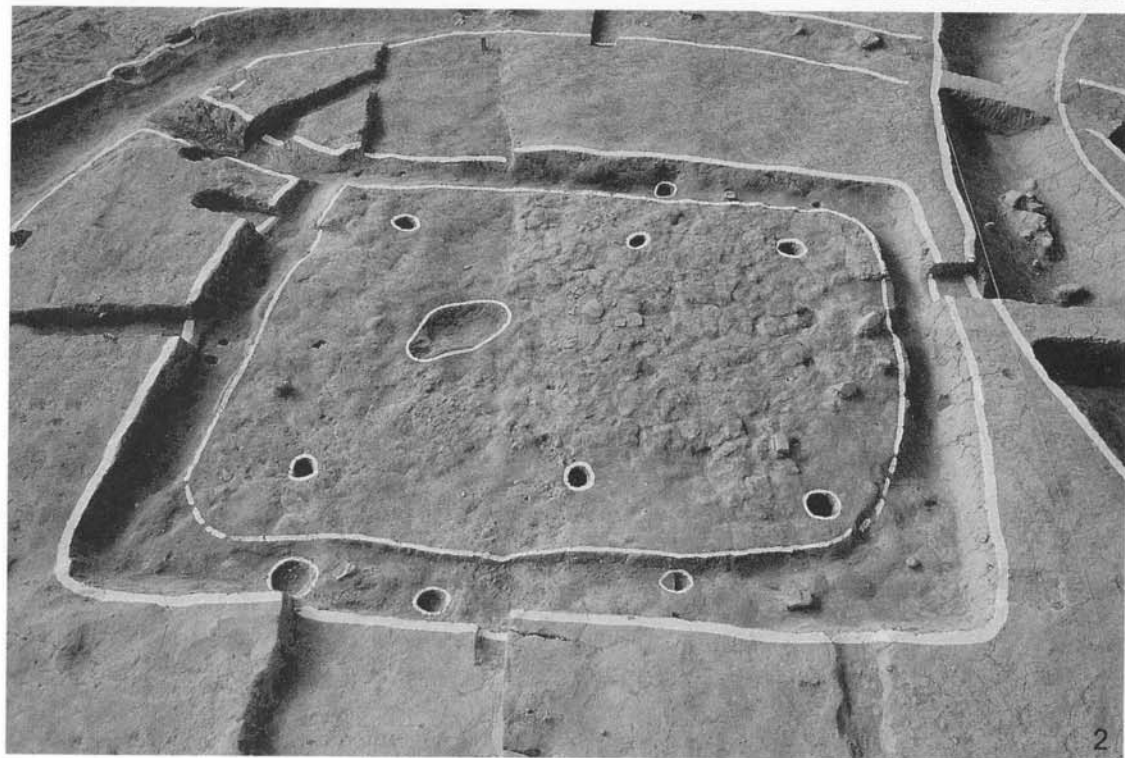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1)과 外廓周溝 土層狀態(2:서, 3:동, 4:북, 5:남)



圖版 3. 1號 住居址 全景(1)과 爐址(4, 5), 遺物出土狀態(3) 및 土層狀態(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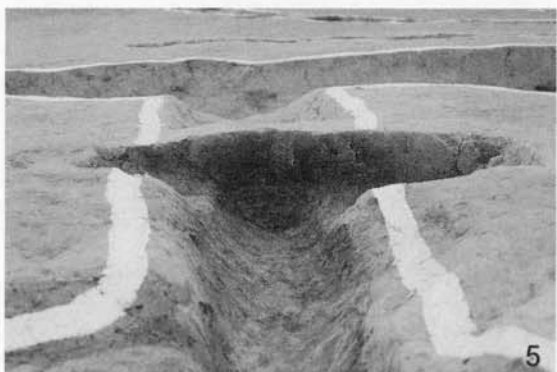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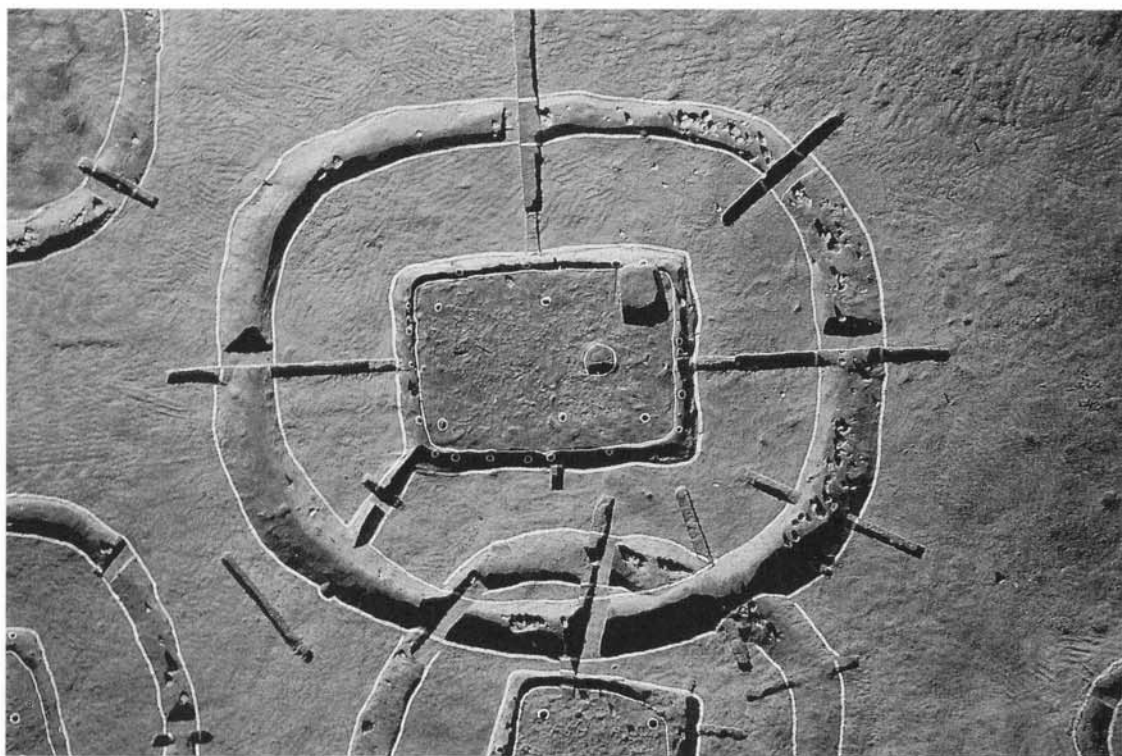
圖版 4. 1號 住居址 壁溝(1, 3:남벽, 2:북벽, 4:동벽, 5:남동쪽모서리) 및 遺物出土狀態(6)



圖版 5. 2號 住居址 全景(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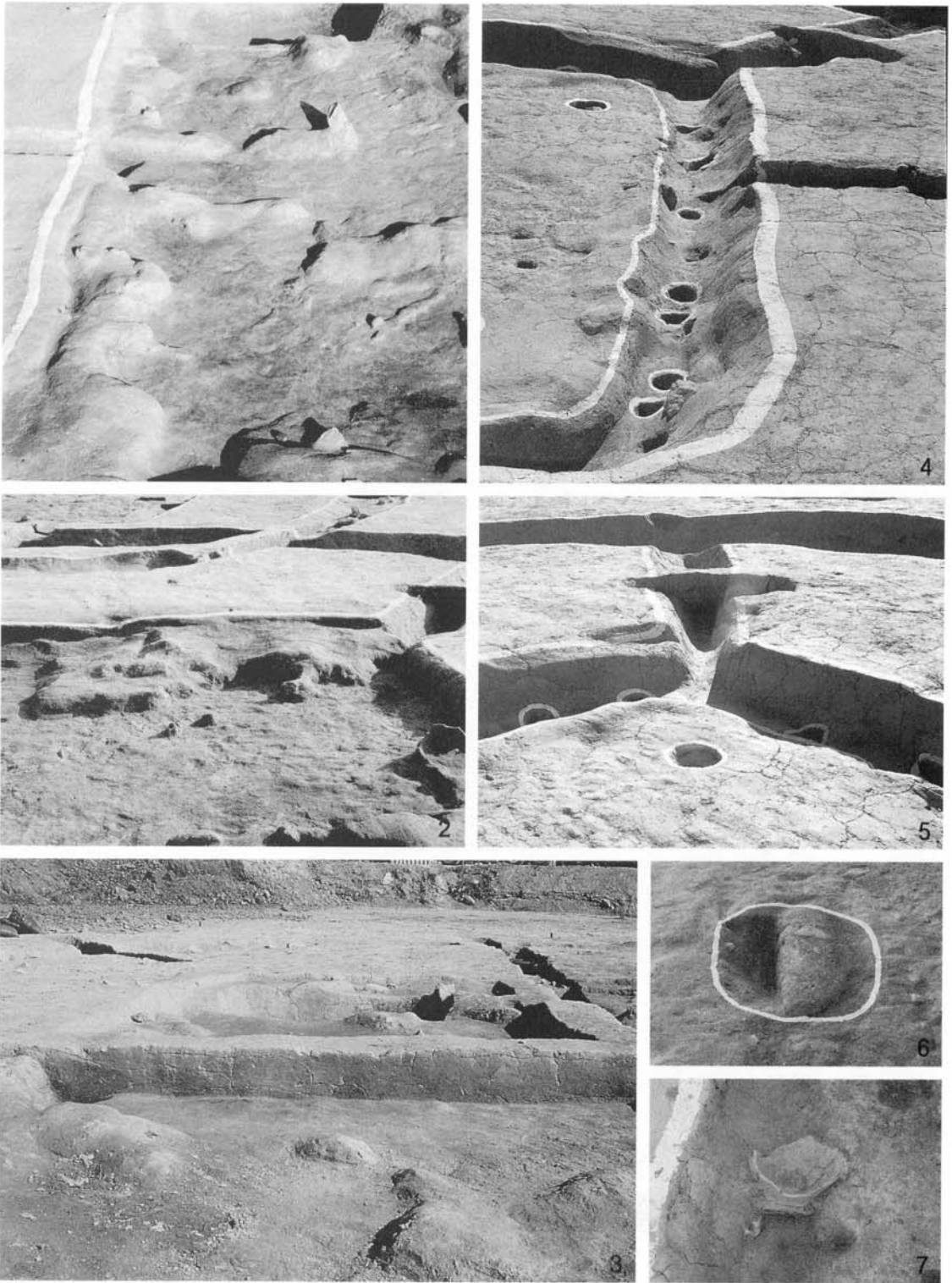
圖版 6. 2號 住居址 全景(1) 및 內部土層(2), 爐址(3), 外廓周溝 土層(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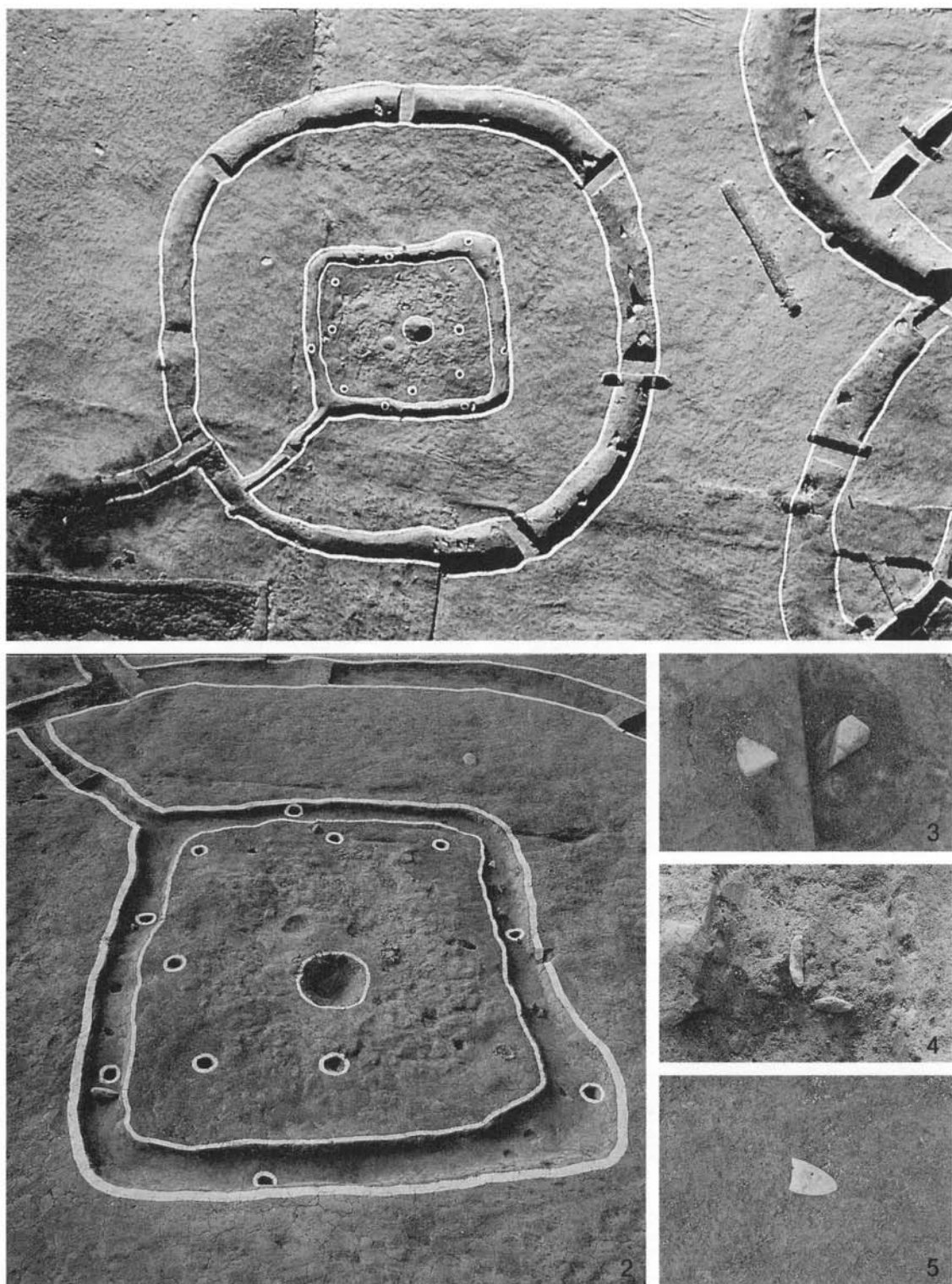
圖版 7. 3號 住居址 全景(1)과 外廓周溝 土層狀態(2:동, 3:서, 4:남), 排水口 土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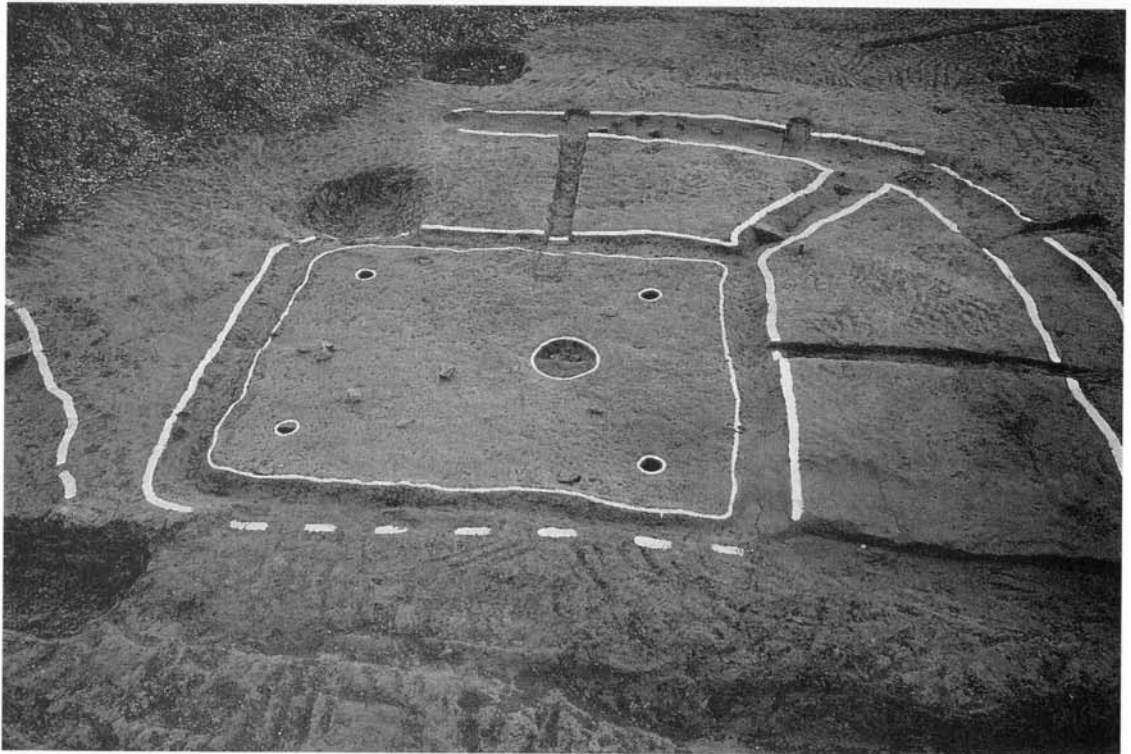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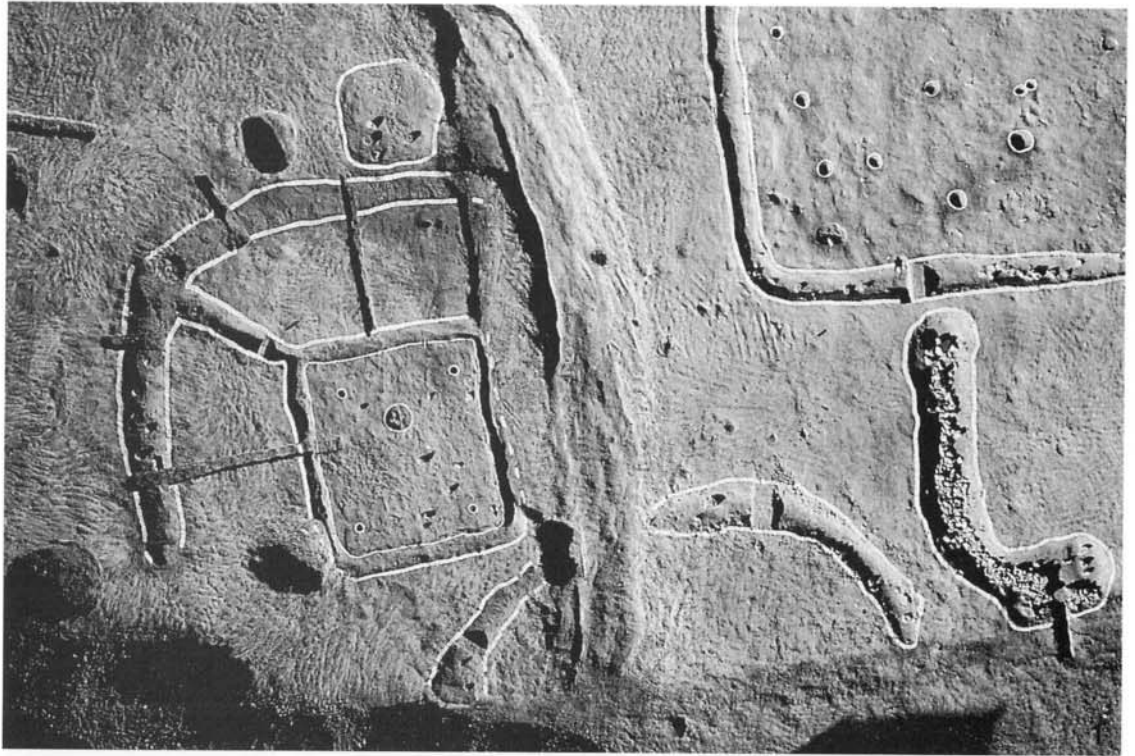
圖版 8. 3號 住居址(1:燒土 露出 狀態, 2:燒土 제거 후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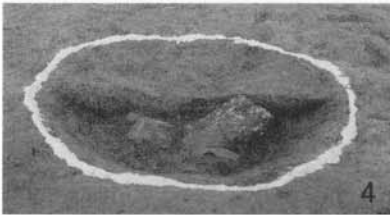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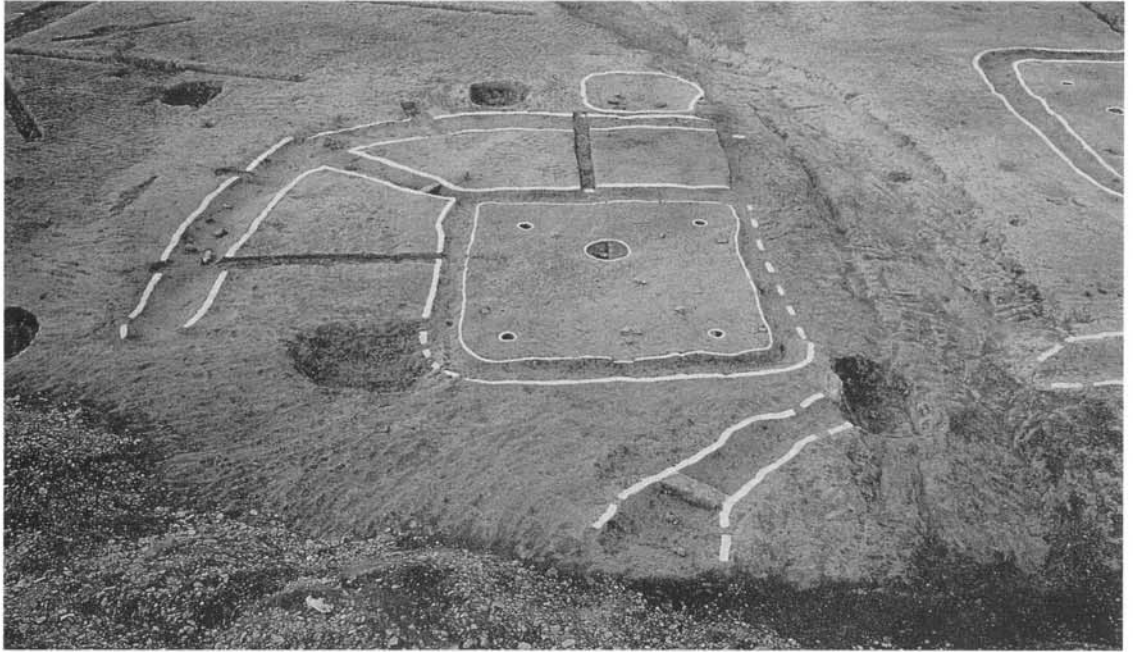
圖版 9. 3號 住居址 細部構造(1, 2:燒土의 細部狀態, 3 : 土層, 4·5 : 壁溝, 6 : 爐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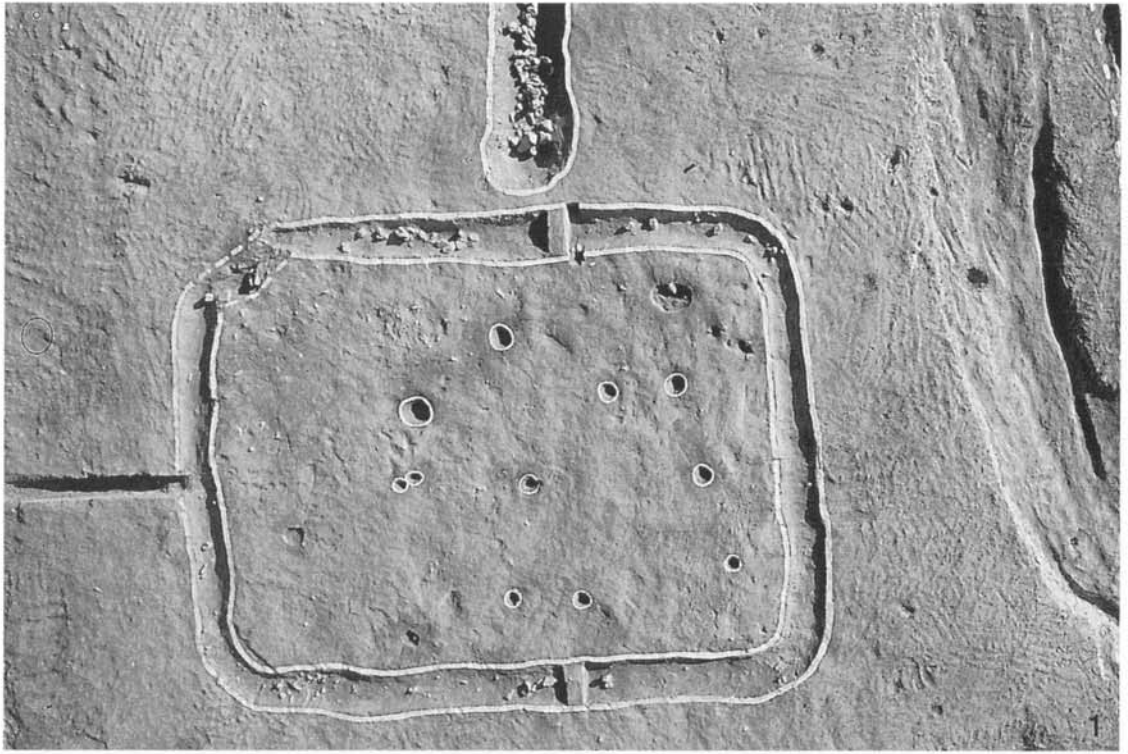
圖版 10. 4號 住居址(1, 2) 全景 吳 爐址(3), 遺物出土狀態(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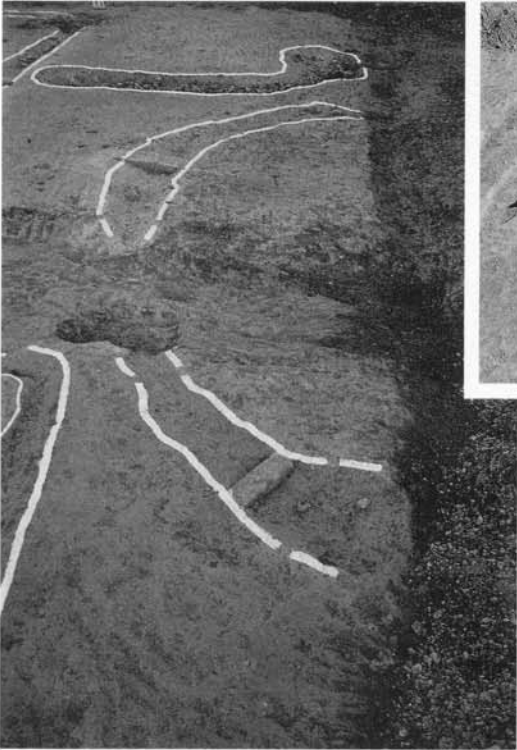
圖版 11. 5-1號, 5-2號 住居址 全景(1)과 5-1號 住居址 全景(2)



圖版 12. 5號 住居址 全景(1)과 5-1號 住居址 壁溝(2, 3), 爐址(4, 5), 遺物出土狀態(6:5-1호, 7:5-2호)



圖版 13. 6號 住居址 全景(1, 2) 및 遺物出土狀態(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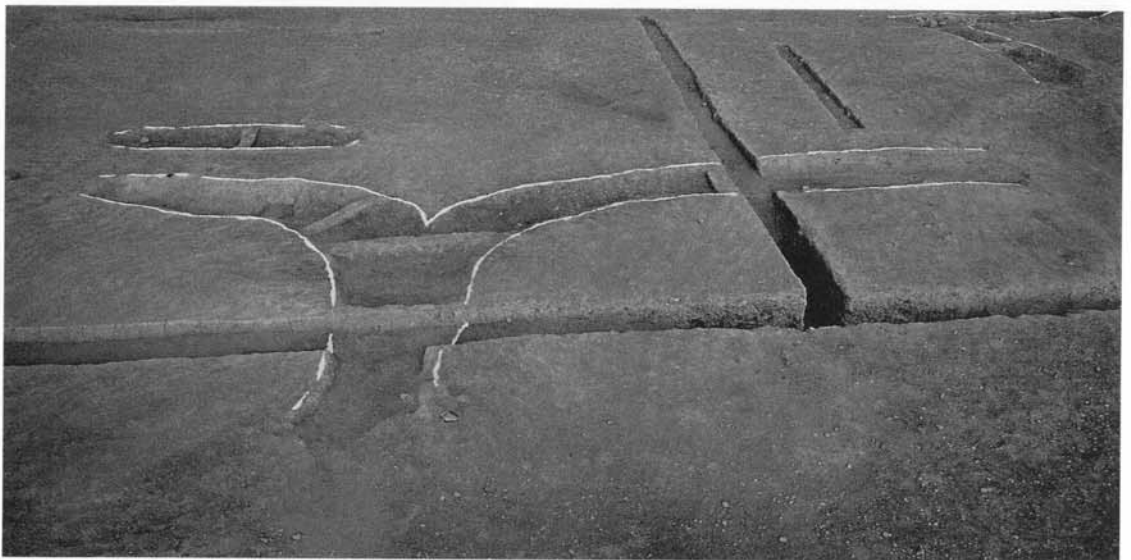
圖版 14. 1號 周溝 周邊 全景(1) 및 1號 周溝(2), 14號 溝 全景(3)과 土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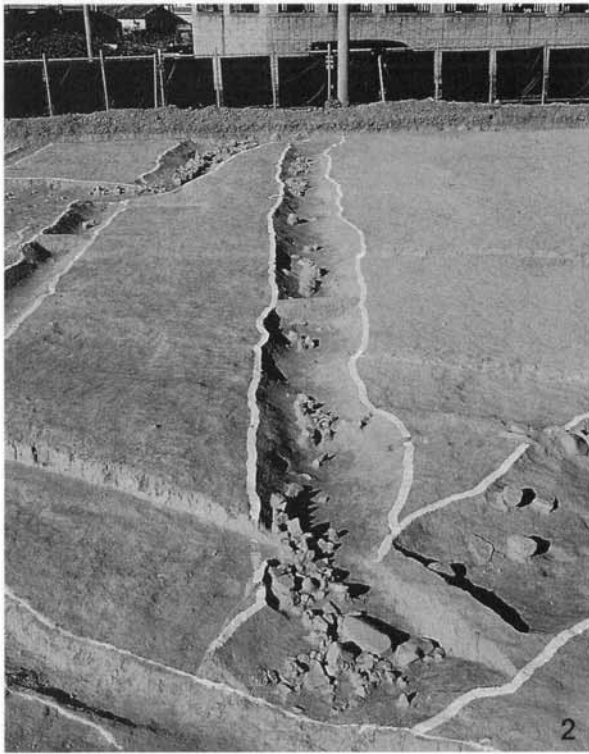
圖版 15. 2號 周溝 全景 及 土層, 遺物出土狀態(1, 2, 3) 及 3號 周溝 全景 及 土層(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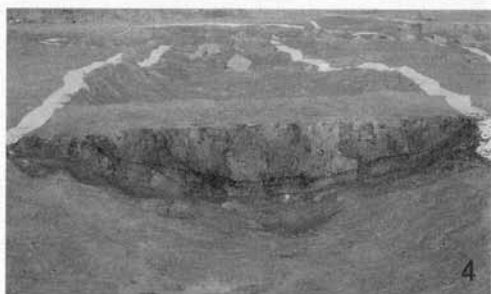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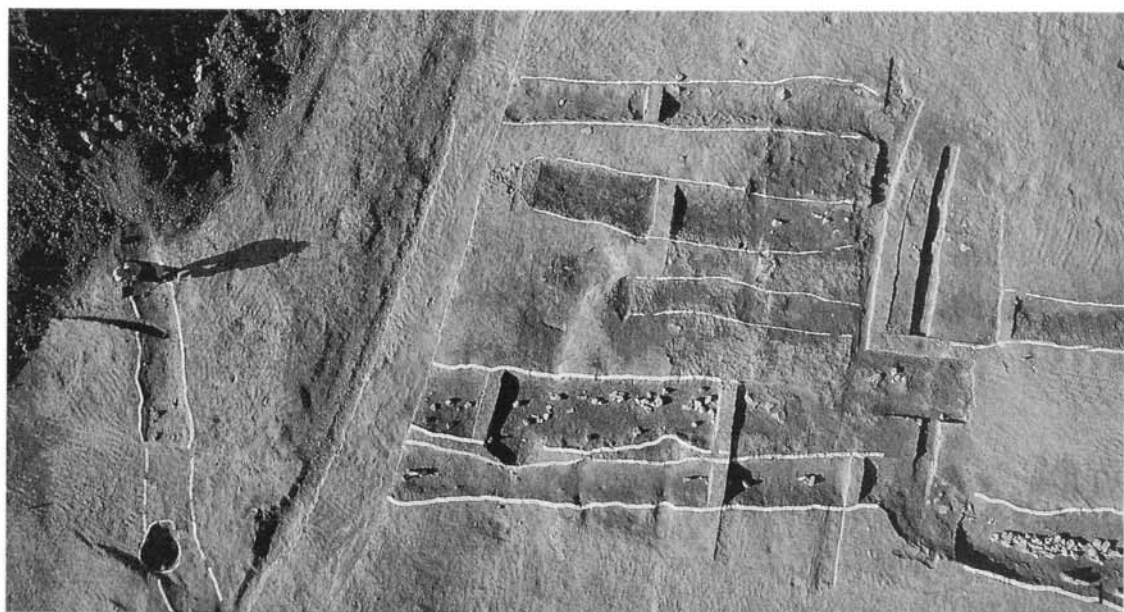
圖版 16. 1號溝全景 及 細部(1, 2, 3), 2號溝全景(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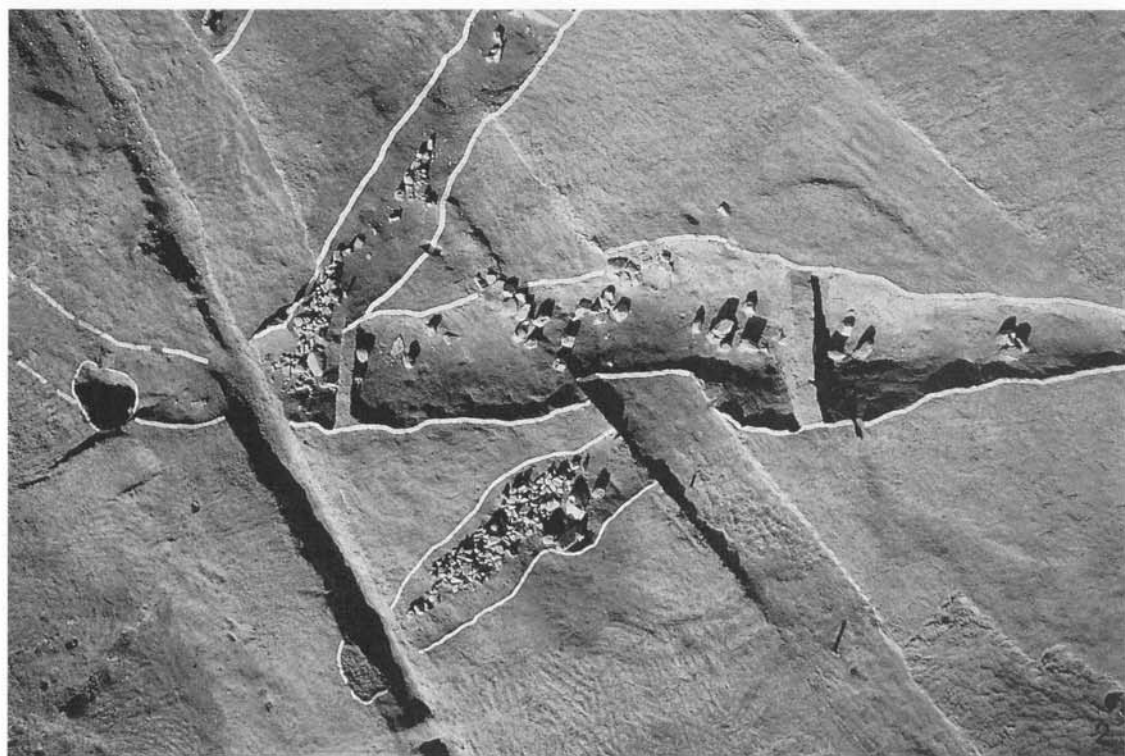
圖版 17. 3號溝 全景 및 土層(1, 2)과 15號溝 全景 및 遺物出土狀態(3, 4, 5)



圖版 18. 4~13號 溝 全景(1)과 4號 溝 全景(2) 및 土層狀態(3, 4)



圖版 19. 5~11號 溝 全景(1, 2)과 土層狀態(3 : 7호, 4 : 10호, 5 :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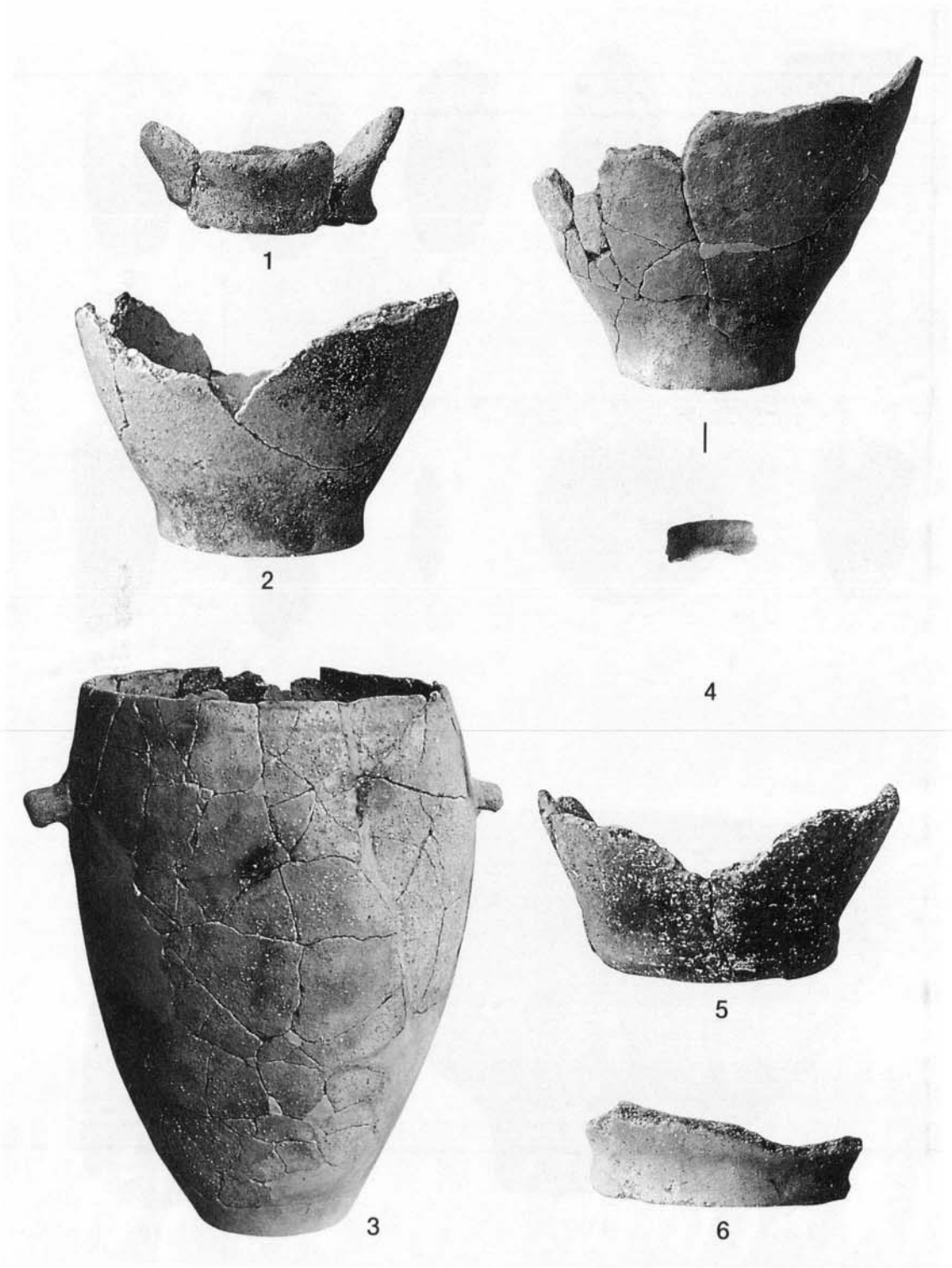
圖版 20. 9號溝周邊全景(1)과 12, 13號溝全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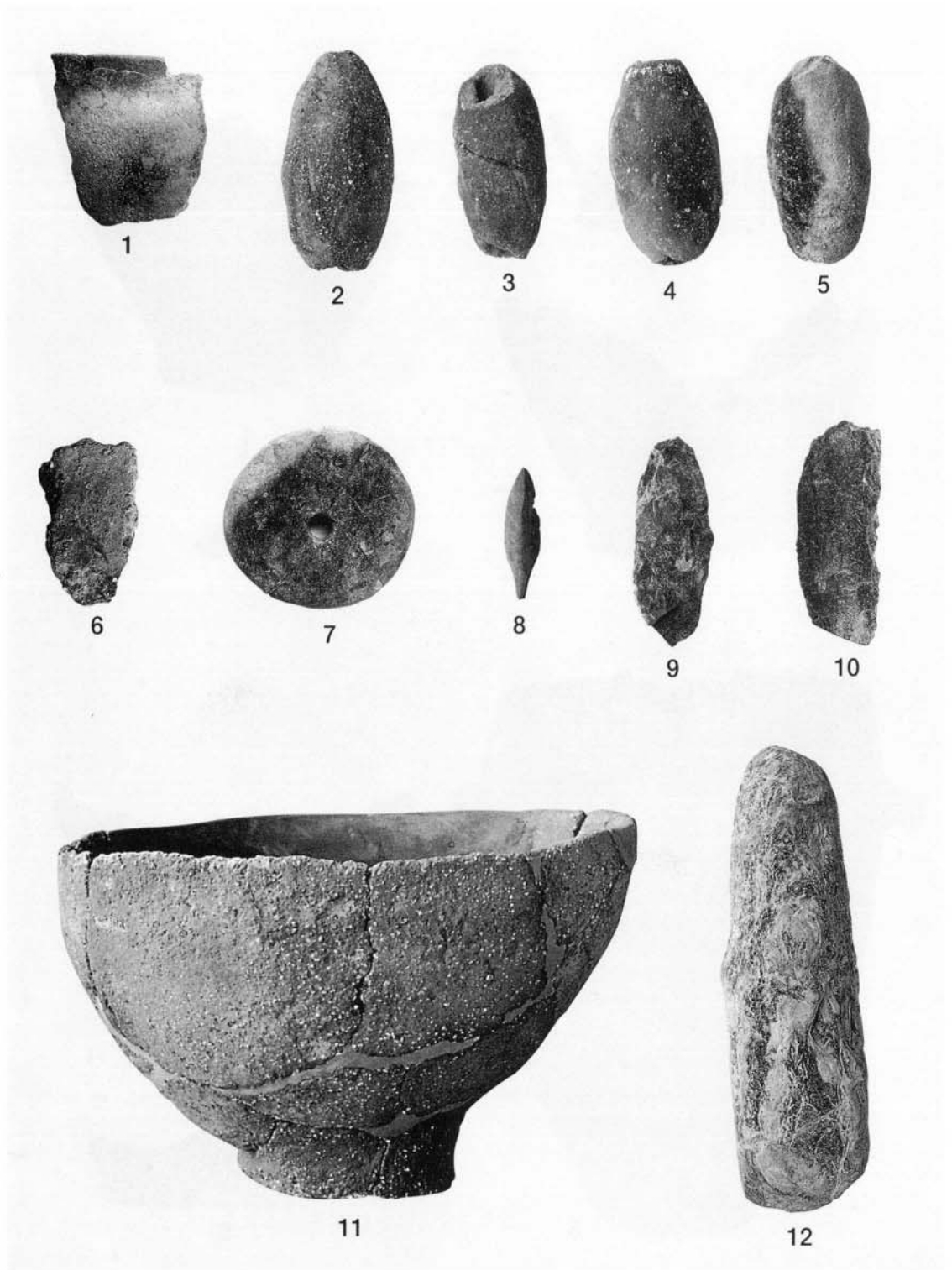
圖版 21. 12號(1), 13號(2) 溝 全景, 吳 13號 溝 土層(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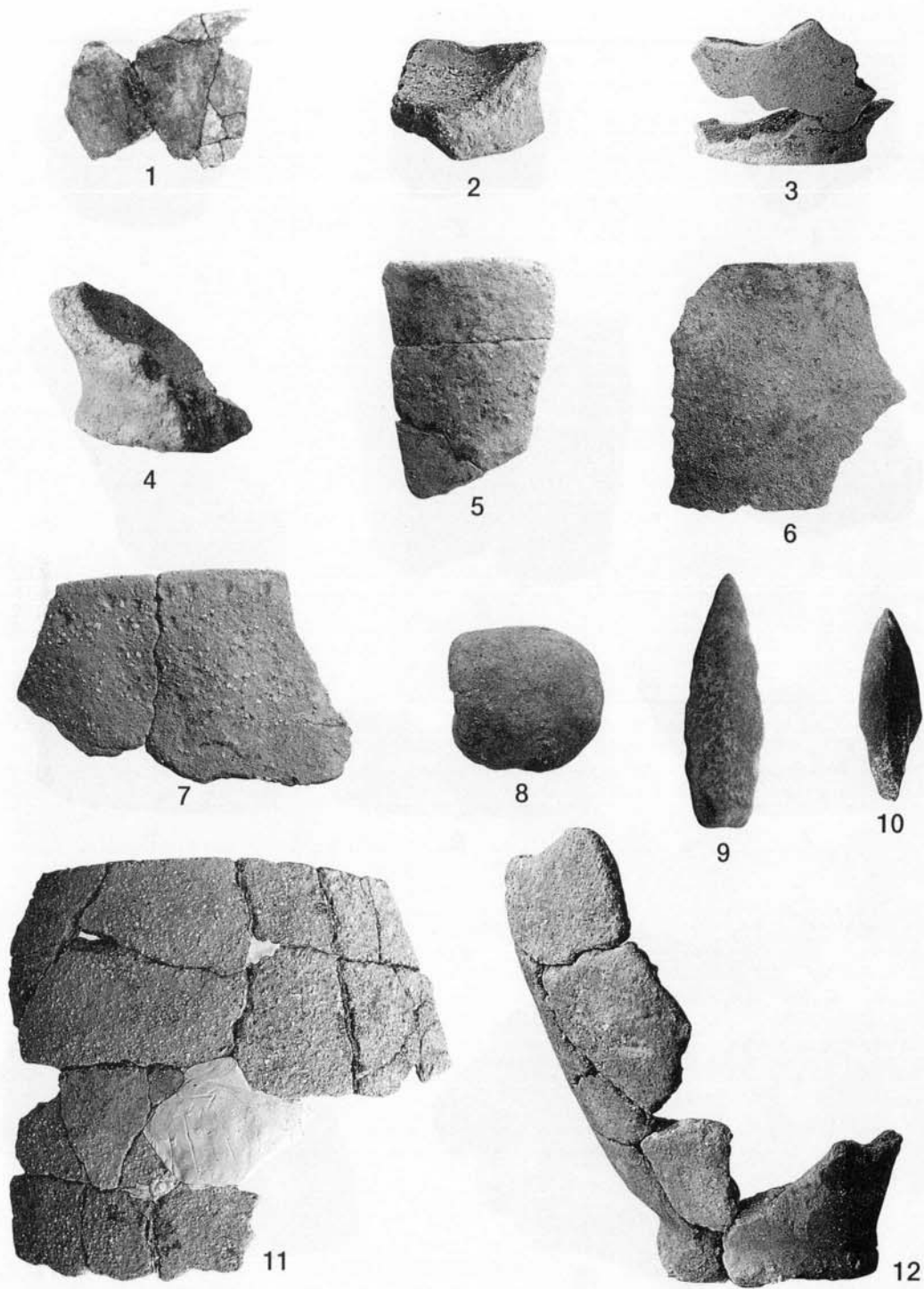
圖版 22. 石列 全景(1)과 溪谷 內部的 堆積狀態(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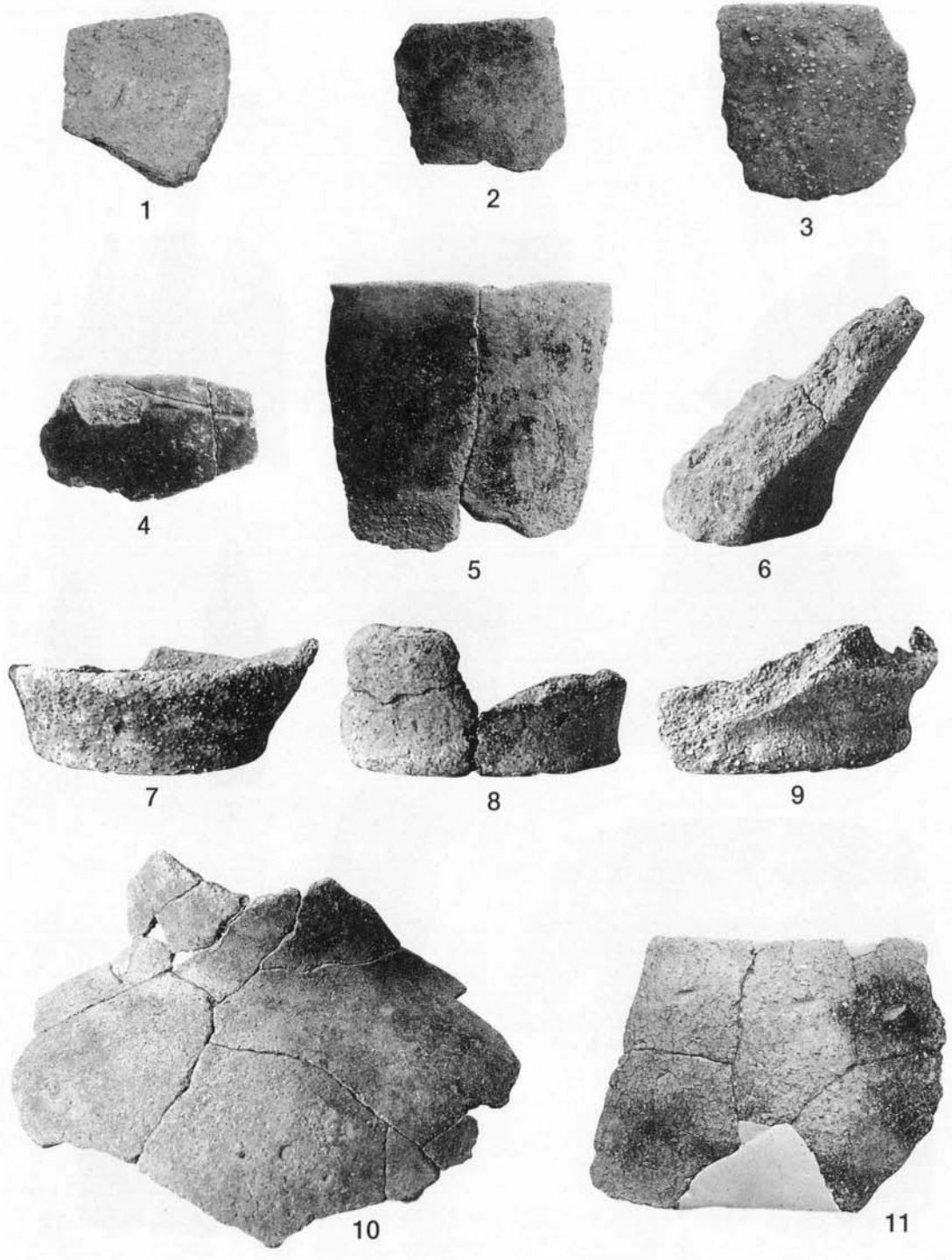
圖版 23. 1號 住居址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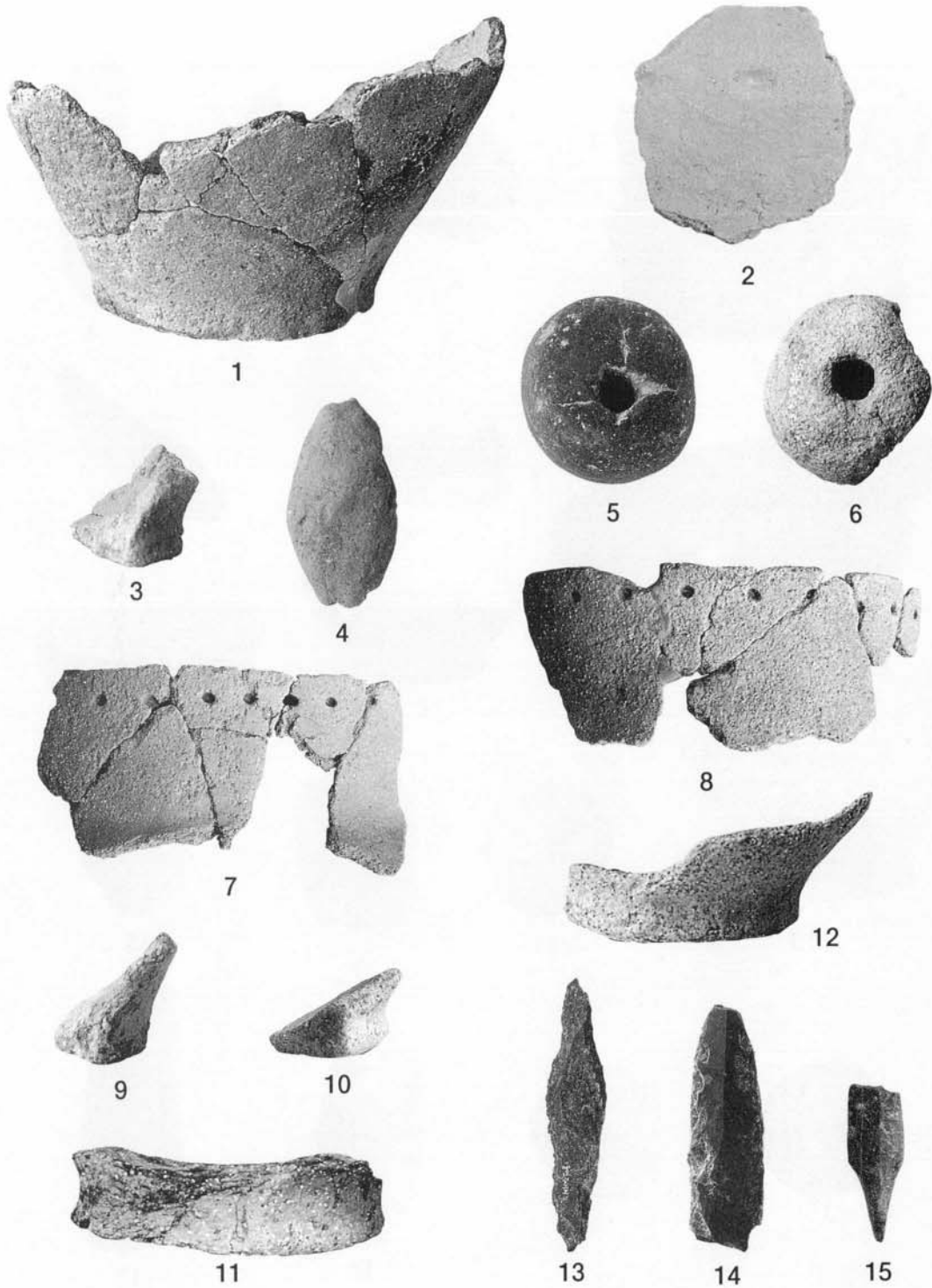
圖版 24. 1號 住居址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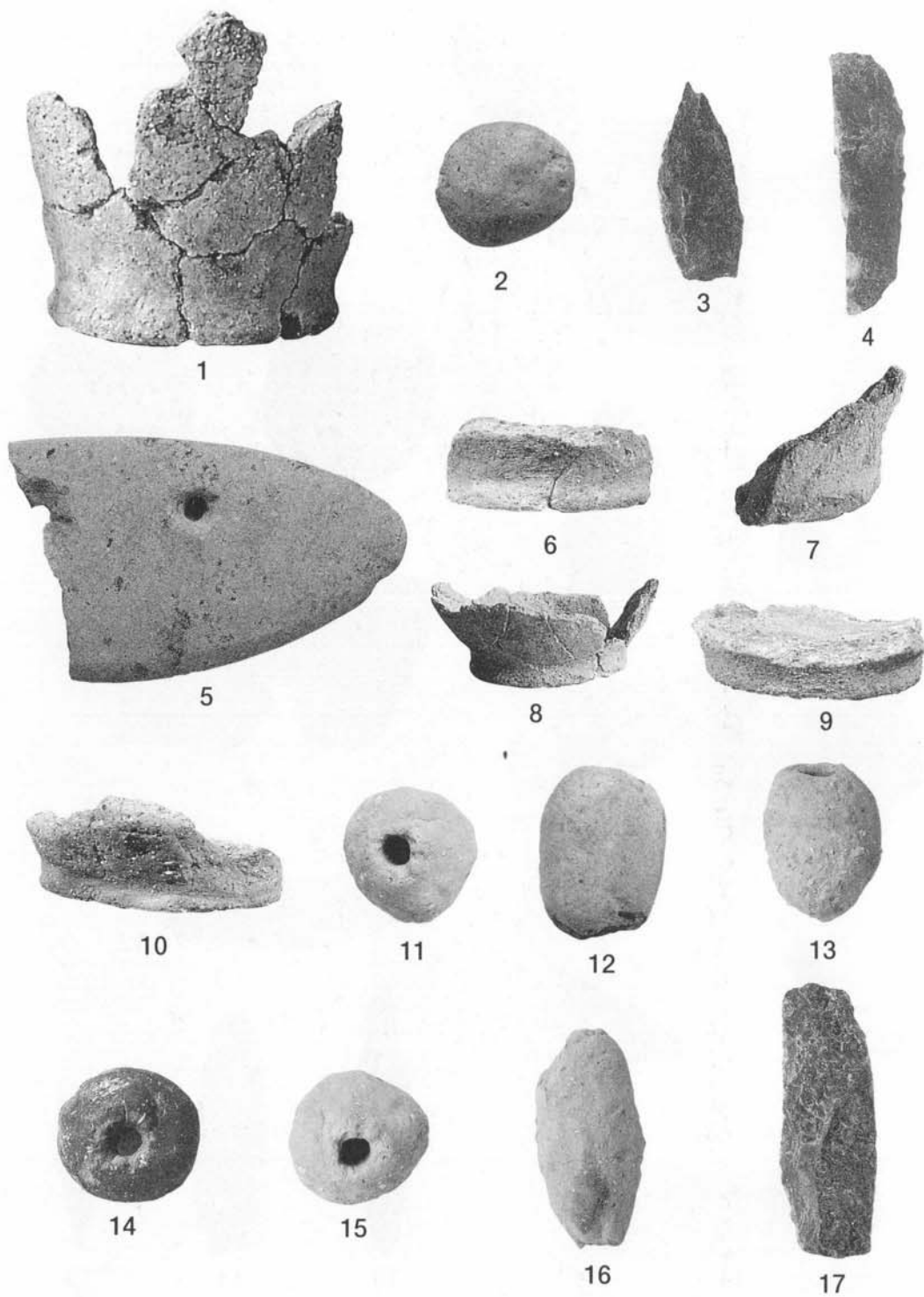
圖版 25. 1號 住居址(1~3), 2號 住居址(4~12)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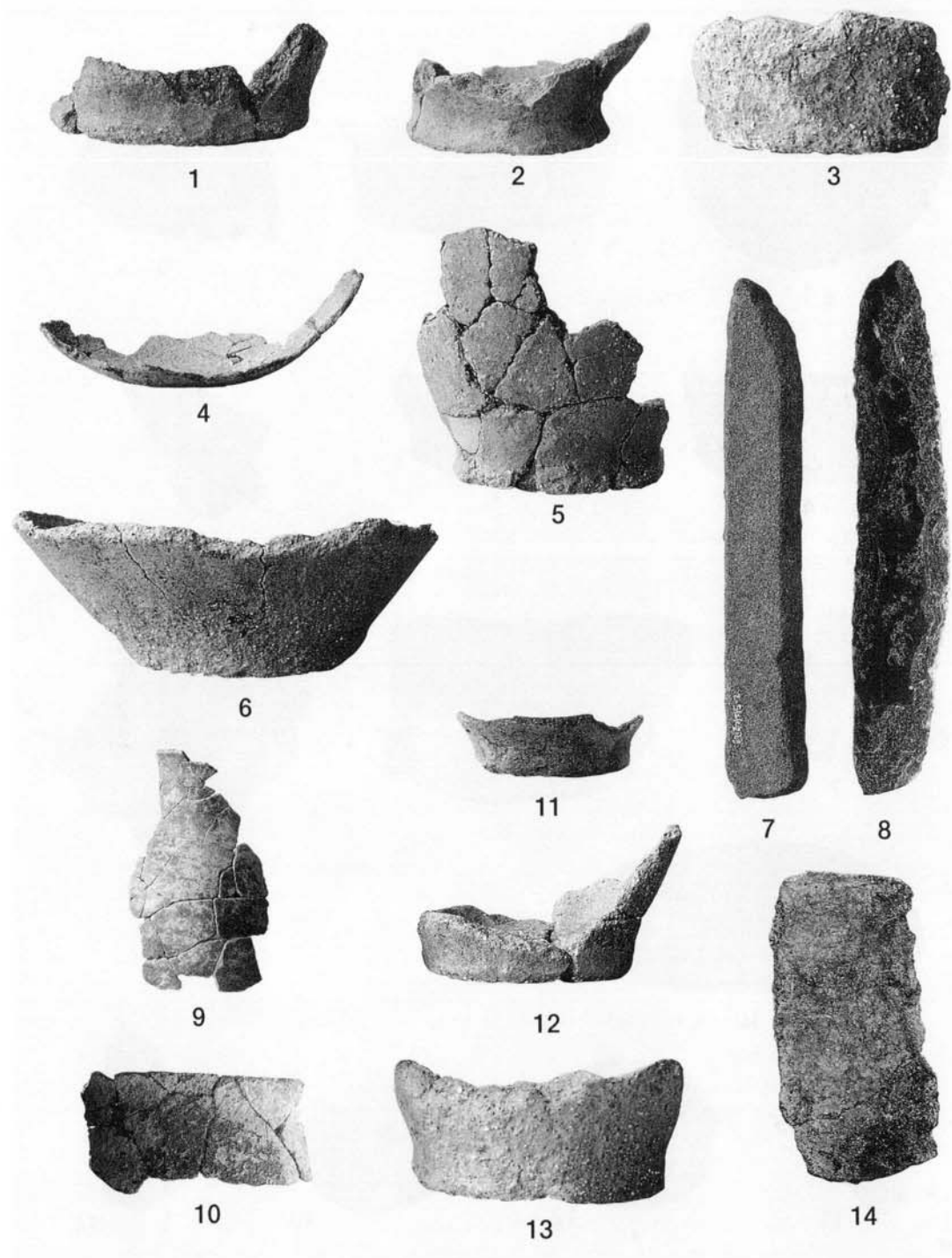
圖版 26. 2號 住居址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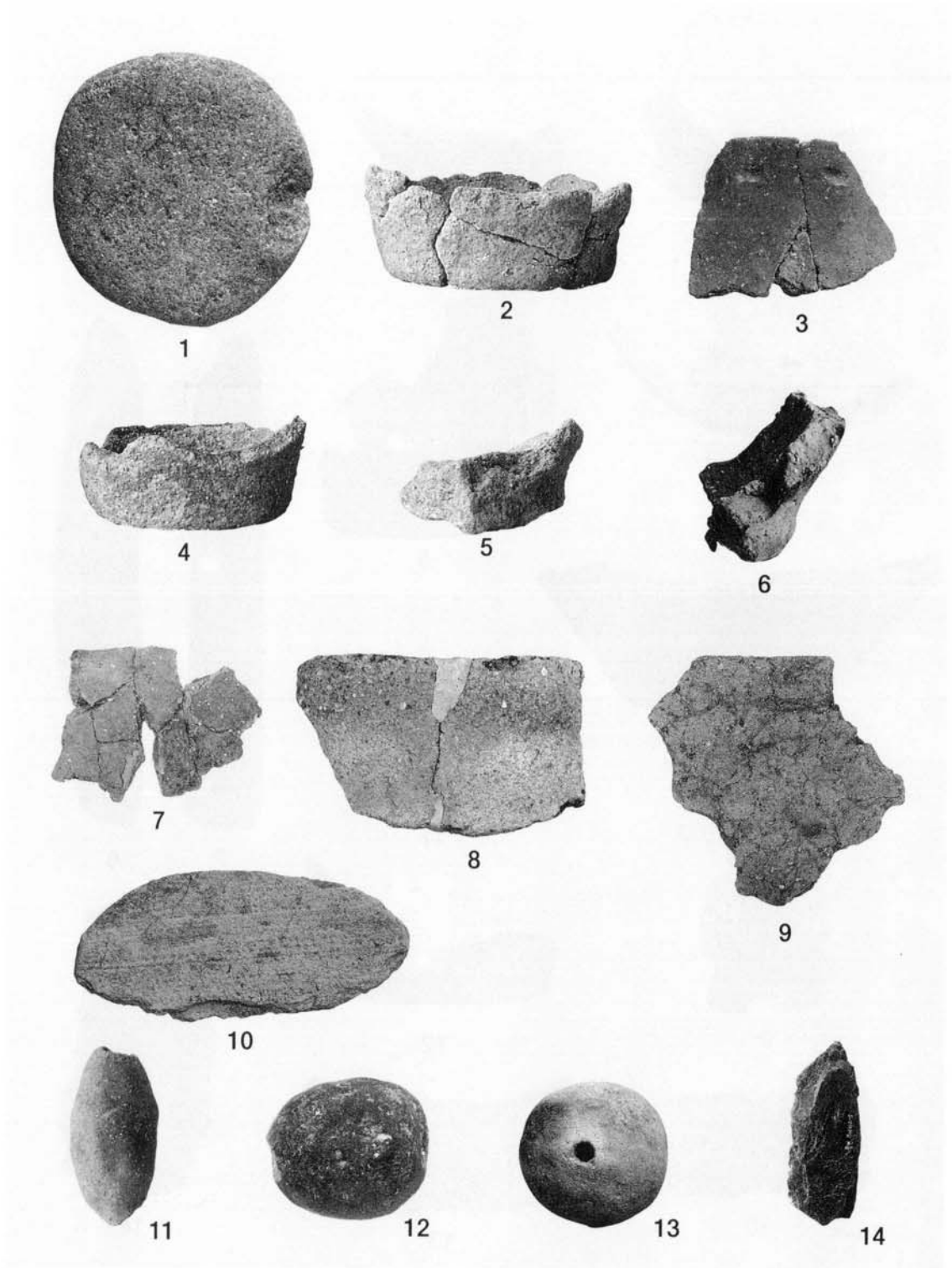
圖版 27. 3號 住居址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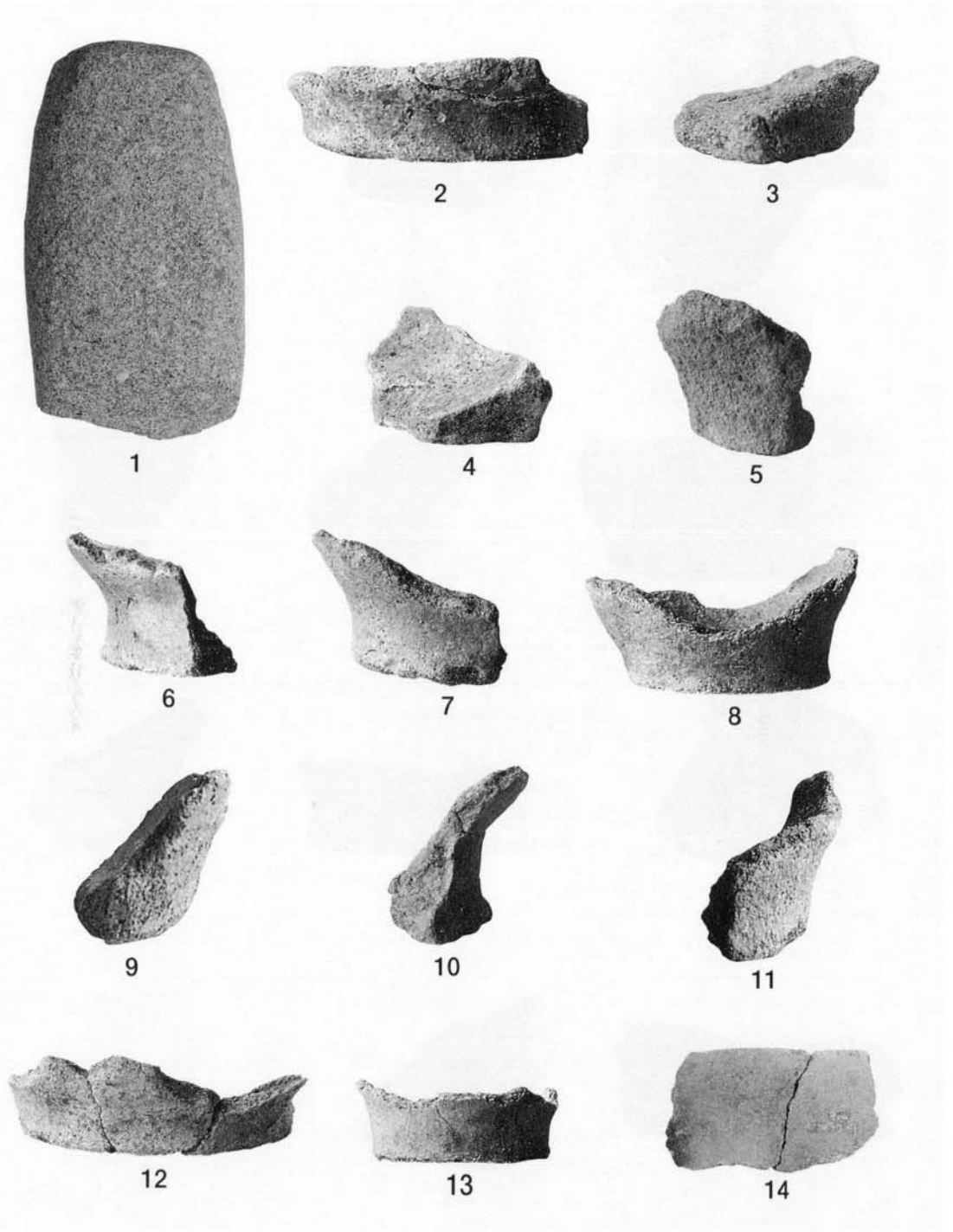
圖版 28. 4號 住居址 出土遺物



圖版 29. 5-1號, 5-2號 住居址(1~10), 6號 住居址(11~14) 出土遺物



圖版 30. 6號 住居址(1, 2), 1號 周溝(3, 4), 2號 周溝(5~14) 出土遺物.



圖版 31. 2號 周溝(1), 1號 溝(2~14) 出土遺物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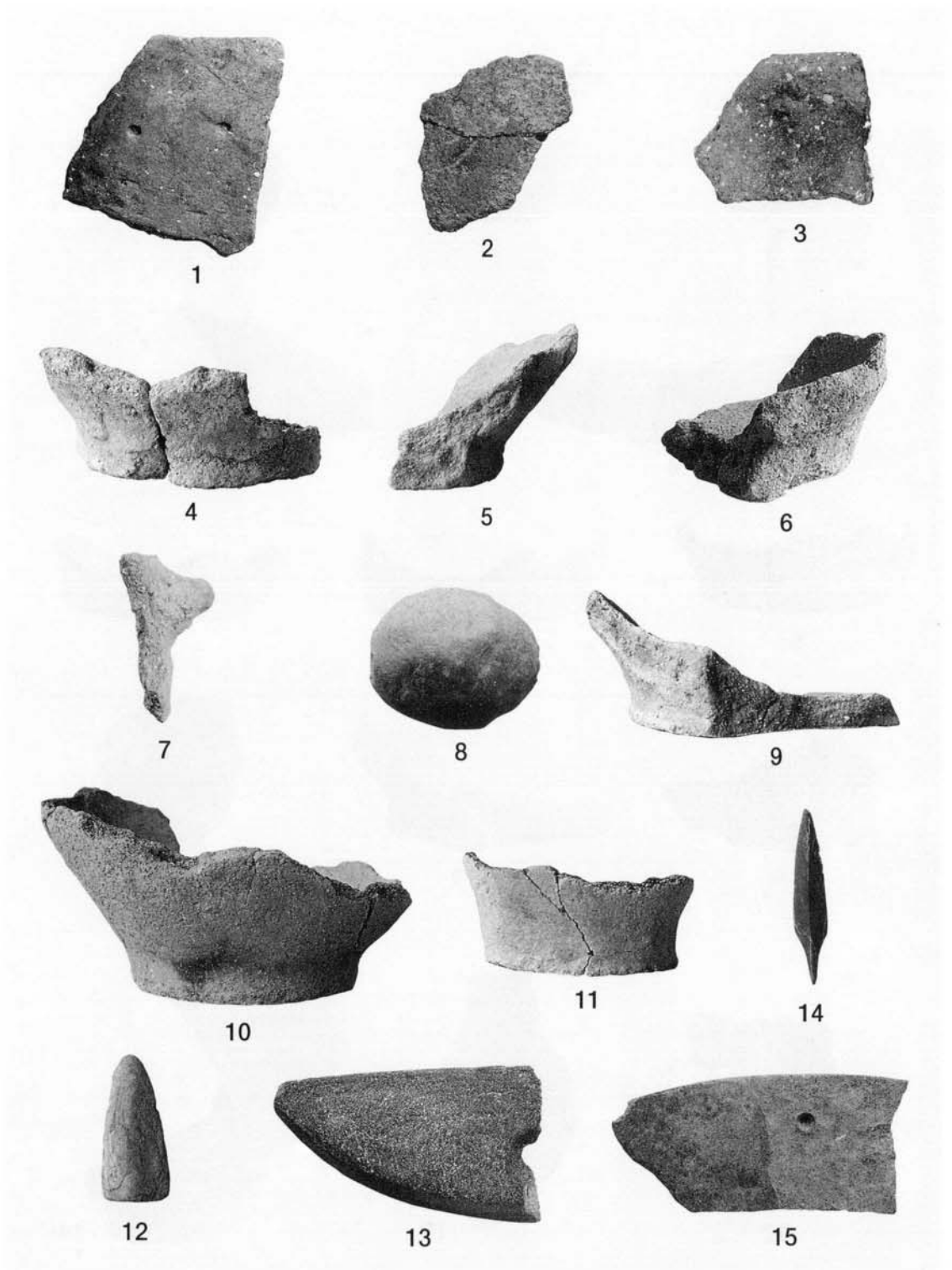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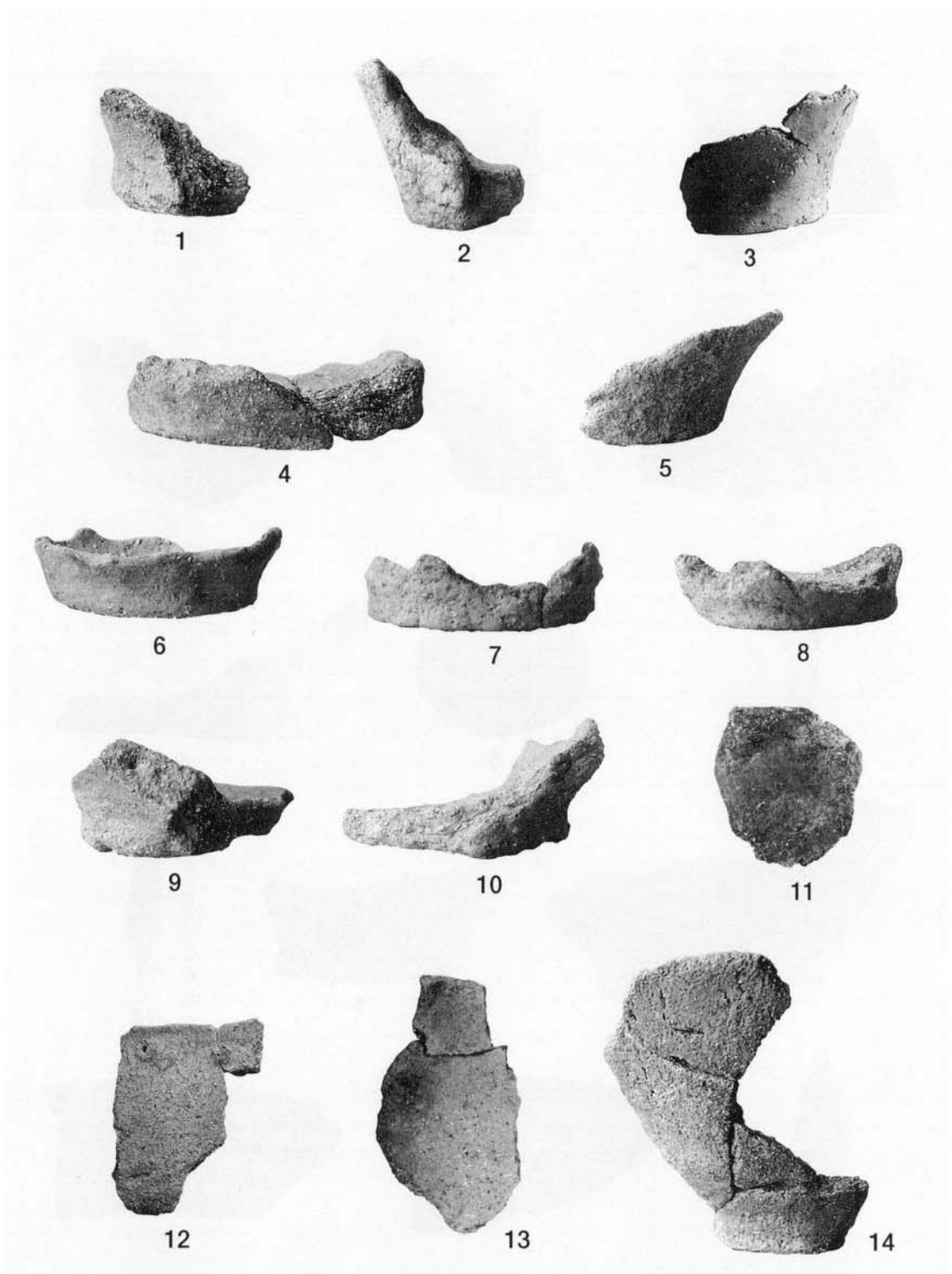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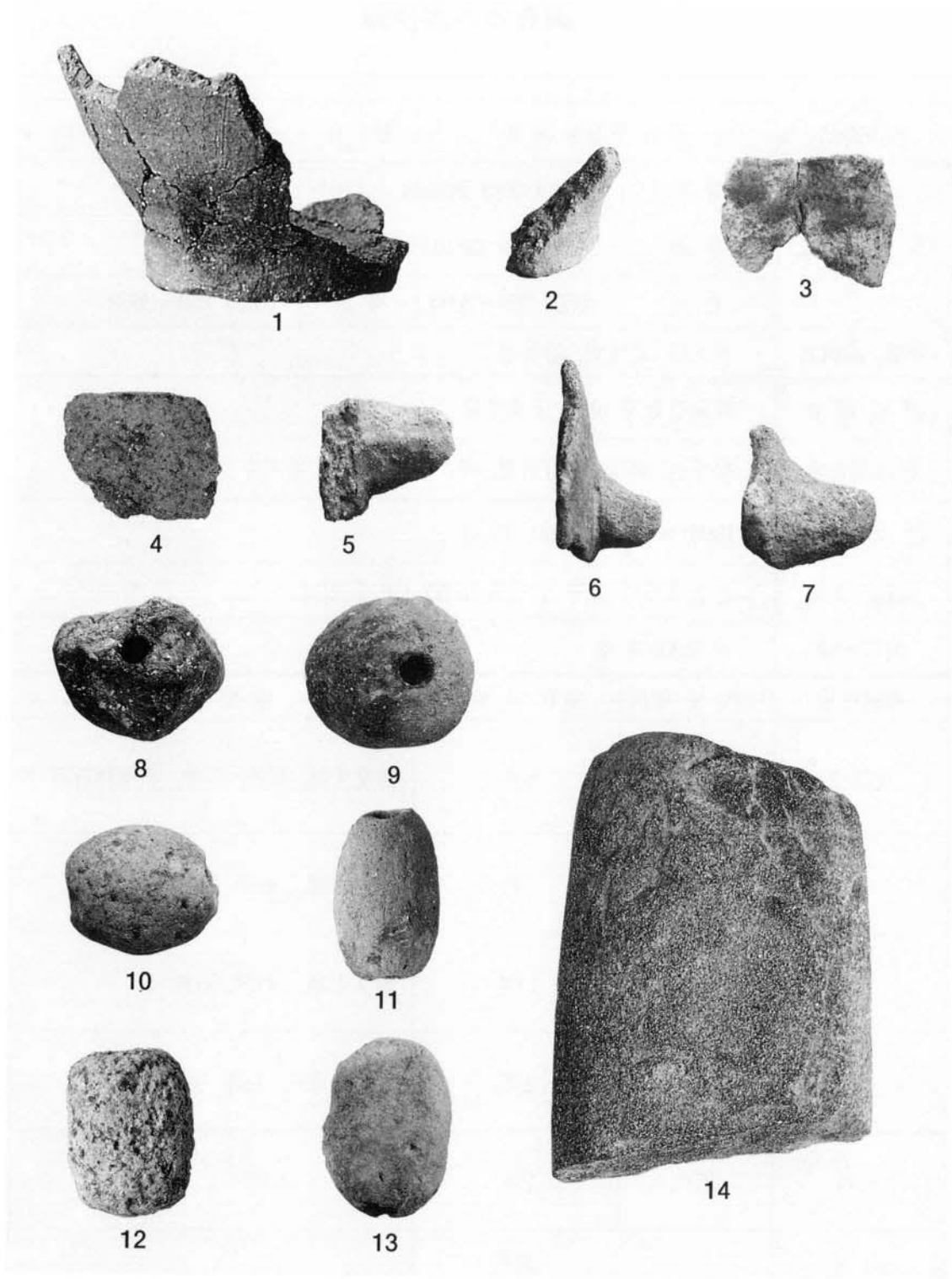
圖版 32. 4號(1~6), 5號(7~9), 7號(10~12) 溝 出土遺物



圖版 33. 8號(1~8), 9號(9, 10), 11號(13), 12號(11), 13號(12) 15號(14, 15) 溝 出土遺物



圖版 34. 地表採集遺物



圖版 35. 地表採集遺物

調查報告書抄錄

報告書名	울산 연암동 유적		發行日	2001年 11月 30日
發行機關	명칭	蔚山大學校 博物館		
	주소	(680-749)蔚山廣域市 南區 無去洞 山29		
	전화	(052) 259~2634	팩스	(052) 259~2632
執筆, 編輯者	전호태, 김영민, 김현철			
調査緣由	학교건립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김영민, 이경인, 김현철, 배순희, 남연의, 김지수			
發掘期間	1999. 9. 25 ~ 1999. 12. 3			
遺蹟所在地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50-1번지 일대			
調査面積	약 2,500여 평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 遺物	
住居址	靑銅器時代	6基	無文土器, 石斧, 石鏃, 半月形石刀 등	
周溝	靑銅器時代	3基	無文土器, 石斧 등	
溝	靑銅器時代	14基	無文土器, 石斧, 石鏃 등	
溝	三國時代	1基	陶質土器片, 石鏃 등	
石列	近代	2基		
소계		26基		

附 錄

을산 화정 동유적

全 虎 兌

金 榮 珉

金 賢 哲

2001

蔚 山 大 學 校 博 物 館

蔚 山 廣 域 市 教 育 廳

目 次

I. 머리말	123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126
III. 調査內容	129
1) 1號 住居址	129
2) 2號 住居址	132
3) 3號 住居址	136
4) 4號 住居址	138
5) 5號 住居址	139
6) 6號 住居址	141
7) 7號 住居址	145
8) 8號 住居址	145
9) 9號 住居址	147
10) 地表採集 遺物	148
IV. 맺음말	158
*화정동유적 퇴적물의 화분분석	181

圖面目次

圖面 1. 遺蹟 位置 및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125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127
圖面 3. 遺構 配置圖(1/400)	128
圖面 4. 1號 住居址 (1/60)	130
圖面 5. 1號 住居址 出土遺物	131
圖面 6. 2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133
圖面 7. 2號 住居址 出土遺物	135
圖面 8. 3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137
圖面 9. 4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138
圖面 10. 5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140
圖面 11. 6號 住居址(1/60)와 出土遺物	142
圖面 12. 6號 住居址 出土遺物	144
圖面 13. 7號 住居址(1/60)	145
圖面 14. 8號, 9號 住居址(1/60)	146
圖面 15. 8號, 9號 住居址 出土遺物	148
圖面 16. 地表採集 遺物 I	149
圖面 17. 地表採集 遺物 II	152
圖面 18. 地表採集 遺物 III	154
圖面 19. 地表採集 遺物 IV	156

圖版目次

圖版 1. 遺蹟遠景 및 全景	163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斗 細部構造	164
圖版 3. 1號 住居址 全景斗 遺物 出土狀態	165
圖版 4. 2號 住居址 全景 및 細部構造, 3號 住居址 全景 및 內部土層	166
圖版 5. 3號 住居址 全景斗 4號 住居址 全景	167
圖版 6. 5號 住居址 全景 및 土層狀態	168
圖版 7. 6號 住居址 全景 및 6, 7號 住居址 重複狀態	169
圖版 8. 6號 住居址 土層 및 遺物出土狀態, 7號 住居址 全景 및 土層狀態	170
圖版 9. 8號 住居址 全景 및 유물출토상태, 9號 住居址 全景 및 細部構造	171
圖版 10. 發掘調査와 花粉分析 試料採取 過程	172
圖版 11. 1號 住居址 및 2號 住居址 出土遺物	173
圖版 12. 2號 住居址 및 3號 住居址 出土遺物	174
圖版 13. 5號 住居址 및 6號 住居址 出土遺物	175
圖版 14. 6號~ 9號 住居址 出土遺物斗 地表採集遺物	176
圖版 15. 地表採集遺物	177
圖版 16. 地表採集遺物	178
圖版 17. 地表採集遺物	179

I . 머리말

울산광역시 동구지역은 70년대의 공업화와 이에 수반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원지형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유적입지에 유리한 지역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울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적의 분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정동유적의 발굴조사는 최근 우리 박물관에서 조사한 화정동 인근의 西部洞遺蹟¹⁾의 조사결과와 함께 동구지역 역시 대단히 조밀하게 선사시대 이래의 유적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화정동유적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의해 학교신축부지로 선정된 지역인데, 1999년 연암동유적과 함께 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52-2번지 일원 7,000여평의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징후가 확인된 1,500여 평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암동유적의 발굴조사가 완료된 1999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굴조사에서는 전체지역을 지형에 따라 구릉지, 사면부, 충적지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 가운데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구릉의 남쪽사면부 뿐이며, 구릉의 정상부와 충적지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구릉의 동쪽 아래에 형성된 충적지의 시굴트렌치에서 泥炭層이 확인되었다. 조사단에서는 泥炭層의 시기와 유적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화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기초로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유적의 위쪽은 대부분 현재의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아래쪽은 암갈색 사질토가 1m이상 퇴적된 상태였다. 토층조사 후 상부의 퇴적토를 제거한 다음 유구 확인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住居址 9동이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은 孔列土器를 비롯한 무문토기류와, 石鏃, 石斧 등의 石器類, 魚網錘 등이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신석기시대에 해당되는 太線文의 土器片이 채집되어 이 일대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화정동유적의 맞은편 구릉에서 [재]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행해졌다. 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곳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소규모의 자연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구릉사면에 조성된 하나의 단위집락으로 생각된다. 결국 동일유적을 둘로 나누어 조사한 셈이 되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의 발굴이 끝나면 두 자료의 검토를 통해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

1) 蔚山大學校 博物館, 2001, 「蔚山 西部洞遺蹟」, 『金海 陵洞遺蹟 I』, 蔚山大學校博物館學術研究叢書 第8輯.

된다.

발굴을 담당했던 조사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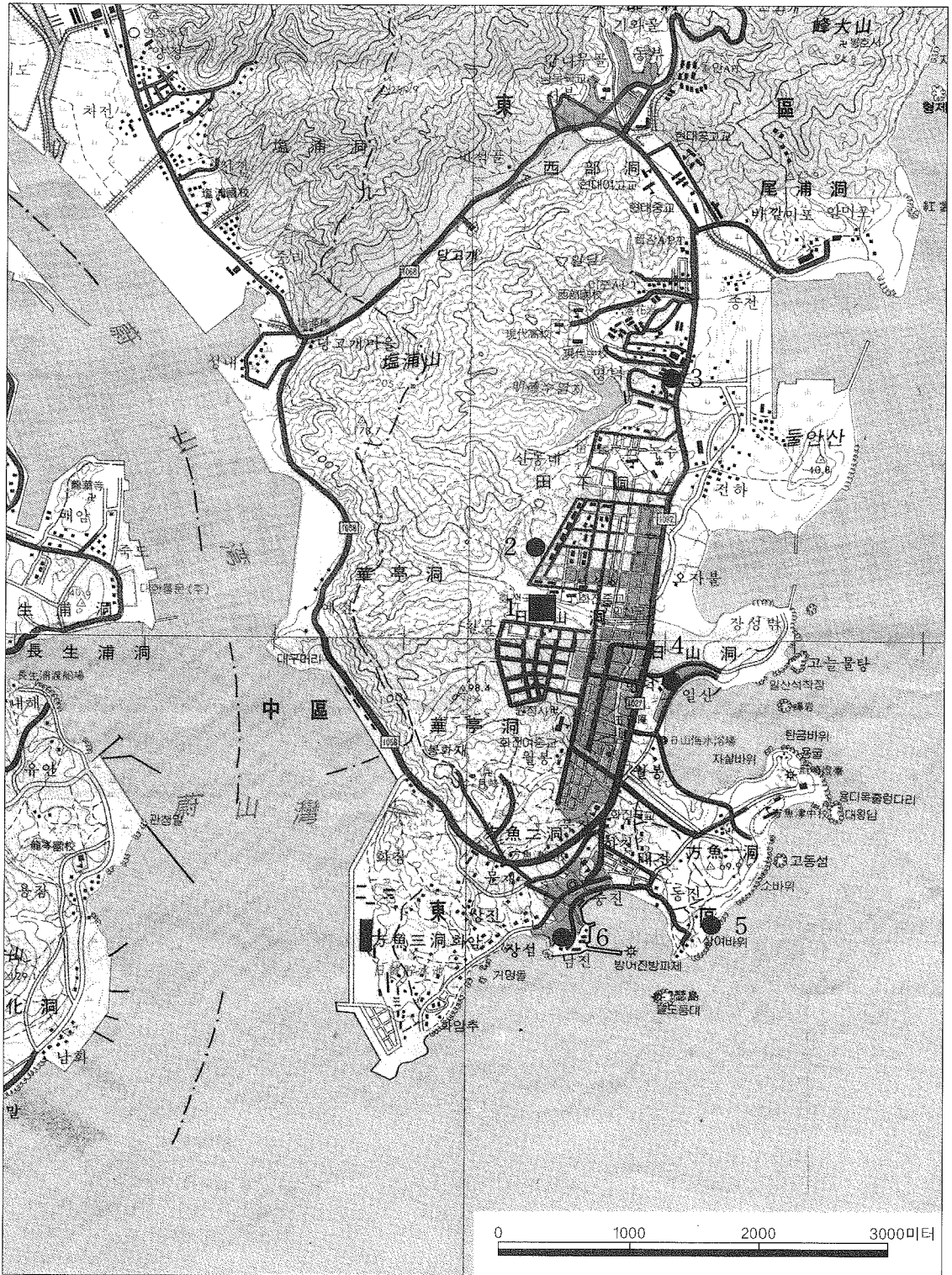
조사단구성

- 가. 단 장 : 전호태(울산대학교 박물관장)
- 나. 조사위원 : 안재호(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기룡(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다. 연구원 :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 라. 연구보조원 : 이경인(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원)
김현철(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배순희(현 [재]울산발전연구원 조사원)
남연의(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지수(현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마. 보조원 : 성민호(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영록(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4학년)

이외에도 발굴기간 동안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학생들이 발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은 해당 유구의 조사자가 직접 담당했으며, 유적의 측량은 권지영, 김지수(이상 [재] 울산문화재연구원)와 성민호가 담당하였다. 유구의 실측은 해당 조사원이 맡아서 시행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유물의 촬영은 김영록과 박기윤이, 유물의 실측 및 제도는 김영록, 신준섭, 김광수, 성민호가 수고해 주었다. 유구의 제도는 김현철이, 본문의 기술은 김현철과 성민호가 분담하여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김영민과 전호태가 수정 보완하였다.



圖面 1. 遺蹟 位置 및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1.조사지역 2.전하동고분군 3.서부동유적
4.일산동고분군 5.방어진 동진유적 6.방어진 화암추유적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화정동유적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52-2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소구릉의 남쪽사면에 조성된 소규모 마을유적이다. 이 지역은 해발 28~33m에 해당하며, 바다와는 직선거리로 4km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의 북쪽으로 염포산에서 이어지는 해발 100m 이상의 산지가 남-북으로 길게 발달해 있다. 유적의 남쪽은 'C'자상으로 해안이 발달해 있어 일찍부터 인간거주에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유적의 배후산지에서 발달한 소하천이 바다와 접하는 중간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이 위치한 부분적인 지형만으로 본다면 내륙지역에 발달한 구릉성 입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옥현유적²⁾, 검단리유적³⁾, 야음동유적⁴⁾ 등이 모두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인데 이들 유적은 대부분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 모두를 마을의 입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정동유적은 낮은 구릉지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면부에만 유구가 분포하며, 주변지역은 좁은 협곡이다. 동구지역의 경우 비교적 구릉의 경사가 급하고 좁은 협곡이 발달된 지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한 구릉이 있는 해안지역이 일차적으로 거주공간의 입지로 선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릉에 자리한 마을의 경우는 10동 미만의 소규모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생업기반은 곡간을 이용한 농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어로에 의한 생업형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海岸丘陵은 바다와 접하면서도 육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형적 조건이 유적의 입지선정에 작용되었을 것이다.

화정동유적이 위치한 蔚山廣域市 東區지역은 대부분 공단과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남아 있는 유적이 대단히 적은 상태이다.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지리적인 한계속에서 틈새로 남아 있던 일부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구지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선사시대 이래의 매장문화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 알려진 곳만 하더라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방어진 화암추유적과 동진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은 바닷가에 인접한 구릉완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화정동유적과 서부동유적이 있으며,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일산동고분군⁵⁾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전하동고분군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⁶⁾. 앞으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의 마을유적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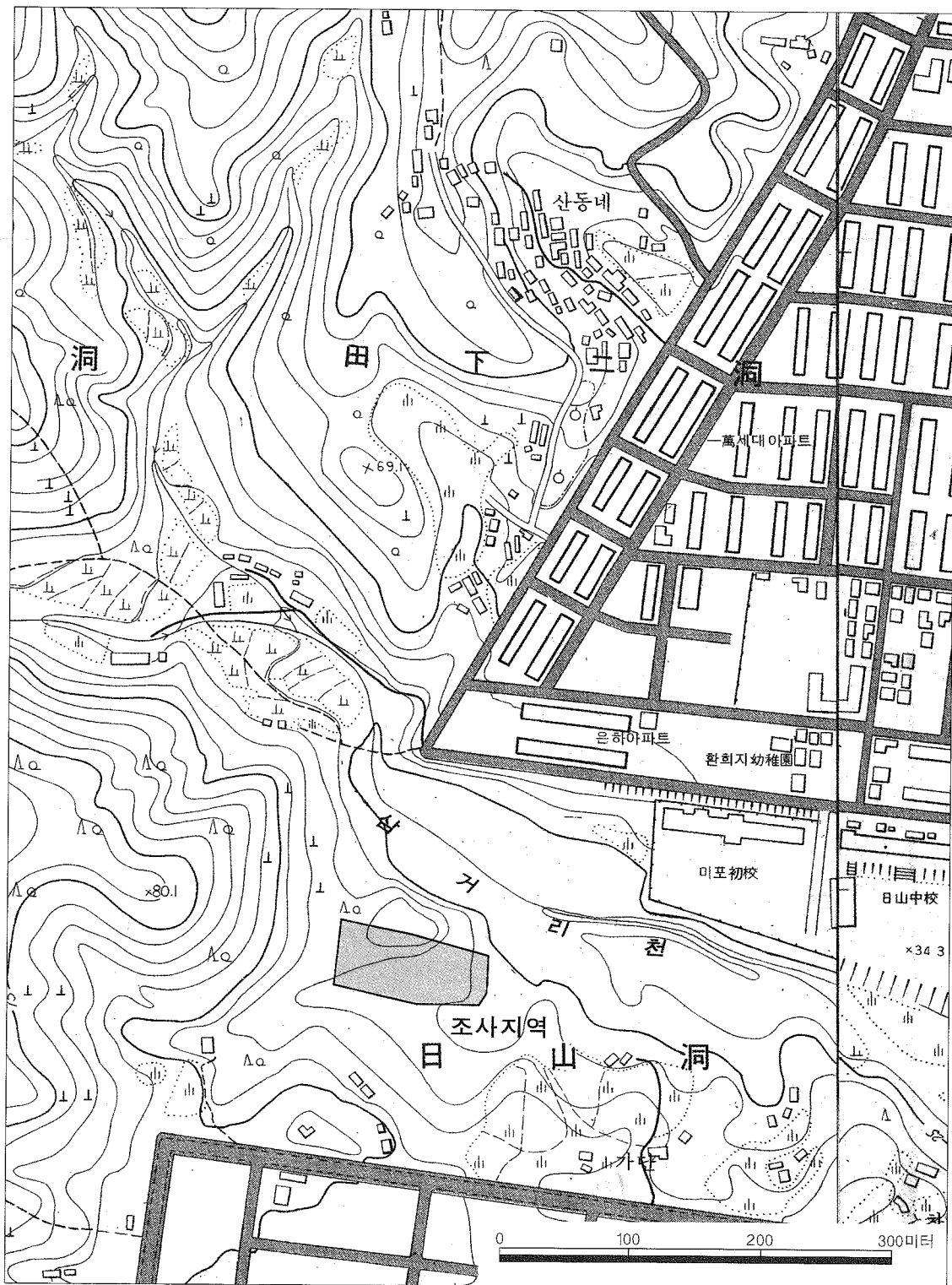
2) 경남대학교 박물관, 1999,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경남대·밀양대박물관 현장설명회자료.

3)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 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學術研究叢書 第17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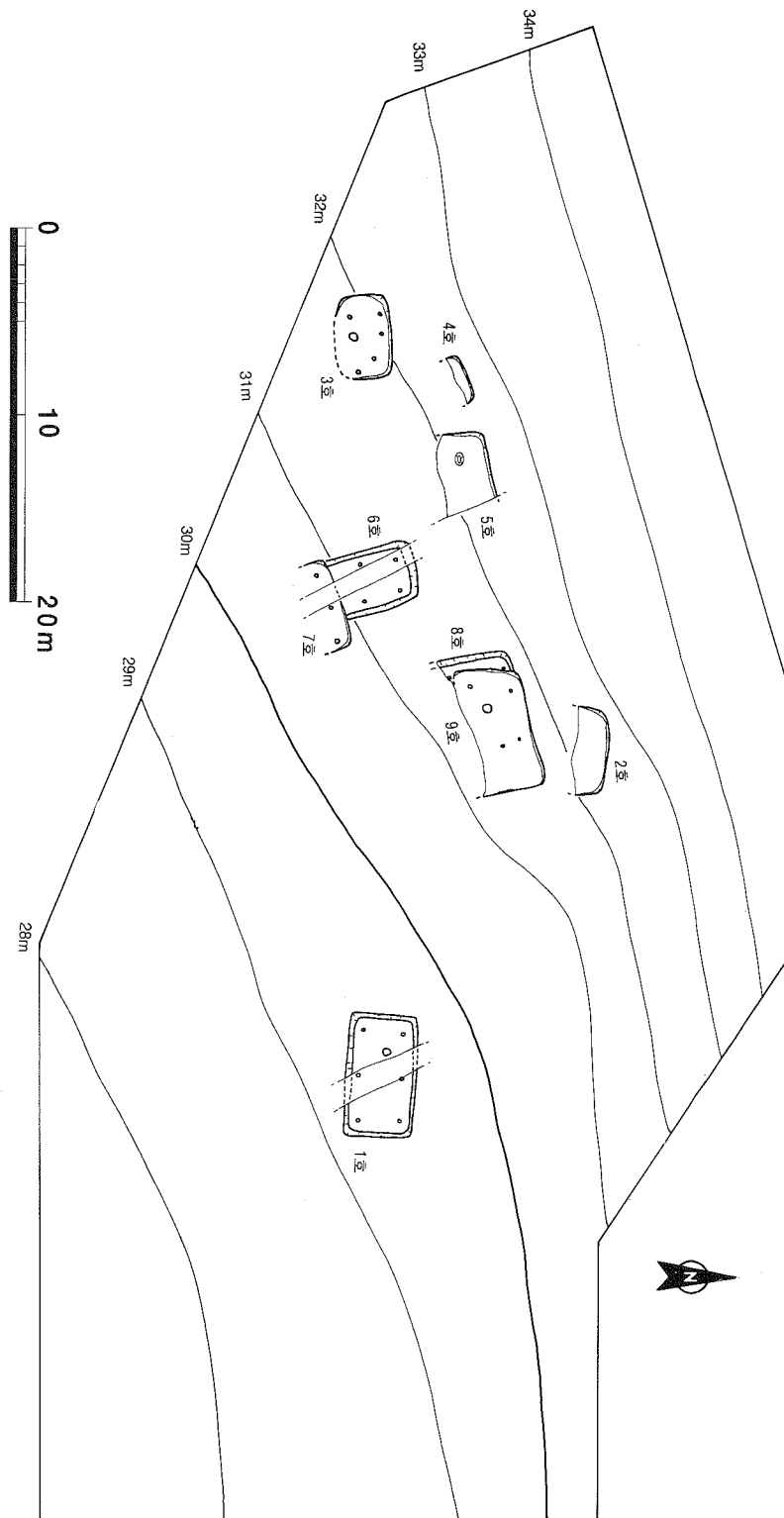
4) 밀양대학교·동의대학교박물관, 2001, 『울산 야음동유적』, 현장설명회자료.

5)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蔚山 日山洞古墳群』, 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 第18冊.

6) 여기에 언급한 유적은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市 文化遺蹟原簿』, 昌原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7冊.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圖面 3. 遺構 配置圖(1/400)

Ⅲ. 調查內容

1) 1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4, 圖版 2, 3)

1호 주거지는 조사범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장방형의 6柱式 住居址이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N90°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유구의 중앙부분은 시굴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630cm, 폭 405cm, 최대깊이 37cm이다.

주거지 내부토는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I층은 점성이 있는 암적갈색으로 소토와 풍화암반이 혼입되어 있다. II층은 암적갈색 점질토와 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층은 목탄 및 소토 등이 혼입된 암적갈색토이다. IV층은 壁溝內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III층과 유사하다. 주거지의 廢棄와 관계되는 층은 III층이며, III층이 내부에 채워진 후에 할석들이 채워졌다. II층의 돌더미에서는 주거지의 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없으며, 목탄 및 소토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가 폐기된 후에 의도적으로 돌을 채워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상에서 할석의 분포는 시굴트렌치를 경계로 서쪽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돌들이 층층이 쌓여 돌무지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편에는 바닥에 한 벌 정도로 깔려 있었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壁溝와 柱穴, 爐址 등이 있다. 壁溝는 폭 20cm, 깊이 15cm내외로 4벽면에 둘러져 있으며, 벽구 내부에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壁溝는 잔존하고 있는 벽면의 목탄과 벽구의 단면상의 형태를 통해 볼 때 벽채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초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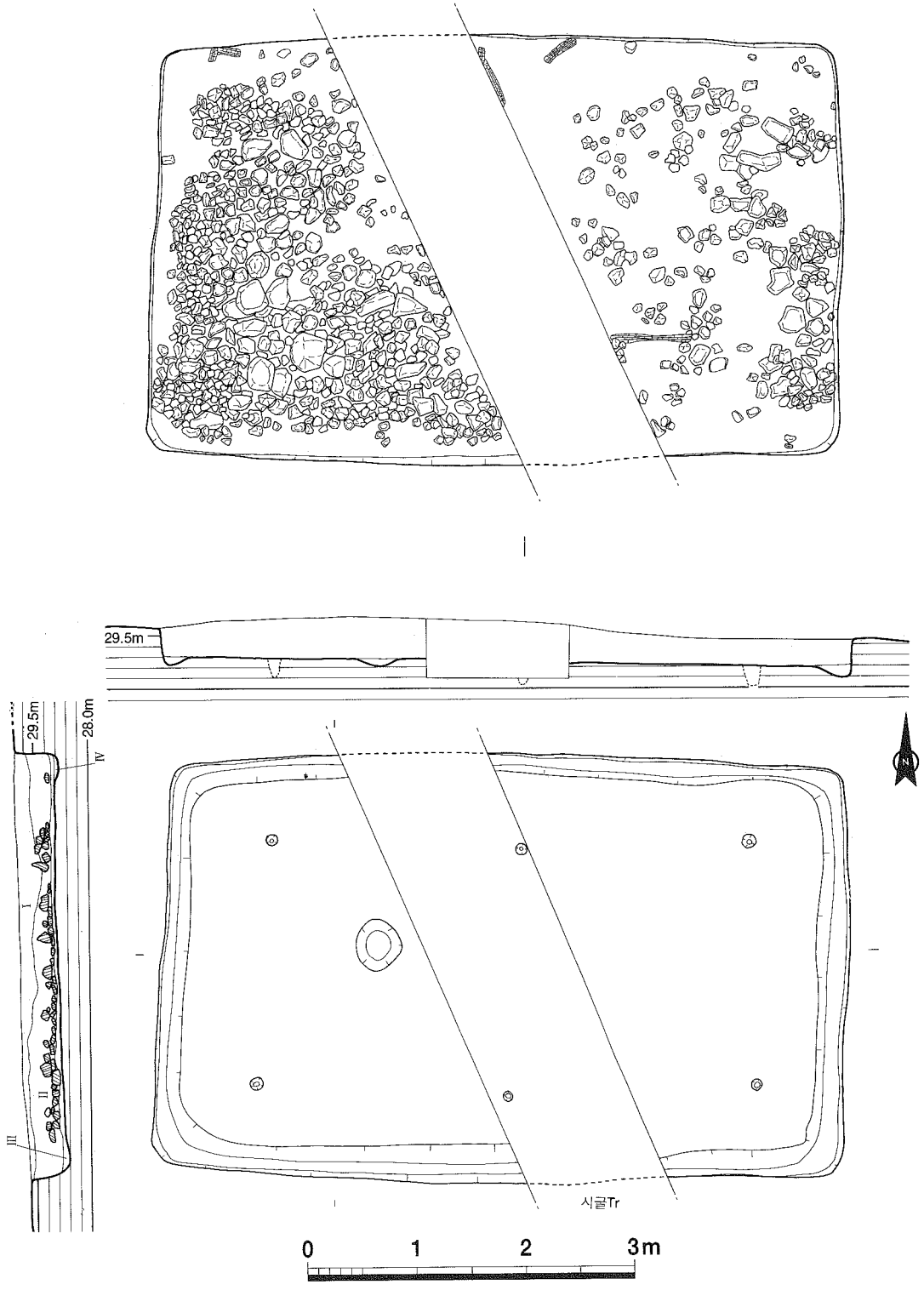
柱穴은 모두 6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주혈과 벽체와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어 정확한 계측에 의해 주거지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혈의 크기는 지름 12cm, 깊이 15~30cm이며, 주혈간 간격은 220cm이다.

爐址는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다. 직경 45cm, 깊이 15cm의 타원형 수혈이며,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은 간단한 구조이다. 노지의 바닥에는 소토와 목탄이 채워져 있었다. 주거지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에 초본류를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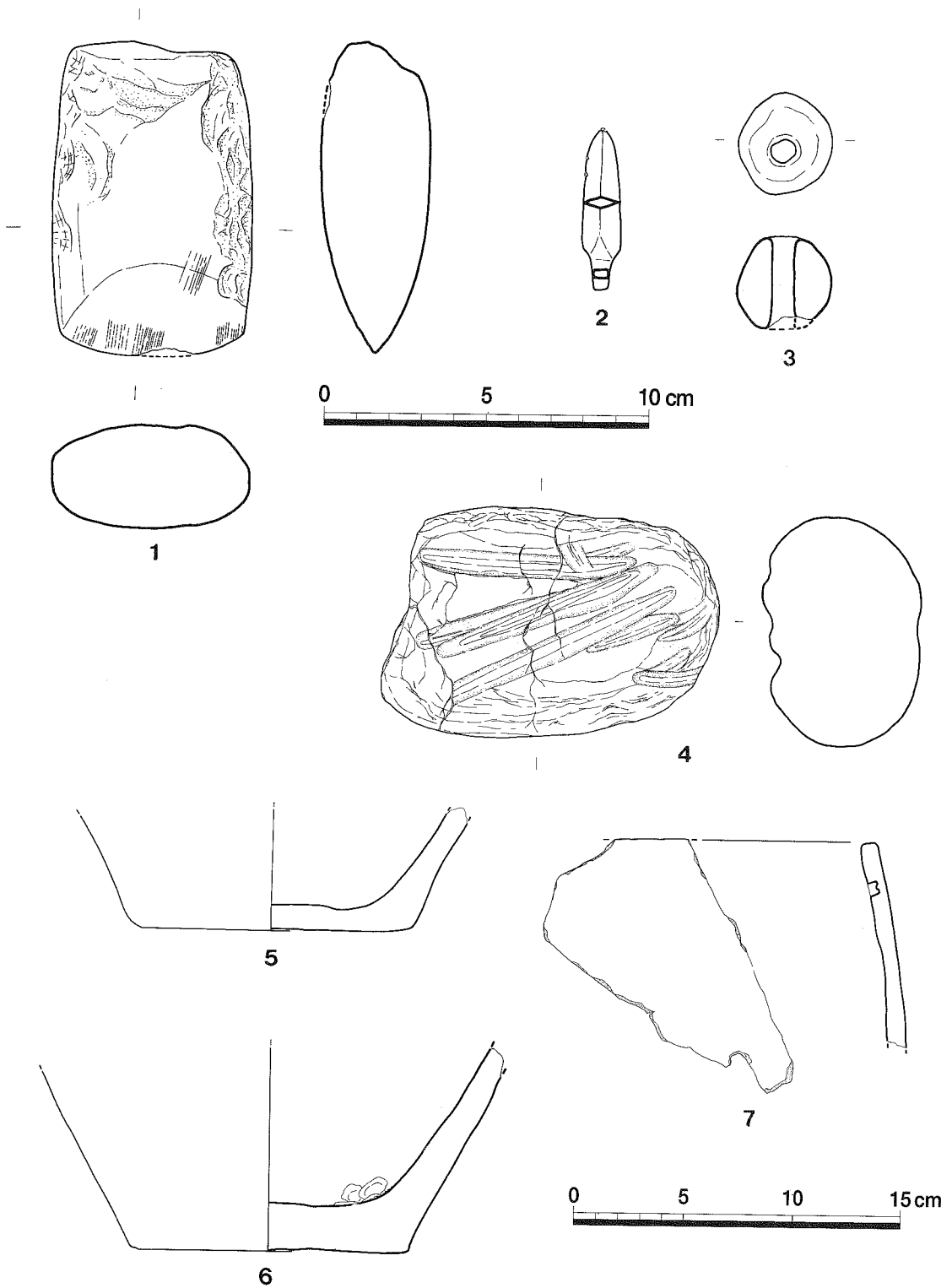
유물은 할석이 포함된 II층에서 無文土器類가 출토되었으며, 유구의 바닥에서 魚網錘 1점, 石斧 1점, 石鏟 1점, 砥石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圖面 5-1(圖版 11-6)은 泥岩혼펠스製의 蛤刃石斧이다. 刃部 및 身部표면에 마연흔이 확인되며, 石斧의 양모서리 부분에는 타격흔이 관찰된다. 횡단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9.9cm, 폭 6.1cm, 두께는 3.2cm이다.



圖面 4. 1號 住居址(1/60)



圖面 5. 1號 住居址 出土遺物(1~3 : 1/2, 4~7 : 1/3)

圖面 5-2(圖版 11-5)는 泥岩혼펠스製의 有莖式 石鏃이다. 身部 斷面은 菱形이며, 莖部 斷面은 세장한 직사각형을 띤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며, 先端部 일부는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길이 5.1cm, 신부폭 1.1cm이다.

圖面 5-3(圖版 11-4)은 土製 魚網錘로 黃褐色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굵은 石粒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圓形이다. 길이 2.9cm, 너비 2.8cm, 구멍지름 0.7cm, 중량 17.9g이다.

圖面 5-4(圖版 11-7)는 細粒砂岩製의 砥石으로 한쪽 면을 사용하였다. 지석을 사용한 면에는 폭 1.0cm, 깊이 0.5cm의 홈이 겹쳐진 채로 남겨져 있다. 여러 차례 방향을 달리하면서 사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길이 15.0cm, 두께 7.0cm이다.

圖面 5-5(圖版 11-1)는 無文土器 底部로 외면 淡黃色, 내면 灰黑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잔존한다. 잔존높이는 5.9cm이고 底徑은 12.8cm이다.

圖面 5-6(圖版 11-2)은 내·외면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내면에는 底部와 胴體部の 접합부위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9.7cm, 底徑 12.8cm이다.

圖面 5-7(圖版 11-3)은 孔列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잔존형태를 보아 鉢形土器의 口緣部로 추정되며, 口緣은 內傾한다. 口緣端은 평탄하며, 구연단 아래의 내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반투공된 지름 0.5cm, 깊이 0.4cm가량의 孔列文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간의 간격은 4.5cm이다. 외면 灰黑色, 내면 黑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細石粒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목리조정 후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는 11.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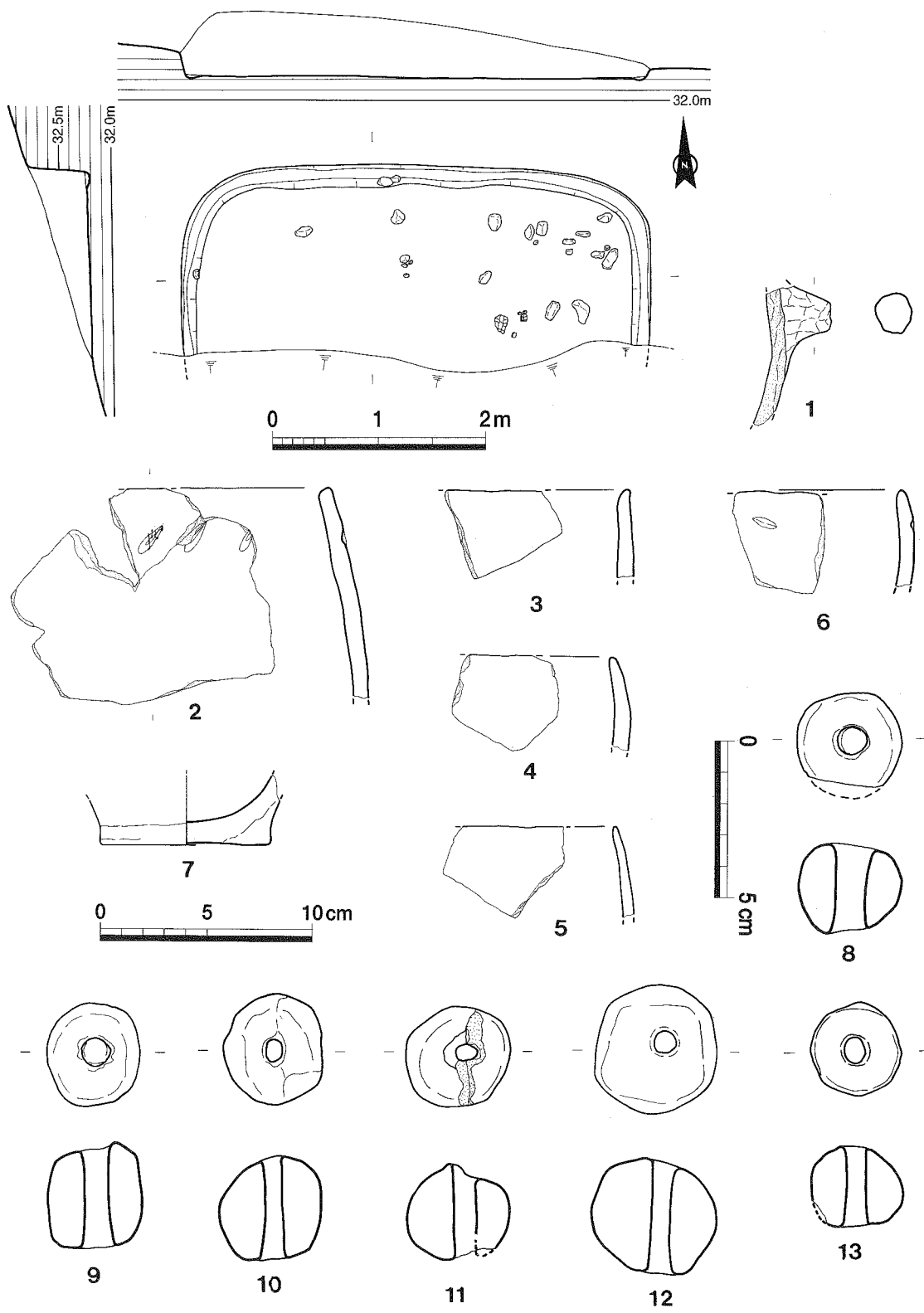
2) 2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6, 圖版 1, 2, 3)

구릉의 서쪽 사면 해발 32m선상에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장축방향은 N85°W이다.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유구의 남쪽부분은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40cm, 잔존폭 195cm, 최대깊이 60cm이다.

벽면을 따라 폭 20cm, 깊이 5~10cm의 壁溝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구 내부에는 遺構의 내부토와는 달리 목탄이 다량 포함된 암적갈색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구의 床面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柱穴 및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2호 주거지는 아마도 주거공간이 아닌 다른용도의 시설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圖面 6. 2號 住居址出土遺物(遺構 : 1/60, 1~7 : 1/3, 8~13 : 1/2)

유물은 대부분 내부토의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것이며, 상면에서 출토된 것은 無文土器 口緣部片 1점, 魚網錘 11점이다. 그밖에 유물은 2호 주거지 주변에서 수습된 것으로 이 유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遺物

圖面 6-1(圖版 11-9)은 無文土器 把手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灰褐色을 띤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단면형태는 橢圓形이며, 선단부는 박리가 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높이 6.7cm이다.

圖面 6-2(圖版 11-8)는 短斜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端은 평탄하게 처리되었으며, 口緣部는 內傾하고 있다. 내면 明褐色, 외면 黑褐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으나 외면은 물손질정면하였다. 구연단 아래 2.0cm지점에는 지름 1.6cm, 너비 0.4cm, 깊이 0.2cm정도 크기의 短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간의 간격은 1.7~2.0cm이다. 잔존높이 10.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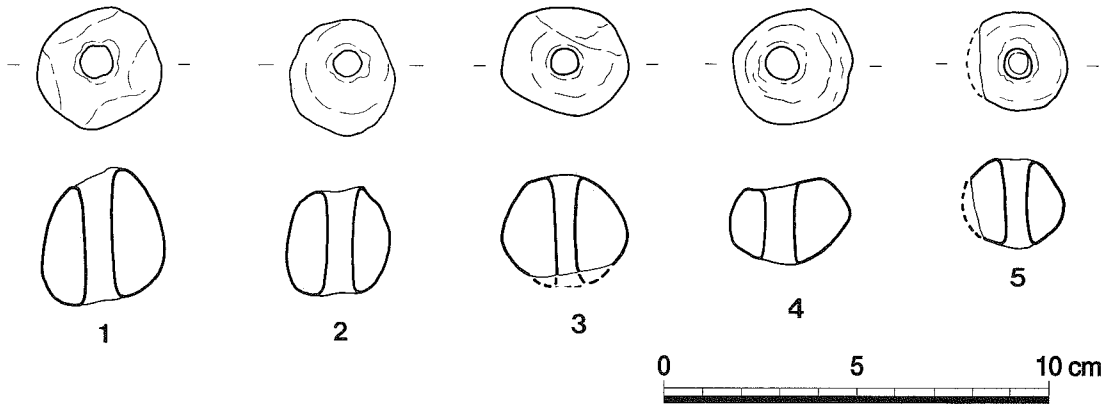
圖面 6-3(圖版 11-10)은 내·외면 黃橙色의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端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정선된 태토에 0.1~0.2cm의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4.2cm이다.

圖面 6-4(圖版 11-12)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잔존하는 상태로 보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으로 추정되는데 약간 內傾하는 듯하다. 내면 명적갈색, 외면 암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4cm이다.

圖面 6-5(圖版 11-13)는 잔존하는 상태로 보아 鉢形土器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내면 명적갈색, 외면 암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및 0.1~0.2cm 크기의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4.5cm이다.

圖面 6-6(圖版 11-11)은 2호 住居址 남쪽 바닥에서 출토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면 灰黑色을 띠며, 외면은 적갈색을 띤다. 口緣部는 內傾하는 듯하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할 수 없으나, 口緣端 아래 1.5cm 지점에 지름 1.1cm, 너비 0.3cm의 범씨모양 短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4.6cm이다.

圖面 6-7(圖版 11-14)은 無文土器 底部로 내면 灰黑色, 외면 暗褐色을 띠고 있다. 저부



圖面 7. 2號 住居址 出土遺物(1/2)

는 박리로 인해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3cm, 底徑 7.9cm이다.

다음은 2호 주거지 내부 조사중에 수습된 魚網錘 11점이다. 전체적으로 球의 형태를 띠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길이 2.5~3.5cm이며, 무게는 대체로 14.0~52.0g이다.

圖面番號	圖版番號	斷面形態	規 格(cm, g)			說 明
			直徑	너비	重量	
6-8	12-1	원형	2.8	3.2	(24.6)	일부 결실. 황갈색, 소성 양호, 표면박리 심함.
6-9	12-2	타원형	3.3	2.9	31.9	완형, 황적갈색, 태토에 굵은 석립 혼입. 표면박리
6-10	12-4	원형	3.3	3.1	35.3	완형, 암갈색, 태토에 석립 다량 혼입.
6-11	12-5	원형	3.1	3.1	(26.3)	1/2결실, 암황갈색, 소성 보통
6-12	12-8	원형	3.5	4.0	52.0	완형, 적갈색, 소성보통
6-13	12-6	원형	2.6	2.8	17.0	완형, 전체적으로 적갈색, 외면에 指頭痕 잔존.
7-1	12-9	타원형	3.4	3.1	31.5	완형. 황적갈색. 표면에 지두흔 잔존.
7-2	12-7	원형	2.9	2.8	22.9	완형. 황갈색,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 사용.
7-3	12-10	원형	2.6	3.1	23.4	완형. 황갈색. 태토에 세석립 소량 혼입. 표면에 흑반이 나타남.
7-4	12-11	원형	2.1	3.1	17.9	완형. 표면 박리심함.
7-5	12-3	원형	2.3	(2.3)	(14.0)	일부 결실. 흑갈색, 표면박리,

3) 3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8, 圖版 4-4, 5-1, 6)

조사범위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이 N87°W인 장방형 주거지이다. 구릉의 경사면에 입지하여 주거지의 낮은 쪽인 남쪽은 일부 유실되었다. 규격은 길이 410cm, 폭 310cm, 최대깊이 35cm이다.

유구 내부의 토층은 2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I 층은 암갈색사질토로 풍화암반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II 층은 굵은 석립 및 목탄, 소토 등이 혼입된 암갈색사질토이다. 유물은 대부분 II 층에서 출토되었다.

상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지름 15cm, 깊이 10cm 전후의 주혈이 설치되어 있다. 주혈간 일정한 규칙성은 없어 보인다. 爐址는 유구의 중앙에서 남쪽장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규모는 직경 35cm, 깊이 10cm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爐址의 내부에는 소토 및 목탄이 채워져 있었다. 이외에 주거지를 구성하는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無文土器 口緣部 및 底部片이 주로 출토되었고 바닥에서는 魚網錘 및 石器類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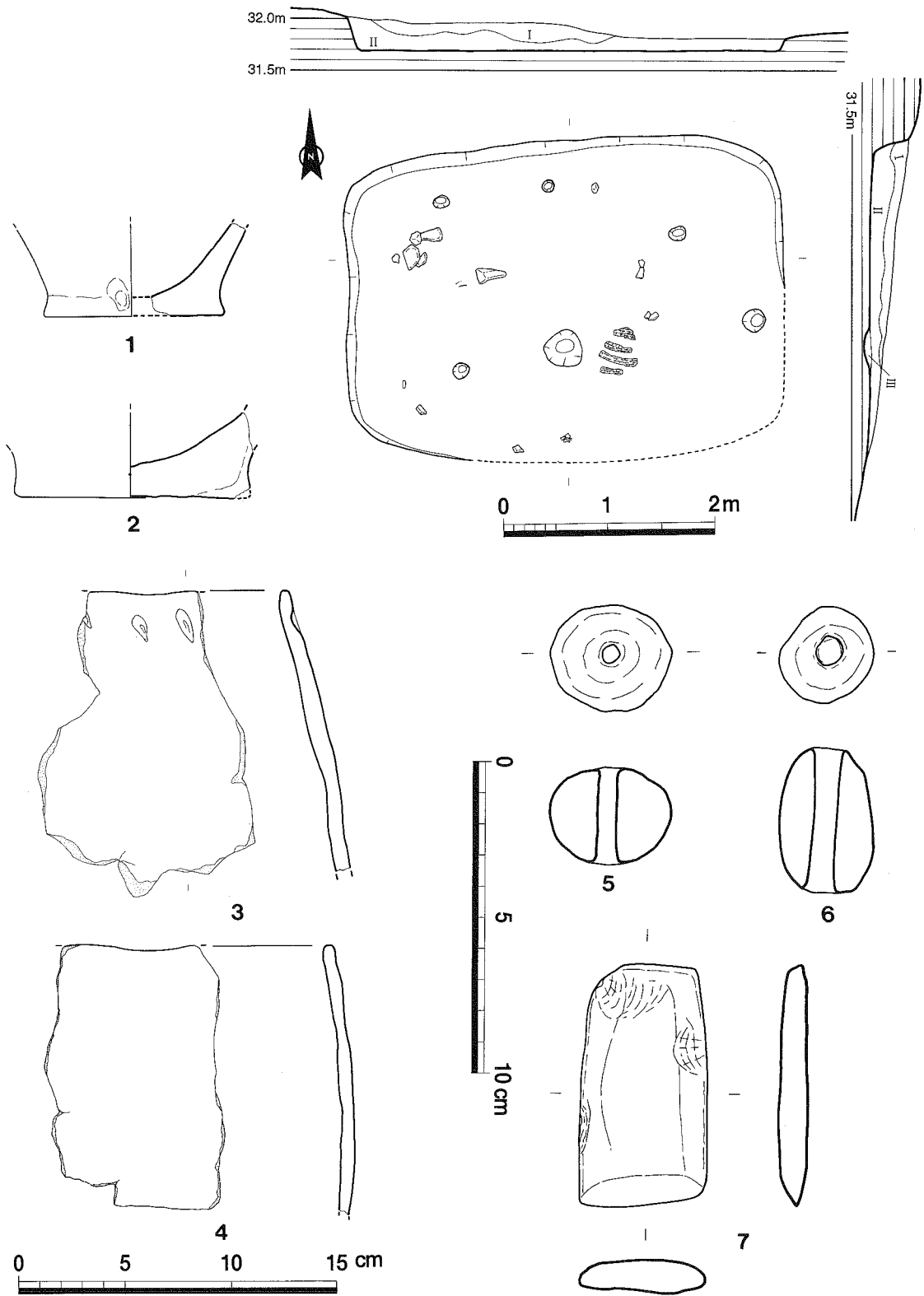
나. 遺物

圖面 8-1(圖版 12-12)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胴體部를 포함해서 저부의 1/3가량만이 잔존한다. 내면 淡黃色, 외면 암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底部 축약부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4.3cm, 추정저경 8.3cm이다.

圖面 8-2(圖版 12-13)는 내·외면 淡黃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할 수 없다. 잔존높이 4.1cm, 추정저경 11.0cm이다.

圖面 8-3(圖版 12-14)은 구연에 短斜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구연단은 수평이 아니고 약간의 굴곡이 있다. 내면 明褐色, 외면 黑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口緣端의 내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되며,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구연단 아래에는 지름 1.2cm, 너비 0.5cm, 깊이 0.2~0.3cm 크기의 短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간의 간격은 2.0cm이다. 잔존높이 13.5cm이다.

圖面 8-4(圖版 12-15)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鉢形土器의 口緣部으로 추정된다. 내면 明黃褐色, 외면 灰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細石粒이



圖面 8. 3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1~4 : 1/3, 5~7 : 1/2)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13.0cm이다.

圖面 8-5(圖版 12-16)는 흑색의 土製 魚網錘로 完形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길이 3.0cm, 너비 2.9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38.6g이다.

圖面 8-6(圖版 12-17)은 황적갈색의 土製 魚網錘이다. 평면은 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5.5cm, 너비 2.0cm, 구멍지름 0.6cm이며, 중량은 36.3g이다.

圖面 8-7(圖版 12-18)은 泥岩혼펠스製의 扁平片刃石斧이다. 身部에는 chipping흔이 남겨져 있다. 길이 7.7cm, 폭 4.0cm, 두께는 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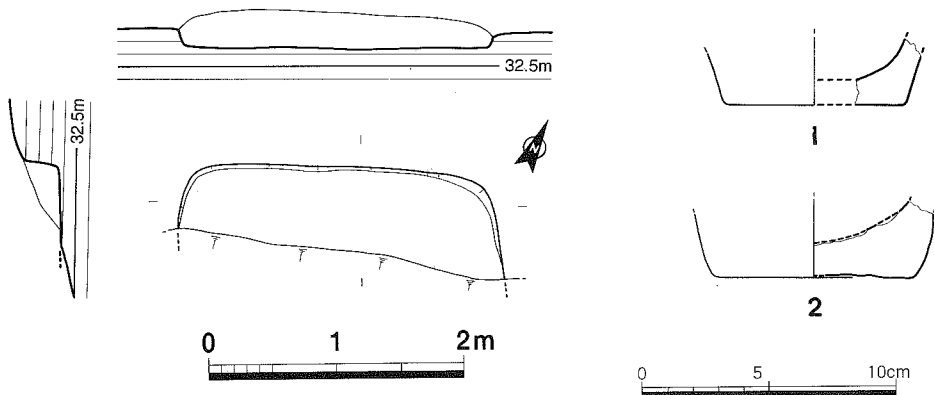
4) 4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9, 圖版 5-2)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유구의 남쪽 부분은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장축방향은 N75°E이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40cm, 잔존폭 75cm, 최대깊이 28cm로 소형에 해당되는데 유구의 잔존 상태로 볼 때 등고선과 직교하는 장방형의 주거지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床面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초분류를 이용하여 바닥시설을 만들었다. 상면 전체에 초분류가 탄화된 채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어 주거지를 구성하는 柱穴, 爐址 등의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내부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無文土器 底部 2점과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圖面 9. 4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3)

나. 遺物

圖面 9-1(圖版 13-1)은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1/3가량만이 잔존하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내·외면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확인하기 어렵다. 잔존높이 2.6cm, 추정저경 7.0cm이다.

圖面 9-2(圖版 13-2)는 내·외면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1/2가량만이 잔존하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하기 힘들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7.8cm이다.

5) 5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0, 圖版 6)

해발 32m선상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N82° E로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390cm, 잔존폭 275cm, 최대깊이 45cm이다. 유구의 동쪽은 시굴트렌치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남쪽은 자연경사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다.

床面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유구의 중앙부분에 할석들이 놓여져 있다. 爐址는 중앙에서 서쪽단벽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직경 55cm, 깊이 15cm의 타원형 수혈이다. 내부에 소토가 채워져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유구 바닥에서 無文土器 口緣部片과 魚網錘 등이 할석들과 섞여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圖面 10-1(圖版 13-6)은 黃褐色의 土製 魚網錘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길이 6.0cm, 너비 3.5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62.5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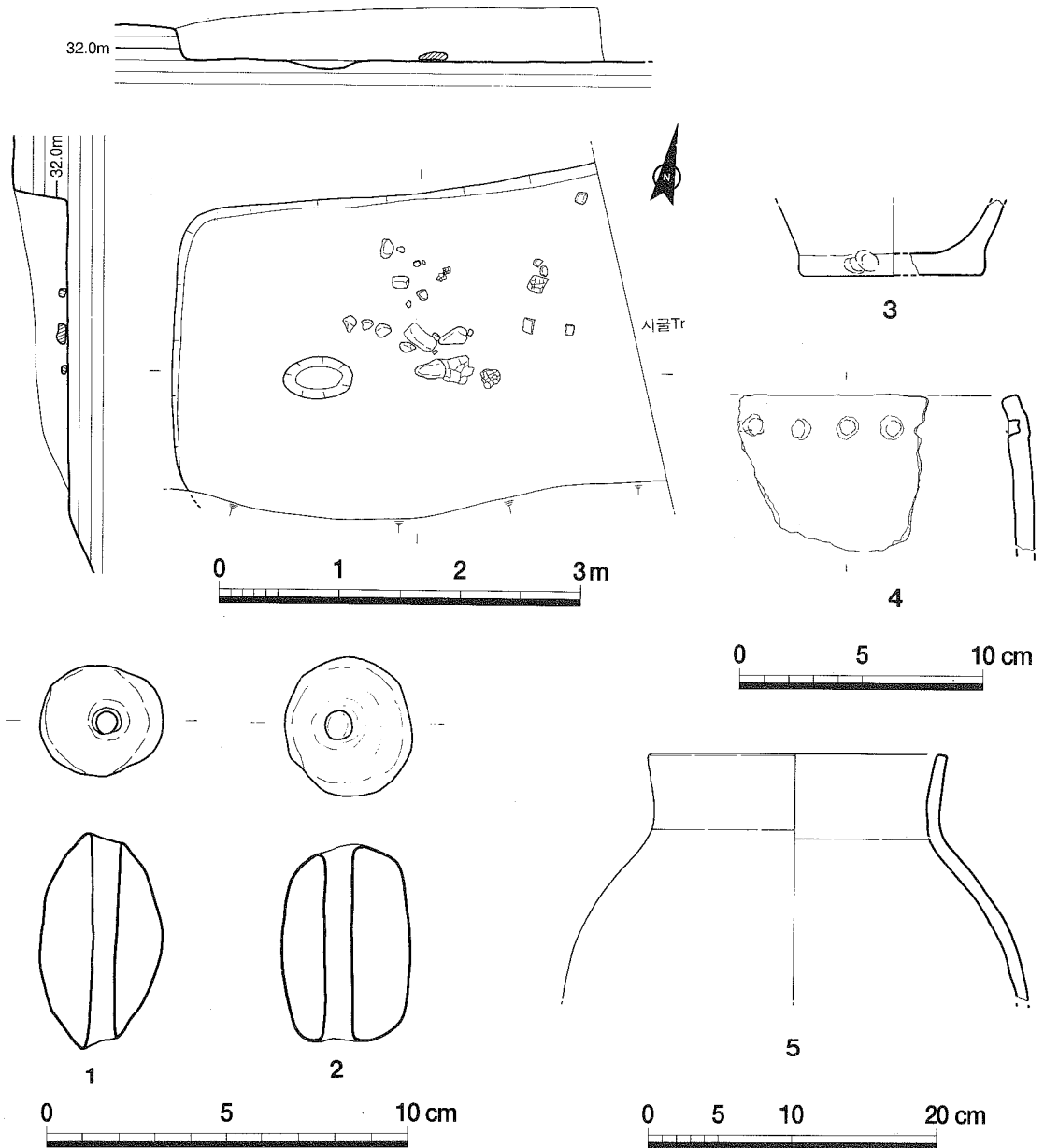
圖面 10-2(圖版 13-4)는 完形의 土製 魚網錘로 黃赤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5.5cm, 너비 3.5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77.3g이다.

圖面 10-3(圖版 13-3)은 5호주거지 내부출토유물로, 외면 黃褐色, 내면 灰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1/3가량만이 잔존하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나 외면의 底部와 胴體部 접합부위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7.7cm이다.

圖面 10-4(圖版 13-4)는 口緣部에 孔列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淡黃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구연단 아래 1.0cm정도에 지름 0.6cm가량의 孔

列文이 0.8cm의 간격으로 안에서 밖으로 반투공되어 있다. 잔존높이 6.6cm이다.

圖面 10-5(圖版 13-5)는 無文土器 口緣部이다. 口緣과 胴體 일부만이 잔존한다.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壺形土器의 口緣部일것으로 추정된다. 淡黃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의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잔존하나 그 외에는 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의 흔적은 확인하기 힘들다. 잔존높이 17.5cm, 복원구경 20.0cm이다.



圖面 10. 5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1·2 : 1/2, 3·4 : 1/3, 5 : 1/5)

6) 6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1, 圖版 7, 8-1, 2, 3, 4, 5)

구릉의 아래쪽 해발 31m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7호 주거지에 의해 남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시굴트렌치로 인해 주거지의 가운데 부분이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23°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잔존길이 420cm, 폭 355cm, 최대깊이 6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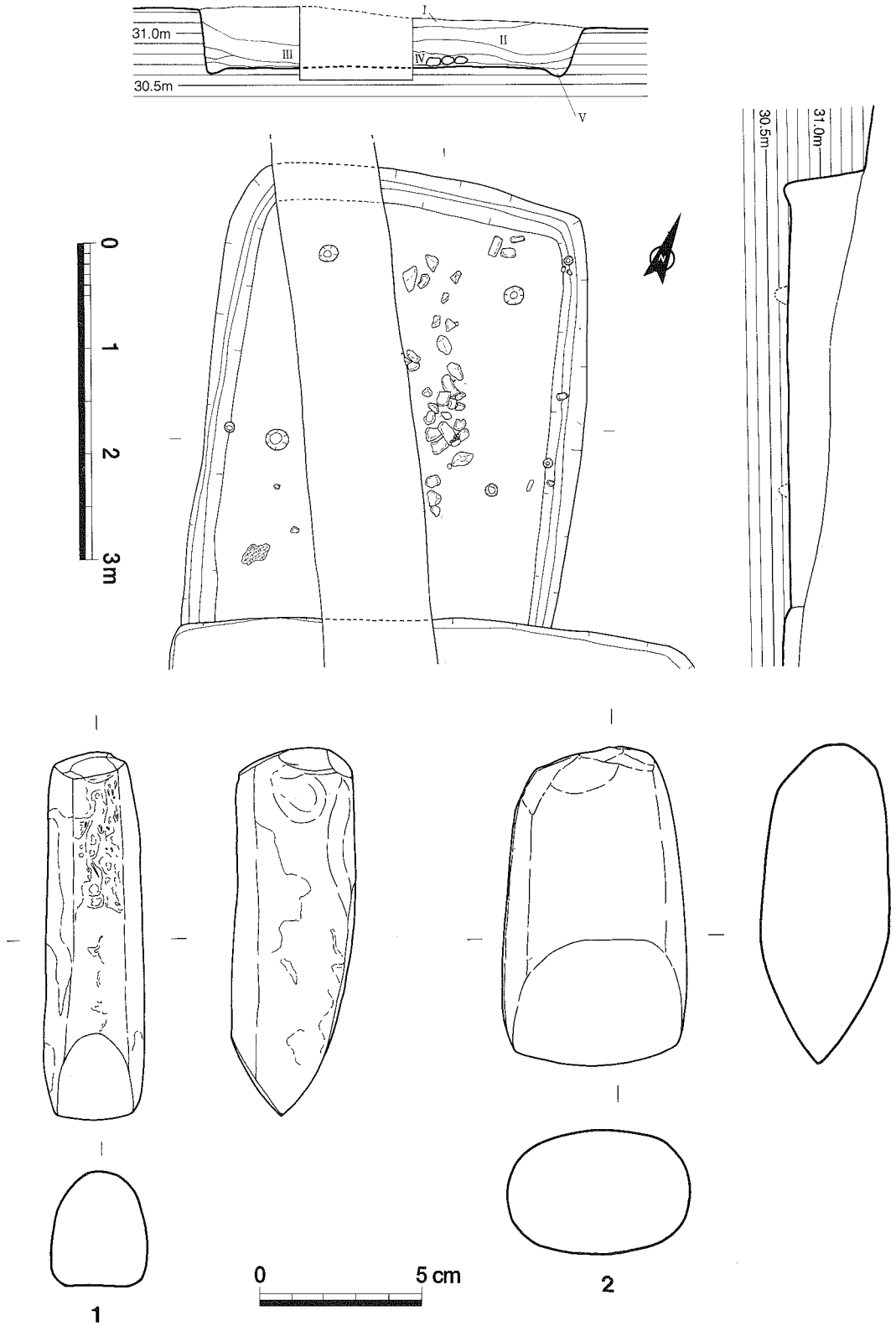
내부토는 I~V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I층은 암적갈색토이며, 점성이 강한 편이다. II층은 I층보다 밝은 빛을 띠는 적갈색토이며, 풍화암반이 혼입되어 있다. III층은 굵은 석립이 혼입된 암적갈색토이며, 점성도 강하다. IV층은 암적갈색토이며, 직경 15~25cm 정도의 할석들이 혼입되어 있다. IV층은 상면과 접하고 있는 층이며, 소토 및 목탄이 혼입된 암적갈색토이다. 반면 V층의 암적갈색토는 생활당시의 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IV층이후의 층위부터 주거지의 폐기후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입되어 있는 할석들은 폐기된 이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활당시에 작업도구의 제작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壁溝와 등간격으로 확인된 柱穴이 있으며,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壁溝는 폭 30cm내외, 깊이 10cm내외로 벽면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굴광선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파고 주거지 내부로는 완만하게 만들었다. 壁溝內에 柱穴은 3개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주거지 안쪽과 壁溝의 경계부분에 위치하며, 주거지 내부의 主柱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규모는 비교적 소형으로 직경 10cm내외, 깊이 8cm내외이다.

柱穴은 직경 20cm, 깊이 15cm정도이며, 주혈간 간격은 160~190cm이다. 남쪽부분은 7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하는 것은 4개뿐이지만 유구의 구조를 볼 때 6柱式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바닥에서 확인되는 할석들은 당시 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魚網錘 2점, 石斧 3점, 未完成 石器 2점, 無文土器 底部, 無文土器 口緣部 등 총 10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내부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다. 다른 주거지에 비해 출토유물이 많은 것이나 석기류가 더 많다는 점 등은 이 유구가 주거공간으로 보다는 석기제작이나, 이와 연관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圖面 11. 6號 住居址와 出土遺物(遺構 : 1/60, 遺物 : 1/2)

나. 遺物

圖面 11-1(圖版 13-12)은 泥岩製의 柱狀片刃石斧이다. 刃部에는 마연흔이 잔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길이 11.6cm, 너비 3.0cm 두께 3.7cm이다.

圖面 11-2(圖版 13-13)는 細粒砂岩製의 蛤刃石斧이다. 身部の 단면은 타원형이며, 刃部와 身部の 경계부분이 굽고 양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身部와 刃部の 표면 전체를 마연하였다. 길이 10.0cm, 최대폭 5.7cm, 두께 4.0cm이다.

圖面 12-1(圖版 13-8)은 孔列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황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물손질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되며, 구연단 아래 1cm정도에 지름 1.0cm 크기의 孔列文이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게 시문되어 있다. 문양간 간격은 2.0cm이며, 잔존높이 7.0cm이다.

圖面 12-2(圖版 14-1)는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底部와 胴體部の 접합부위에는 접합시에 손톱으로 누른 듯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4cm, 底徑 7.8cm이다.

圖面 12-3(圖版 13-14)은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바깥쪽으로 타격흔이 남아 있다. 6호 주거지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으며, 주변으로 할석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 보인다. 길이 9.5cm, 폭 3.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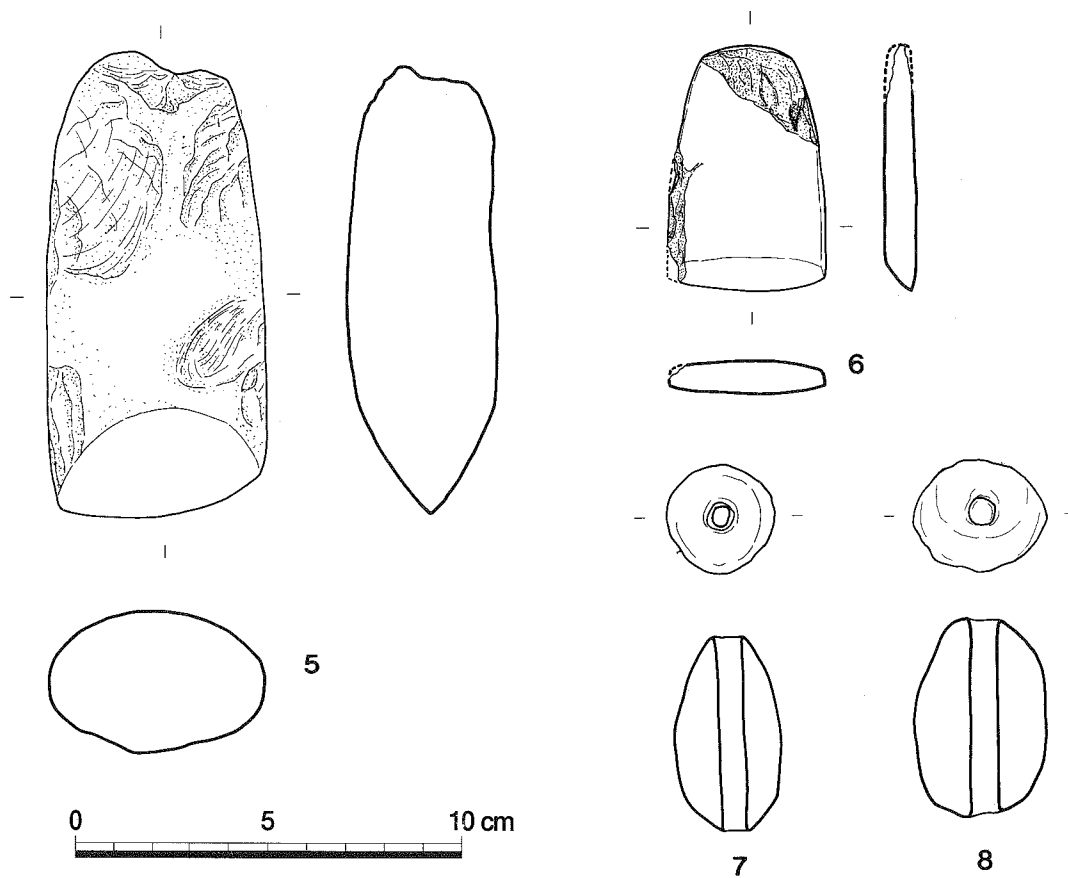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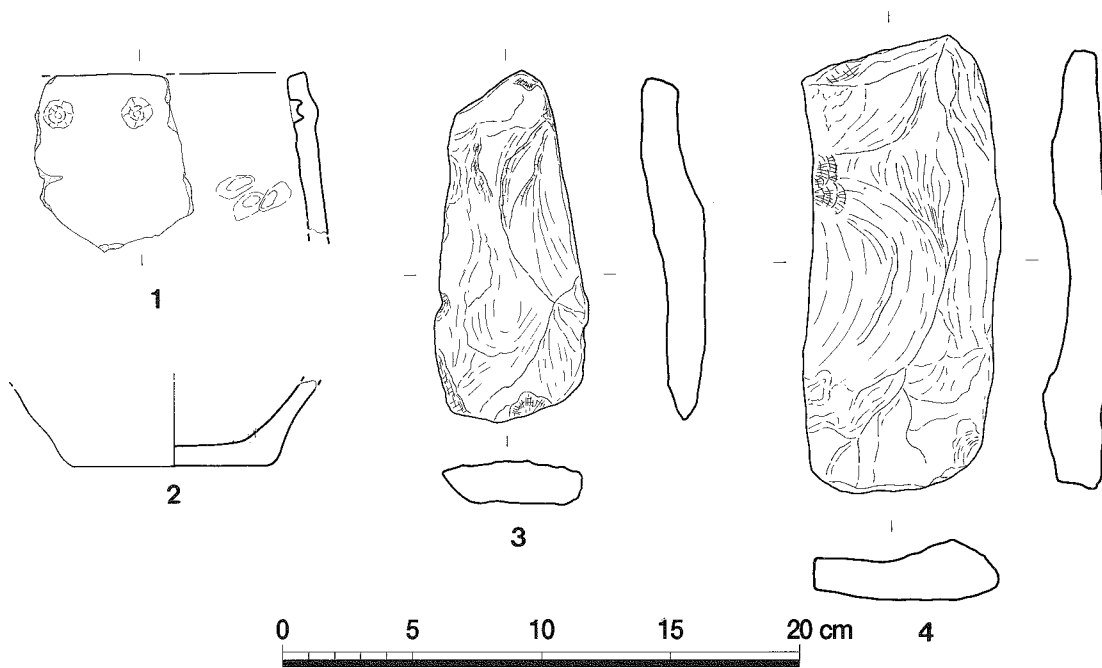
圖面 12-4(圖版 13-15)는 泥岩혼펠스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圖面 12-3과 같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길이 12.2cm, 폭 4.8cm이다.

圖面 12-5(圖版 14-2)는 4호 住居址의 동쪽 장벽쪽에서 출토된 蛤刃石斧로 泥岩혼펠스製이다.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해 표면의 마연흔은 관찰되지 않으나 인부는 일정한 방향으로 마연되어 있다. 길이 11.9cm, 폭 5.6cm, 두께는 3.7cm이다.

圖面 12-6(圖版 13-11)은 세립사암제의 扁平片刃石斧이다. 刃部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身部는 일부 결실되었다. 길이 6.4cm, 너비 4.1cm, 두께는 0.9cm이다.

圖面 12-7(圖版 13-9)은 完形의 土製 魚網錘이다. 전체적으로 황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5.1cm, 너비 2.8cm, 구멍지름 0.7cm이며, 중량은 41.5g이다.

圖面 12-8(圖版 13-10)은 完形의 土製 魚網錘로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5.1cm, 너비 3.5cm, 구멍지름 0.8cm이며, 중량은 59.8g이다.



圖面 12. 6號 住居址 出土遺物(1~4 : 1/3, 5~8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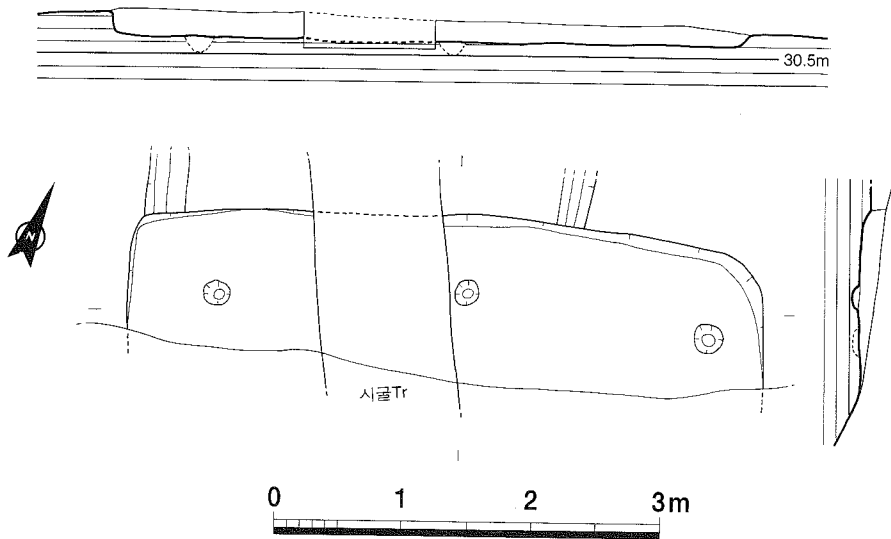
7) 7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3, 圖版 8-6, 7)

구릉사면에서 평탄해지는 저지대에 위치하며, 6호 주거지의 남쪽을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장축방향은 N67° E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500cm, 잔존폭 120cm, 최대깊이 30cm이다.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남쪽의 대부분이 유실되었지만 6주식의 장방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최근까지 논으로 경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토와 주거지 바닥의 일부까지 영향을 받았다. 내부토는 다른 주거지의 내부토와는 완전히 다른데 이는 최근의 경작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면도 역시 최근 경작에 의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잔존상태만으로는 어떤시설을 있었는지 판별해 낼 수 없었다. 柱穴은 직경 22cm, 깊이 10cm정도이며, 柱穴간 간격은 170~180cm 이다.

출토유물은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내부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며, 주거지 바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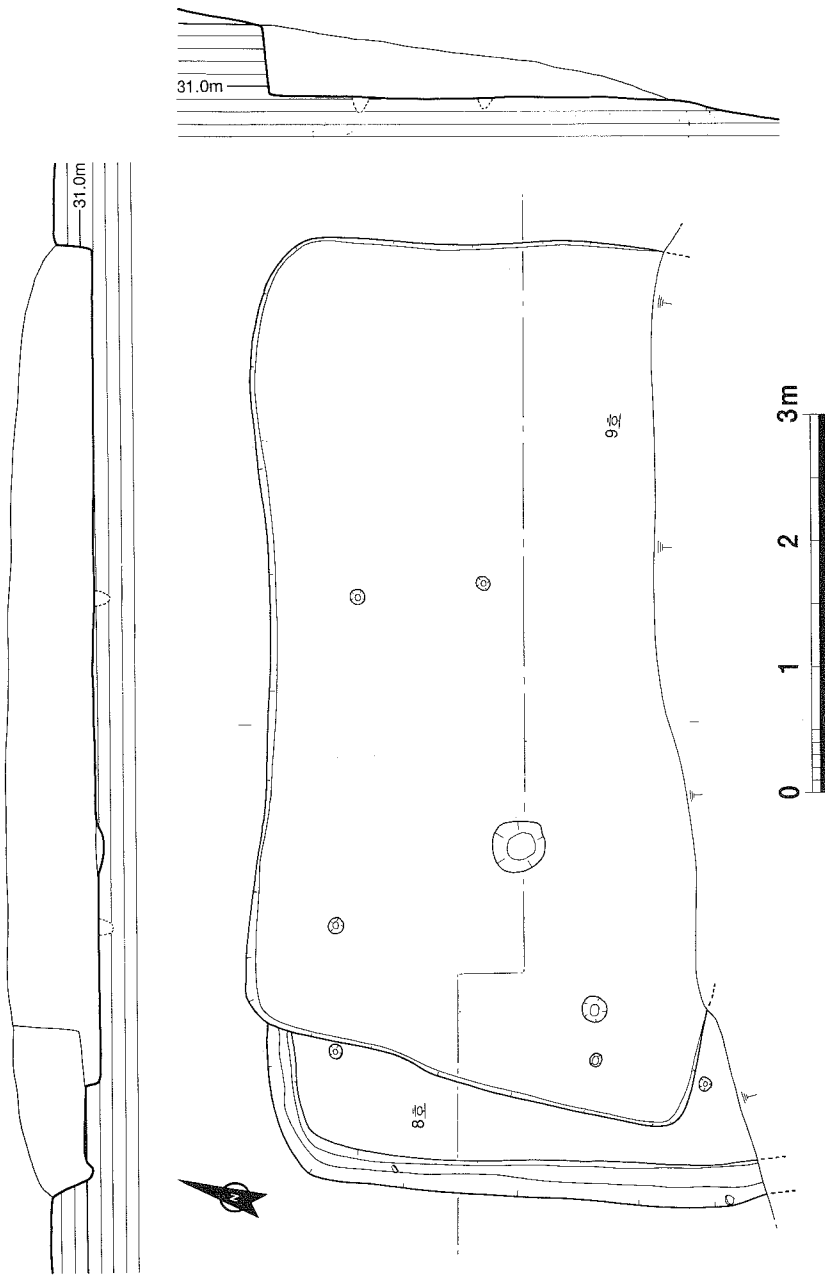


圖面 13. 7號 住居址(1/60)

8) 8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4, 圖版 9-1, 5)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유구의 대부분은 9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다. 잔존상태로 볼 때 장축방향은 N15° W이며,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370cm, 폭 110cm, 최대깊이 50cm이다.



圖面 14. 8號, 9號 住居址(1/60)

9호 주거지에 의해 유구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벽면을 따라 설치된 壁溝와 주거지 바닥에 남아 있는 주혈을 통해 인접하고 있는 6호 주거지와 구조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벽구는 폭 20cm내외 깊이 15cm내외이며,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벽구내에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바닥은 특별

한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폭10cm, 깊이 15cm내외의 주혈 2개가 남아 있다.

출토유물은 無文土器 底部 1점과 石斧 1점이 주거지 바닥에서 검출되었으며, 내부토의 조사 과정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圖面 15-1(圖版 14-3)은 細粒砂岩製의 蛤刃石斧이다. 身部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표면 전체에 마연흔이 남겨져 있다. 길이 10.3cm, 폭 5.2cm이며, 두께는 2.6cm이다.

圖面 15-3(圖版 14-49)은 底部 및 胴體部 일부만이 잔존하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나 외면에 각기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는 5.7cm이다.

9) 9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4, 圖版 9)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며, 8호 住居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장축방향은 N85°W으로 등고선방향과 평행하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675cm, 잔존폭 365cm, 최대깊이 65cm이다.

주거지 내부토는 입자가 고운 사질점토로 생토와 성분상 매우 비슷하다. 내부토에서 목탄이나 소토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자연적인 폐기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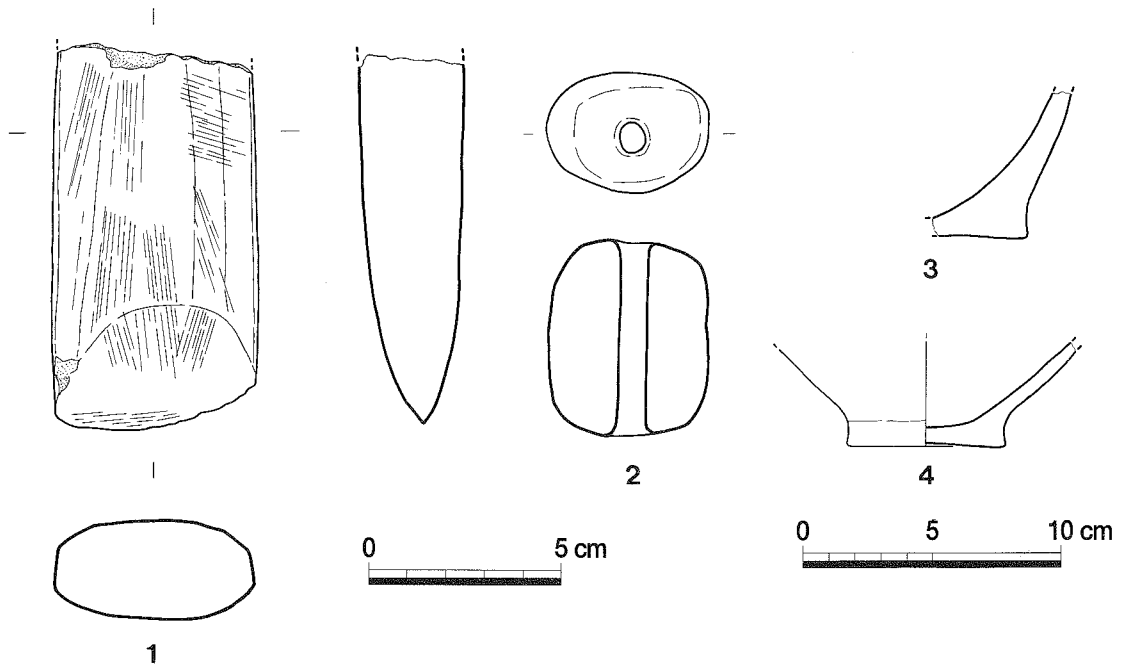
柱穴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가장 서쪽의 주혈은 8호 주거지의 것으로 추정되며, 동쪽부분에서는 주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크기에 비해 주혈의 배치나 수가 적당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기둥구멍이 만들어지지 않고 바닥면에서 바로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爐址는 직경 40cm, 깊이 10cm내외이며,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깝다. 주거지의 서쪽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았다. 유구의 바닥은 특별한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으며, 魚網錘 1점과 丹塗磨研土器 1점이 주거지 북쪽 床面에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圖面 15-2(圖版 14-5)은 단면형태가 方形인 土製 魚網錘이다.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



圖面 15. 8號 住居址(1 : 1/2, 3 : 1/3), 9號 住居址(2 : 1/2, 4 : 1/3) 出土遺物

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구멍 지름은 0.6cm이다. 길이 5.3cm, 너비 4.2cm, 구멍지름은 0.6cm이며, 중량은 79.1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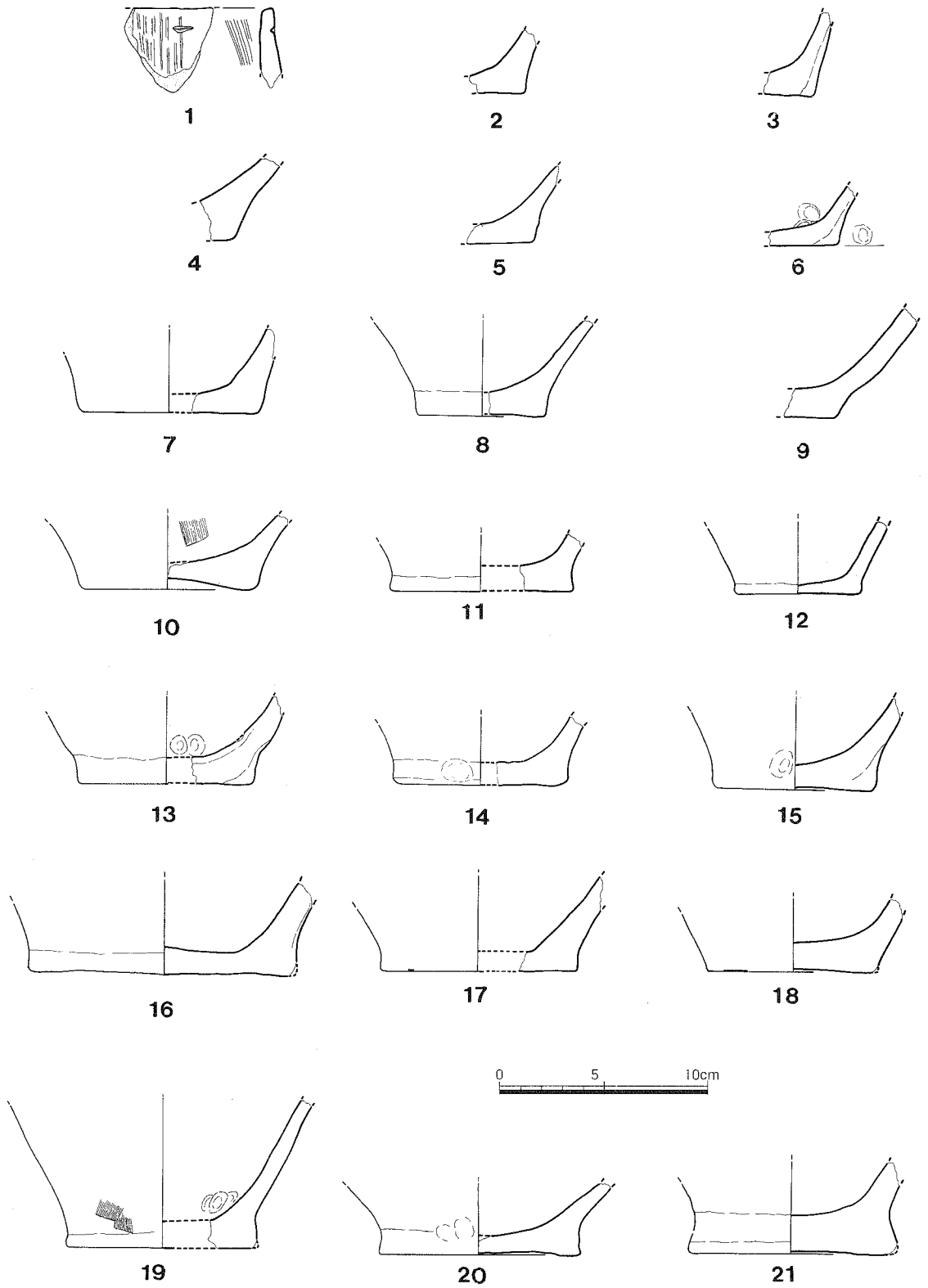
圖面 15-4(圖版 14-6)는 丹塗磨研土器 底部이다. 외면 적갈색, 내면 黃褐色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사질성 점토를 사용했다. 표면박리로 인해 丹의 잔존은 대부분 탈락된 상태이며, 다른 정면기법은 살피기 힘들다. 잔존높이 4.2cm, 底徑 6.1cm이다.

10) 地表採集 遺物

圖面 16-1(圖版 14-7)은 口緣端에 橫線文이 시문된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으며, 내·외면 모두 종방향으로 목리흔이 잔존한다. 구연단 아래 1.0cm정도에 지름 1.0cm, 폭 0.3cm 크기의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4.0cm이다.

圖面 16-2(圖版 14-8)는 내면 明黃褐色, 외면 灰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으며, 잔존높이는 2.9cm이다.

圖面 16-3(圖版 14-9)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면 暗黃褐色, 외면 黃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圖面 16. 地表採集 遺物 I (1/3)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0cm이다.

圖面 16-4(圖版 14-10)는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정도만이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는 3.9cm이다.

圖面 16-5(圖版 14-11)는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7cm이다.

圖面 16-6(圖版 14-12)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면 黃褐色, 외면 淡黃色을 띠고 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지두흔이 확인되며,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2.8cm이다.

圖面 16-7(圖版 14-13)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黃褐色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외면에 희미하게 각기후 물손질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4.0cm이며, 추정저경은 8.2cm이다.

圖面 16-8(圖版 15-1)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1/2정도만이 잔존한다. 외면 暗褐色, 내면 灰黑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6cm, 추정저경 6.0cm이다.

圖面 16-9(圖版 15-2)는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정도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細石粒 소량 혼입된 사질성점토이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각기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4cm이다.

圖面 16-10(圖版 15-3)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내면 明黃褐色, 외면 적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혼입되어 있다. 底部의 외면에 목리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목리조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높이 3.6cm, 추정저경 8.0cm이다.

圖面 16-11(圖版 15-4)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底部의 1/3정도만이 잔존한다. 내·외면 淡黃褐色을 띠며, 잔존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7cm, 추정저경 8.5cm이다.

圖面 16-12(圖版 15-5)는 丹塗磨研土器 底部片이다. 외면 적갈색, 내면 암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丹의 흔적은 희미하게 나타난다. 잔존높이 3.5cm, 추정저경 7.7cm이다.

圖面 16-13(圖版 15-6)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정도만이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을 관찰할 수 없으나 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높이 4.3cm, 추정저경 8.1cm이다.

圖面 16-14(圖版 15-7)는 내면 黃褐色, 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잔존하며, 외면에는 胴體部와 底部의 접합부분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3.4cm, 추정저경 7.7cm이다.

圖面 16-15(圖版 15-8)는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며, 외면의 底部와 胴體部의 접합부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4.4cm, 추정저경 7.5cm이다.

圖面 16-16(圖版 15-9)은 내·외면 黃褐色의 無文土器 底部이다. 태토에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4.5cm, 底徑 12.3cm이다.

圖面 16-17(圖版 15-10)은 내면 明褐色, 외면 暗褐色의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細石粒과 굵은 석립이 비슷한 비율로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았다. 잔존높이 4.6cm, 추정저경 9.3cm이다.

圖面 16-18(圖版 15-11)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3가량이 결실되었다. 내면 황적갈색, 외면 명적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3.5cm, 추정저경 7.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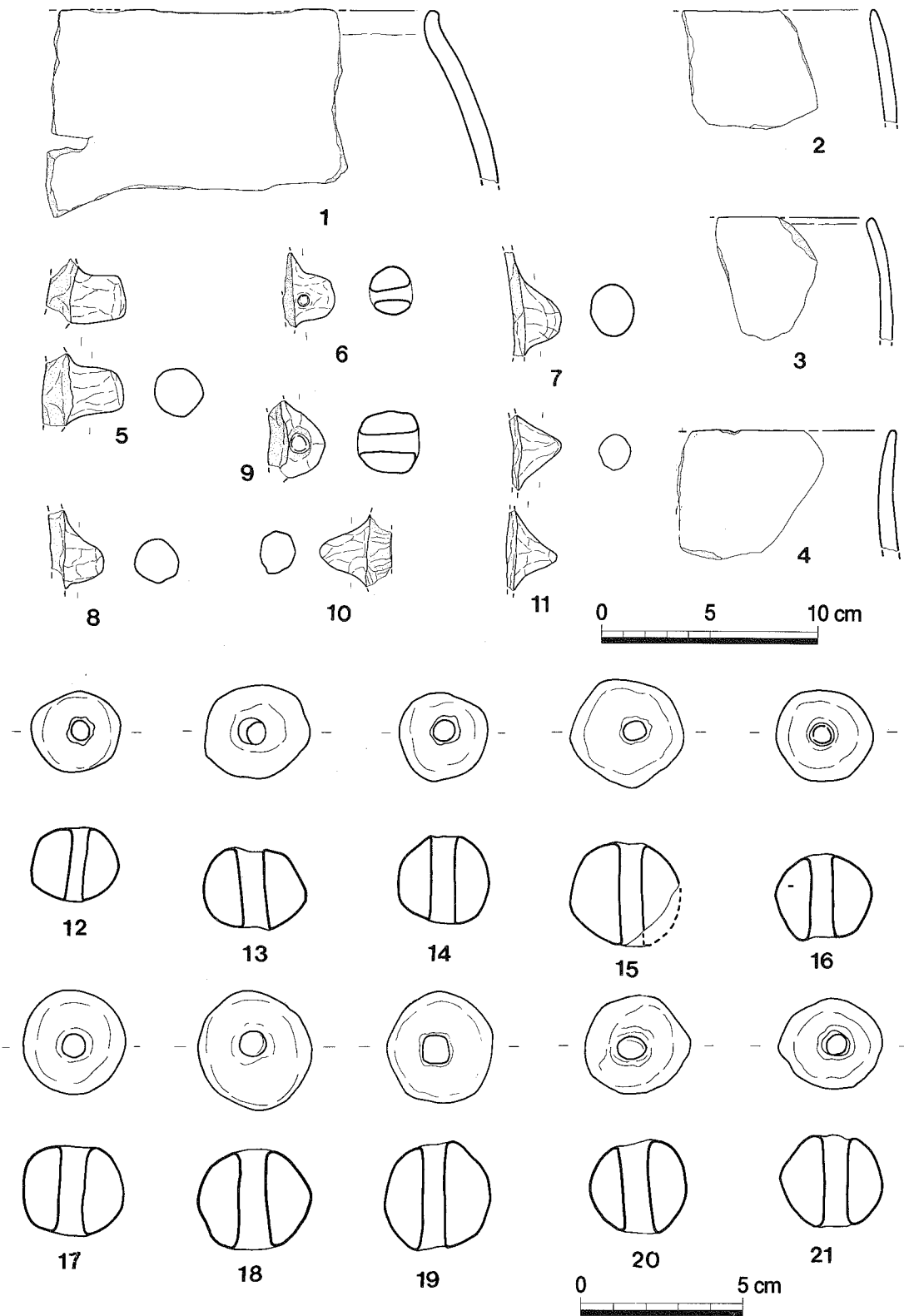
圖面 16-19(圖版 15-14)는 내·외면 적갈색의 無文土器 底部이며, 1/2가량만이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각기후 물손질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7.3cm, 底徑 8.7cm이다.

圖面 16-20(圖版 15-12)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1/2정도만이 잔존한다. 내면 적갈색, 외면은 明黃色을 띠며 부분적으로 黑斑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底緣에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3.5cm, 추정저경 9.5cm이다.

圖面 16-21(圖版 15-13)은 無文土器 底部로 적갈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확인하기 힘들다. 底部와 胴體部의 접합부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 외면에는 굵이 뚜렷하게 둘러져 있다. 잔존높이 4.4cm, 底徑 9.2cm이다.

圖面 17-1(圖版 15-15)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외면 灰黑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石英, 長石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관찰하기 어렵다. 잔존높이 8.2cm이다.

圖面 17-2(圖版 15-16)는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잔존형태로 보아 甕形土器 구연부로



圖面 17. 地表採集 遺物II(1~11 : 1/3, 12~21 : 1/2)

추정된다. 외면 암적갈색, 내면 明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石英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5.5cm이다.

圖面 17-3(圖版 15-17)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甕形土器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灰黑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는 0.1~0.2cm 크기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5.9cm이다.

圖面 17-4(圖版 16-1)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내면 淡黃色, 외면 黃橙色을 띠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丹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높이 5.8cm이다.

圖面 17-5(圖版 16-2)는 단면형태가 거의 圓形에 가까운 把手이다. 선단부는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黃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다량의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3.4cm이다.

圖面 17-6(圖版 16-3)은 黃褐色을 띠는 把手이다. 단면형태는 橢圓形이며, 선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把手의 중앙에는 지름 0.5cm 크기의 구멍이 관통하고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다. 잔존길이 3.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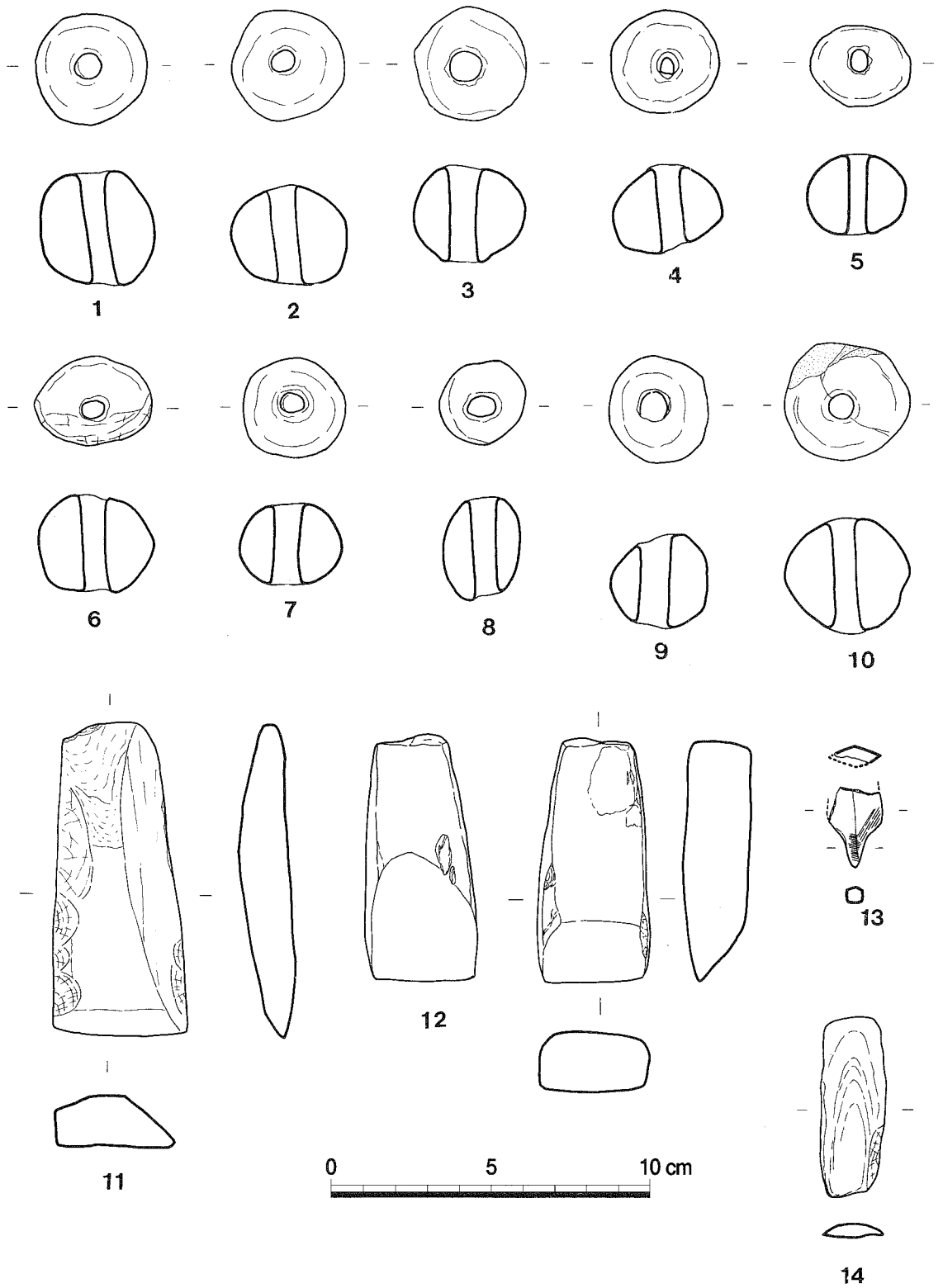
圖面 17-7(圖版 16-4)은 丹塗磨研土器의 把手이다. 단면형태는 橢圓形이며, 선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기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박리는 되었으나 丹의 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 적갈색, 내면 淡黃褐色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5.0cm이다.

圖面 17-8(圖版 16-7)은 꼭지형의 無文土器 把手이다. 黃褐色을 띠며, 단면형태는 圓形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은 깎기후 물손질정면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3.6cm이다.

圖面 17-9(圖版 16-8)는 단면형태가 橢圓形인 把手이다. 선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把手의 중앙에는 지름이 0.7cm 크기의 구멍이 관통하고 있다. 명적갈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에는 細石粒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3.6cm이다.

圖面 17-10(圖版 16-6)은 단면형태가 橢圓形인 把手이다. 선단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黃橙色을 띠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黑斑이 확인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細石粒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3.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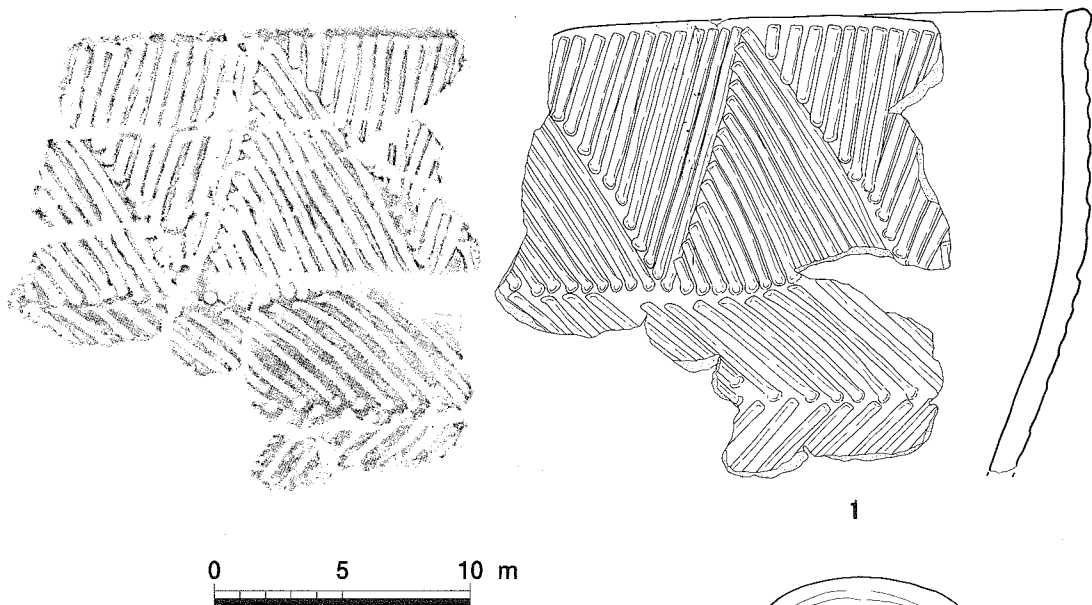
圖面 17-11(圖版 16-5)은 단면형태 圓形의 꼭지형 把手片이다. 黃褐色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6cm이다.



圖面 18. 地表採集 遺物Ⅲ(1/2)

다음은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土製 魚網錘이다. 단면형태는 대체로 원형-타원형이며, 직경과 너비는 3.0cm내외이다. 가운데에 뚫려 있는 구멍의 지름은 0.6cm~0.8cm 정도로 거의 일률적이다. 중량은 15.0~42.0g으로 소형 어망추에 해당된다.

圖面番號	圖版番號	斷面形態	規 格(cm, g)			說 明
			直徑	너비	重量	
17-12	16-9	원형	2.3	2.7	15.4	완형. 회황색, 부분적으로 흑반 나타남, 표면박리,
17-13	16-10	원형	2.5	3.2	22.4	완형. 회황색. 표면에 지두흔 잔존.
17-14	16-11	원형	2.8	2.8	18.9	완형. 회황색. 표면에 지두흔 잔존.
17-15	16-19	원형	3.4	3.4	32.3	일부 결실, 암황갈색, 소성 보통
17-16	16-12	원형	2.7	3.0	19.8	완형, 황갈색, 소성 양호, 태토에 굵은 석립 혼입.
17-17	16-20	타원형	2.8	3.1	27.3	완형. 황갈색, 구멍지름 0.7cm
17-18	16-21	원형	3.0	3.6	36.9	완형, 황갈색, 소성보통. 태토에 세석립 혼입.
17-19	16-13	원형	3.4	3.2	32.2	완형, 세석립 다량 혼입된 태토, 표면박리.
17-20	16-14	원형	3.0	3.0	21.8	완형, 황갈색, 소성 양호, 태토에 굵은 석립 혼입.
17-21	16-22	원형	3.0	3.2	20.7	완형. 황갈색, 태토에 굵은 석립 다량 혼입, 표면 박리
18-1	16-15	원형	3.6	3.7	41.9	완형. 황갈색. 태토에 세석립 소량 혼입. 표면박리 심함.
18-2	16-16	타원형	3.1	3.7	35.8	완형, 적갈색, 소성보통. 태토에 세석립 혼입.
18-3	16-17	원형	3.2	3.6	32.0	완형, 전체적으로 적갈색, 부분적으로 흑반이 나타남.
18-4	17-1	타원형	2.8	3.3	29.1	완형. 황갈색. 태토에 세석립 소량 혼입.
18-5	16-18	타원형	2.6	3.1	17.7	암갈색, 부분적으로 흑반, 소성불량.
18-6	106	타원형	3.1	3.6	29.3	완형. 회갈색, 소성 양호, 표면박리 심함.
18-7	102	타원형	2.6	3.2	21.4	완형. 황적갈색, 구멍지름 0.8cm
18-8	99	타원형	3.3	2.4	21.6	완형, 적갈색,
18-9	93	원형	3.0	3.1	25.4	완형. 황갈색, 소성 양호, 표면박리 심함.
18-10	90	원형	3.7	3.8	40.9	일부 결실. 황갈색, 표면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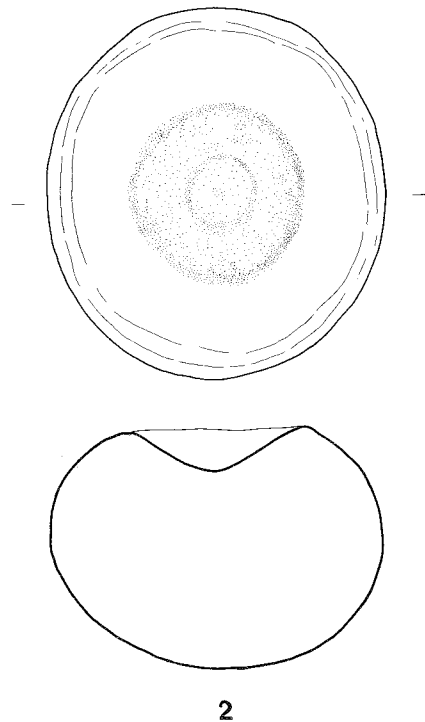


圖面 18-11(圖版 17-8)은 泥岩혼펠스製의 扁平片刃石斧이다. 身部에는 타격흔이 있으며, 刃部에는 사용흔이 남아 있다. 길이 9.9cm, 폭 4.1cm, 두께는 1.7cm이다.

圖面 18-12(圖版 17-9)는 泥岩製의 石斧이다. 刃部の 형태는 扁平片刃石斧의 刃부와 비슷하나 身部는 柱狀石斧의 형태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마연흔이 잔존하며, 身部 일부에 敲打痕이 남아 있다. 길이 7.8cm, 최대폭 3.5cm, 두께 2.0cm이다.

圖面 18-13(圖版 17-10)은 泥岩製의 有莖式 石鏃으로 身部 일부와 莖部 일부만이 잔존한다. 身部の 단면은 菱形을 띠며, 莖部の 단면은 육각형이다. 身부와 莖부에는 마연한 흔적이 뚜렷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2.6cm, 신부의 잔존폭 1.6cm이다.

圖面 18-14(圖版 17-11)는 泥岩製의 未完成 石器이다. 한쪽면에 타격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해 마연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길이 5.6cm, 폭 2.0cm, 두께는 0.4cm이다.



圖面 19. 地表採集 遺物Ⅳ(1/3)

圖面 19-1(圖版 17-7)은 太線文의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외면 暗黃褐色, 내면 황적갈색, 속심은 暗褐色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石英, 長石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끝이 둥근 봉상 시문구를 사용하여 너비 0.3cm 크기의 태선문을 기면전체에 사선방향으로 시문하였다. 잔존길이 18.3cm이다.

圖面 19-2(圖版17-17)는 화강암제의 절구이다. 지름 6.5cm의 원형의 홈이 있으며, 사용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다. 표토제거 과정에서 수습된 것이라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높이 9.8cm, 폭 15.0cm이다.

IV. 맺 음 말

화정동유적에서 확인된 遺構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9동이다. 조사결과로 본다면 유구의 분포 밀도가 극히 낮은 청동기시대의 소규모 마을유적이다. 물론 구릉 건너편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마을의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지형조건상 대규모의 마을이 위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조사내용을 정리하면서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지의 배치상태와 평면구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된 6호와 8호 주거지를 7호와 9호 주거지가 각각 파괴하고 있음으로, 시기적으로 등고선방향에 직교되게 설치된 주거지가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내부의 柱穴은 6柱式, 多柱式, 無柱式, 등으로 구분되나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1호, 6호, 7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6柱式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특별한 정형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爐址는 1호, 3호,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특별한 시설이 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졌다. 모두 원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가지며, 내부에는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의 위치는 중앙에서 한쪽방향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단축선상에서는 중앙에 위치한다.

壁溝는 1호, 2호, 6호, 8호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2호와 8호는 주거지의 남쪽사면이 유실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외에 1호와 8호 주거지의 벽구는 4벽면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는 排水溝가 없다. 1호 주거지의 벽구내에는 주혈이 없는 반면 8호 주거지의 벽구내에는 주혈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壁溝내의 주혈의 유무는 벽체를 세우는 방법이나 재료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의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한 다음 초본류를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1호, 4호 주거지이다.

출토유물은 공염문, 횡선문이 시문된 무문토기류와 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가 있으며, 많은 수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화정동유적의 입지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유물이다. 대체로 둥근 원형의 형태이며, 직경 3.0cm내외이고 중량은 15.0~42.0g으로 비교적 작고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투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토기류는 鉢形土器가 주류를 이루는데 모두 공염문, 횡선문이 단독으로 시문되어 있다. 공염문의 경우 기내면에서 외면으로 반투공한 형태만 확인되며, 반대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6호 주거지에서는 주상편인석부와 공염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석촉은 모두 유경식이다. 이러한 유물상은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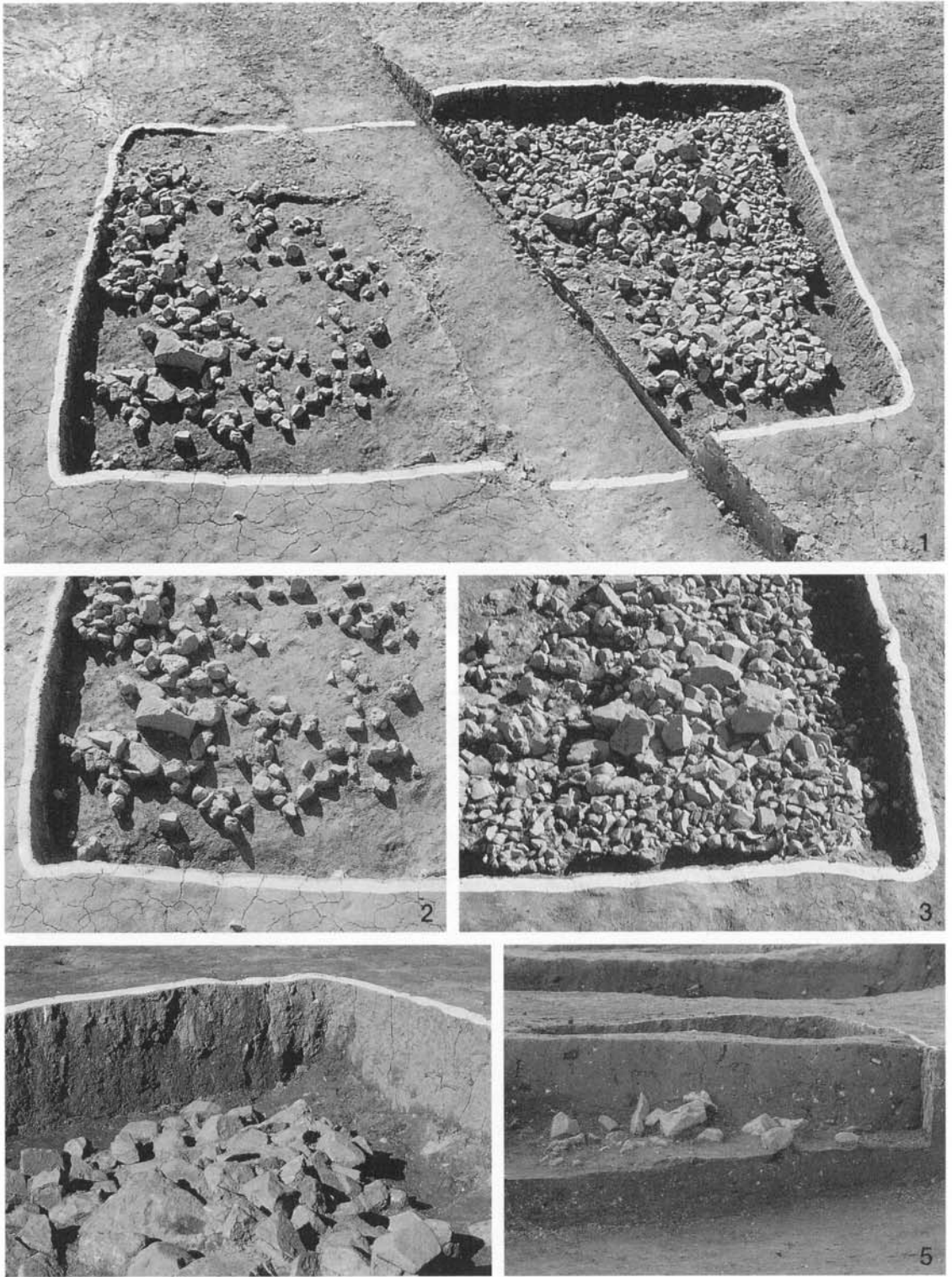
출토량이 적을 뿐더러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유적의 편년은 어려운 상황이다.

화정동유적은 협소한 해안지역이라는 입지환경에 따른 소규모의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조사되고 있는 맞은편의 구릉지역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두 자료를 종합하여 화정동유적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에서는 간단한 현황보고에 만족하며, 이후의 자료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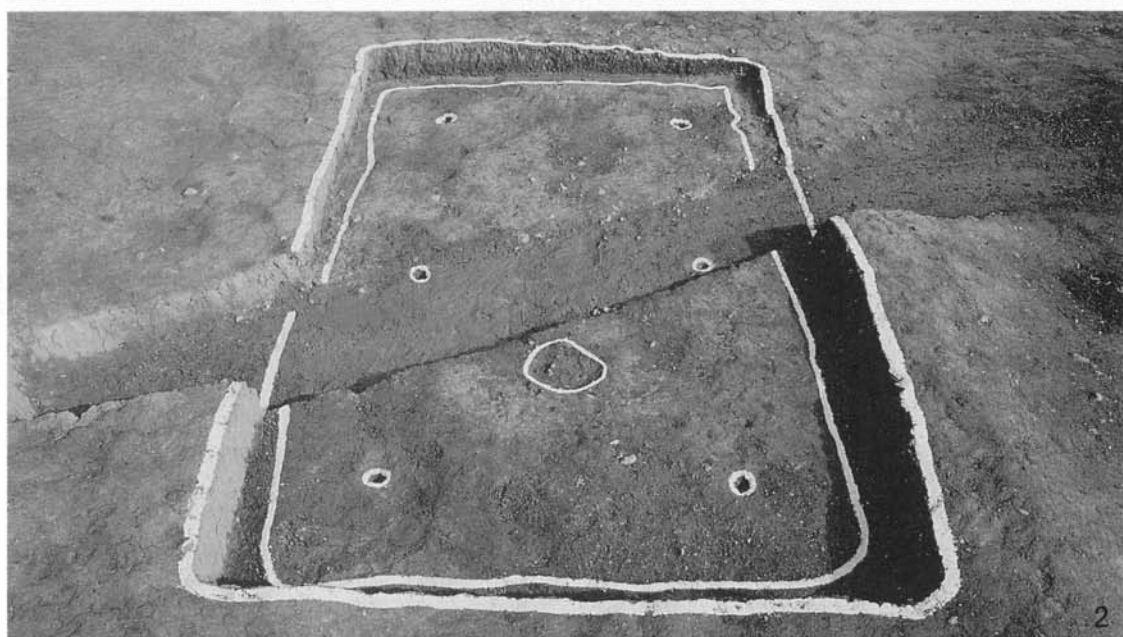
圖 版



圖版 1.遺蹟遠景(1) 및 全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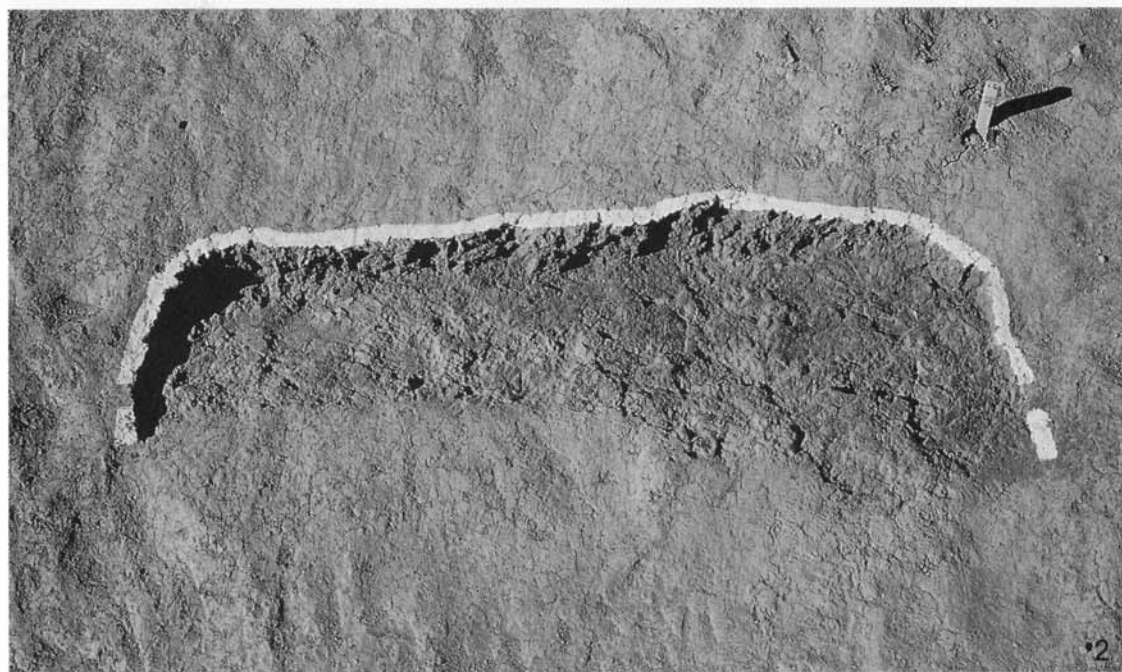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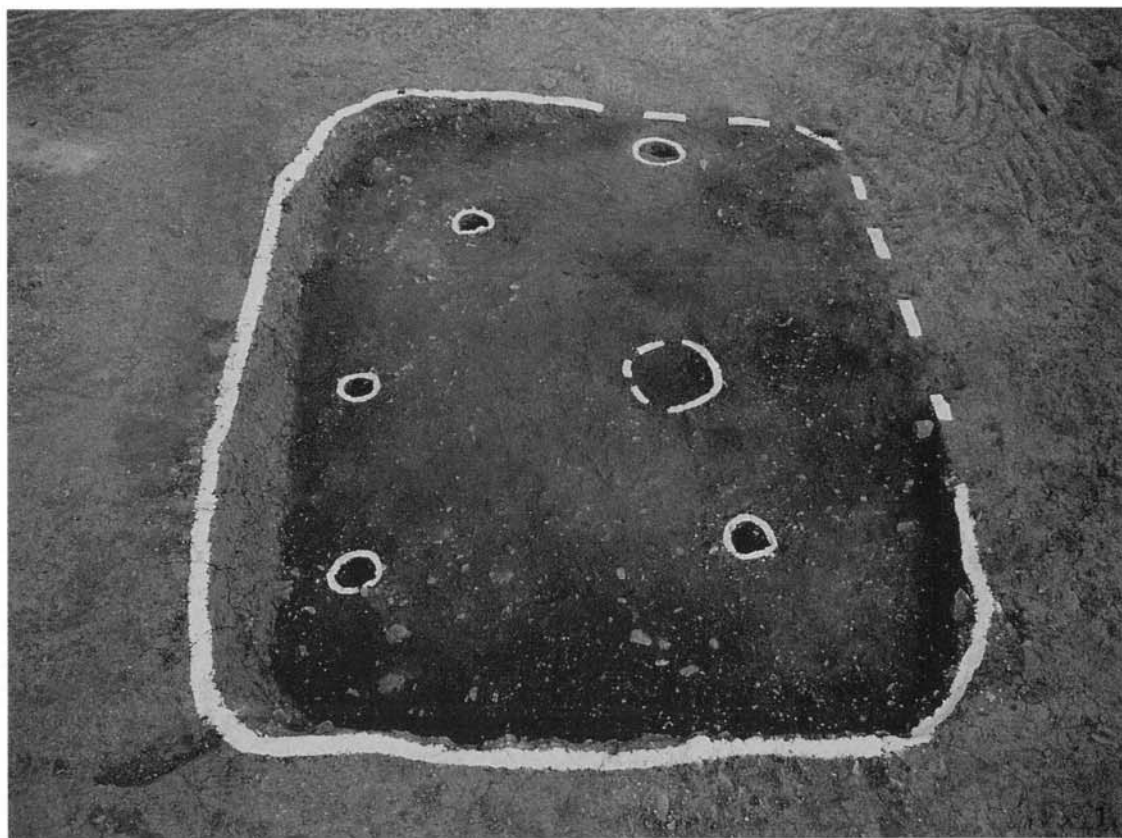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1)과 細部構造 및 土層狀態(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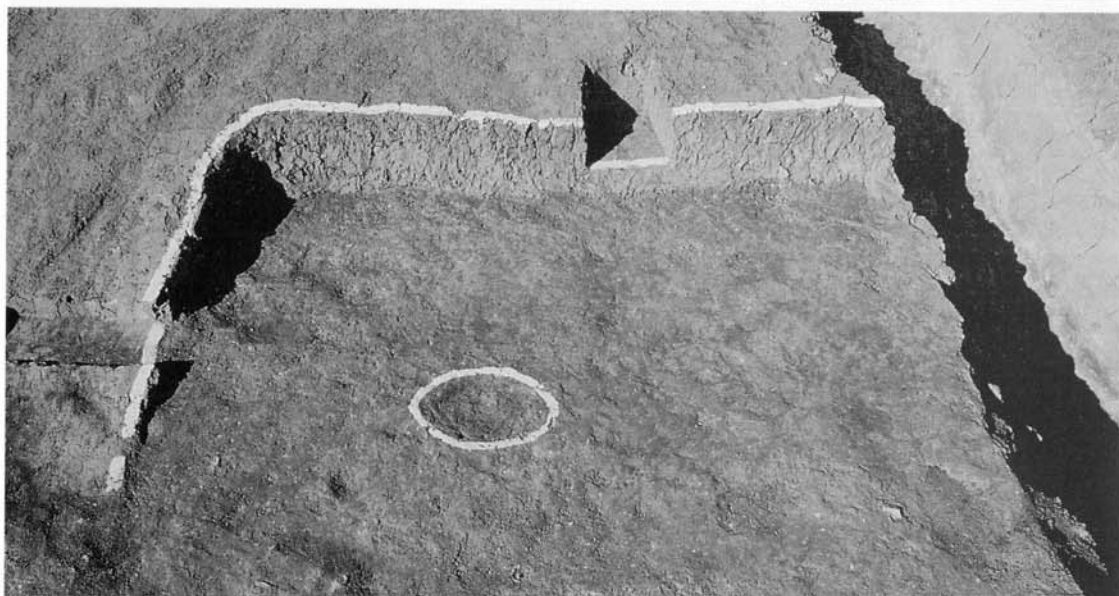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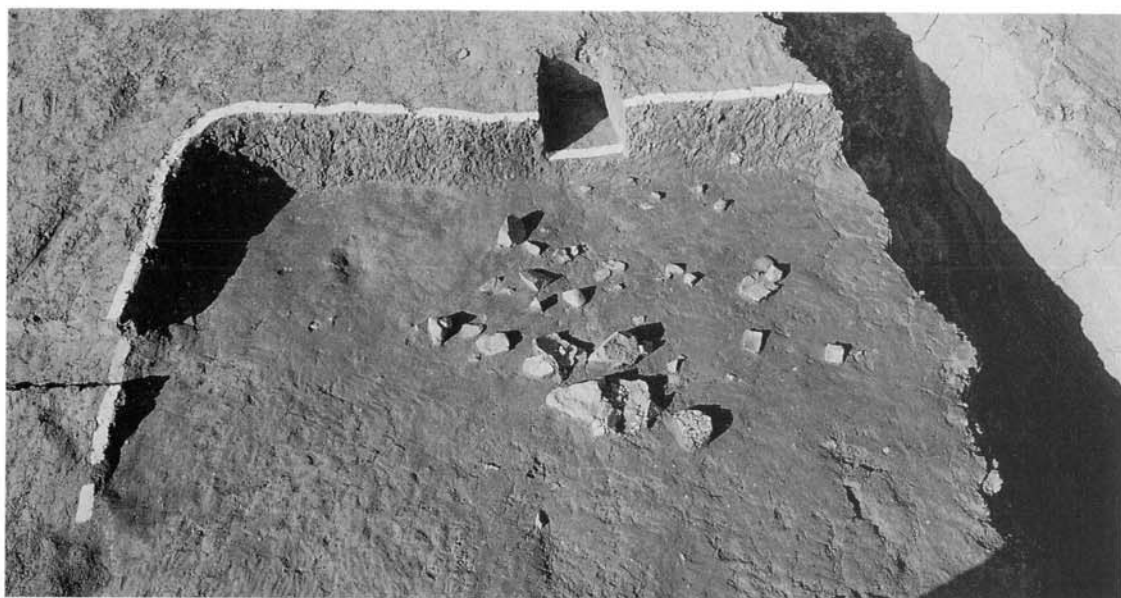
圖版 3. 1號 住居址 全景(1, 2)과 遺物 出土狀態(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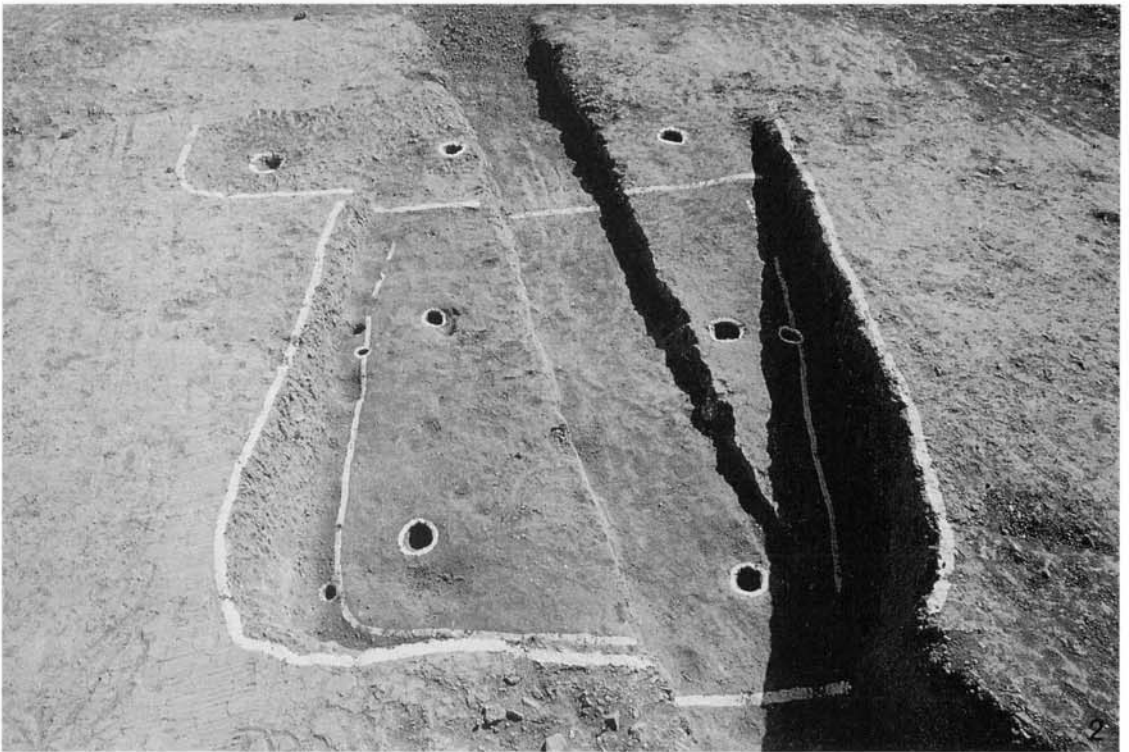
圖版 4. 2號 住居址 全景(1) 및 壁面(2), 壁溝(3), 3號 住居址 全景(4) 및 內部土層(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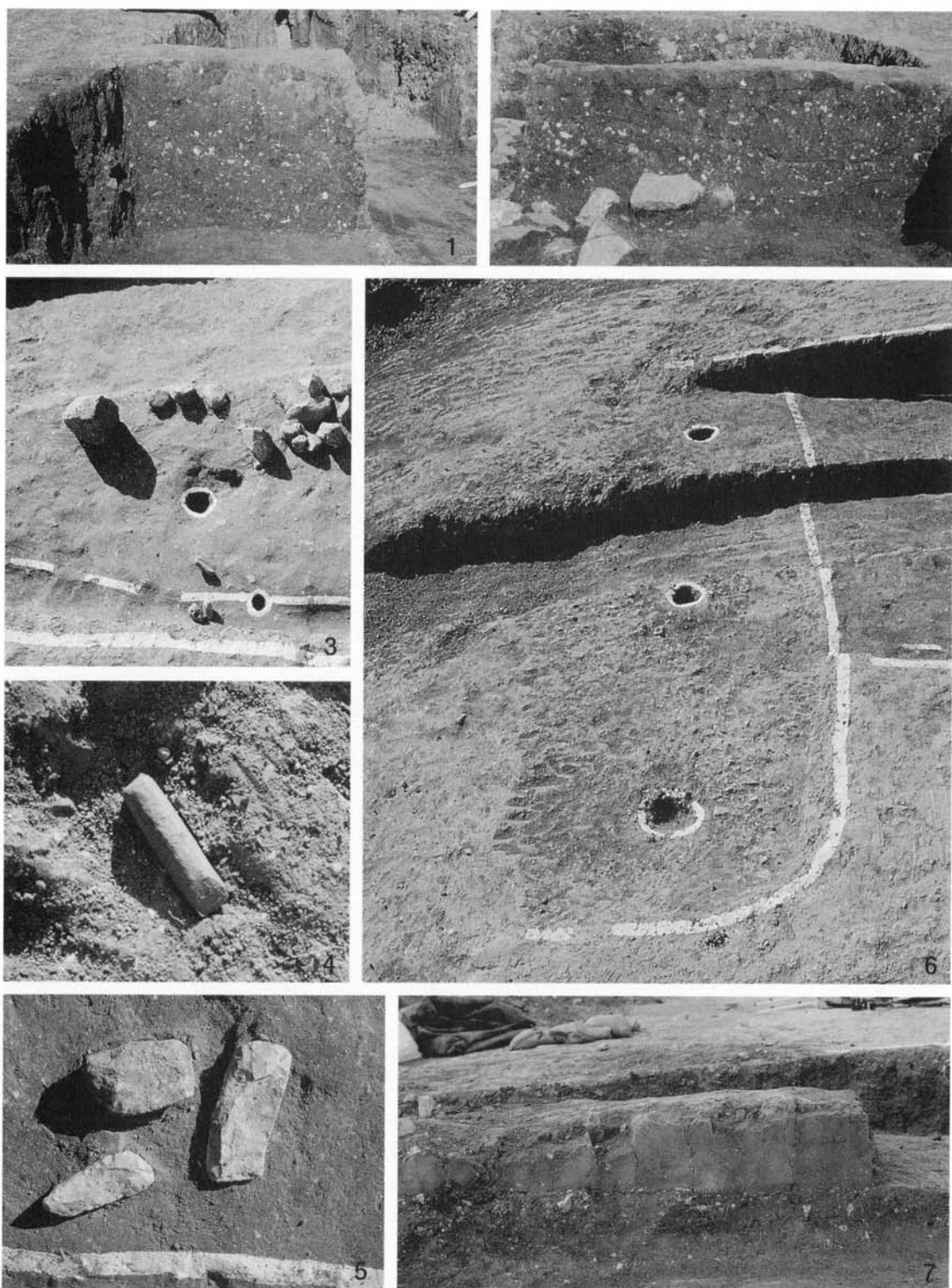
圖版 5. 3號 住居址 全景(1)과 4號 住居址 全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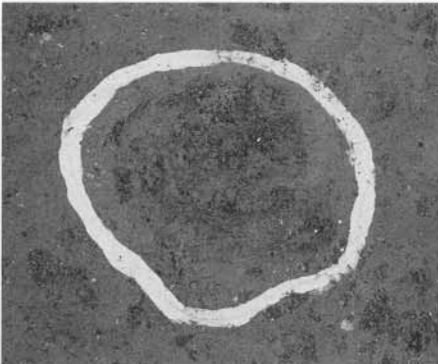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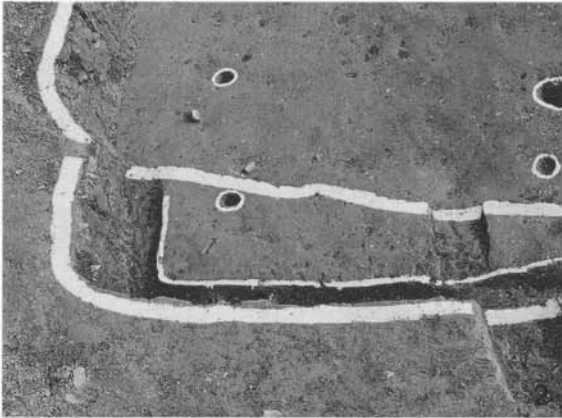
圖版 6. 5號 住居址 全景(1, 2) 及 土層(3), 遺物出土狀態(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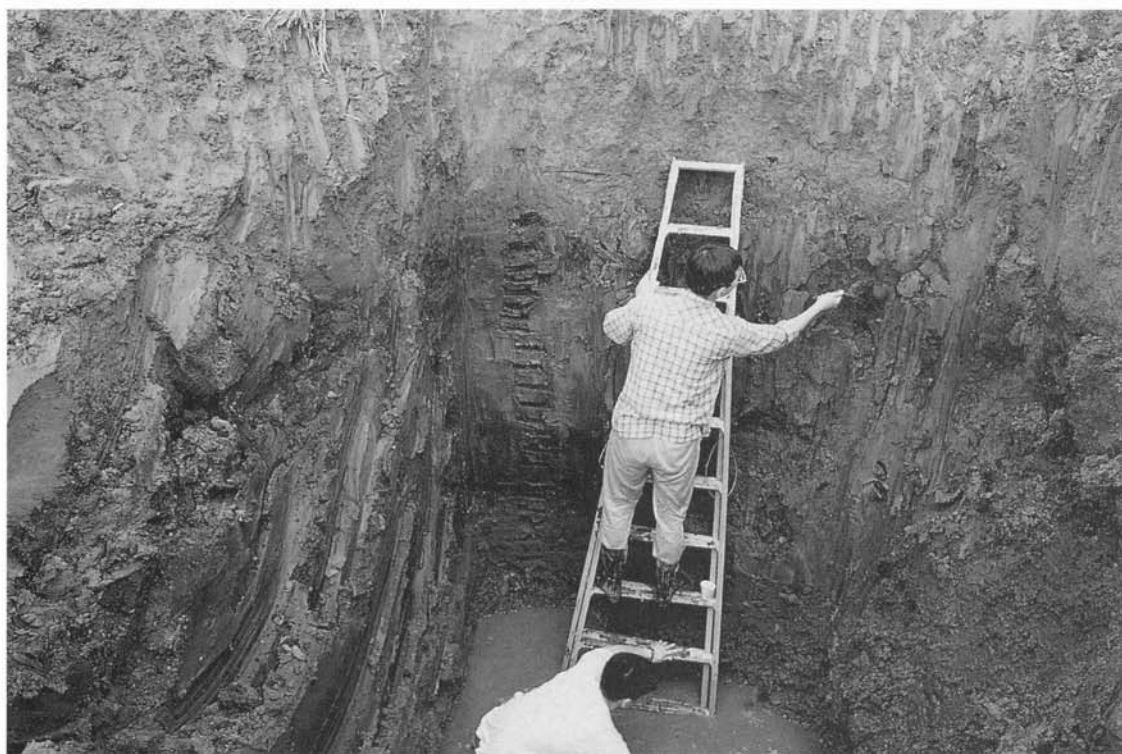
圖版 7. 6號 住居址 全景 및 6, 7號 住居址 重複狀態(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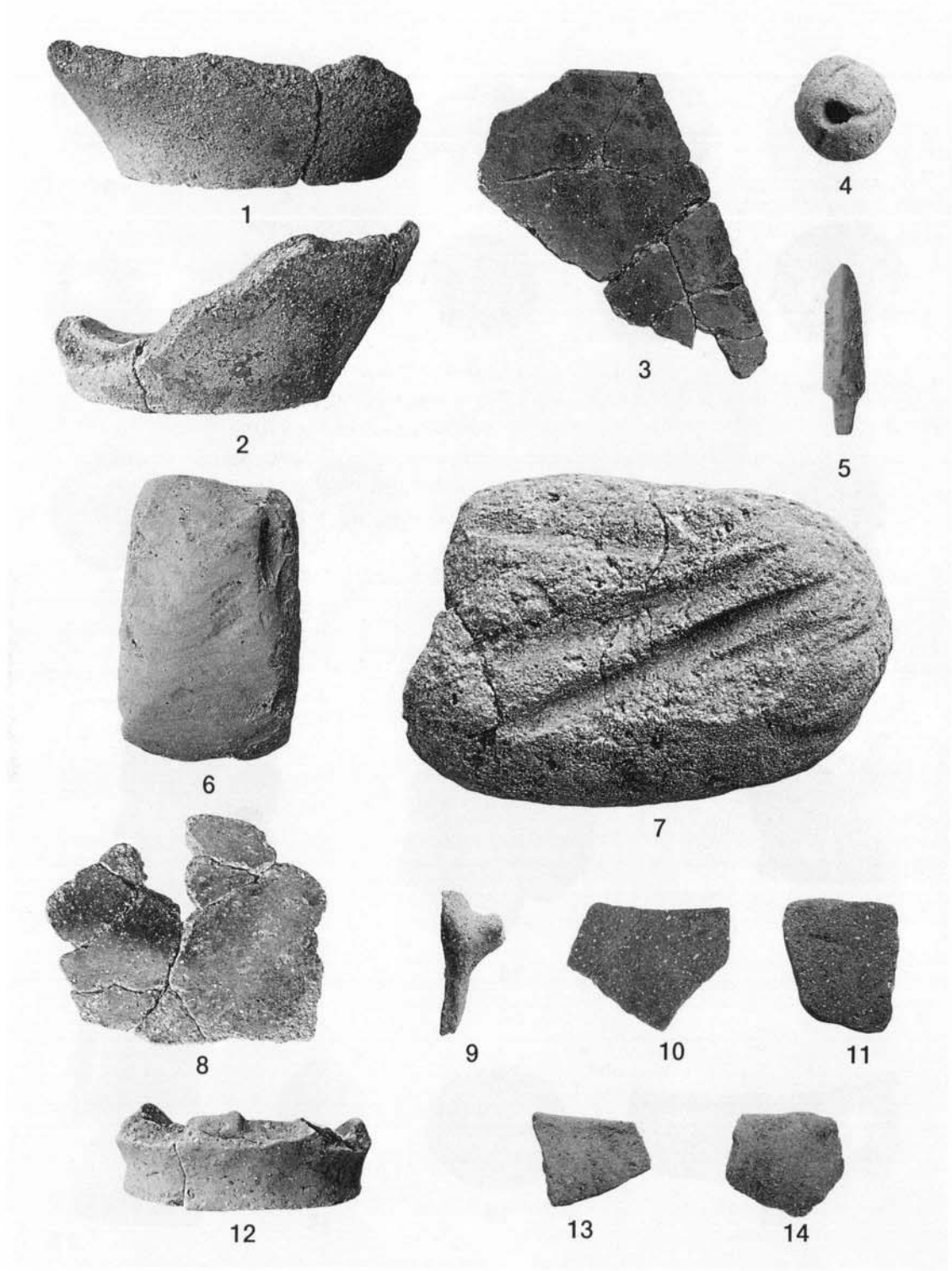
圖版 8. 6號 住居址 土層(1, 2) 및 遺物出土狀態(1~5), 7號 住居址 全景(6) 및 土層狀態(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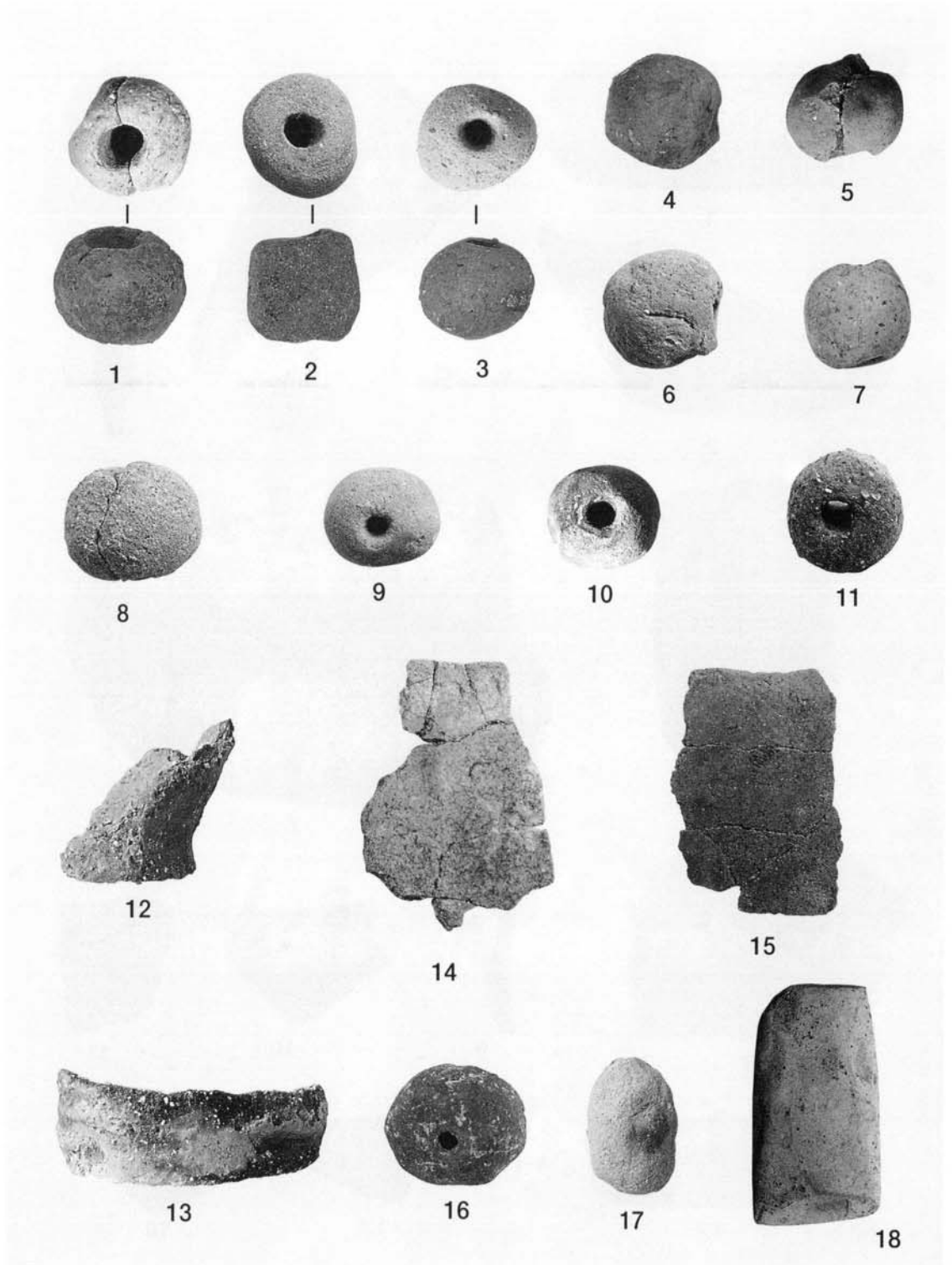
圖版 9. 8號, 9號 住居址 全景(1) 및 重複狀態(2), 細部構造(3) 9號 住居址의 爐址(4) 遺物 出土狀態(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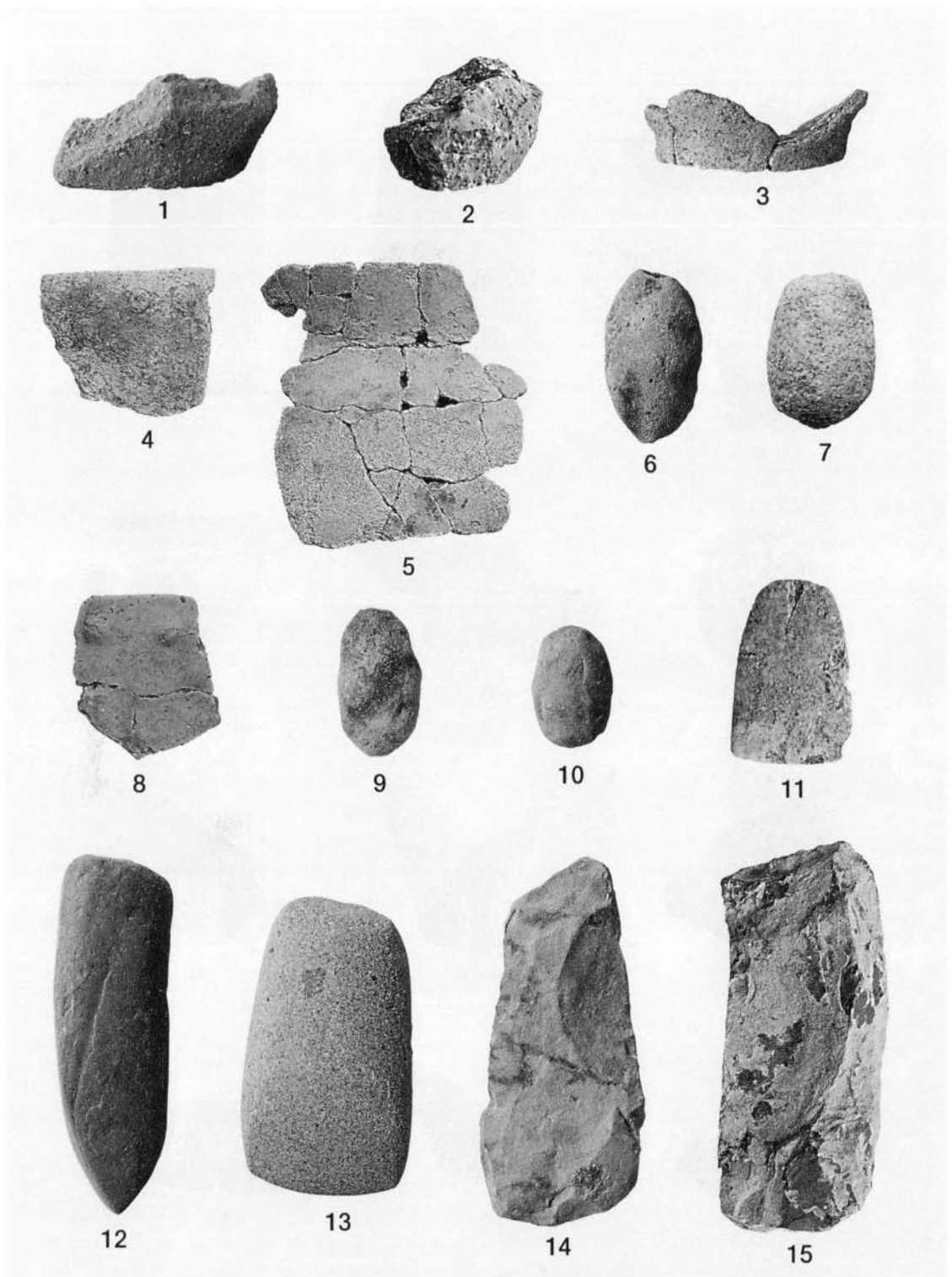
圖版 10. 發掘調査 光景(1)과 花粉分析 試料採取 光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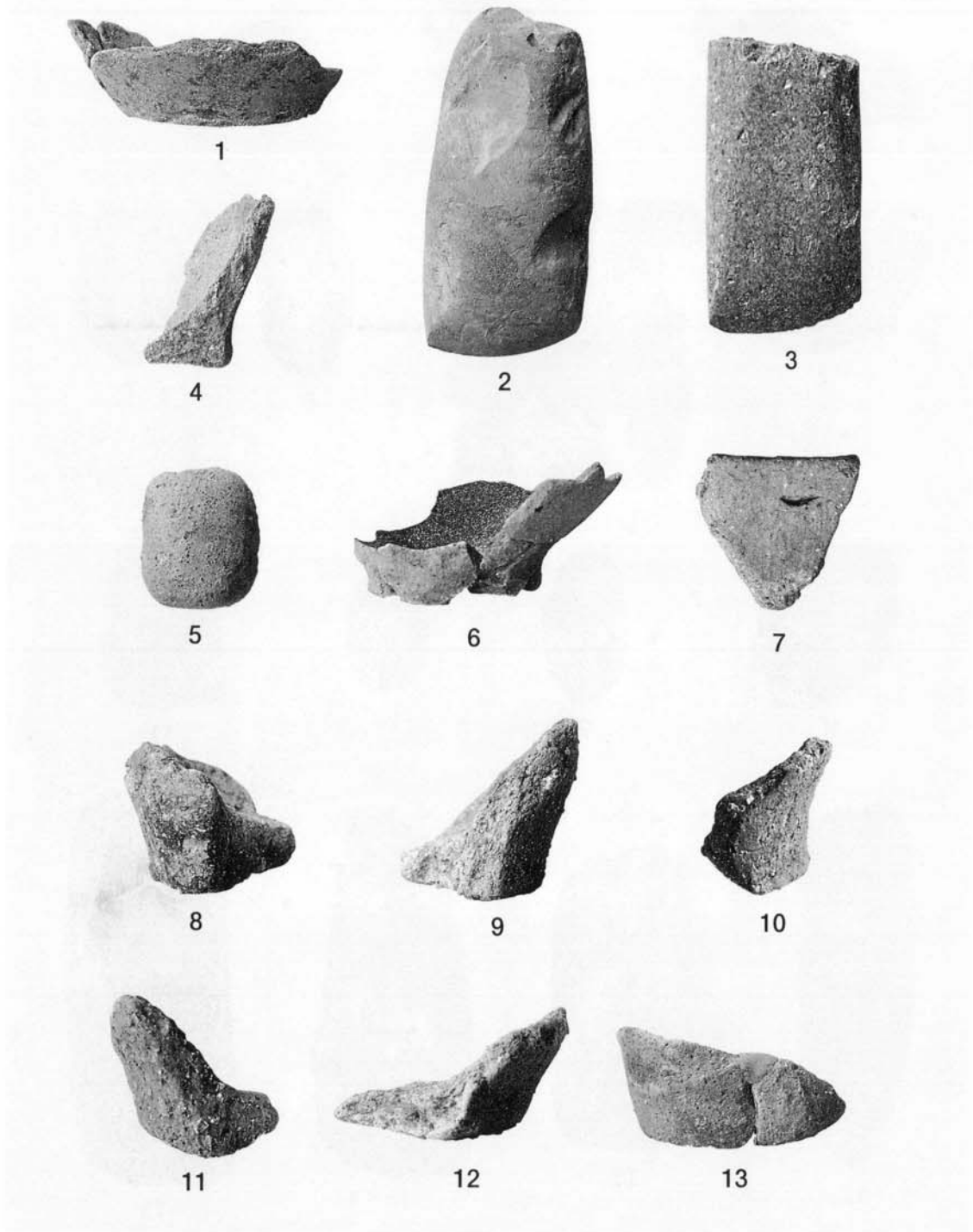
圖版 11. 1號 住居址(1~7), 2號 住居址(8~14)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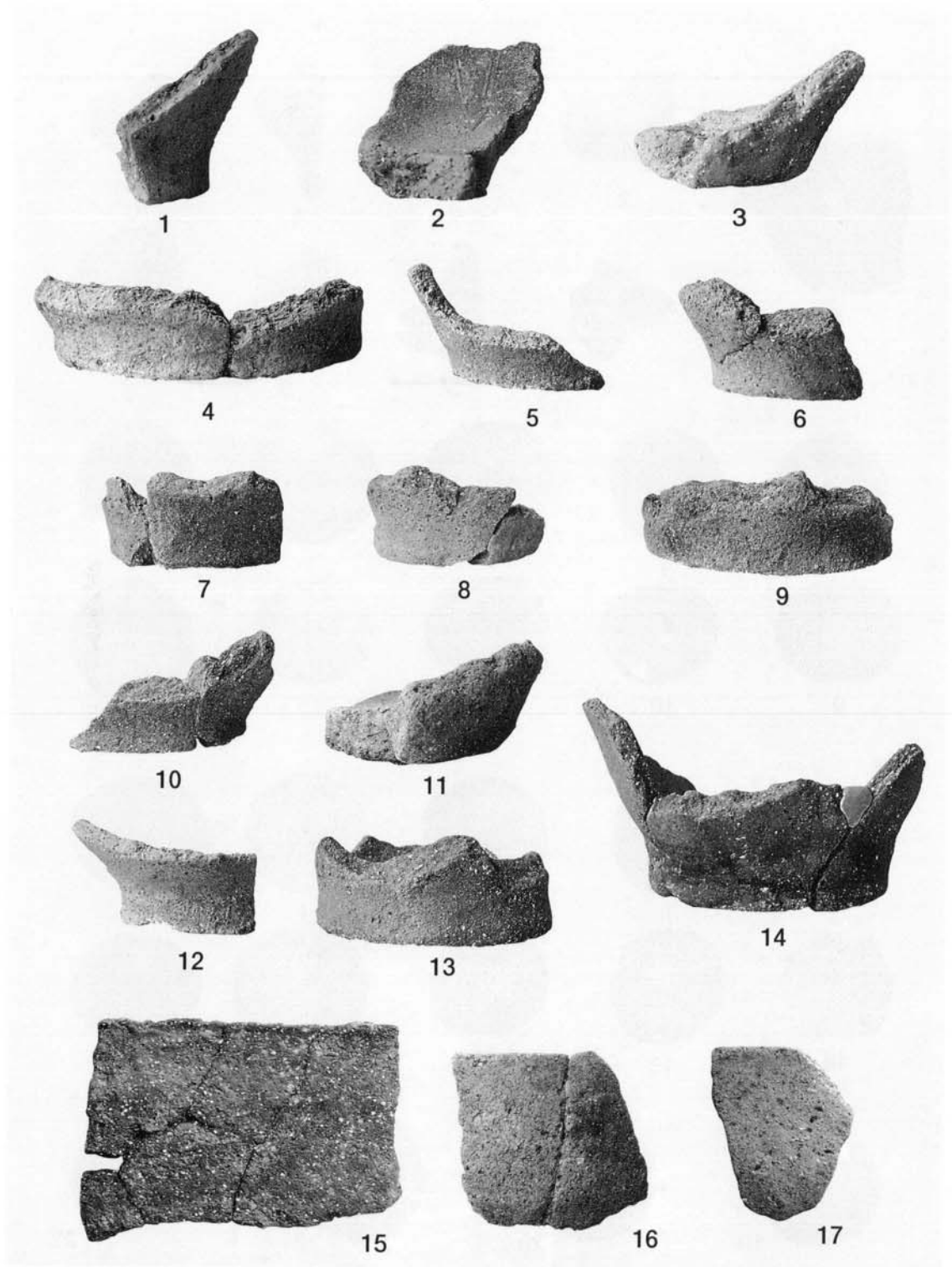
圖版 12. 2號 住居址(1~9), 3號 住居址(10~16)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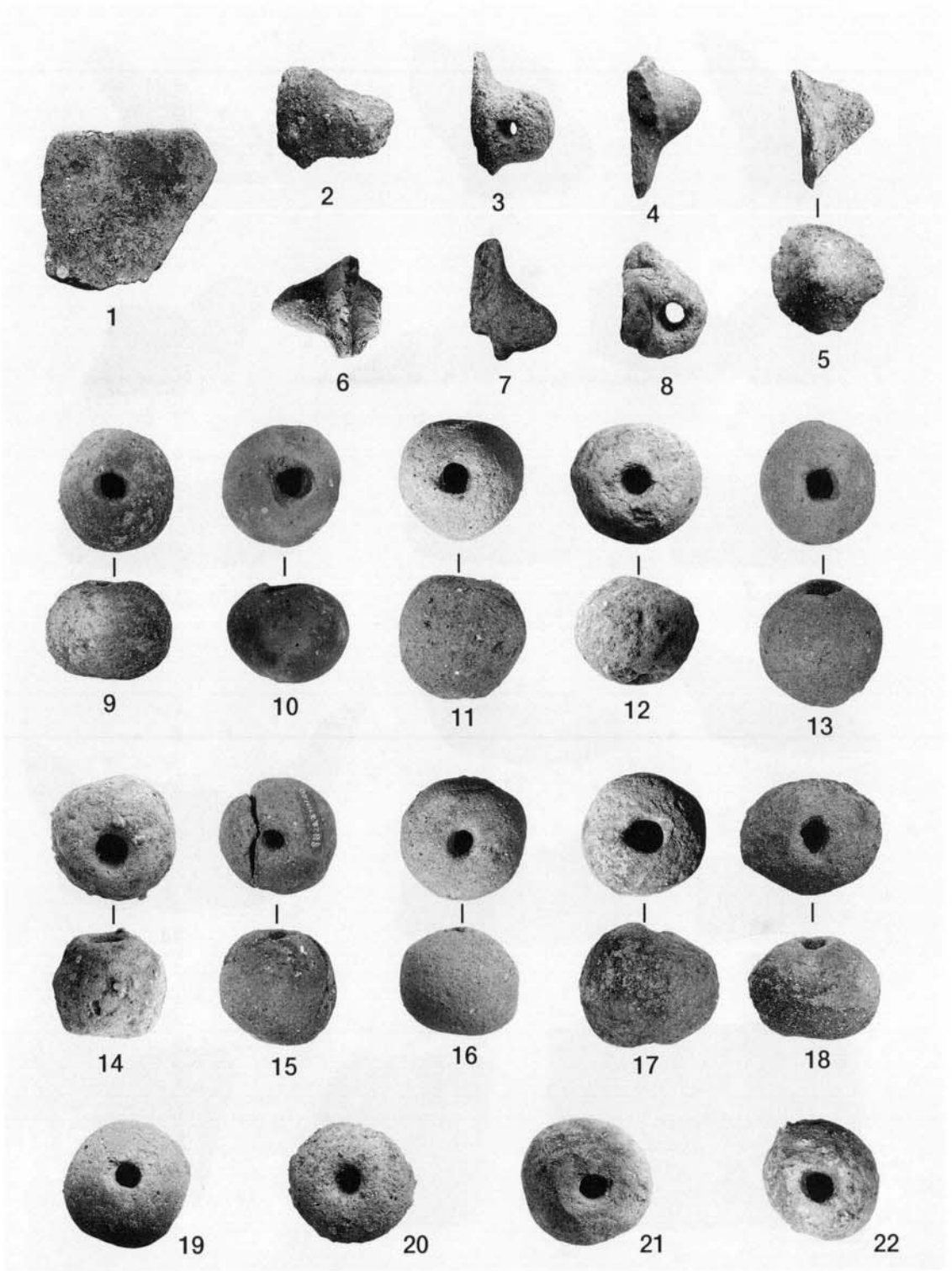
圖版 13. 5號 住居址(1~7), 6號 住居址(8~15)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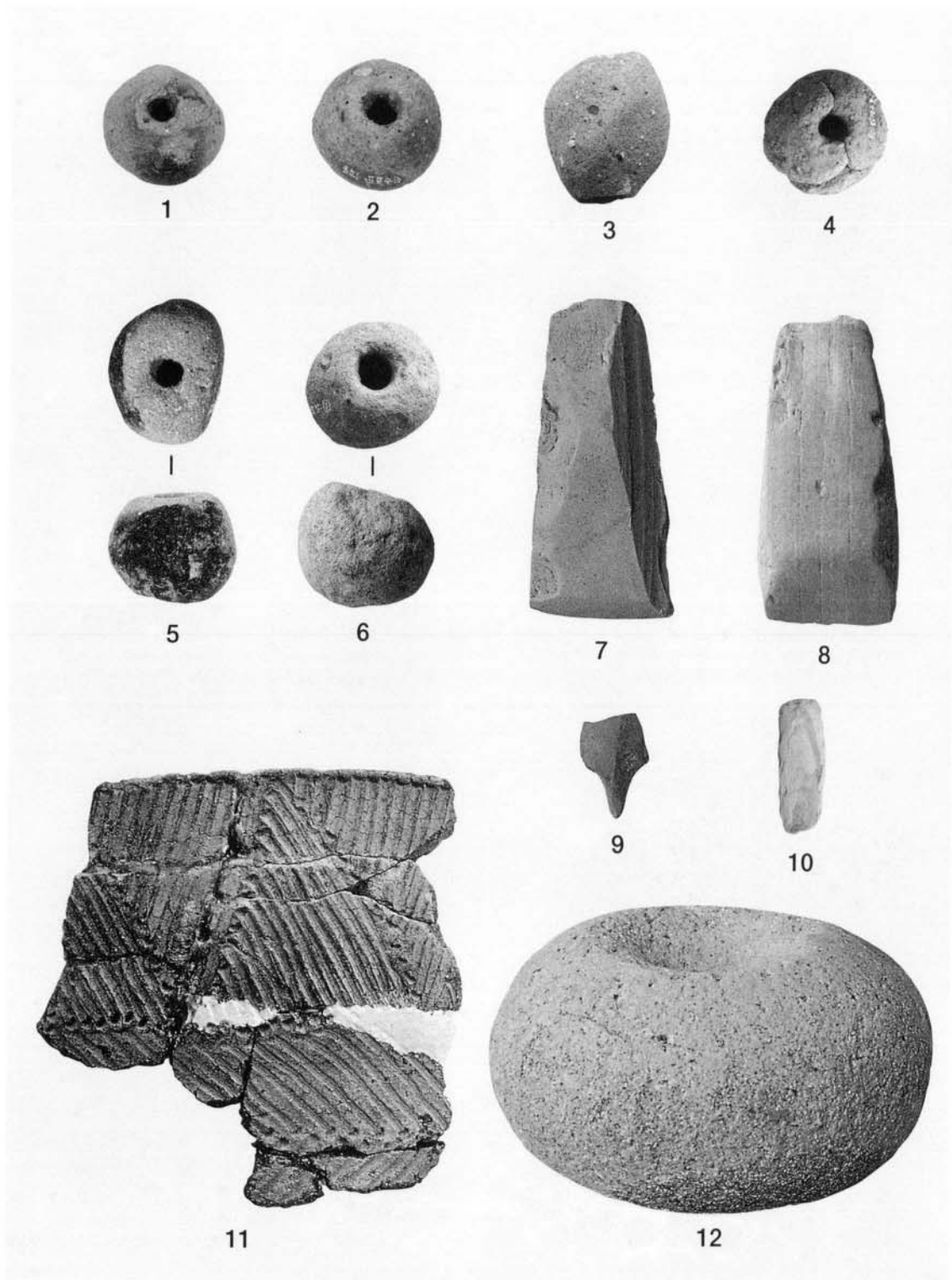
圖版 14. 6號(1, 2), 8號(3, 4), 9號(5, 6)住居址 出土遺物及 地表採集(7~13)遺物



圖版 15. 地表採集遺物



圖版 16. 地表採集遺物



圖版 17. 地表採集遺物

화정동유적 퇴적물의 화분분석

최기룡(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1. 조사목적

화정동유적은 주변이 급경사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서쪽의 급경사지로부터 동해안쪽으로 흐르는 계곡의 지류천인 삼거리천의 완만한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유적 발굴조사중 삼거리천 일대에 지표하 3m이상의 유기물 퇴적층이 존재함을 알고 이들로부터 고식생 및 고환경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화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선정 및 시료 채집

화분분석용 퇴적물은 Pit 1과 Pit 2 각각의 노출된 트렌치 벽면에서 층위별로 직접 채집하였다(그림 1). Pit 1지점에서 23개, Pit 2에서 39개의 시료를 각각 채집할 수 있었다. 화분분석은 KOH-HF-ZnCl₂-Acetolysis의 처리를 거쳐 화분 및 포자를 추출하여 검경 하였다.

2)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조사

저습지의 생산력과 퇴적조건을 알기 위하여 채집된 62개 시료의 유기물함량을 조사하였다. 각 시료 당 10cc를 취하여 건조, 연소시켜 측정하였다.

3) 화분분석

화분분석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KOH-HF-ZnCl₂-Acetolysis법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시료 10g을 15ml 원심관에 넣고, KOH(10%)를 10ml 주입하여 유리막대로 잘 짓는다.
- 80°C 이상의 waterbath에 30분 이상 넣어 끓여주며 잘 짓는다.
- Filter로 걸러준 시료를 새로운 원심관에 옮긴다.
- 원심분리를 한다.

- e. 원심관의 상등액을 버리고 증류수로 씻으며 2-3회 다시 원심분리를 해준다.
- f. 최종 추출물에 HF처리
- g. $ZnCl_2$ (70%)를 적당히 넣고 다시 원심분리를 해준다.
- h. 새로운 원심관에 Hcl(10%)을 넣고 여기에 ⑥의 과정을 거친 원심관의 상등액을 옮긴다.
- i. 원심분리를 해준다.
- j. 상등액을 버리고 증류수로 씻으며 2-3회 다시 원심분리를 해준다.
- k. 원심관에 빙초산을 넣고 원심분리.
- l. 상등액을 버리고 무수초산과 황산의 혼합액을 넣고 waterbath에서 잘 끓여준다.
- m. 원심분리를 해준다.
- n. 빙초산을 넣고 다시 원심분리.
- o. 증류수를 넣고 2-3회 원심분리.
- p. 이들을 glycerine jelly로 봉하여 검경한다.

4) 화분분포도(pollen diagram)의 작성

1개의 시료에 대하여 수목화분은 150개 이상을 검경 목표로 하였으며 화분, 포자의 출현율은 AP를 기본 수로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결과

1) 퇴적물 유기물 측정

시료 총 62개의 유기물 함량 측정결과 모든 시료의 유기물 함량이 5%미만 이었다(표 1, 그림 2, 3). 이는 본 유적지의 경우 주변 삼림의 생산력이 매우 낮았음을 의미하고, 한편으로 물의 흐름이 폐쇄된 습지라기보다 개방된 형태를 취한 습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절대연대 측정 결과

퇴적물의 절대연대 측정결과 Pit 1지점의 시료번호 7번 층위(BJ2, 해발 20.45m)에서 4050 ± 60 yr B.P., 시료번호 20번 층위(BJ 3,해발 21.61m)에서 2280 ± 50 yr B.P., Pit 2지점의 시료번호 17번 층위(BJ 4, 해발 21.02m)에서 3110 ± 60 yr

B.P., 시료번호 25번층위(BJ 5, 해발 21.80m)에서 2830 ± 50 yr B.P.의 값을 얻었다.

표 1. 화정동 유적 Pit 1 및 Pit 2의 퇴적물 유기물 함량

Pit 1.

▼ 바닥

Sampl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기물함량(%)	0.95	1.77	1.61	1.73	1.61	2.19	2.47	3.00	2.73	2.37	2.40	3.15	4.15	4.08	4.15

Sample No	16	17	18	19	20	21	22	23
유기물함량(%)	3.57	3.64	3.99	3.31	2.92	3.41	3.14	2.71

Pit 2.

▼ 바닥

Sampl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기물함량(%)	0.71	1.62	1.67	1.59	1.82	1.49	1.67	1.62	1.47	1.91	2.66	2.2	1.93	2.16	2.25

Sample No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유기물함량(%)	1.41	2.19	2.76	2.29	1.61	1.41	3.11	3.26	3.39	2.68	2.71	2.9	3.5	3.41	3.14

Sample No	31	32	33	34	35	36	37	38	39
유기물함량(%)	3.54	3.61	3.82	3.65	3.56	3.34	3.32	3.99	3.86

표 2. 화정동 유적 퇴적물의 절대연대 측정 결과

Pit 1

시료ID	시료설명	시료량(mg)	LAB번호	방사성탄소연대(BP)
BJ 2	Sediment(해발 20.45m)	49.0	SNU99-085	4050±60
BJ 3	Sediment(해발 21.61m)	49.7	SNU99-086	2280±50

Pit 2

시료ID	시료설명	시료량(mg)	LAB번호	방사성탄소연대(BP)
BJ 4	Sediment(해발 21.02m)	49.0	SNU99-087	3110±60
BJ 5	Sediment(해발 21.80m)	46.0	SNU99-088	2830±50

3) 화분분석

화분분석 결과 주요한 화분, 포자의 검경 개수는 부록에 첨부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복원한 화분분포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화분분석의 결과 출현 화분수는 매우 적었으며 또한 화분의 출현이 불연속적이고 화분 및 포자가 전혀 출현하지 않는 층위도 있다.

Fagri & Iversen(1975)에 의하면 퇴적물의 함량이 적은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예를 들었다. 첫째, 화분의공급량에 비교하여 퇴적물의 퇴적속도가 클 경우 둘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퇴적한 화분이 분해되었을 경우 셋째, 원래, 조사지 부근 식생의 화분생산량이 적을 경우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금번의 경우는 유기물의 함량이 매우 적으며, 조사지점이 계곡의 지류천 근처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와 두 번째의 복합적인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3. 화정동유적 Pit 1 퇴적물의 화분 및 포자 검출 일람표

표층

2280±50

4050±60



단위(cm)

T/Axon	Depth		111	124	131	139	146	152	157	165	174	186	196	207	215	223	232	241	254	263	272	281	293	305	
	Alt		21.89	21.76	21.68	21.61	21.54	21.48	21.42	21.34	21.26	21.13	21.03	20.93	20.84	20.77	20.68	20.59	20.45	20.36	20.28	20.19	20.06	19.94	
Pinus			234	26	10	1	19	2					1												
Abies				1																					
Quercus			8	14	6		6	1	3	1			1												
Cyclobalanopsis			1	1	1																				
Juglans			3		2					1															
Betula					1																				
Carpinus			2				6			7		1													
Castanea			1																						
Zelkov			1					1																	
Acer								1	1																
Cornus				3		1	2																		
Fraxinus			4	4																					
Salix			3	4																					
Alnus			1	7	1		13			15	1		1												
Corylus				1	1																				
Araliaceae				8				1	1																
Gramineae			76	67	27	1	20	9	2			2													
Cyperaceae			25	52	2		7																		
Compositae			11	7	5		3	1																	
Artemisia			26	20	8		8						1												
Sparganium				1																					
Sagittaria			3	2																					
Typha			1	4	6	2	48	2																	
Persicaria			12	1																					
Caryophyllaceae			2	1																					
Chenopodiaceae												1													
Clematis			1	2					1																
Umbelliferae			4	1	1		1																		
Perilla					2		2																		
Monolete				2	3	1	3	1																	
Trilete				11	9		9				2														
AP			253	49	20	2	33	5	4	9		1	2												
NAP			162	174	53	4	89	13	4	15	1	2	2												
Spores				13	12	1	12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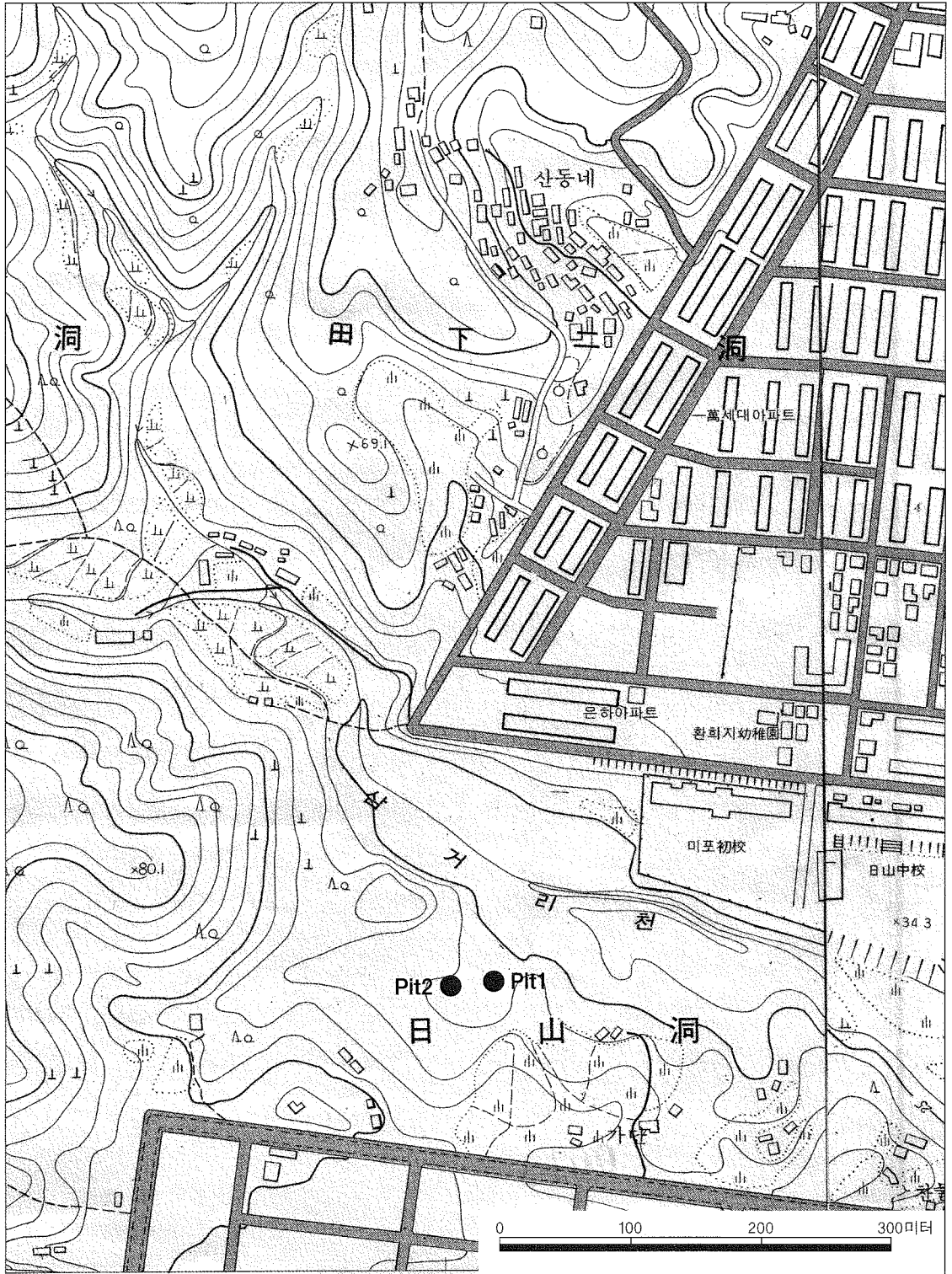


그림 1. 화정동유적 퇴적물 채집 지점도 (Pit1, Pi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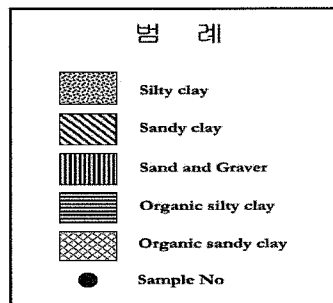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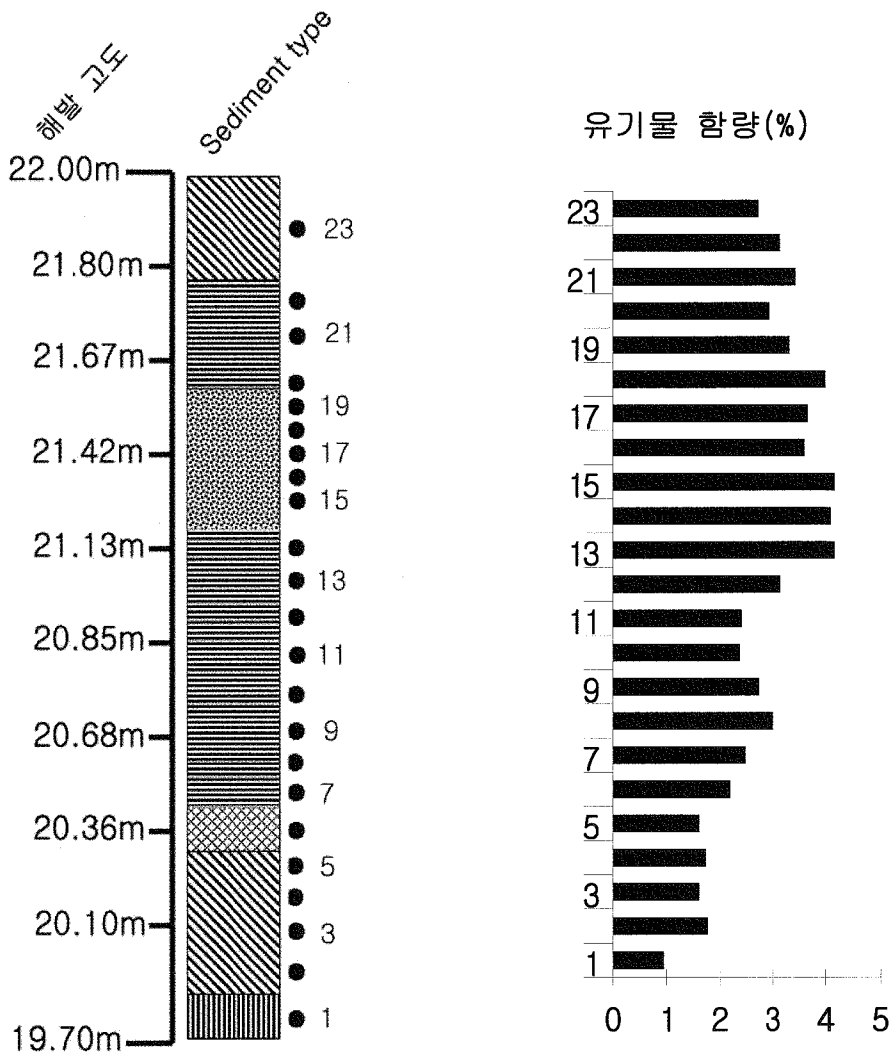


그림 2. 화정동유적 Pit 1 주상도 및 유기물 함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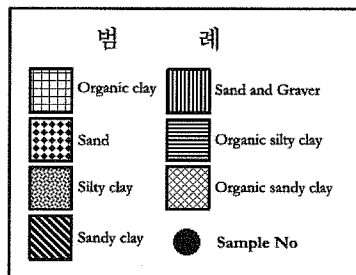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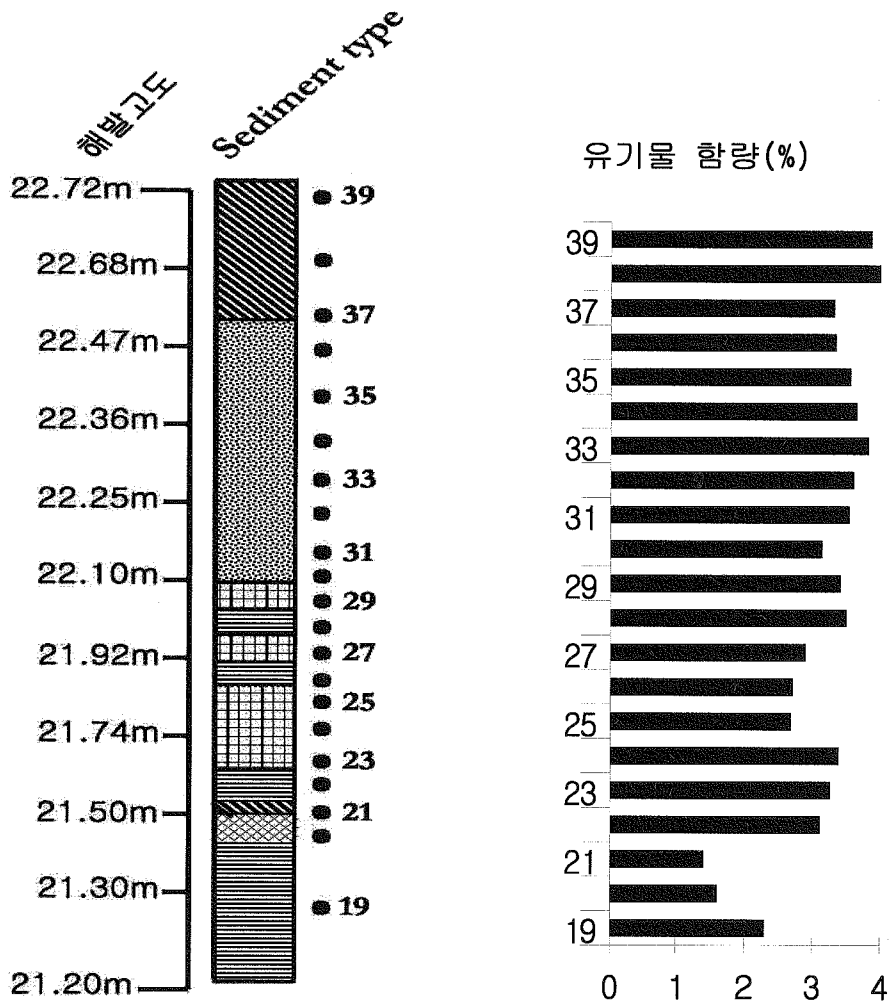


그림 3-1. 화정동유적 Pit 2 주상도 및 유기물 함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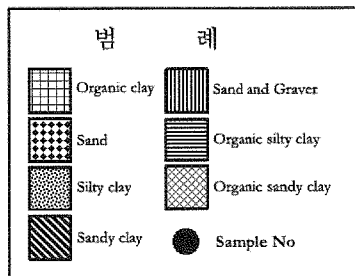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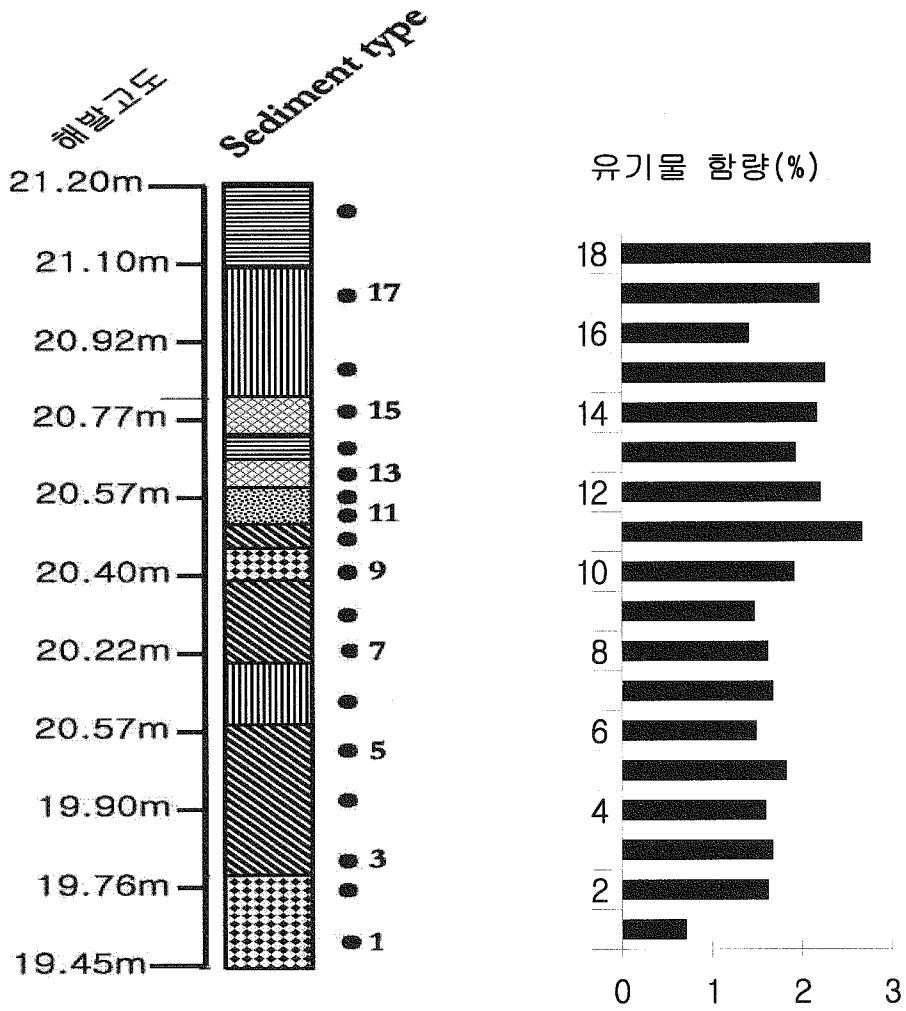


그림 3-2. 화정동유적 Pit 2 주상도 및 유기물 함량도

부록. 화정동유적 Pit 2 퇴적물의 화분 및 포자검출 일람표

▼ 표층

▼ 2830±50

Depth(cm) taxon	107	117	124	132	139	145	152	157	164	169	174	187	193	199	205	212	218	227
	Alt 22.72	22.62	22.55	22.47	22.40	22.33	22.27	22.22	22.15	22.10	22.05	21.98	21.92	21.86	21.80	21.73	21.67	21.58
<i>Pinus</i>			100	235	281	493	222	187	3	23	7	327	96	316	331	7	14	32
<i>Quercus</i>			23	28	25	58	26	13		2	4	22	5	56	69	2	6	3
<i>Cyclobalanopsis</i>			6	6	1	7	5					2		2	1			
<i>Juglans</i>			1	4	2	7	4	4	8				1	3			1	
<i>Pterocarya</i>							2											
<i>Platycarya</i>							1								3			
<i>Betula</i>				10	2	3	1		2			1			4			
<i>Carpinus</i>			1	5	3	3	1		7			3		9	9			
<i>Celtis</i>																		
<i>Ulmus</i>			8	4	5	2	2	1				1		1	1			
<i>Zelkova</i>				9		1												
<i>Castanea</i>			8	12	5	5	7	2				12	2	9	14			
<i>Acer</i>			34	3		5											2	
<i>Cornus</i>				4	1	2	6			16	2	4		3				
<i>Fraxinus</i>			5	4	5	3	4	7				5		6	3			
<i>Torreya</i>			6															
<i>Myrica</i>					1	2								2				
<i>Salix</i>			16	3	8	7	16	4	1		2	19		9	2	1		
<i>Alnus</i>			15	31	16	30	3	8	136	2		18	3	26	29	4		3
<i>Corylus</i>			10	18	6	13	13	4	10					4	3			
<i>Evodia</i>			6															
<i>Araliaceae</i>			5	1			1								13	2		1
<i>Rhododendron</i>				4														
<i>Symplocos</i>				2														
<i>Lonicera</i>				2	1	1	1											
<i>Weigela</i>				1														
<i>Gramineae</i>			214	199	246	283	146	115	3	1	3	193	76	291	142	25	31	4
<i>Cyperaceae</i>			19	106	77	141	64	31	1	1	1	179	54	216	256	4	2	
<i>Compositae</i>			25	154	30	57	18	14	3	1	1	52	11	22	18	5	10	1
<i>Artemisia</i>			160	124	89	149	66	17				36	17	21	22	2	5	7

Depth(cm) taxon	107	117	124	132	139	145	152	157	164	169	174	187	193	199	205	212	218	227	
	Alt	22.72	22.62	22.55	22.47	22.40	22.33	22.27	22.22	22.15	22.10	22.05	21.98	21.92	21.86	21.80	21.73	21.67	21.58
<i>Arisma</i>					7	14	31												
<i>Sagittaria</i>			25	17	12	14	10	3				11	1	8	6				
<i>Typha</i>			1	1	1	6	2		1			24	3	46	16	1	18	4	
<i>Humulus</i>			7												4				
<i>Persicaria</i>			5	66	28	62	10	1	1			1		10	4		3	1	
<i>Fagopyrum</i>			5	29	59	24	31	14											
<i>Caryophyllaceae</i>			1					4				1	1	8	1				
<i>Rumex</i>				3															
<i>Sagina</i>				1															
<i>Chenopodiaceae</i>				1		2		1						2	1				
<i>Aconitum</i>												1							
<i>Clematis</i>			6	127	10	11	4	1	1			1		7	14	1	1	2	
<i>Ranunculus</i>			4	14		5	2	2							1				
<i>Thalictrum</i>			2	2			3	1											
<i>Parnassia</i>				1		2									4				
<i>Sanguisorba</i>				1															
<i>Impatiens</i>				1		1	3	3											1
<i>Circaea</i>					1														
<i>Haloragis</i>			1	1		2				1				1					
<i>Umbelliferae</i>			7	21	24	75	19	3	2			19	5	12	20	1	5	1	
<i>Gentiana</i>						2	1							1					
<i>Patrinia</i>			3	1			1	3						1	1				
<i>Ludwigia</i>					1	1							1	1					
<i>Perilla</i>																			1
<i>Monolete</i>			4	6	5	19	15	27	3	5	1	34	12	59	26	21	1	1	
<i>Trilete</i>			1	15	2	5	8	12	2	1	4	67	32	102	168	40		9	
<i>Spore</i>										10	1		6						
AP			186	324	330	589	281	214	20	41	13	377	104	405	435	9	23	35	
NAP			543	932	617	904	445	228	159	6	7	555	172	688	557	46	75	26	
Spores			5	21	7	24	23	39	5	16	6	101	50	161	194	61	1	10	

調查報告書抄錄

報告書名	「울산 화정동유적」		發刊日	2001年 11月 30日
發刊機關	명 칭	蔚山大學校博物館		
	주 소	(680-749) 蔚山廣域市 南區 無去洞 山29		
	전 화	(052) 259-2634	팩 스	(052) 259-2632
執筆, 編輯者	전호태, 김영민, 김현철, 성민호			
調査 緣由	학교건립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김영민, 김현철, 김지수, 성민호			
遺蹟所在地番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52-2번지			
發掘期間	1999. 12. 4 ~ 2000. 1. 21			
調査 面積	1,500여 평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住居址	靑銅器時代	9基	無文土器, 魚網錘, 石斧, 石鏃, 紡錘車 등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9輯

울산열암동유적

2001년 11월 25일 印刷

2001년 11월 30일 發行

編輯・發行 : 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 (052)259-2634, 5
FAX (052)259-2632

印 刷 : 마이다스21 (051)441-0444
